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7호 2017.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북방사 속의 한국 고대사

- 전호태 ■ 고구려(高句麗)와 모용선비(慕容鮮卑) 삼연(三燕)의 고분문화 6
강인욱 ■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34
이정빈 ■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76

논문

- 이후석 ■ 고고자료를 통해 본 만변한 -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 116
안정준 ■ ‘덕흥리벽화고분(德興里壁畵古墳)’의 현실 동벽(玄室 東壁)에 묘사된
‘칠보행사도(七寶行事圖)’의 성격 검토 170
김선호 ■ 1945~1947년 북·중관계의 형성과 북·중혈맹의 근원 204
문미라 ■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관계의 강화 252
박 훈 ■ ‘봉건사회’-‘군현사회’와 동아시아 ‘근대’ 시론(試論) 288
이세봄 ■ 자유민권운동 발흥을 향한 메이지 유학자의 시선
-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의 문제제기와 그 맥락 330
이은경 ■ ‘일본의 신부 사건’의 재고찰
- 일본 메이지시대 그리스도교 지식인의 국가와 젠더 362
이용현 ■ 전후 일본 보수인맥의 태동 - ‘역코스’기를 중심으로 406
김현주 ■ 문화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신중화주의 질서의 세계화 448

서평

- 김경태 ■ 윤유숙(2016), 『근세 조일(朝日)관계와 울릉도』, 혜안 472
소진형 ■ 외교사적 분석과 재구성을 통해 본 개화당의 당대적 의미
- 김종학(2017),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482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91

Contents

Special Issue Ancient History of Korea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beyond the Great Wall

- Jeon Hotae ■ The Tombs of Goguryeo and the Three Yan Kingdoms (三燕) of Murong-Xianbei (慕容鮮卑) 6
- Kang In Uk ■ Archae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the Xianbi-Rouruan Period in the Eastern Part of the Eurasian Steppe Region 34
- Lee Jeongbin ■ Hostages of Buyeo and Goguryeo in the Former Yan of Murong Xianbei 76

Articles

- Yi Whoseok ■ Manfanhan as Viewed in Archaeology: Changes to the Border of Old Joseon and Yan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116
- An Jeongjun ■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 of Seven Jewels Ceremony” (七寶行事圖) in the Goguryeo Tomb of Dukhungni (德興里) 170
- Kim Seonho ■ The Forma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Origins of the Solid Alliance, 1945~1947 204
- Moon Mira ■ Rear Supporting Activity of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 Korean Society in Yanbian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China-DPRK “Blood Alliance” 252
- Park Hun ■ “Fengjian Society” (봉건사회) and “Junxian Society” (군현사회) in Modern East Asia 288
- Lee Saebom ■ A Meiji Confucian’s View on the Rise of the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 Sakatani Shiroshi’s Doubts and Its Context 330
- Lee Eun-gyong ■ Reexamination of “The Japanese Bride Incident”: State and Gender of the Christian Intellectuals in Meiji Japan 362
- Lee Woonghyeon ■ The Waking Phase of Conservative Connections in Postwar Japan 406
- Kim Hyunju ■ Neo-Sinocentric Globalization through Cultural Soft Power 448

Book Review

- Kim Kyongtae ■ Yoon Yusook(2016), *Unchartered Trade Route: Ulleungdo (鬱陵島) and the Joseon-Japan Relationship in the early modern period*, Hyeon Publishing Co. 472
- Soh Jeanhyoung ■ The Contextual Significant of Gaehwa-dang: An Analysis and Reconstruction Based on Diplomatic History
– Kim Jonghak(2017), *The Origin of Gaehwa-dang and its Backdoor Diplomacy*, Ilchokak Publishing Co. 482

특집

북방사 속의 한국 고대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高句麗)와 모용선비(慕容鮮卑) 삼연(三燕)의 고분문화

전호태 |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고구려·삼연의 고분 부장유물과 벽화
- III. 4~5세기 고구려와 삼연의 교류 양상
- IV. 고분문화로 본 고구려와 삼연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분문화는 내세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관념을 그릴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개인과 사회가 겪고 누렸던 시대를 복원, 재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고구려와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세 나라[三燕],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은 100여년 이상 전쟁과 화해, 갈등과 교류를 계속했다. 두 세력은 요동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었으며 동북아시아와 북중국의 강자 자리를 두고 충돌하였다.

고구려와 삼연(三燕)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한 이웃이었던 까닭에 인적·물적 교류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문헌기록뿐만 아니라 유적·유물상으로도 두 이웃 사이의 교류는 확인된다. 흥미로운 것은 지속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두 이웃의 문화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뚜렷이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구체적 사례의 하나가 고분문화다.¹

현재까지의 유적·유물 정보로 보아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나라들은 묘제(墓制)와 장속(葬俗)에서 일정한 정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두 이웃이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고 생활양식도 뚜렷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요하(遼河) 일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용선비가 겪었던 역사·문화와 오랜 기간 압록강 중류지대를 기반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던 고구려의 경험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100년 이상 이웃으로 경쟁하며 교류했던 고구려와 모용선비 삼연

* 투고: 2017년 2월 8일, 심사 완료: 2017년 8월 1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1 삼연의 고분문화를 정리한 주요한 연구 성과로는 東潮, 강현숙의 글이 있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418~427쪽;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267~289쪽);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관계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은 최근 金洪培가 정리하였다(金洪培, 2016, 『中國學界의 高句麗와 慕容鮮卑 關係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5, 9~35쪽).

의 고분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준비되었다. 고구려와 삼연의 고분문화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내 새로운 논의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고구려·삼연의 고분 부장유물과 벽화

1. 고분 부장유물

고구려에서 석실분은 늦어도 3세기 말부터 새로운 묘제로 수용되어 확산되기 시작한다.² 고구려의 전통적 묘제인 적석총이 5세기 중엽까지 축소됨을 고려하면 고구려에서는 150여 년 이상 적석총과 석실분이 공존한 셈이다. 적석총과 달리 석실분은 도굴이 쉽다. 또한 고구려인에게는 장례 때 고인이 쓰던 물건을 참석자들이 나누어 가져가게 하는 습속이 있다.³ 이는 무덤 안에 고인이 쓰던 물건을 많이 넣지 않았음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이러 까닭인지 고구려 석실분에서는 거의 유물이 수습되지 않는다. 사실 고구려인 고유의 묘제인 적석총에서도 유물은 다량으로 출토되지 않는다.

간간이 수습되는 고구려 고분 출토 유물은 무장용구 및 무기, 마구, 장신구, 자기 및 토기, 기타 생활용기로 나눌 수 있다. 고구려 고분 출토 유물 가운데 삼연 고분 출토 유물과 자주 비교되는 것은 무장용구(武裝用具)와 마구류(馬具類)다. 고구려 고분에서는 4세기 중엽을 경계로 중장기병 관련 유물이 새로 나타나

2 북한인 손수호는 고구려 석실분 발생 시기를 1세기 전반기까지 소급시킨다(손수호, 2001, 『고구려 고분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86쪽). 그러나 한국·중국·일본의 연구자 가운데에는 고구려 석실분이 요양지역 석실분의 영향 아래 4세기 초에야 출현한다고 보는 이들이 여럿 있다(東潮, 1997, 앞의 책, 170~171쪽; 강현숙, 2013, 앞의 책, 170~173쪽).

3 『北史』 卷94, 「列傳」 第82, 高麗.

기 때문이다.⁴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전연이 건국한 모용선비가 고구려와 전면 충돌한 342년 전쟁이다.⁵ 이 전쟁으로 고구려는 국내성과 환도성이 함락되고 5만에 이르는 귀족과 백성이 포로로 잡혀 삶의 공간이 요서로 옮겨졌다.⁶ 이 같은 참담한 결과는 고구려의 대응전략 실패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증장기병이 포함된 모용선비의 군사력이 고구려군을 압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⁷ 수도가 함락당하고 전왕(前王)인 미천왕(美川王)의 시신이 탈취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은 고구려가 증장기병술 도입에 적극 나선 것도 이 전쟁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⁸

모용선비는 내몽골 동부를 출자지로 하는 동부선비의 한 갈래다. 3세기 후반 요서(遼西)로 내려와 정착한 뒤 혼란기에 접어든 북중국에서 세력을 키워 전연(前燕) 건국에 성공하였다.⁹ 북중국에 남겨진 모용선비의 모제는 목관묘·목

- 4 東潮, 1997, 앞의 책, 564~565쪽; 강현숙, 2013, 앞의 책, 285~286쪽.
- 5 『資治通鑑』 卷97, 「晉紀」 19, 顯宗成皇帝 咸康 8年 冬10月~11月; 『晋書』 卷109, 「載記」 第9, 慕容皝: 『十六國春秋』 卷25, 「前燕錄」 3, 慕容皝 壬寅 9年.
- 6 342년 전쟁의 과정과 결과는 강선·지배선·공석구 등이 정리하였다(姜仙, 2001, 「고구려와 전연(前燕)의 관계에 대한 고찰」, 『高句麗研究』 11, 18~21쪽; 池培善, 2006, 「高句麗와 鮮卑의 전쟁-慕容廆와 慕容皝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4, 80~86쪽; 공석구, 2007, 「고구려와 모용‘연’의 전쟁과 그 의미」, 『東北亞歷史論叢』 15, 58~89쪽).
- 7 증장기병은 중국에서 5호16국시대가 시작되는 4세기 전반에 주력 병종으로 등장한다(楊泓·于炳文·李力, 1993, 『中國古代兵器与兵書』, 新華出版社, 70~82쪽). 3세기 초까지는 수백 기 단위로 존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리광희, 2005, 『고구려 유물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1쪽). 여호규는 증장기병술의 전제이기도 한 鎧馬가 중국에서 발생했는지, 북방 유목지대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536쪽).
- 8 동천왕대 기사에 등장하는 5천 기의 鐵騎는 초보적인 무장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20年 8月; 여호규, 1999, 「고구려 중기의 무기체계와 병종구성」, 『한국군사사연구』 2, 60~65쪽).
- 9 모용선비의 성장과정은 공석구·박세이가 정리하였다(공석구, 2003, 「고구려와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곽묘·석곽묘·석실묘·전실묘(塼室墓) 등이다.¹⁰ 위·진 시기까지의 중국왕조들과 달리 모용선비 지배층은 잘 짜인 중대형 석실묘나 전실묘를 거의 축조하지 않았다.¹¹ 중대형 적석총이나 다양한 천장구조의 석실분을 남기는 고구려와 차이를 보인다(표 1). 풍부한 유물로 잘 알려진 북연(北燕)의 권력자 풍소불(馮素弗)의 무덤도 단순한 형태의 석곽묘다.¹²

모용선비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종류도 고구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용선비의 4세기 무덤에서도 중장기병과 관련된 갑주와 마구가 출토되는데, 일부 유물은 고구려 것보다 이른 것으로 편년된다.¹³ 중장기병술이 전연에서 먼저 도입, 발전하여 고구려에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이해도 이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¹⁴ 삼연-고구려-신라로 이어지는 중장기병술의 전파과정이 상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¹⁵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5호16국시대에 중장기병술을 유목계 민족이 적극 채택, 활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병술은 유목문화

48~54쪽; 박세이, 2014, 「4세기慕容鮮卑 前燕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韓國古代史研究』 73, 48~50쪽.

10 강현숙, 2013, 앞의 책, 267~268쪽.

11 4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조양 원대자벽화분은 동진설과 전연설로 나뉘나 전연설이 보다 유력하다. 이 유적을 전연 귀족의 묘로 볼 경우, 모용선비 지배층의 석실묘로 드문 사례에 속하게 된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중국 요령지역 변화와 문물 특별전 2000년전 우리 이웃』,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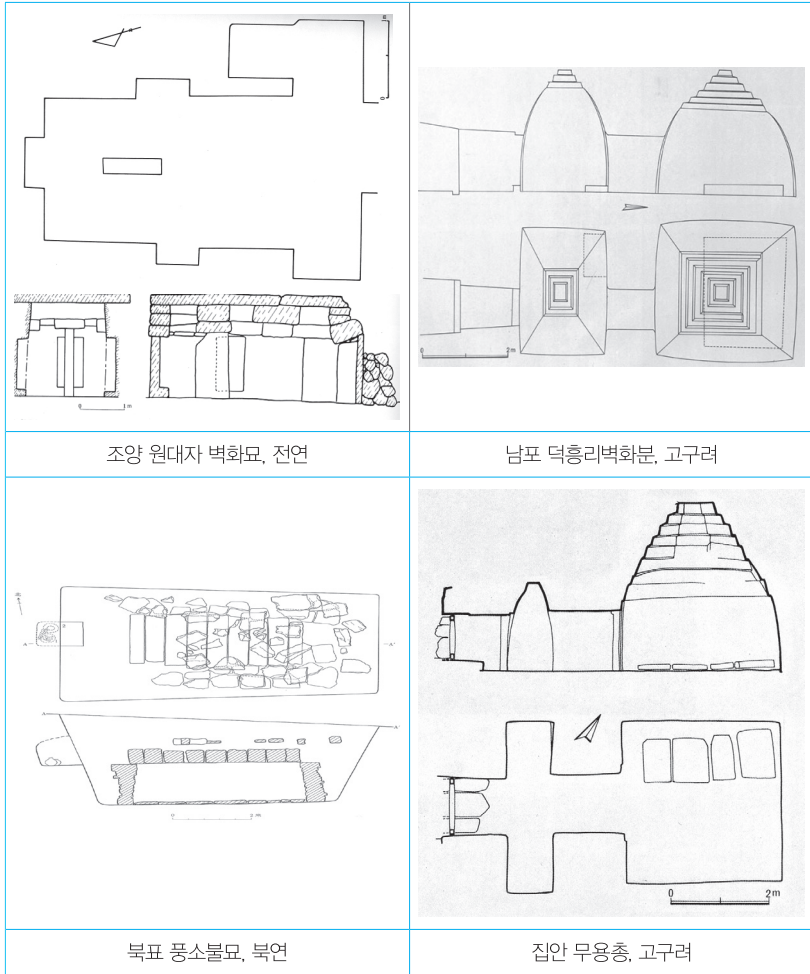
12 遼寧省博物館 編著, 2015, 『北燕馮素弗墓』, 文物出版社, 3~7쪽.

13 王巍, 1997, 「從出土馬具看三至六世紀東亞諸國的交流」, 『考古』 1997年 12期.

1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8쪽.

15 강현숙, 2013, 앞의 책, 299~303쪽; 魏存成은 발전된 馬具의 전파에서 고구려가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에 주목하였다(魏存成, 2001, 「高句麗 馬具의 發展과 周邊民族 및 地域과의 關係」, 『高句麗研究』 12, 1112~1113쪽); 리광희는 고구려 개마장비가 신라와 가야에 영향을 준 사실만 언급한다(리광희, 2005, 앞의 책, 188~190쪽); 徐秉琨은 선비 기마문화의 동방 전파과정에 마구와 함께 보요도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徐秉琨, 1996, 『鮮卑·三國·古墳-中國朝鮮日本古代的文化交流』, 遼寧古籍出版社, 159~160쪽).

〈표 1〉 삼연과 고구려 벽화묘 구조 비교



와는 거리가 있는 무장기법이며 전투방식이다.¹⁶ 중무장한 말과 기사가 창에 의

16 서영교는 기마술의 퇴보가 창에 의지한 중장기병을 출현시켰다고 보았다(徐榮教, 2014, 『高句麗 騎兵』, 지성인, 87~93쪽). 강인옥은 중장병과 등자는 유목민의

지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것과 가볍게 무장한 채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아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병 전투는 기마술, 전투 방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기본적으로 중장기병은 중보병에 대응하여 등장하는 존재며 유목세계보다 농경정착사회에서의 전투방식에 적합하다.¹⁷ 중장기병은 북중국이 16국시대라는 혼란기에 접어들자 그 일원이 될 수밖에 없던 전연이나 고구려 모두 도입, 개발시킬 수밖에 없던 무장 방식이자 전술이었을 수 있다. 고구려와 전연의 중장기병 관련 유물이 세부 기법 등에서 처음부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중장기병술이 전연이 아닌 후조(後趙)를 통해 도입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¹⁸ 338년 전후 축조된 것으로 편년되는 집안 우산하992호분 출토 마주(馬冑)는 고구려가 ‘전연 견제’라는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후조의 도움으로 중장기병을 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¹⁹

정착생활과 관련이 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강인욱, 2006, 「고구려 鏡子の發生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北方史論叢』 12, 142쪽),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다.

- 17 한족의 투사병기인 弩에 대한 대응으로 유목기병의 중장기병화가 이루어졌다는 시각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篠田耕一 저, 신동기 역, 1992,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들녘, 422쪽; 정동민, 2008, 「高句麗 重裝騎兵의 特徵과 運用形態의 變化 -古墳壁畫資料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2, 385쪽).
- 18 정동민, 2007, 「高句麗 重裝騎兵의 모습과 도입시점에 대한 소고」, 『전통문화연구』 6,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4~26쪽.
- 19 우산하992호분은 무덤에서 출토된 ‘戊戌’명 권운문 와당에 근거하여 338년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市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118쪽). 보고서에서는 고국원왕릉으로 추정하였으나(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위의 책, 138쪽) 여호규는 338년 전후 사망한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여호규, 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 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114쪽).

2. 고분벽화

고구려에서는 새로운 모제인 석실분이 축조되기 시작할 무렵 장의미술인 벽화도 제작된다. 123기에 이르는 고구려 벽화고분 가운데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평양에서 발견, 보고된 금옥리1호분이다.²⁰ 이혈합장(異穴合葬) 형식의 횡혈식 석실분인 금옥리1호분의 축조 시기는 3세기로 소급될 수 있다.²¹

고구려에서 초보적인 벽화고분 단계를 지나 전형적인 벽화고분이 축조되고 벽화가 제작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4세기 중엽 전후다. 한계(漢系) 벽화고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 및 안악지역의 4세기 중엽~5세기 전반 편년 감·결방 여러방무덤들은 구조 및 벽화 내용에서 중국 요령의 요동지역인 요양 일대 위·진 벽화고분과 연결된다. 반면 같은 한계 벽화고분 가운데 외방무덤들은 구조적으로는 낙랑 및 대방지역 전축분의 전통을 잇고 벽화 구성상으로는 요양 위·진 벽화고분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²

고구려 초기 벽화고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한계 벽화고분은 요양 위·진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벽화 제재의 선택적 수용과 재구성이라는 특유의 외래문화 소화 방식을 선보인다.²³ 생활풍속을 공통의 벽화 주제로 삼으면서

20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6, 「발굴 및 답사소식(1)」, 『조선고고연구』 1986년 1호, 47쪽; 최응선, 2002, 「금옥리 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2002년 2호, 18~20쪽. 금옥리1호분 벽화는 채색이 없는 선각인물화로 보고되어 전형적인 벽화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1 전호태, 2011, 「고구려 평양권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울산사학』 15, 41~42쪽; 최응선은 금옥리1호분이 수혈식 석곽묘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근거로 1세기로 편년하였다(전호태, 2011, 위의 글, 20쪽). 선각인물화만 확인되는 금옥리1호분 벽화는 2세기 말 제작된 평양의 낙랑 채협총 벽화와의 관련 여부를 고려하며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혈합장묘가 4~5세기에 축조되며 고분벽화의 출현 시기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고려하여 금옥리1호분의 편년을 보류하기도 한다(강현숙, 2013, 앞의 책, 159쪽).

22 전호태, 2002, 「고구려 고분벽화의 起源」, 『강좌 한국고대사』 9,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76~79쪽.

23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60~62쪽; 전호태,

도 장원이나 농경 장면 등의 제재는 수용하지 않고 행렬이나 사냥, 놀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 기물에 고구려적 색채가 드러나게 하는 식이다.

한계 벽화고분을 포함한 고구려의 초기 벽화고분 묘실 천장부는 해와 달, 별 자리 외에 하늘세계의 존재들로 장식된다. 공룡식고임이나 평행고임, 평행삼각고임 천장부 벽화의 제재는 비교적 다양하여 하늘세계의 사람, 상서로운 새, 짐승, 사신(四神) 등이 어우러져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구려 벽화고분 천장부 벽화는 무덤주인이 내세에 누릴 삶터의 모습을 미리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모용선비 삼연시대의 벽화고분은 중국 요령의 요서지역인 조양·북표일대에서 주로 발견, 보고되었다. 근래까지 공식 보고된 6기의 벽화고분 가운데 조양일대의 4기는 횡혈식 석실분이고 북표 서관영자의 2기는 수혈식 석곽묘다.²⁴ 조양일대에서 발굴된 원대자벽화분·구문자벽화분·대평방촌벽화분·북묘촌벽화분, 북표에서 확인된 서관영자1호분[馮素弗墓]·서관영자2호분[馮素弗婦人墓]은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초에 축조된 유적이다.²⁵

조양·북표의 삼연 벽화고분은 석곽 및 석실의 평면 형태가 사다리꼴이고 묘실 천장이 평천장이라는 점에서 선비족 석곽묘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벽화의 주제가 생활풍속인 점, 주요 제재에 행렬·사냥·상차림 등이 포함

2016, 『고구려 생활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30~331쪽.

24 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1984,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 『文物』1984年 第6期; 劉中澄, 1987, 「關於朝陽袁台子晉墓壁畫的初步研究」, 『遼海文物學刊』1987年 第1期; 陳大爲, 1990, 「朝陽溝門子晉壁畫墓」, 『遼海文物學刊』1990年 第2期; 徐基·孫國平, 1985, 「遼寧朝陽北燕北魏墓」, 『考古』1985年 第10期; 黎搖渤, 1973,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1973年 第3期; 李宇峰, 1986, 「遼寧朝陽兩晉十六國時期墓場清理簡報」, 『北方文物』1986年 第1期; 張小舟, 1987, 「北方地區魏晉十六國墓場的區分與分期」, 『考古學報』1987年 第5期.

25 강현숙, 2005, 『고구려와 비교해 본 중국 한, 위·진의 벽화분』, 지식산업사, 312~314쪽.

26 강현숙, 2005, 위의 글, 322~323쪽.



그림 1 우경(조양 원대자벽화분, 4세기 중엽, 전연)



그림 2 연지(남포 덕흥리벽화분, 408년, 고구려)

된 점은 요양지역 위·진 고분벽화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장원을 묘사한 사례는 후한의 화상석묘와 벽화고분에서 찾을 수 있고, 우경(牛耕)을 포함한 농경 장면은 위·진시대 석서 및 산서지역 화상전묘에서도 확인된다. 하늘을 떠받치는 자세의 흑곰·괴수는 후한시대 고분벽화의 제재 중 하나로 비교적 세련된 형태의 사신(四神)은 한, 위·진 고분벽화 및 화상석·화상전의 제재 가운데 하나다.²⁷

벽화고분이 축조되고 고분벽화가 제작되는 양상으로 볼 때, 고구려에서 벽화고분은 고구려에 수용, 소화, 재창조된 새로운 유형의 장의미술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미를 지니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모용선비 삼연 사회에서 고분벽화 제작은 제한적 의미를 지니는 문화 현상에 불과하다. 벽화가 그려진 고분이 6기만 발견, 보고된 데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때문에 벽화의 주제도 생활풍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고구려의 경우, 4세기 중엽부터 생활풍속계 고분벽화에 연꽃을 비롯한 불교적 회화 제재가 등장하여 비중이 더해지다가 5세기 중엽에 이르러 연꽃 장식무늬 중심의 고분벽화가 중심 주제로 떠오르는 등의 변화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²⁸(그림 1·2).

삼연 벽화고분 천장부 벽화의 제재는 해·달·별자리 위주로 구성되는 점에서 비교적 단순하다. 이와 달리 고구려 벽화고분 천장부 벽화는 제재와 구성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그림 3·4). 벽화고분 천장부 벽화가 우주관·내세관과 관련이 깊음을 고려할 때, 삼연 고분벽화 무덤주인들의 내세의 우주에 대한 관념은 소박하고 평면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구려에서는 내세의 우주 구조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이며 여러 갈래의 신앙과 종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⁹

27 전호태, 2007, 『중국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솔, 271~296쪽.

28 전호태, 2004, 앞의 책, 20~24쪽.

29 계세관·전생관·승선관에 따른 우주 구조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 차이는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349~35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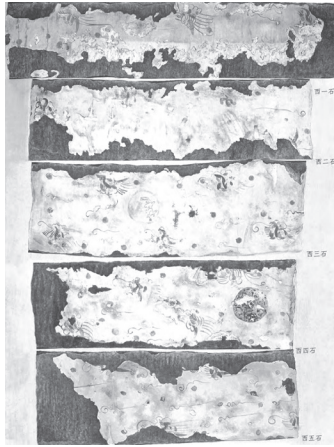


그림 3 하늘(북표 풍소불묘, 436년, 북연)



그림 4 하늘(집안 무용총, 5세기 전반, 고구려)

III. 4~5세기 고구려와 삼연의 교류 양상

고구려는 모용선비의 등장 이전부터 선비·거란 등 유목민족과 접촉하였다. 선비·거란·말갈 등은 고구려의 변경을 약탈하기도 했지만 고구려에 신속하여 고구려인으로 살기도 했다. 삼국 중 고구려인이 기마술과 궁술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데에는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하겠다. 고구려 건국의 주류였던 예맥인들도 기마술과 궁술에 매우 익숙한 종족이었다. 모본왕대(慕本王代)의 기록에 보이는 고구려 기병의 원거리 약탈 역시 기마에 익숙한 고구려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³⁰ 물론 이 시기 사건으로 기록된 한 변경 군현(郡縣) 약탈전의 주체는 경기병(輕騎兵)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용선비는 3세기 말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요동 지배권을 두고 고구려와 경쟁하였다.³¹ 그런 모용선비에게 337년의 ‘전연 건국’은 처음 맞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동방에 버티고 있던 고구려는 건국한 지 이미 370년이 지나고 있었다. 이런 고구려가 배후에 버티고 있는 한 전연의 확장과 발전은 근본적인 제약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고구려는 요동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라도 대군을 일으킬 기세였다. 전연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제1후보는 고구려였다. 336년 고구려는 모용황과 왕위를 다투던 모용인의 신하 곽충(郭充)·동수(修壽)의 망명을 받아들였다.³² 338년 전연이 후조(後趙)와 전쟁에 들어가자 후조와 내통하던 봉퇴(封推)·송황

30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麗;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2年春.

31 모용외 이전의 모용선비는 독자 세력으로 서지 못한 상태였다. 魏의 요동 공손씨 토벌전(238년) 때 모용선비의慕容莫護跋은 위군을 이끄는 司馬懿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고구려는 별도의 원조군을 보냈다(『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30, 高句麗; 『魏書』卷95, 「列傳」83, 徒何). 모용막호발의 아들慕容木延은 魏의 冊丘儉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공을 세워 左賢王에 봉해진다(『魏書』卷95, 「列傳」83, 徒何).

32 『資治通鑑』卷95, 「晉紀」17, 顯宗成皇帝中之上 咸康2年春正月壬午.

(宋皇) 등이 고구려로 달려갔고 고국원왕의 신하가 되기를 허락받았다.³³

342년 고구려와 전연 사이에 벌어진 전면전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사건이었다. 모용황이 이끄는 전연군의 고구려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험한 남도(南道)로 파고든 4만의 전연 정예군이 국내성과 환도성을 함락시키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었다. 모용황의 전연군은 고국원왕의 모후 주씨, 미천왕의 시신, 5만의 고구려인을 승전의 노획물로 삼았다. 355년 고구려가 전연과 책봉 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왕의 모후 주씨를 돌려받기까지 고국원왕은 전연에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³⁴

342년 전연으로 붙잡혀 간 5만의 고구려인 중 얼마의 인구가 고구려에 송환되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16국시대의 전쟁에는 ‘인적 약탈’이 늘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인적 약탈은 재화의 수집보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훨씬 파급 효과가 컸다. 생산 노동력의 확보라는 의미에 더하여 지식·기술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적 약탈이 지닌 의미는 컸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과 주변 지역에서 획득한 5만의 고구려인 역시 전연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46년 전연 군대가 부여를 공격하여 왕과 백성 5만을 포로로 잡아 용성으로 돌아온 것 역시 전연으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하겠다.³⁵

342년의 전쟁 이후, 고구려와 전연 사이에 국지적 충돌은 있어도 큰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370년 전연이 멸망할 때까지 두 나라 사이에는 조공·책봉을 전제로 한 평화적 교류가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군사행동과 관련된 기술, 물자의 이전, 교환 등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전쟁·포로 획득·약탈 등으로 가능

33 『資治通鑑』卷96, 「晉紀」18, 顯宗成皇帝中之上 咸康 4年 5月 戊子.

34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25年 春正月.

35 『資治通鑑』卷97, 「晉紀」19, 孝宗穆皇帝上之上 永和 2年 初; 『十六國春秋』卷25, 「前燕錄」3, 慕容皝 丙午 13年.

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중장기병술 및 새로운 무기, 무장과 관련된 기술이 신라로 전해지는 계기를 400년 이루어진 광개토왕의 남정(南征)에서 보는 시각이 개연성을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³⁶

384년 모용수(慕容垂)가 후연을 건국한 뒤 407년 모용운(慕容雲, 高雲)이 북연을 세우기까지 고구려와 후연은 여러 차례 충돌한다.³⁷ 고구려의 고국양왕·광개토왕이 요동 공략을 위해 자주 군대를 일으킨 까닭이다. 402년 이후 고구려가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보이면서 후연은 여러 차례 위기에 빠진다.³⁸ 그 결과가 407년 풍발(馮跋)이 주도한 후연의 정변, 곧 모용희(慕容熙)의 죽음, 모용운의 북연 건국이다.³⁹ 후연과 고구려 문물의 교류, 두 나라 사이의 인적 이동도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와 북연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연의 건국자 모용운이 천왕(天王)을 칭하고 성을 고씨로 고쳐 고운(高雲)이라 칭하자 고구려 광개토왕이 사신을 보내 종족의 예를 베풀었다는 기사다.⁴⁰ 전연 후기의 조공책봉관계 성립 뒤, 후연이 압박받는 단계를 거쳐 북연에 대한 고구려의 우위가 인정받는 단계로 고구려와 모용선비 나라 사이의 관계가 바뀐 것이다. 이 단계에서 고구려와 북연 사이에 조공책봉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436년 북연 멸망까지 고구려의 입장에서 북연은 고구려와 북위 사이의 완충지대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지녔다고 할 수 있다.

36 東潮, 1997, 앞의 책, 560쪽, 571~572쪽.

37 姜仙, 2002, 「高句麗와 五胡十六國의 關係-後燕·北燕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高句麗研究』 14, 274~278쪽; 박세이, 2015, 「광개토왕의 遼西 공략과 後燕 관계」, 『지역과 역사』 36, 47~55쪽.

38 광개토왕이 요동을 확보하는 400~402년이 고구려와 후연 사이 힘의 우열이 가려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여호규, 2012,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67, 96~97쪽).

39 『晉書』 卷124, 「載記」 第24, 慕容寶 盛熙雲.

40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17年 春三月; 『資治通鑑』 卷114, 「前紀」 36, 安皇帝己 義熙 4年 3月; 『十六國春秋』 卷47, 「後燕錄」 6, 慕容雲.

436년 북연 멸망 당시 고구려군을 통해 이루어진 북연 수도 용성(龍城)의 왕족·백성·물자의 고구려 이송은 북중국 문물의 대량 전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⁴¹ 모용선비 나라들이 건국과 멸망을 반복하는 사이에 혼란도 가중되었지만 고급스런 인력과 물자는 계속 수도 용성에 유입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성이 비교적 오랜 기간 모용선비 나라들의 수도로 기능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성은 16국시대 북중국의 지식과 기술이 집적된 장소 중의 한 곳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고분문화로 본 고구려와 삼연

415년 사망한 풍소불은 선비화된 한인(漢人)이다.⁴² 고운에 이어 북연 왕위에 오른 풍발(馮跋)의 아우 풍소불은 죽은 뒤 모용선비의 습속에 맞추어 무덤에 묻혔다. 주목되는 것은 선비 왕족에 해당하는 풍소불의 무덤이 석곽묘라는 사실이다. 풍소불이 죽을 당시 북연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상태였다. 고구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직 척발선비(拓拔鮮卑)의 북위가 크게 강성해지지 않은 시기다. 북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거나 북중국 정세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상대적으로 소박한 풍소불의 무덤은 중원세계에 참여한 지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도 모용선비의 관념과 습속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⁴³ 모용선비가 요서로 남하한 뒤 지배층이 적극 농경을 장려하고 상당한

41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17年 夏四月; 『十六國春秋』卷100, 「北燕錄」3, 馮弘 丙子 6年 3月; 楊保隆은 북연 멸망 시 고구려로 유입된 북연인의 수를 10만 정도로 추산하였다(楊保隆, 1998, 「高句麗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1998年第4期).

42 『晉書』卷125, 「載記」第25, 乞伏國仁 幹歸 熾磐 馮跋(馮素弗).

43 벽화묘인 조양 원대자벽화분을 비롯한 조양, 북표 발견 4기 석실분도 천장구조 및

정도 한화(漢化)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의외라 할 수 있다.⁴⁴ 모용선비가 세운 왕조에 한인 지식층이 다수 참여하여 관료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한인 출신으로 모용선비 왕족의 자리에 오른 풍씨 가문이 석실분이 아닌 석곽묘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고려할 것은 장숙과 묘제는 한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정치사회적 조건이 달라지고 문화적 변동이 진행될 때에도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내세관이고 이와 직결된 장의와 묘제인 것이다. 요서에 정착한 모용선비 역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선비의 관념과 습속 가운데 하나가 장의와 묘제였으며 한족이었던 풍씨 가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북표 서관영자1호분으로 명명된 풍소불 무덤 수습 유물 가운데에는 불상(佛像)이 표현된 장신구도 포함되어 있다.⁴⁵ 4~5세기 북중국 호족국가들 사이에 유행한 불교는 모용선비의 국가들에도 알려졌고 적극 수용되었다.⁴⁶ 풍씨 가문도 불교신앙과 거리를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에서와 같이 내세관에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듯하다. 풍소불 무덤의 유물들에서 불교신앙과 관련된 다른 유물들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벽화의 제재 중에도 불교신앙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비사회가 남긴 6기의 벽화고분 가운데 하나인 풍소불 무덤이 만들어지고

축조 방식으로 보아 석곽묘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연 귀족으로 추정되는 무덤 주인공들의 종족적·문화적 정체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4 모용선비는 3세기 말 모용의 때에 요서의 徒河로 근거지를 옮기는 등 남하하며 해당지역 주민의 農桑을 적극 장려한다(『晉書』 卷108, 「載記」 第8, 慕容廆).

45 遼寧省博物館 編著, 2015, 앞의 책, 403쪽, 彩版45-2.

46 김성숙, 2004, 「모용선비의 불교연구」, 『고조선단군학』 10, 65~89쪽; 金洪培는 전진에서 고구려로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 이미 전연에서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金洪培, 2012, 「三燕佛教文化東傳高句麗及其影響」, 『東北亞文化研究』 33, 367~377쪽); 북연 불교에 대해서는 徐秉琨, 2011, 「北燕的一枚佛璽與東北早期的佛教」, 『遼寧省博物館館刊』, 遼海出版社. 참조.

껴묻거리가 묻히던 5세기 초의 모용선비 사회에서는 한(漢)문화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무덤 유물의 분포를 보아도 선비계 문화요소의 비중은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⁴⁷ 제한적이거나 4세기 중엽 이후 선비족 지배층 안에서 고분 벽화가 수용되어 제작된 것도 선비 사회가 중국의 한족 문화를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비 사회 안에서 주류 묘제는 변하지 않고 있었다. 선비적 정체성이 묘제를 통해서 일정한 정도 유지, 관찰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거창한 석실묘나 전실묘 축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던 한인(漢人)의 전통이 정착 생활이 1세기 이상 흐른 뒤에도 모용선비 사회에는 제한적으로만 수용되었음을 뜻한다. 풍소불이 선비화된 한인임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도 될 듯하다.⁴⁸

5호16국시대 북중국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불교가 적극 수용되어 불교신앙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점은 고구려도 크게 다르지 않다.⁴⁹ 고구려가 모용선비의 삼연과 다른 점이 있다면 5세기 전반 석실분이 주된 묘제가 되고 무덤칸 벽과 천장을 벽화로 장식하는 관습이 확산되었고 불교신앙이 내세관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이다.⁵⁰ 고분에 끼묻는 유물들은 모용선비 지배층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5세기 중엽 전후 고구려에서 제작된 연꽃 장식무늬 중심의 고분벽화는 생활풍속계 고분벽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삼연의 모용선비 지

47 강현숙, 2013, 앞의 책, 282~283쪽; 遼寧省博物館 編著, 2015, 앞의 책, 113~124쪽.

48 415년 사망한 풍소불이 소박한 석곽묘에 묻힌 것과 後燕 망명객으로 보이는 鑛이 408년 사망한 뒤 벽화로 가득한 석실분인 덕흥리벽화분에 안치된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목서묘지명에 유주자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오는 진의 출자에 대한 정리는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181~199쪽; 덕흥리벽화분에 대한 정리는 전호태, 2015, 「고구려 덕흥리벽화분 연구」, 『역사와 경계』 95, 1~34쪽 참조.

49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小獸林王 2年6月; 故國壤王 9年3月; 廣開土王 2年.

50 전호태, 2000, 앞의 책, 207~231쪽.

배층과 달리 고구려인이 더 이상 전통적인 계세적(繼世的) 내세관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한다.

모용선비의 마지막 왕조인 북연이 멸망할 즈음 고구려는 전성기에 들어선다. 평양 천도 이후, 내정은 안정되고 국제정세 역시 동북아시아 패권국가로서 고구려의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북연 멸망과 함께 고구려에 흘러든 북연의 문물은 고구려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미 고구려적 정체성이 뚜렷했던 상태에서 열린 동아시아 4강시대는 고구려로 하여금 독자의 천하관(天下觀)을 내세우게 하는 현실적 배경으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¹ 토목기술과 건축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대형 석실분, 세련되고 수준 높은 회화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고분벽화 역시 이런 정치사회적 안정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5세기 전반, 모용선비의 마지막 왕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고구려는 동아시아 4강의 하나로 우뚝 선다. 이 시기의 고분문화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용선비의 나라 북연이 호한(胡漢)국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새로운 문화의 정립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⁵² 반면 고구려는 한문화에서 기원한 석실분을 고구려식 묘제로 재정립시키고 불교신앙에 기반한 내세관을 고구려식으로 정리하고 재구성한 고분벽화를 남기는 데에 이른다.⁵³ 4~5세기 고분문화는 갈등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았던 이웃한 두 사회가 어떤 결과와 맞닥뜨리게 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잘 보여준다.

51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75~388쪽.

52 모용선비의 전연·후연이 외형적인 제도와 실제 지배구조 사이에 괴리가 심했던 것과 달리 고구려는 군사권과 민정권이 일체화된 독자적이고 일체화된 지방통치조직을 구축했다는 여호규의 연구는 이런 현상과 표리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여호규, 2012, 앞의 글, 99~117쪽).

53 전호태, 2004, 앞의 책, 179~181쪽.

V. 맺음말

중장기병술은 북중국에서 5호16국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이미 중국에서 도입, 활용되고 있던 무장방식 겸 전술이다. 고구려와 전연은 북중국이 혼란기에 접어들자 적극적으로 기존의 중장기병술을 받아들였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고구려와 전연의 중장기병 관련 유물이 세부 기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큰 시사 없이 독자적으로 중장기병술을 도입,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고구려와 모용선비 삼연의 벽화고분은 중국 한, 위·진 벽화고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중엽부터 생활풍속계 고분벽화를 다수 제작하고 5세기 중엽에는 연꽃 중심의 장식무늬계 고분벽화라는 독자 유형을 출현시킨다. 반면 모용선비 삼연 사회에서 고분벽화는 일시적인 문화 현상에 그친다.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삼연은 100여 년에 걸친 접촉을 통해 인력과 기술, 물자를 교환했다. 특히 전쟁에 수반되는 인적 약탈은 상호 문물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북연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진 용성 민호의 대거 유입은 5호16국시대 후기 북중국의 지식과 기술이 고구려에 집중적으로 전해지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북연의 권력자 풍소불의 무덤 형식과 출토 유물은 5세기 전반 모용선비 문화의 성격을 잘 알려준다. 풍소불 무덤은 묘제에서는 선비적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껍묻거리 구성에서는 한문화의 영향이 뚜렷하다. 풍소불 무덤은 북연 시기에도 모용선비가 호족과 한족 연합국가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를 정립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게 한다.

삼연과 달리 고구려는 5세기에 이르러 한문화에서 기원한 석실분을 고구려식 묘제로 재정립시킨다. 외래의 불교신앙을 소화하여 고구려 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했음이 연꽃장식무늬 주제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된다. 5세기 고구려에서 성립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도 정치적·문화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현상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北史』, 『三國史記』, 『三國志』, 『魏書』, 『資治通鑑』, 『晉書』, 『後漢書』
- 강현숙, 2005, 『고구려와 비교해 본 중국 한, 위·진의 벽화분』, 지식산업사.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리광희, 2005, 『고구려 유물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徐榮教, 2014, 『高句麗 騎兵』, 지성인.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중국 요령지역 벽화와 문물 특별전 2000년전 우리 이웃』.
- 손수호, 2001, 『고구려 고분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호태, 2007, 『중국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숲.
- 전호태, 2016, 『고구려 생활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市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徐秉琨, 1996, 『鮮卑·三國·古墳—中國朝鮮日本古代的文化交流』, 遼寧古籍出版社.
- 楊泓·于炳文·李力, 1993, 『中國古代兵器與兵書』, 新華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 遼寧省博物館 編著, 2015, 『北燕馮素弗墓』, 文物出版社.
- 篠田耕一 著, 신동기 역, 1992,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들녘.
- 姜仙, 2001, 「고구려와 전연(前燕)의 관계에 대한 고찰」, 『高句麗研究』 11.
- 姜仙, 2002, 「高句麗와 五胡十六國의 關係—後燕·北燕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高句麗研究』 14.
- 강인욱, 2006, 「고구려 鎧子の 發生과 尤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北方

史論叢』12.

- 공석구, 2003, 「고구려와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공석구, 2007, 「고구려와 모용'연'의 전쟁과 그 의미」, 『東北亞歷史論叢』 15.
- 김성숙, 2004, 「모용선비의 불교연구」, 『고조선단군학』 10.
- 金洪培, 2012, 「三燕佛敎文化東傳高句麗及其影響」, 『東北亞文化研究』 33.
- 金洪培, 2016, 「中國學界의 高句麗와 慕容鮮卑 關係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5.
- 박세이, 2014, 「4세기慕容鮮卑 前燕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韓國古代史研究』 73.
- 박세이, 2015, 「광개토왕의 遼西 공략과 後燕 關係」, 『지역과 역사』 36.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6, 「발굴 및 답사소식(1)」, 『조선고고연구』 1986년 1호.
- 여호규, 1999, 「고구려 중기의 무기체계와 병중구성」, 『한국군사사연구』 2.
- 여호규, 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 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 여호규, 2012,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67.
- 전호태, 2002, 「고구려 고분벽화의 起源」, 『강좌 한국고대사』 9,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전호태, 2011, 「고구려 평양권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울산사학』 15.
- 전호태, 2015, 「고구려 덕흥리벽화분 연구」, 『역사와 경계』 95.
- 정동민, 2007, 「高句麗 重裝騎兵의 모습과 도입시점에 대한 소고」, 『전통문화연구』 6,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정동민, 2008, 「高句麗 重裝騎兵의 特徵과 運用形態의 變化 - 古墳壁畫資料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52.
- 池培善, 2006, 「高句麗와 鮮卑의 전쟁 -慕容廆와 慕容皝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4.
- 최응선, 2002, 「금옥리 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2002년 2호.
- 徐基·孫國平, 1985, 「遼寧朝陽北燕北魏墓」, 『考古』 1985년 第10期.
- 徐秉琨, 2011, 「北燕의 一枚佛璽와 東北早期의 佛敎」, 『遼寧省博物館館刊』, 遼海出版社.
- 楊保隆, 1998, 「高句麗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 1998년 第4期.
- 黎搖渤, 1973,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 1973년 第3期.
- 王巍, 1997, 「從出土馬具看三至六世紀東亞諸國的交流」, 『考古』 1997년 第12期.

- 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1984,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 『文物』1984年 第6期.
- 魏存成, 2001, 「高句麗 馬具의 發展과 周邊民族 및 地域과의 關係」, 『高句麗研究』12.
- 劉中澄, 1987, 「關於朝陽袁台子晉墓壁畫的初步研究」, 『遼海文物學刊』1987年 第1期.
- 李宇峰, 1986, 「遼寧朝陽兩晉十六國時期墓場清理簡報」, 『北方文物』1986年 第1期.
- 張小舟, 1987, 「北方地區魏晉十六國墓場的區分與分期」, 『考古學報』1987年 第5期.
- 陳大爲, 1990, 「朝陽溝門子晉壁畫墓」, 『遼海文物學刊』1990年 第2期.

고구려(高句麗)와 모용선비(慕容鮮卑) 삼연(三燕)의 고분문화

전호태

중장기병술(重裝騎兵術)은 북중국에서 5호16국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이미 중국에서 도입, 활용되던 무장기법이자 전투방식이다. 고구려와 모용선비 전연(前燕)은 북중국이 혼란기에 접어들자 적극적으로 기존의 중장기병을 받아들여 전장에 투입하였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고구려와 전연의 중장기병 관련 유물이 세부 기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두 나라가 큰 시차 없이 독자적으로 중장기병술을 도입,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삼연(三燕, 전연·후연·북연)은 100여 년에 걸친 접촉을 통해 인력과 기술, 물자를 교환했다. 특히 전쟁에 수반되는 인적 약탈은 상호 문물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436년 북연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진 용성(龍城) 사족(士族)과 민호(民戶)의 고구려 유입은 5호16국시대 후기 북중국의 지식과 기술이 고구려에 집중적으로 전해지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와 모용선비 삼연의 벽화고분은 중국 한, 위·진 벽화고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중엽부터 생활풍속계 고분벽화를 다수 제작하고 5세기 중엽에는 장식무늬계 고분벽화라는 독자 유형을 출현

시킨다. 반면 모용선비 삼연 사회에서 고분벽화는 일시적인 문화 현상에 그친다.

북연의 권력자 풍소불(馮素弗)의 무덤 형식과 출토 유물은 5세기 전반 모용선비 문화의 성격을 잘 알려준다. 풍소불 무덤은 묘제에서는 선비적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껍묻거리 구성에서는 한문화의 영향이 뚜렷하다. 풍소불 무덤은 북연(北燕) 시기에도 모용선비가 호족과 한족 연합국가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를 정립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게 한다.

주류 묘제가 없던 삼연과 달리 고구려는 5세기에 이르러 한(漢) 문화에서 기원한 석실분을 고구려식 묘제로 소화하여 재정립시킨다. 외래의 불교신앙을 고구려 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했음도 연꽃장식무늬 주제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된다. 5세기 고구려에서 성립하여 내외에 각인시킨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天下觀)도 동북아시아 패권국가로서의 정치적·문화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현상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고구려, 삼연, 모용선비, 고분문화, 풍소불

The Tombs of Goguryeo and the Three Yan Kingdoms (三燕) of Murong-Xianbei (慕容鮮卑)

Jeon Hotae

The armed cavalry was adopted and utilized by China before the Sixteen Kingdoms Period. Goguryeo and Former Yan (前燕) of Murong-Xianbei (慕容鮮卑) actively adopted armed cavalry and deployed it in wars when Northern China fell into turmoil. The differences in details and techniques shown in cavalry-related artifacts from Goguryeo and Former Yan tombs are due to the fact that these two kingdoms independently adopted and developed cavalry at about the same period.

The tomb murals of Goguryeo and the Three Yan kingdoms (三燕) of Murong-Xianbei developed with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the Chinese Han, Wei, and Qin. From the mid-fourth century, Goguryeo created many tomb murals with life and customs motifs and produced a unique genre of decorative patterned murals in the mid-fifth century. On the other hand, tomb murals in the Three Yan kingdoms of

Murong-Xianbei never advanced beyond a temporary cultural phenomenon.

Goguryeo and Three Yan kingdoms of Murong-Xianbei exchanged human resources, technology, and materials over a hundred years of interactions. The looting and abductions that occurred from wars contributed to the exchange of materials between the two. With the fall of Northern Yan (北燕), the elites and peasants of Longcheng (龍城) entered Goguryeo, passing important knowledge and technology of the late Sixteen Kingdoms Period in Northern China.

The tomb structure and the materials excavated from the tomb of the Northern Yan authority Feng Sufu (馮素弗) show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fifth century Murong-Xianbei culture. The tomb shows a strong Xianbei identification in its form and an influence of Han culture in the composition of burial accessories. The tomb shows that, even by the Northern Yan period, Murong-Xianbei was yet to establish a new culture to represent the kingdom of unified nomadic and Han people.

Unlike the Three Yan Kingdoms, Goguryeo established the stone chamber tomb from the Han culture in its own style in the fifth century. The lotus decoration motifs show that Goguryeo had also adopted the foreign religion of Buddhism as an element of its own culture. The Goguryeo -centered cosmic view established in the fifth century is also the result of political and cultural confidence as a formidable power in the Northeast Asia.

Keywords: Goguryeo, Three Yan Kingdoms (三燕), Murong-Xianbei (慕容鮮卑), tomb culture, Feng Sufu (馮素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 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강인욱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동부 유라시아 초원 일대의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 연구
- III. 지역별 연구현황
- IV. 고찰
- V. 맺음말과 향후과제



I. 머리말

한국사의 북방지역을 대표하는 고구려와 가야·신라 등 남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목축과 정착의 복합적인 경계를 영유했던 고구려가 그들과 인접한 초원지역의 유목집단 및 국가들과 어떻게 경쟁하고 교류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고구려가 발흥했던 시기인 서기 1천년기 전반기 유라시아 유목문화의 발흥과 성장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 고구려와 북방지역 제 집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삼연(三燕) 문화로 대표되는 모용선비로 한·중·일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삼연 이외의 집단들의 제 양상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다. 고구려의 성장시기와 관련된 북방지역의 세력으로는 크게 선비·유연·돌궐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두 집단은 몽골계통으로 유라시아 동부¹에서 발흥하였으며, 돌궐은 알타이 지역에서 발흥한 투르크계로 매우 이질적이다. 더우기 러시아와 몽골의 유라시아 고고학 편년체계에서는 돌궐로 잘 알려진 ‘고(古)투르크시대(Ancient Turk period, A.D. 6~10세기)’로 연구가 집중되어서 그 앞 시기인 선비와 유연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기 1~5세기의 선비·유연 시기에 대해서는 고고학보다는 문헌사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사서에 따르면 선비가 기원전 2세기경에 흉노의 일파로 등장하여 서기 5세기까지 고투르크가 성장하기 이전까지 호른벨 지역에서 발원하고 이후 모용선비·탁발선비 등으로 발달한 그들은 사실상 고구려의 세력성장과 거의 동 시기에 그 북방지역을 장악했다. 또한 선비 이후에

* 투고: 2017년 2월 8일, 심사 완료: 2017년 8월 10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1 여기에서 유라시아 동부는 유라시아 초원의 동쪽으로 알타이·바이칼·몽골 그리고 만주 일대를 말한다.

등장한 유연 역시 거대한 제국을 이루며 북위와 겨루고 고구려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 선비와 유연의 시기에 유라시아 초원은 소위 ‘민족의 대이동시대(The Great Migration Period, Великое Переселение народов)’로 불리는 시기로 이어진다. 신라 계림로 출토 황금보검의 비교례로 대표되는 보로보예 출토의 화려한 황금장식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와 같이 흉노 멸망 이후 민족의 대이동시기로 대표되는 역동적인 시대를 대표하는 유라시아 동부 선비·유연 시기는 고구려의 발흥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몽골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동부에서 서기 1세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소멸된 흉노 문화 이후 투르크 문화가 등장하는 서기 5세기 사이의 문화상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 사실 서기 1~5세기 또는 서기 2~4세기의 시기 고고학적 문화의 공백은 유라시아 초원은 물론 송눈평원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의 북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인다.

선비의 경우 모용선비와 탁발선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러시아 및 몽골의 상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그 이후에 등장한 유연 역시 200여 년간의 존속기간에도 그 고고학적 양상은 거의 전무해서 토마스 바필드는 ‘실패한 유목제국’으로 규정할 정도였다. 그런데 10년간 최근 급증하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 및 조사와 함께 선비와 유연 시기 동부 유라시아에 대한 자료가 드디어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자료들에 근거하여 러시아 및 몽골의 고고학자는 전통적인 유라시아 고고학적 편년체계인 유라시아 서부에서 주로 통용되는 ‘흉노-사브로마트 시기(B.C. 3~A.D. 3세기)’라는 편년체계에 대응하여 유라시아 동부를 ‘흉노-선비 시기’로 보기도 하고 유라시아 서부의 ‘민족 대이동대시대’에 대응하여 ‘선비-유연 시기’를 상정하기도 한다.

아직은 연구 초기로 선비 문화의 개념 및 시공적인 범위에 대해 학자 간의 이견은 존재하지만, 선비와 유연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고구려의 발흥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에 본 고에서는 몽골·바이칼·남부 시베리아 등 동부 유라시아의 초원지대의 초기 고구려와 동 시기의 자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헌에는 거의 반영되

지 않은 고구려와 북방 초원지역의 관련성에 대한 한국 학계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II. 동부 유라시아 초원 일대의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 연구

동아시아 고고역사에서 선비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것은 1920년대 하얼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러시아 고고학자들이었다. 19세기에 이미 선비를 비롯한 흉노와 동이 제 민족에 대한 사료가 번역되었고(비추린, 1953), 20세기 초반 러시아 하얼빈 도시에서 활동했던 러시아지리협회 하얼빈지부의 톨마초프가 1920년대에 만주 유림푸[榆林部]에서 흉노계통의 동물장식을 발견하여 흉노계통의 유목문화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후 1930년대에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가 내몽골 포두시(包頭市) 근처의 백령묘 사요지(百靈廟 砂凹地) 유적 발굴을 하였지만, 그 자료는 제대로 러시아 학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몽골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G. 수흐바타르가 몽골 경내의 유물들을 선비로 비정하고자 했으나 학계의 공인을 받지 못했다. 다만 보로비요프(1994)가 중국의 선비 관련 고고학적 자료가 존재함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고고학적으로 선비 유적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신중국 성립 이후로 1950년대 말에 러시아 아무르강과 접경한 만주리시 찰라이노루[札賽諾爾]에서 300여 기의 고분이 발굴된 이후다(鄭隆, 1961). 이후 완공 묘지의 발굴로 초기 선비 문화가 규정되었다. 찰라이노루와 거의 동 시기에 서차구 고분군도 발견되어서 각각 선비와 오환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후 선비 문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1970년대로 풍소불(馮素弗)묘의 발굴에 따라서 초기 선비·모용선비·탁발선비 등 지금 통용되는 선비의 견해가 정립되었다(宿白, 1977a·1977b). 1990년대 이후는 삼연 문화로 대표되는 모용선비가 전립곤(田立坤)을 중심으로 요령성 일대에서 널리 발견되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선비 고고학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 학계의 연구가

유입된 19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에는 러시아에서는 문헌사를 통한 선비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세기 비추린의 동이(東夷)와 관련한 사료 집성의 뒤를 이어 타스킨이 오환과 선비에 대한 자료들을 번역 소개한 바 있다(타스킨, 1980). 이후 선비는 동호(東胡)계통의 주민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고(타스킨, 1984), 그에 따라 몽골족의 기원이 되는 민족으로 주목받았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는 자바이칼 지역을 중심으로 선비 문화를 흉노 이후 유라시아 초원지역을 대표하는 분기로 보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그 이유는 선비가 흉노의 멸망 이후 흉노를 대신해서 유라시아 전역에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후한서(後漢書)』 권90에 따르면 선비는 서기 2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단석괴(檀石槐, 136~181)대에 선비 세력은 급성장했다. 단석괴는 156년에 한의 변경을 침략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기록에 등장하였고 158년에는 자신의 땅을 3부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당시 선비의 영역을 보면 동부는 우북평에서 요동을 거쳐 부여에 이르는 지역이며, 중부는 우북평에서 상곡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서부는 상곡에서 돈황에 이르는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바이칼 일대(丁令, 서역[烏孫] 등도 복속하여 각각 대인이 다스리게 했다. 아울러 북쪽으로는 정령(자바이칼 일대)까지도 세력을 확장했다고 한다. 이들 기록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단석괴 당시 선비의 강역은 북중국을 물론 현재의 러시아 및 몽골 경내까지도 확산된바, 전성기시절 흉노의 강역에 거의 필적한다. 또한 이후 위나라 시기에 출현한 가비능선비(軻比能鮮卑) 시기에 선비의 세력은 운중(雲中)·오원(五原)에서 요수(遼水)까지를 선비정(鮮卑庭)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² 이렇듯 서기 2세기 이후 선비 세력은 흉노를 대체하여

2 선비가 돈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무덤 자료는 없다. 다만 청해성 丹廛에서 선비 고유의 청동 양마식이 출토된 바가 있을 뿐이다. 단마공사 출토품과 비슷한 청동패식이 요령성 서차구유적과 선비와 부여의 경계지역으로 생각되는 지역에 위치한 後寶石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단마공사를 제외하면 모든 양마식은 길림성 및 요령성 서부를 중심으로 하는 鮮卑文化의 분포지역에서만 출토된다.

아시아 북방 초원일대를 장악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흉노 이후 북아시아 일대를 제패한 선비의 실체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또한 1950년대 이래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경내에서 선비 문화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초기 선비 문화의 발상지인 호른 뿔 평원에서 북쪽으로 흑룡강(아무르강) 너머에 위치한 자바이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학계의 경우 일찍이 바이칼과 몽골 지역에서 흉노의 고고학적 문화가 많이 연구되었다. 그를 기반으로 선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흉노의 발흥 이후 이어지는 유목국가의 맥락에서 선비의 팽창을 살펴보고자 했다. A.P. 오클라드니코프는 1950년에 자바이칼 아긴스코예(Aginskoye) 무덤에서 흉노 무덤을 발견했는데, 비슷한 지역인 부르호토이(Burkhotoi) 무덤 유적에서 흉노와 이질적인 유물을 반출하는 무덤을 발굴했다. 그는 이 무덤이 흉노 이후에 이 지역에서 존재했던 그들의 후예라고 간주하고 실위, 즉 선비의 후예로 규정한 바 있다. 그 외에 친단트(Chindant)·수호티노(Sukhotino)·올로반(Olovyan) 등에서 1~2개의 소수 무덤이 확인되었다. 다만 선비 무덤의 단독 유적이 아니라 흉노나 이후 중세시대의 무덤 사이에서 확인되어서 선비 시기의 문화는 여전히 그 상황이 뚜렷하지 않았다. 실제로 자바이칼에서 선비 문화가 본격적으로 규명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1987년에 조사된 클류치(Klyuchi)·우셀리에(Ushelie) 그리고 두로이(Duroi, 1991년 조사)·조르골(Zorgol, 1994년 조사)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다. 이후 이 지역의 선비계통 문화는 두로이 문화 및 조르골 문화로 세분되었다.

한편 자바이칼의 선비 문제는 이 지역 부리아트 및 몽골계통 집단의 기원문제와 연관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바이칼 일대에 중세시대에는 크게 몽골계인 부르호토이 문화와 투르크어족 계통인 쿠리칸(울혼투르크어에 기록된 명칭, 한문으로는 骨利干)으로 대별되었다. 이후 11~15세기에는 호리-몽골인으로 바뀌어서 현재 부리아트인들이 되었다. 다쉬발로프는 쿠룸친 문화의 초기 형태가 선비와 유사함을 지적하고, 초창기 호리는 몽골어계통이었다고 보았다. 즉 선비계통 문화의 확산이 된 이후 투르크계의 확산에 따른 쿠리칸이 형성되었고,

이후 다시 몽골계통이 우세한 호리-몽골로 그 계통이 정립되었다. 이와 같이 선비 문화의 유입을 몽골계통 문화의 흐름과 연관시켜 보는 연구가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다(야렘쑤, 2010).

다음으로 알타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시베리아를 보자. 이 지역의 선비·유연 시기에 존재하는 고고학적 문화 및 그 유라시아적 의의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다룬 바 있다(2005). 전고에서 주로 도입한 편년체계는 가브릴로바(1965)와 보브로프·바슈틴(2003)이 제안했던 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의 자료는 1990년대까지 시베리아 일대에서 선비와 동 시기의 문화로 울룩-헴(Ulug-Khem), 테신 문화(Tesin culture), 타쉬트익(Tashtyk), 불란-코바(Bulan-Koba) 문화 등 미누신스크 분지 및 알타이 지역에서 발굴된 흉노 이후, 투르크 등장 이전의 초기 중세시대 고분 및 제사유구의 발굴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들 문화들을 중국 북방의 선비와 직접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일부 마구·장신구·무덤 등에서 선비와 유사함이 계속 지적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선비 고고학의 성과가 러시아에 알려지면서 이러한 비교는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도 알타이의 선비·유연 시기의 실체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다수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까지 막연히 흉노 시기의 유적으로 포함되었던 여러 알타이의 유적이 사실은 선비계통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지적되었다(후다코프, 위수화, 2005). 그 대표적인 예가 금사(金絲)를 꼬아서 만든 귀걸이가 있다. 알타이 우코크 고원은 물론 투바·카자흐스탄의 동 시기 고분에서도 대표적인 길림 지역의 유목계 문화인 노하심(老河深) 중층무덤 출토 금제 귀걸이와 같은 형식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단석피 시기에 선비가 남부 시베리아에 거주한 대표적인 토착세력인 정령까지도 복속시켰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비를 유라시아 초원국가의 편년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된 문제의식을 종합한 티시킨(2006)은 초기 중세시대의 편년을 집대성해서 흉노(B.C. 209~93), 선비(93~235), 유연(359~552)으로 대별되는 사서에 기록된 유목제국의 발달을 대략적으로 각각

우스티-에디간기(期, B.C. 2~A.D. 1세기), 벨로-봄기(A.D. 2~4세기 초반), 베르흐-우이몬기(A.D. 4세기 후반~5세기 초반)에 각각 대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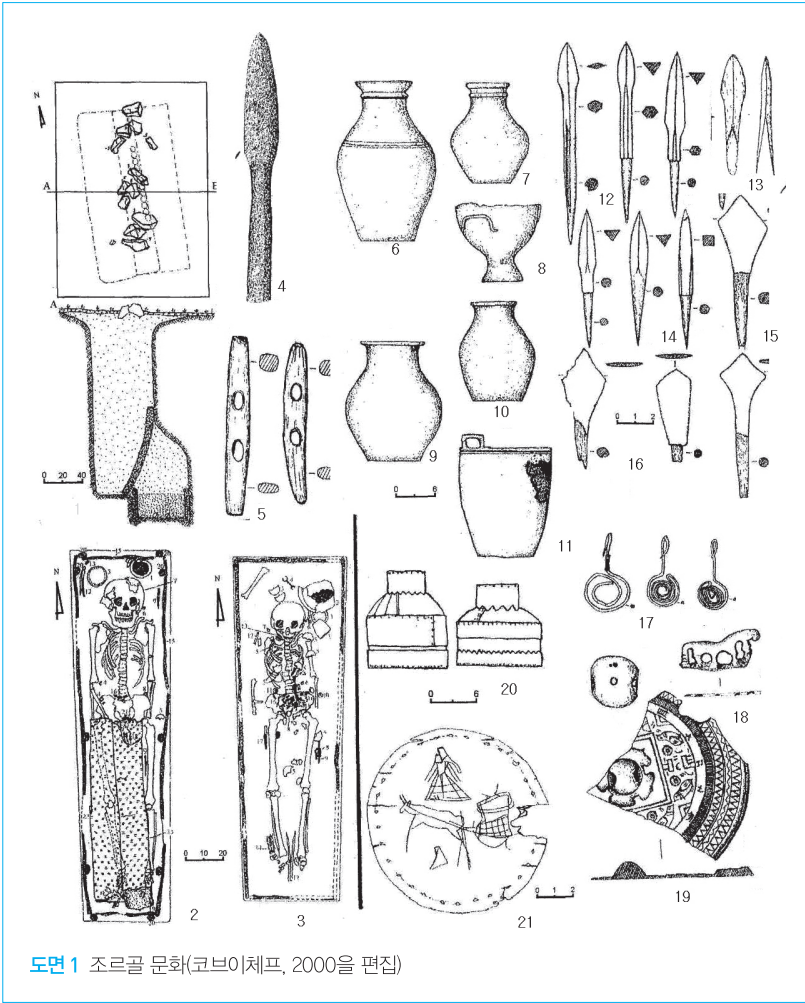
물론 알타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시베리아의 경우 광활한 지역에 비해 발견된 유적은 매우 적으며 선비의 중심지구와 멀다. 그 결과 같은 지역과 시기를 대상으로 해도 각 학자별로 분기하는 명칭이나 시기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흉노-선비-유연의 시기에 해당하는 고고학적 문화의 변화상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목제국의 부침(浮沈)에 따른 동부 유라시아 초기 중세시대의 광역 편년틀이 갖추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Ⅲ. 지역별 연구현황

1. 자바이칼~아무르강 상류

북방 유라시아 동부지역에서 선비 문화의 확산에 대해 가장 연구가 활발한 곳은 자바이칼~아무르강 상류다. 실제로 이 지역은 초기 선비 문화가 확산된 중국 흑룡강성 호룬벨 평원과 흑룡강(아무르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문화적 친연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자바이칼의 흉노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다. 다만 1980년에 자바이칼의 두로니(Duryoni)-2 유적을 조사한바 층위별로 흉노와 중세시대로 나누는데, 두 문화가 혼재하는 층위가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자바이칼 지역은 상대적으로 흉노의 중심지인 몽골과 인접했기 때문에 흉노 무덤이 일부 발견된다. 하지만 그 수는 단편적이며 북흉노 붕괴 이후 선비세력이 등장하여 발흥한 시기의 문화상은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조르골과 두로이 두 유적이 다년간 발굴되며 흉노·선비 시기의 양상이 본격적으로 밝혀지게 된 바, 이 지역은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이른 시기의 문화로 조르골 문화가 있다. 주요 유적으로는 조르골-1과 두로이-2유적이 있다. 조르골-1 유적은 1994년에 발견되었는데, 두로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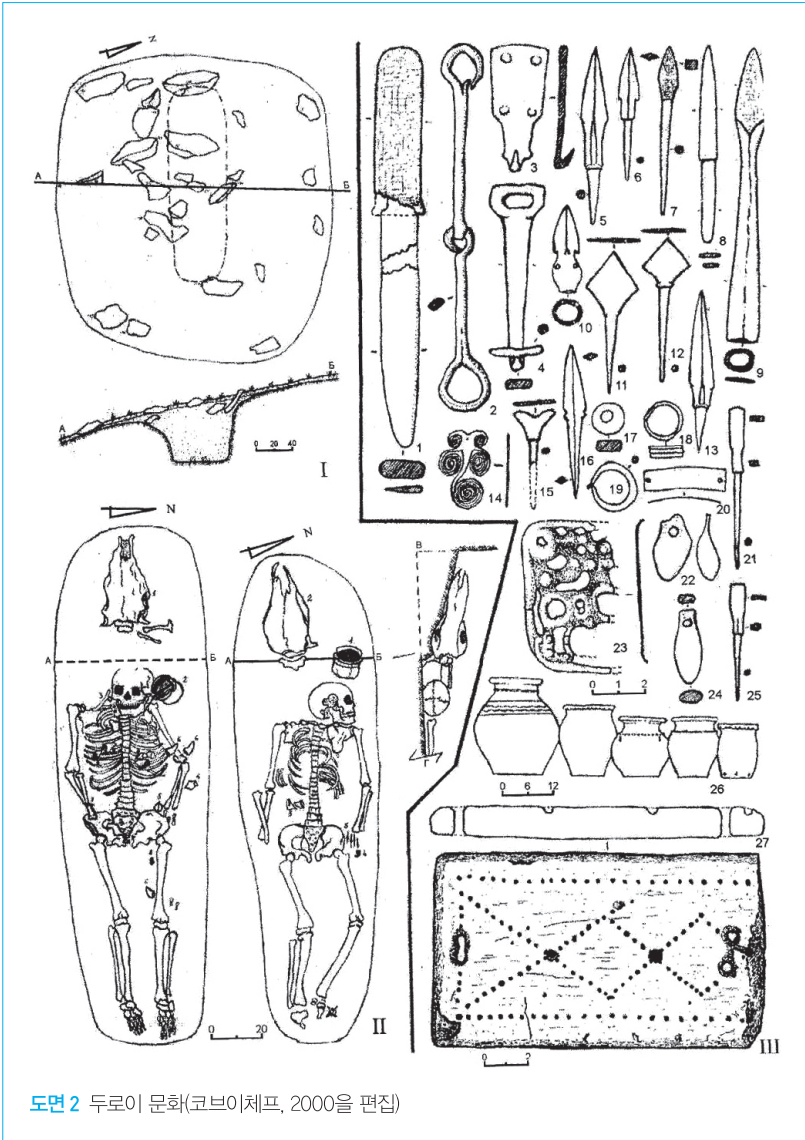


에서 강의 하류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70km 정도에 위치한다. 총 72기의 고분이 발굴되었으며, 모두 지상에서는 원형의 적석을 얇게 하고 그 내부에는 2~3m 깊이의 묘관을 설치했다. 일부 무덤에서는 토동묘처럼 옆으로 묘관을 파서 시신을 안치했다. 시신은 두관축합의 목관에 안치했으며, 몸을 자작나무

로 감싼 흔적도 있다. 또한 자작나무로 몇 차례 걸쳐서 감싸서 만든 용기들도 발견되었다(도면 1-12~14). 두로이 유적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코브이체프와 야렘축이 보고하였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자작나무 껍질에 묘사된 선화에는 수레를 끄는 유목민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유목민, 즉 선비계통이라고 보게 되었다. 또한 공반 유물 중에 한나라 거울이 있어서 그 시기도 선비와 일치한다.

조르골-1 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는 남포달림(拉布達林) 찰라이노르 등의 달라이노르[呼伦湖] 주변의 초기 선비 유적이 다수 위치한다. 한편 조르골-1 유적 출토 유물과 달라이노르 근처의 선비 유적들 사이에는 차이도 있어서 자작나무제 기명(器皿)의 사용, 선화(線畫), 토동묘 등은 조르골 유적에서만 발견된다. 대체로 현재의 중·러 국경을 이루는 아르군강(흑룡강)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의 선비 문화는 대별될 가능성이 크다. 조르골 문화의 시기는 러시아 학자의 경우 서기 1세기 말~2세기로 보는데(코브이체프, 2006) 탄소연대의 경우 23호고분 출토 목탄에서 $1850 \pm 25(84 \sim 238)$, 27호묘에서는 $1520 \pm 35(434 \sim 619)$ 라는 수치가 제시되었다. 두 번째 연대는 지나치게 늦으며, 첫 번째 연대는 대체로 전체 조르골 문화의 연대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서기 2~3세기 이후에 조르골 문화는 두로이 문화로 전환된다. 주요 유적으로는 두로이-1, 볼샤야 칸가(Bolshaya Kanga)-1, 코프칠(Kopchil)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흉노·선비 시기의 무덤이 다수 조사되었다. 두로이 유적은 러시아·중국·몽골의 삼국 국경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80km에 후룬벨시가 위치한다. 외견상 무덤은 타원형 또는 장방형의 1~2층으로 돌이 깔려 있고, 묘광은 0.5~1m 정도 깊이로 비교적 얇게 팠다. 시신은 신전장이지만 목관이 없어서 조르골 문화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시신의 두부 근처에는 토기나 자작나무 기명이 있고, 시신의 두부 위 약간 높은 레벨에는 말·소·낙타·양들의 두개골이 부장되었다. 주요 유물로는 화살촉·귀걸이·토기·요대장식 등이 있다(도면 2). 전반적으로 조르골 문화보다 늦은 특징이 뚜렷한데, 특히 중세시기(4~9세기)의 부르호토이 문화와 유사한 요소가 많이 보이며, 경사진 곳에 얇게



줍석을 하고 특별한 장구가 없이 매장하는 무덤은 프리바이칼의 초기 중세시대에 많이 보인다. 따라서 두로이 문화는 호룬벨 지역의 초기 선비 무덤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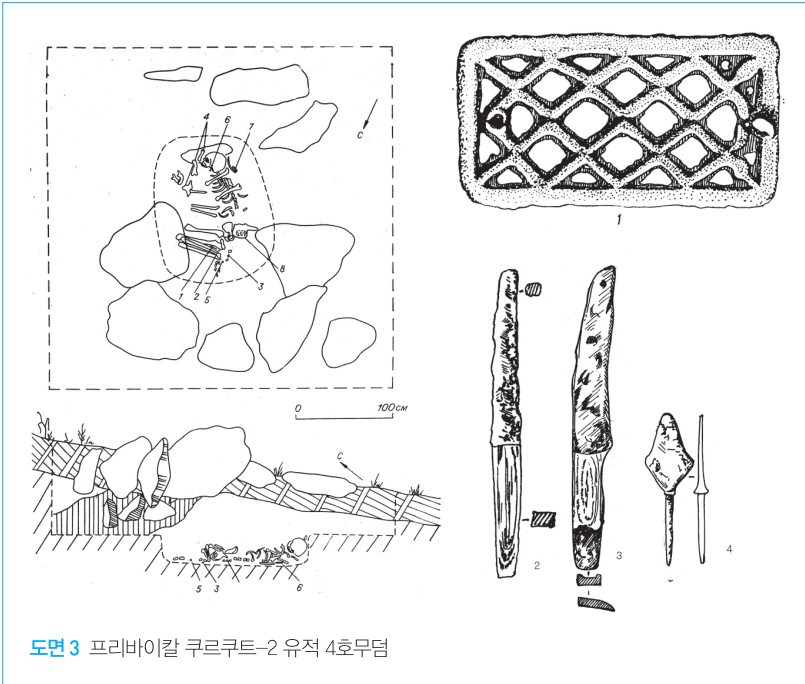
한 요소가 많은 조르골 문화와 달리 조금 늦은 시기(아마도 2~3세기?)에 이 지역에 유입되어서 부르호토이 문화가 번성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흉노 후반기~선비 초기의 시기는 조르골 문화, 선비 시기는 두로이 문화에 해당된다. 유연 시기는 대체로 극동의 말갈 시기에 해당하는 부르호토이 문화에 해당된다.

2. 프리바이칼 지역

바이칼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프리바이칼 지역은 흉노 시기 이후 서기 5세기에 중세시대인 쿠룸친(Kurumchin) 문화가 등장할 때까지의 유적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필자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쿠르쿠트(Kurkut)-2유적 1유적의 중세시대 고분군에서 흉노·선비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한 고분 1기가 확인되었다(도면 3). 이 고분은 쿠르쿠트-2유적 4호분으로 150×110cm의 호석 밑으로 깊이 90cm에서 측신장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봉분은 입석형 석열을 세운 텐트³형 고분으로 이 지역의 특징이다. 4호분은 쿠르쿠트-2유적의 다른 무덤과 열을 맞추어 일련의 무덤 20기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공반된 철도와 도끼날형 철촉 등은 다소 늦은 시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퇴골 근처에서 발견된 기하문장식 동물형대구는 흉노~선비 시기의 전형적인 것이다. 기하학적문 대구는 자바이칼 지역 흉노는 물론 요령 서차홍(西岔沟)에서도 발견된 바가 있다. 그런데 무덤의 형태를 보면 중세시대 쿠룸친 문화의 유적과 큰 차이가 없고, 전체 무덤열에 잘 맞추어서 축조되었다. 또한 철도와 마름모꼴 철촉은 다소 편년의 폭이 넓은 편으로 크게 서기 2~4세기의 범위에 걸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무덤의 시기는 대략 흉노와 쿠룸친 문화 사이의 넓은 시기

3 율 용어는 '샤트르'로 피라미드형 텐트를 말한다. 지상 유구가 마치 텐트처럼 입석을 가운데로 몰아서 세우는 식으로 표식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텐트형으로 번역한다.



도면3 프리바이칼 쿠르크트-2 유적 4호무덤

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이 유적과 인접한 몽골 바양올기 부르가스트 골 유적에서도 흉노 무덤과 유사한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은 흉노 문화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몽골

최근까지 몽골 고고학의 편년상에서 선비~유연의 시대, 즉 서기 2~5세기의 양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⁴ 하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에 몽골에서는 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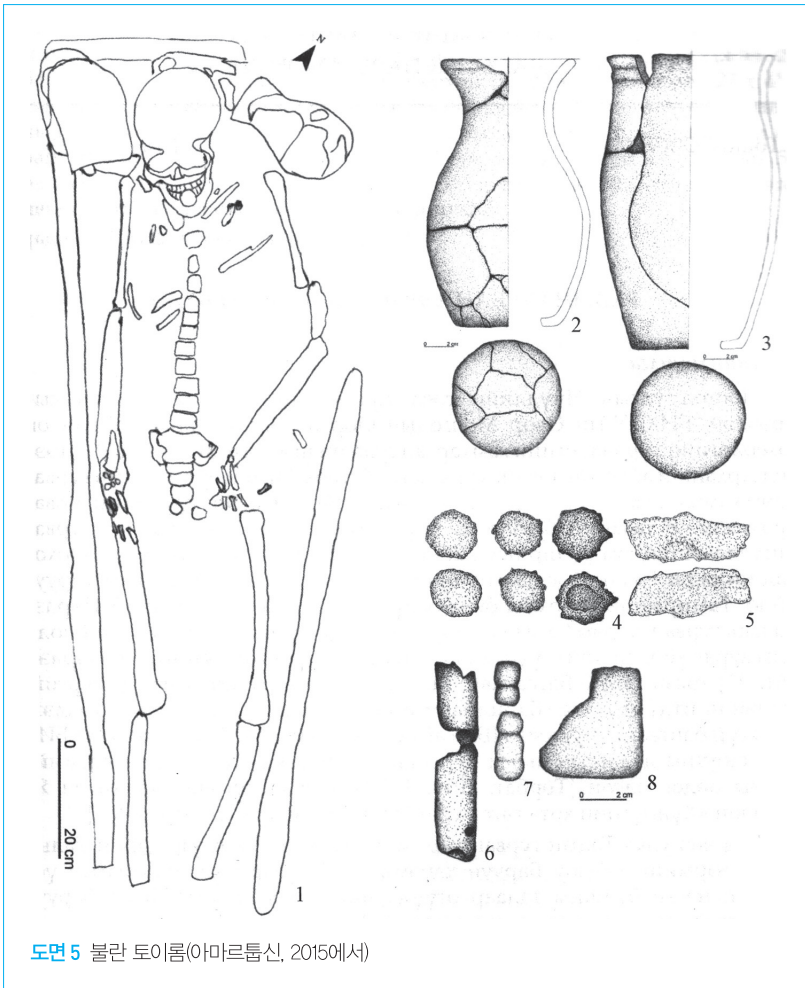
4 체벤도르지 편저 『몽골고고학개론』(2004)에서 흉노 이후 곧바로 고투르크 시대로 넘어가게 서술한 것이 그 좋은 예다.



도면 4 부르가스트 골 유적(에렉젠, 2016에서)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조금씩 그 문화상이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 유적은 2005년에 몽골·프랑스 발굴팀이 공동으로 발굴한 바양울기 아이막 부르가스트 골(Burgast Gol) 유적으로 서기 2~3세기의 선비시대 유적이다(도면 4). 이 무덤의 봉분은 괴석으로 증석을 했으며, 묘광의 주위는 원형



으로 호석을 돌렸다. 그 내부 1.5~1.8m 깊이에서 신전양와장의 두향 동서방향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모두 7개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그중 3개는 석곽, 4개는 목곽이 사용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실크나 무명천조각과 그 위에 붙어 있는 은제장식·청동장식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이 선비 시기로 편년되는 이유는 서기 2~3세기대 러시아 알타이 지역의 불란-코바 문화와의 유사성이 확인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선비 자체와의 유사성은 다소 불분명하나 선비 시기의 유적이 처음 확인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유적은 2014년에 발굴된 옴노고비 아이막 불란 토이롬(Bulan Toirom) 유적이다(도면 5). 이 고분에서는 찰래이노루나 완공(完工)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두관죽첩의 목관묘가 발견되었다. 또한 공반된 심발형 토기와 호형토기의 기형은 구연부를 이중구연화하는 등 선비계통의 토기와 매우 유사하다. 이 고분의 목재를 측정할 결과 절대연대는 $1805 \pm 49\text{BP}$ 로 나와서 대략 2~4세기대에 해당된다. 불란 토이롬 유적은 현재까지 몽골에서 발견된 가장 전형적인 초기 선비 문화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도면 6 아이라긴 고조르

(브레이크뉴스 인터넷보도 <http://www.breakingnews.mn/c/r/31958>, 2016년 10월 25일 확인)

세 번째 유적은 2015년에 조사된 오르혼 아이막의 아이락 고즈고르-1 유적(Ayragin Gozgor)으로 흉노의 무덤과 같이 돌로 연도를 쌓은 동실묘다(도면 6). 이는 흉노의 영향과 이 지역의 재지적 영향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출토된 토기·철기·구슬 등의 여러 유물에서 흉노의 강한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선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 것은 흉노와 이질적인 묘제와 7개의 발굴된 무덤에서 출토된 5개 인골의 형질인류학적 분석 결과를 내몽골 선비의 형질인류학적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강한 친연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즉, 내몽골 선비와 같은 계통의 문화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유적은 아르항가이 아이막 어기너르숨 헤르멘 탈 유적(Khermen Tal)으로 유연(柔然)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도면 7). 2014년에 몽골·중국 연합대가 흉노 성지를 조사하는 중에 1기가 발굴되었다. 묘광은 구지표하 1.7m 지점에서 길이 190×68(머리부분)×45cm의 두관축협 형태의 목관을 설치했다. 이 무덤에는 60대 남성의 인골 1기가 신전장의 형태로 매장되었다. 출토 유



도면 7 헤르멘 탈 유적 유물(오치르, 2015를 편집)

물로는 금박장식·철축·철대구·궁미·철검·의복잔편 등이 있다. 공반 토기는 협사갈도의 선비 무덤에서 주로 보이는 관형 토기며, 철검·화살부속 및 철축 등은 알타이 지역의 3~5세기 코크-파시(Kok-pash) 단계의 문화상과 유사하다(도면 9의 5세기대 유물 참조). 이 유적의 AMS연대는 중국 북경대학 및 독일에서 모두 5개의 연대치가 제시되었다. 북경대학에서는 610AD (68.2%)·645AD, 그리고 독일 쾰른대학에서는 335-535AD인데 출토유물은 이른 시기의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독일 쾰른대학 측정치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유적은 이제까지 실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유연제국 시기(A.D. 4~6세기)의 유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바, 그 의의가 크다.

4. 남부 시베리아(사얀-알타이산맥)의 선비계 문화

남부 시베리아는 현재의 알타이·미누신스크·투바공화국 일대를 포괄한다. 이 중에서 미누신스크 분지의 경우 흉노(B.C. 2~A.D. 1세기) 이후에 테신 문화·타쉬트의 문화 등 투르크계통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선비계통의 문화는 주로 알타이와 투바공화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 지역은 최근까지도 알려진 유적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흉노의 해체 이후 다시 강력한 국가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규모 집단으로 분거했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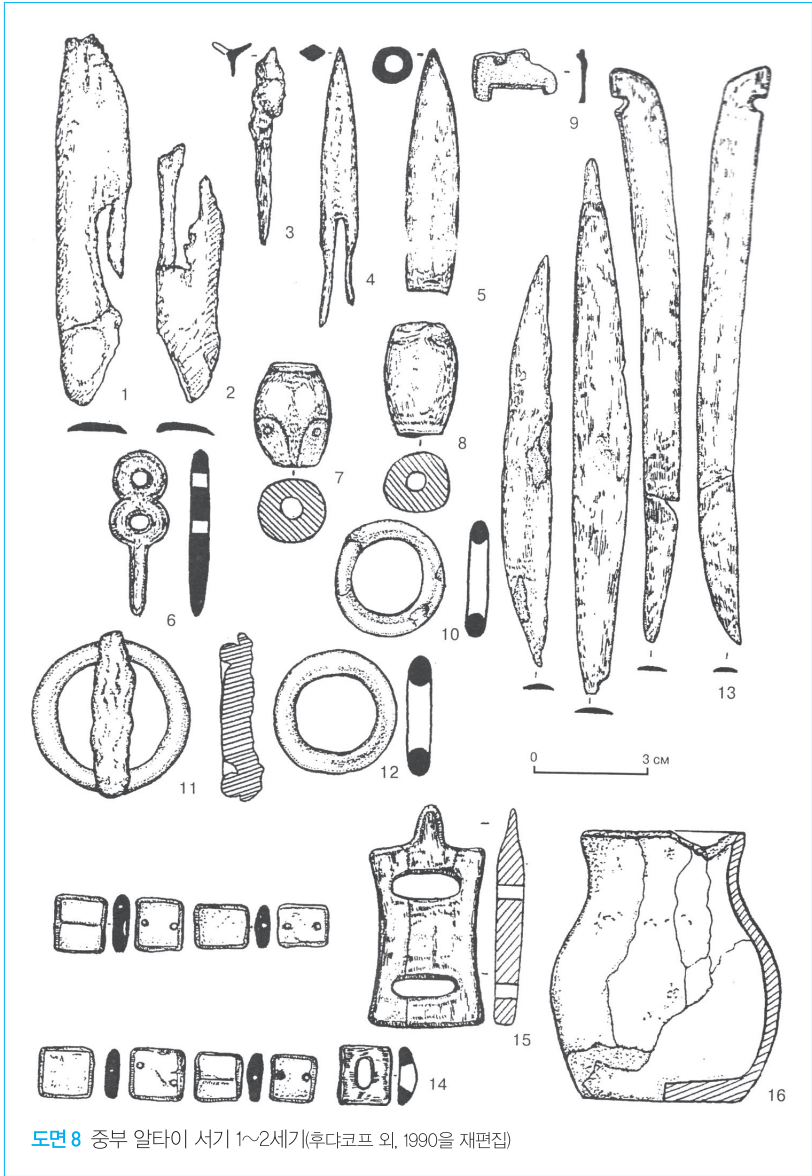
알타이 지역의 흉노 이후 투르크 문화가 형성되기까지의 고고학적 문화상은 구고(강인욱, 2005)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후 알타이 지역의 선비-유연 문화에 대한 성과는 최근에 세료긴과 마트레닌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세료긴·마트레닌, 2014·2016).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세료긴 외, 2016) 흉노-선비-유연 시기(B.C. 1~A.D. 5세기)에는 46개의 무덤 유적에서 735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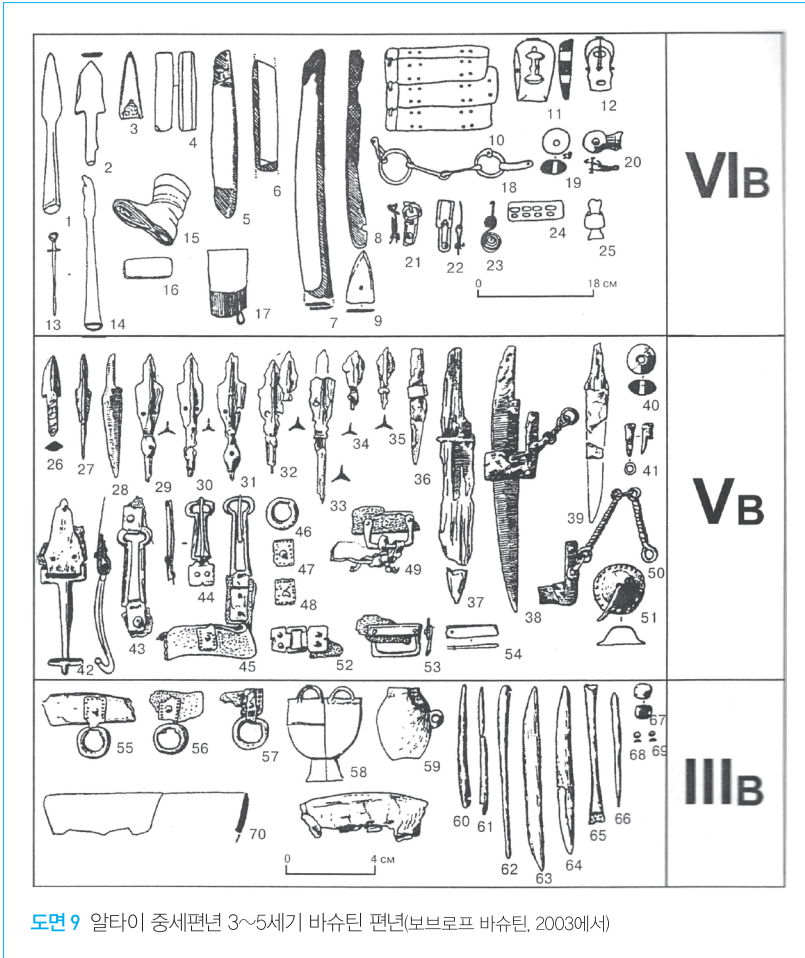
세료긴과 마트레닌은 기원전 2세기~서기 5세기를 흉노의 멸망 이후 서기 3세기까지 선비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3~5세기까지는 유연제국의 세력이 확

산되는 시기로 세분했다(세료진·마트레닌, 2014). 이 시기를 종합적으로 ‘불란-코바(Bulan-Koba)’ 문화로 명명하고 유적 및 문화기를 세분하고 있다. 즉, 알타이 지역에 흉노·선비·유연 등의 거대한 유목세력의 확장에 따라 때로는 그들의 영향권에 편입되어 고고·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초기 중세시기의 알타이 지역의 주민으로 대표되는 ‘불란-코바’ 문화는 첫단계로는 흉노기(B.C. 1~A.D. 3세기), 흉노가 사라진 후에 대형고분이 부재하며 흉노의 철기와 화살부속 등을 사용하는 코크파쉬 단계(A.D. 3~5세기 중반), 개마가 등장하며 금속제 등자가 발견되는 쿠드르이게 단계(A.D. 5세기 중후반~7세기), 투르크카간이 성립되어 제국의 단계로 진입하는 투르크 단계(7세기 이후)로 정리할 수 있다. 흉노~코크파쉬 단계는 티쉬킨이 우스티-에디간(Ust-Edigan) → 벨로-봄(Belo-Bom) → 베르흐-우이몸(Verkh-Uimom) 단계로 다시 명명한 바 있다(티쉬킨, 2006). 쿠드르이게 단계는 고구려-선비 계통의 등자가 본격적으로 유라시아 초원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지는 시기며, 투르크카간의 시대는 돌궐 고고학으로 유라시아 편년의 중심이다(강인욱, 2006).

선비와 동 시기로 주목되는 유적으로는 서기 1~3세기경에 해당하는 벨로-봄(=불란-코바 문화)의 유적들이 대표적이다. 이 당시 무덤은 단인장이며 방형의 석판을 쌓고 그 안에 목관이나 통나무관을 넣은 것이다. 부장유물로는 흉노의 영향을 받은 조합식 활, 다양한 철촉, 장검·방패, 그리고 찰갑 등 무기류가 주류를 이룬다(도면 8). 이들 무기는 흉노의 영향을 깊숙이 받은 것이며 장신구로는 중국제 동경, 경식·귀걸이 등이 발견되었다(강인욱, 2005).

다음 단계인 베르흐-우이몸(=코크-파쉬 단계)은 베렐(Berel)기 또는 오딘조보(Odintsovo)기라고도 불린다. 대체로 유연 시기에 해당하는 서기 3~5세기 중반의 초기 중세문화다. 코크파쉬 유적은 얇은 적석(또는 층석)을 하고 밑에 직사각형의 묘광을 설치한 무덤과 장방형의 제사유구로 나뉜다. 장법은 단인장이며 묘광 내에 괴석을 돌려서 석곽을 만든 것도 있다. 목관의 흔적이 확인된 것도 있다. 주요 유물로는 삼익식 철촉·철검·각종 교구·동북·궁이 등이 있다. 재갈의 경우 철사를 꼬아서 만든 것이 등장한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바슈틴(2004)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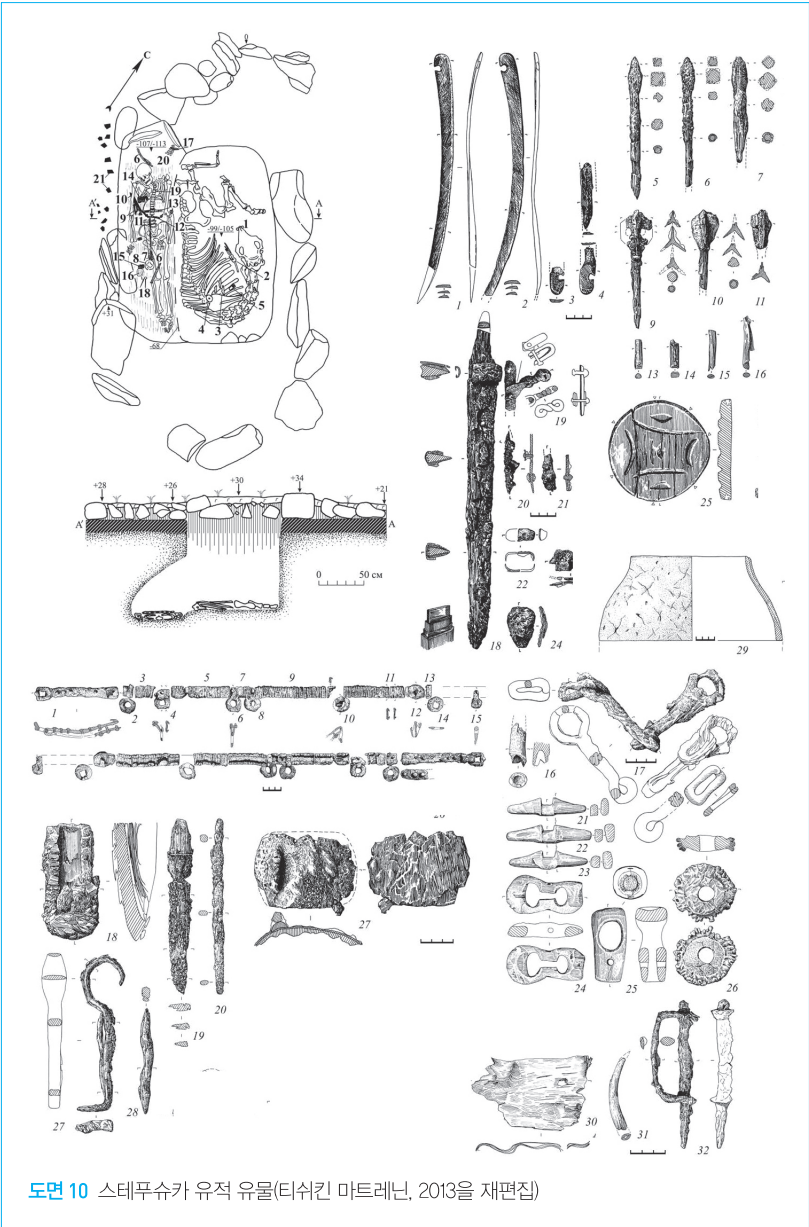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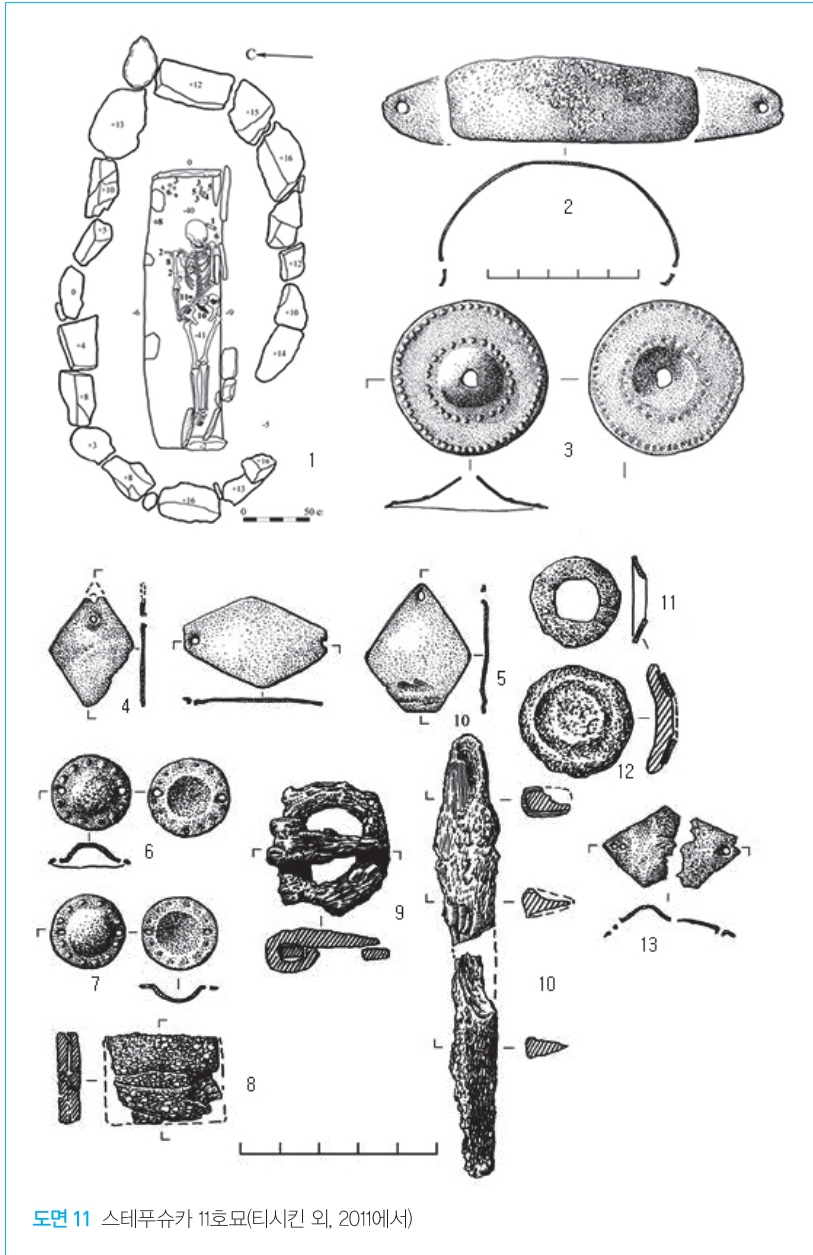
도면 9 알타이 중세편년 3~5세기 바슈틴 편년(보브로프 바슈틴, 2003에서)

상세한 편년 안이 많은 참고가 된다(도면 9)

또한 2010년에는 티스킨이 발굴한 알타이주의 스테푸슈카(Stepushka)-1 유적의 제19호 고분에서도 탄소연대 측정결과 서기 4세기 말~5세기 초반 시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고분은 5.2×3.4m 크기의 좁석을 하여 봉분을 얇게 (0.3cm) 하고 묘광에는 호석을 들렀다. 묘광은 토동묘로 시신은 옆으로 판 안쪽



도면 10 스테푸슈카 유적 유물(티슈킨 마트레닌, 2013을 재편집)



도면 11 스테푸슈카 11호묘(티시킨 외, 2011에서)

에 넣었고, 그보다 약간 높은 레벨에 말뼉을 부장했다. 부장유물로는 마구·활촉·철검·요대 장식 등이 다양하게 나왔다(도면 10). 이 유적에서는 비교적 유물이 풍부해서 그간 애매했던 이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유적 11호분의 여성묘에서는 내몽골 중부지역 선비묘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청동장식들도 출토되어서 선비 문화가 유연제국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남부 알타이로 확산되었음을 방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굴로 꼽힌다(도면 11).

적어도 600년 이상 존속하는 알타이의 초기 중세시기 ‘불란-코바’ 문화는 스키타이 시대의 파지릭 문화와 투르크 문화 사이의 공백에 가까운 시기를 메우는 획기적인 자료다. 바로 선비-유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목제국의 등장이 알타이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가능한 여지가 된다.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로 확산된 대표적인 이란-페르시아계통의 문화인 파지릭 문화가 기원전 1세기경에 불란-코바 문화와 공존했음이 밝혀졌다(세료진, 2016). 그런데 정작 불란-코바 문화의 매장풍습은 공존했던 후기 파지릭 문화의 매장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오히려 불란-코바 문화의 매장방법은 파지릭 문화의 초기나 파지릭 문화 이전에 존재했던 마이에르 문화와 유사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불란-코바 문화는 이란-페르시아 문화와는 다른 토착적인 몽골계통의 주민과 문화가 주축이었다고 판단된다.

IV. 고찰

1. 러시아-몽골 경내 선비·유연 문화의 시간적 위치

러시아·몽골 학계에서 발견되는 선비 유적의 큰 시간적 틀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흉노와 동 시기인 기원전 2세기 말~서기 1세기대가 된다. 두 번째 시기는 북흉노의 패망 이후 선비가 독자적으로 호르랄 및 대흥안령 일대에서 번성하고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시기다. 세 번째로는 유연제국의 모용

선비의 발흥(238~410), 네 번째 시기로는 탁발선비의 발흥과 복위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선비의 편년을 유라시아 편년체계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은 시기 구분이 사용된다.

	유라시아 서부편년	유라시아 동부편년	절대연대
1기 흉노기	훈-사르마트기	흉노 시기	B.C. 3~1세기
2기 선비기	훈-사르마트기	흉노-선비 시기	1~3세기
3기 유연기	민족대이동 시기	선비-유연 시기	4~5세기
4기 고투르크	고투르크 단계	고투르크-阿史那 단계	5~6세기

1기는 거시적으로 흉노가 유라시아 전역에 발흥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기원 전후한 시기에 북흉노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기 전까지에 해당한다. 사서에 따르면 기원전 209년에 흉노가 동호를 무찌르자 그의 일파가 선비와 오환산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지명을 따라서 선비와 오환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동호 세력이 흉노에게 패주한 이후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었으며, 이후 흉노의 세력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흉노의 영향이 강한 고고학적 자료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자바이칼 아르군강 유역 일대에서는 키야·불라크 고분 등 전형적인 흉노 무덤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이 시기에 몽골·남부 시베리아 지역은 아직 흉노의 세력이 강성한 때이므로 선비계통의 문화는 찾을 수 없다.

2기는 북흉노 세력이 와해된 이후에 선비세력이 본격적으로 강성하는 시점이다. 호른뿔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선비 문화가 확산되는 시점이다. 선비 세력은 아르군강 건너편으로도 확산되어 조르골 문화로 이어졌다. 한편 프리바이칼 지역에서도 이 시기의 유적이 확인된다. 몽골에서도 이 지역의 상황은 다소 애매하지만, 부르가스트 골 유적은 알타이 지역의 불란-코바 문화와 유사하다는 점이 참고가 된다. 한편 아이락 고즈고르 유적은 흉노의 연도가 있는 동실묘의 형태를 계승하여 흉노의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선비 세력의

확산으로 불란 토이름 유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실제 선비 세력은 동남부 몽골 지역에 실제로 확산되었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들의 문화요소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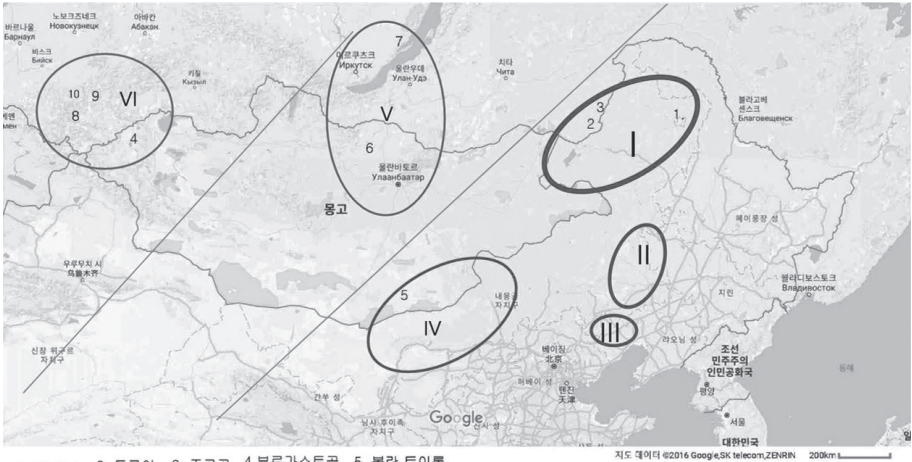
알타이 지역의 경우 파지릭 문화의 소멸 이후 불란-코바 문화가 등장한다. 선비와의 관련성은 활촉·마구·철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일부 장신구에서도 유사성은 보이지만 모제와 기본적인 유물의 양상은 이전의 문화를 계승하며 선비 문화의 직접적인 접촉을 상정하기 어렵다.

3기는 선비·유연 시기로 대체로 서기 3~5세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요령 지역으로 남하한 삼연 문화가 강성했으며, 같은 시기 자바이칼 지역에서는 두로이 문화가 번성한다. 두로이 문화의 경우 조르골 문화와 유물상에서는 유사하나, 무덤의 형태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유연의 실체와 가까운 유적들이 몽골(헤르멘 탈)과 스테푸슈가 등에서 발견되었다.

4기는 선비·유연의 문화가 거의 소멸되는 시점으로 투르크계통의 문화가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 널리 확산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투르크 문화의 형성과정 및 고구려 등자의 확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자의 구고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강인욱, 2005·2006).

2. 선비·유연 문화권의 지역적 범위

다음으로 러시아와 몽골에서 발견된 선비·유연과 관련된 유적들을 종합해서 선비 문화권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자(지도 1). I그룹은 호룬뿔 평원과 아르군강 일대의 조르골·두로이 문화가 확산된 지역이다. 알선동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탁발선비도 이 지역을 자신들의 발상지로 지목한 바 있다. 사서에 동호세력이 흉노에게 붕괴된 이후 동북쪽으로 피신 가서 오환과 선비가 되었다는 점도 잘 부합된다. 다만 조르골·두로이 문화는 남쪽의 초기 선비 세력과 비교했을 때에 지역적인 차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두 국가의 선비 문화 차이는 중세시대 이후 실위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러시아 지역에서는 미하일로프카



지도 1 선비·유연 문화 시기 유라시아 동부의 주요한 유적 및 문화 분포도

를 실위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호른뿔 지역의 사이탐랍(謝爾塔拉) 묘지를 실위로 비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차가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外, 2006). 사이탐랍은 미하일로프가 문화와 비교하면 부르호토이와 선비계통의 문화와 유사한 유목문화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실위보다는 선비계통의 문화가 서기 7~10세기까지 이어진 것이다(강인욱, 2015).

II그룹은 초기 선비 문화가 남하하여 서요하 하류에서 융거한 것이다. 전립곤(田立昆, 1998)은 이 시기를 위나라 초 모용씨의 선조인 마호발이 요서 대극성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와서 모용씨가 요동에서 요서의 청산(靑山)으로 도읍을 옮기는 기간으로 아직 국가단계에 이르지 않은 단계로 규정하는 바 있다. 십이대향(十二臺鄉)·전창묘(塹廠墓)·사근묘(舍根墓)·신성둔묘(新城屯墓) 등이 이 단계에 속하는데, 무덤 간 부장유물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유물로는 황금제 유물은 극히 소량이 출토되며 그 밖에 공구·병기·오수

전 등이 보이며 마구는 출토되지 않는다.

III그룹은 삼연 문화로 대표되는 요서지역 대릉하 일대의 문화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강현숙, 2006). 대체로 모용 괴(慕容厓) 및 모용한(慕容翰)의 통치기로 고구려 및 단씨(段氏)·우문씨(宇文氏) 등과 군사적 충돌을 본격적으로 하며 그 세력을 키우는 시기(285~348), 전연시대(348~370), 후연시대, 요동지방에 거점을 다시 회복하는 시기(385~410) 등을 포함한다.

IV그룹은 내몽골 중부 일대에서 선비 문화가 확산된 시기다. 이 지역의 자료는 위견 등(魏堅等, 2004)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지역은 선비가 흉노의 고지를 차지하고 이후 북위의 번성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포했다. 몽골의 불란 토이름 유적의 경우 초기 선비의 토기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바, 같은 지역권이며 초기 선비가 몽골의 남부지역을 거쳐서 내몽골 동부지역까지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V그룹은 쿠르쿠트 유적 및 아이라긴 고즈고르 유적 등이 해당된다. 몽골 북부 및 자바이칼 일대는 흉노의 중심세력이 번성한 곳으로 흉노가 발흥할 당시에 주요한 고분들의 밀집 지역이다. 아이라긴 고즈고르 유적의 경우 흉노 고분과 유사한 구조(연도가 있는 석실분)며, 쿠르쿠트 유적의 경우 중세시대의 양식이 뚜렷한 고분들과 같은 맥락에서 축조가 되었으며 무덤 자체의 양식은 프리바이칼 일대의 것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선비시대는 흉노 세력의 잔존문화가 선비·유연 시기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VI그룹은 사얀-알타이산맥을 중심으로 남부 시베리아와 몽골 동부 일대를 의미한다. 이 지역은 투르크(돌궐)의 발원지로 유연에 복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설상 시조 아사나(阿史那)의 후손들이 철기를 만들며 세력을 키웠다고 알려졌다.⁵ 아사나의 존속기간은 475~556년인데, 투르크가 유연에 복속된 시기에 해

5 『周書』突厥傳, “阿史那即一也, 子孫蕃育 …… 臣於茹茹居金山之陽 為茹茹鐵工, 金山形似兜鍪, 其俗謂兜鍪為突厥, 遂因以為号焉.”

당한다. 대체로 알타이 지역에 등자와 중갑병이 출현하는 시기인 쿠드르이게 단계와 시기적으로 부합한다. 최근 확인된 부르가스트 골, 스테푸슈카 등의 유적을 보면 말을 한쪽에 부장하고 사람을 넣는 투르크계통의 무덤(스테푸슈카)과 흉노계통의 석곽묘(부르가스트 골) 등의 형태가 혼재한다. 이는 파지릭 문화의 붕괴 이후 초기 중세시대에 이 지역에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고 소규모의 집단으로 존속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 기존에 지적된 무기나 마구의 유사성 이외에도 새롭게 발견된 유적과 유물에서는 특히 내몽골 중부지역 선비의 장신구와 유사한 것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티시킨·마트레닌, 2013). 따라서 직접적인 선비의 집단 확산은 상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남부 시베리아 일대에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북방 유라시아 지역 선비·유연계 문화의 확산과 고구려

북방 유라시아 동부지역 주민집단의 계통을 크게 대별하면 통구스-만어계(말갈·여진), 몽골계(선비·실위), 투르크계(해·철륵), 부여-고구려계(=예맥·두막루) 등으로 세분된다. 선비는 이 중에서 몽골계통의 기원이라는 차원에서 러시아 학계는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서 중세시대 부르호토이 문화를 거쳐서 몽골제국 및 부리아트족으로 계통을 잇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문화의 계통은 현대의 혈연적인 집단이 아니라 생계경제 및 언어적 동질성에 기반한 물질문화의 유사성을 말한다. 다만 어족 및 고고학적 문화의 계통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나뉘이지 않으며 각 집단들은 서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요소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학자 간에 다양한 문화계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예컨대 선비에게 영향을 준 흉노의 경우 몽골계 및 고투르크계의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집단들은 서로 복잡하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각에 따른 단순한 민족 및 집단의 구분은 어려울 뿐더러 의미도 없다.

선비 문화권의 유적은 비교적 최근에 발굴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유라시아

고고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주제다. 그 이유는 서기 2~5세기 선비-유연 시기의 문화상을 밝힘으로써 흉노 이후 북방 초원지역이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 에서 위치한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비의 문화는 비단 중국 경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거의 흉노에 필적할 만한 거대한 범위에 영향을 주었 으며 유라시아 동부지역의 초기 중세시대(A.D. 3~6세기)의 상황, 즉 흉노가 멸 망하고 투르크가 등장하기 이전의 유목문화의 발흥에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선비와 유연의 발흥은 고구려·부여와도 무관하지 않다.

선비 문화의 경우 동쪽으로는 말갈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아무르강 상류의 초기 선비 유적의 전형적인 토기는 단경호로 구연부는 이중인 흑갈색의 수제 토 기로 대표된다. 이러한 선비 문화의 토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말갈 문화의 전형 적인 토기인 ‘말갈관(鞞鞮罐)’이다. 이는 곧 초기 선비 찰라이노루-완공 유형이 형성된 이후에 그 일파가 동쪽으로 확산되어 말갈 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2~4세기대에 선(先)말갈 세력은 삼강평원~아무르 중류에서 거주했으며, 이들 은 부여와 같은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흑룡 강 중남부지역은 이때에 선비계통의 유목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들은 선말갈 세력에 영향을 미쳐서 이후 말갈 문화의 초원계문화가 보이는 주요 원인이 되었 다(강인욱, 2009). 아울러 선비계통의 문화는 동북쪽 자바이칼 쪽으로 확산되어 서는 부르호토이 문화로 전개되었다(디아코바, 2008). 이와 같이 흉노 이후 유라 시아 동부지역에서 선비 문화는 유목경제를 각지로 전파시켰다. 아울러 부여의 경내에 유입된 초원문화 역시 궁극적으로 선비계통을 통하여 유입되었음을 볼 때 선비 문화의 역할은 매우 주목된다. 또한 선비는 곧바로 유연 시기의 문화로 이어졌음도 흥미롭다. 비록 단편적이지만 3~5세기의 유연 시기에 해당하는 유 물상도 선비 시기와 뚜렷한 계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1~5세기 동부 유라시아의 넓은 지역에서 분포했던 선비 문화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음은 매우 주목된다.

한편 유연의 경우 몽골을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그 고고학 적인 흔적이 매우 적었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시베리아 초원을 매개

로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 확산되는 고구려-선비계통의 등자는 유연의 발흥과 관계가 있다. 즉, 발달된 고구려와 선비의 마구가 유라시아로 유입되는 과정에는 유연제국과 그에 복속한 돌궐의 발흥이 있었다(강인욱, 2006). 이러한 유연을 둘러싼 당시의 정황은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와 유연의 우호적인 관계와도 부합한다(노태돈, 1999; 박원길, 2002). 『위서(魏書)』 「백제전(百濟傳)」에 개로왕이 북위(北魏)에 올린 글(472년 8월)에 고구려가 유연(蠕蠕)과 공모를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서기 5세기 중엽 이후에 그들의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연은 470년대를 정점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장한다. 서기 470년에는 대부분의 서역을 장악하며 동쪽으로도 확장한다. 유연과 고구려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서기 479년(장수왕 67)에 이루어진 두 나라의 지두우(地豆于)의 분할장악 계획사건으로 정점을 이룬다. 이러한 두 나라의 관계 사이에서 고구려의 발달된 개마문화가 유연으로 유입되는 것은 자명하리라 생각된다(강인욱, 2006). 당시 유연이 고구려에서 발달된 철제병기를 얻는 데에 힘을 썼으리라는 점은 당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⁶

다만 이러한 외교관계와 시베리아 일대에 등자가 도입되는 시기는 빨라야 서기 5세기 후반~6세기 초엽이다. 고구려 관련 등자의 경우 투바 울루그-호름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렇듯 필자가 출고(강인욱, 2006)에서 상론했던 등자관련 유적은 선비에서 유연제국으로 이행하는 3~5세기 과정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못해주었다. 그런데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편적이긴 해도 유연 시기의 여러 유적들이 몽골과 알타이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 양상들은 고구려의 개마보다는 선비계통의 황금장식·철제무기 등에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볼 때는 유연제국의 형성에는 고구려보다는 선비로 대표되는 몽골계의 문화가 크게 이바지했으며, 이후 투르크계(돌궐) 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유연제국의 후기에 들어서 고구려로 대표되는 예맥계 문

6 『魏書』 蠕蠕列傳 서기 521년 정월, “詔賜阿史瓌細明光人馬鎧二具, 鉄人馬鎧六具…….”

회와의 교류가 심화됨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비와 유연의 발흥은 고구려를 포함한 동아시아 북방 일대의 역동적인 집단들의 발흥 및 교류와 관계가 있다. 이제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인 사료만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 접근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최근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이들의 고고학적 자료는 고구려를 축으로 하는 삼국시대 북방지역과의 교류상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V. 맺음말과 향후과제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관계를 고고학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고구려와 삼연 문화라는 유물의 비교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바로 기원전 2세기경에 몽골과 중국 북방 일대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된 흉노와 그에 복속된 후에 독립한 선비·오환 등의 세력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와 북방지역의 관계는 지엽적인 중국 자료와의 비교뿐 아니라 고구려를 포함한 유라시아 동부지역 전반적인 편년체계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몽골·바이칼·남부 시베리아 등 동부 유라시아의 초원지대의 초기 고구려와 동 시기에 해당하는 선비와 유연 시기의 자료들을 최신 성과들을 소개하고 그 현황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막연하게 다가왔던 고구려의 북방 초원지역과의 관련성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일별했듯이 이 시기 북방지역에 대한 자료가 적고 각 지역의 편년 및 문화 명칭이 정립되지 않아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거시적인 편년의 틀에서 본다면 흉노의 멸망 이후 선비는 거의 흉노의 세력범위를 회복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고, 그 범위는 유연제국으로 계승되었다. 사실 두 유목국가의 세력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는 극히 적어서 상당기간의 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로 다소 그들의 문화상이 밝혀지게 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두우를 둘러싼 고구려의 대외활동은 주로 몽골 동부~호른뿔 일대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구체적인 고구려의 북방지역과의 관련성을 실물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연구는 그 전망이 매우 밝다. 하지만 본고에서 보았듯이 고구려와 동 시기의 고고자료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고구려와 초원지역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몽골 일대의 고고자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그 양상을 살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적인 공동조사 등이 이루어져야만 고구려와 북방지역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 본고에서 다루는 시기는 신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석목곽분에 북방 초원계 문화요소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와 같이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교류가 본격화되는 초기 중세시기의 양상에 대한 접근은 고구려뿐 아니라 삼국시대의 대외교류에 대한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 강인욱, 2005, 「알타이지역 투르크문화의 형성과 고구려」, 『고구려발해연구』 21호.
- 강인욱, 2006, 「고구려 등자의 발생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북방사론총』 12호, 고구려역사재단.
- 강인욱,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關係」, 『고구려발해연구』 33호.
- 강인욱, 2015,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호.
- 강현숙, 2006,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중국 삼연 요소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51호, 한국상고사학보.
- 孙危, 2007, 『鲜卑考古学文化研究』, 科学出版社.
- 魏坚 主編, 2004, 『內蒙古地区鲜卑墓葬的发现与研究』, 科学出版社.
- 宿白, 1977, 「东北, 內蒙古地区的鲜卑遗迹—鲜卑遗迹辑录之一」, 『文物』.
- 郑隆, 1961, 「內蒙古扎贛诺尔古墓群调查记」, 『文物』 第9期.
- 아마르투스인, 2015
- Амартувшин, Ч., Батзориг, О., 2015, Булан тойромын булш,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XXXV, Улаанбаатар.
- 아세예프, 1980
- Асеев, И. В., 1980, Привбайкалье в средние века, —Н, —Наука.
- 아세예프, 1984
- Асеев, И. В., Кириллов, И. И., Ковычев, Е. В., 1984, Кочевники Забайкалья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ений).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 비추린, 1950
- Бичурин, Н. Я.(Иакинф), 1950,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Монголии и на соседних к ней землях, т. 1,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 тавших в Ср.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 М.: Л., – Т. 1.
 보브로프 · 바슈틴, 2003
- Бобров, В. В., Васютин, А. С., Васютин, С. А., 2003, Восточный Алтай в эпоху велик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ов,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иЭ СО РАН.
- 빅토로바, 1961
- Викторова, Л. Л., 1961, Ранний этап этногенеза монголов: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ист. наук, – Л.
- 보로비요프, 1994
- Воробьев, М. В., 1994, Маньчжурия и Вост. Внутренняя Монголи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IX в. включительно), Владивосток, Элексен, 2015
- Эрегзен, Г., 2015, Моголын эртний булш оршуулг III, Улаанбаатар, 고르부노프, 2003
- Горбунов, В. В., 2003, Военное дело населения Алтая в III–XIV вв. Ч. I. Оборонительное вооружение (доспех), Барнаул, 디야코바, 2008
- Дьякова, О. В. и др., 2008, Тунгусо–маньчжурская проблема сегодня, Первые Шавкуновские чтения,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 일류신, 2016
- Илюшин, Б. А., 2016, Очерк истории Тогона (сяньбийского владения Туюхунь), 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Растр».
- 키릴로프, 1998
- Кириллов, И. И., Ковычев, Е. В., Литвинцев, А. Ю., 1998, Сяньбийские граффити на бересте из могильника Зоргол-1 //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 нар. науч. конф, Владивосток,

코미사로프, 1996

Комиссаров, С. А., 1996, Сяньбэ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Лаохэшэнь. // Двадцать седьм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бщество и государство в Китае», Тезисы и доклады, М.

티시킨 외, 2011

Тишкин, А. А., Матренин, С. С., Шмидт, А. В., 2011, Женские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е украшения из погребения сяньбий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Алтае Вопросы археологии Казахстана, Выпуск 3.

티시킨 외, 2013

Тишкин, А. А., & Матренин, С. С., 2013, Воинское погребение раннежужан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могильнике Степушка I в Центральном Алтае.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231).

쿠바레프, 2005

Кубарев, Г. В., 2005,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ок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иЭ СО РАН.

코브이체프, 2006

Ковычев, Е. В., 2006,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этн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Восточ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в конце 1 тысяч до н.э. – 1 тыс. н.э. // Известия лаборатории древних технологий, вы.4, изд. Иркутск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쿠즈민, 2011

Кузьмин, Н.Ю., 2011, Погребальные памятники хунно-сяньбийского времени в степях Среднего Енисея: Тесинская культура, СПб: «Айсинг».

큐네르, 1961

Кюнер, Н. В., 1961, Китайские известия о народах Южной Сибири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М.

타스킨, 1984

Таскина, В. С., 1984,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кочевых народов группы дунху / введ., пер. и коммент, – М.

미클라세비치, 2004

Миклашевич, Е. А., 2004, 《Племя единорога》 на Енисее (сяньбэйские мотивы в наска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Минусинской котловины). // Изобразительные памятники: стиль, эпоха, композиции. Материалы тематическ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Пб.

미치코, 2005

Митько, О. А., 2005, К вопросу о таштыкских кожаных колчанах. // Военное дело кочевник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сяньбийскую эпоху, Новосибирск: НГУ.

오클라드니코프, 1976

Окладников, А. П., 1976,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Бурятии: сб. ст. / ред. – сост. В. Е. Ларичев, Улан-Удэ: Бурятское кн. изд-во.

오치르, 2015

Очир, А., Чэнь Енжи, и др., 2015, Талын гурван хермийн жужан булш,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XXXV, Улаанбаатар.

세료긴 · 마트레닌, 2014

Серегин, Н. Н., Матренин, С. С., 2014,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Алтая II в. до н.э. – XI в. н.э., Барнаул.

세료긴 · 마트레닌, 2016

Серегин, Н. Н., Матренин, С. С., 2016, Погребальный обряд кочевников Алтая во II в. до н.э. – XI в. н.э., Барнаул.

스코벨레프, 2005

Скобелев, С. Г., 2005, Предметы оружия дальнего боя из могильника Чегерак. // Военное дело кочевник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сяньбийскую эпоху, Новосибирск: НГУ.

수호바타르, 1971

Сухбаатар, Г., 1971, Сяньби, Уланбаатар.

타스킨, 1980

Таскин, В. С., 1980,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ухуаней и сяньби.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соседние территории в средние века, Новосибирск,

티시킨, 2006

Тишкин, А. А., 2006, Алтай в эпоху поздней древности, раннего и развито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культурно-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концепци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история)//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 ... д-ра ист. наук: 07.00.06 – археология, Барнаул.

후다코프, 2005

Худяков, и. др., 2005, Военное дело кочевник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сяньбийскую эпоху, Новосибирск: НГУ.

후다코프, 2005

Худяков, Ю. С., 2005, Влияние сяньби на культуры кочевников Южной Сибири. // Археология Южной Сибири: идеи, методы, открытия. Сборник доклад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ённой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С.В. Киселёва, г. Минусинск, Красноярск.

후다코프 외, 1990

Худяков, Ю. С., Скобелев, С. Г., & Мороз, М. В., 1990,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долинах рек Ороктой и Эдиган в 1988 году.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Катунь, Новосибирск, 22.

체벤도르지, 2009

Цэвээндорж, Д., 2009, Археология Монголии, –Уланбатаар,

야랩축, 2010

Яремчук, О. А., 2010, Истор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амятников хунно-сяньбийской эпохи в Восточном Забайкалье Гуманитарный вектор, № 3 (23).

인터넷자료

<http://www.breakingnews.mn/c/r/31958> (2016년 10월 25일 확인)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강인욱

최근 고구려의 연구가 다양화되면서 그 북방 이웃지역과의 관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삼연(三燕) 문화로 대표되는 모용선비에 대하여 한·중·일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성장시기와 관련된 북방지역의 선비·유연·돌궐 등이 어떻게 유라시아 초원 일대의 유목국가 형성에 이바지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흉노의 발흥 이후 선비와 유연 시기에 해당하는 서기 1~5세기의 남부 시베리아의 알타이·몽골·프리바이칼·자바이칼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유라시아 고고학에서의 의의를 다루었다. I장에서는 유라시아 동부의 초원지역에서 선비 문화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그간 공백으로만 알려져 있던 서기 1~5세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최신 발굴자료들을 소개했다. 이후 III장에서는 각 지역의 선비·유연 시기의 시공적인 범위, 지역적인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고구려의 북방 이웃으로서의 선비족에 대한 관점을 탈피하여 고대 북방사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선비와 그를 이은 유연의 의의를 재평가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북방 유라시아 일대의 선비·

유연 시기의 유적을 일별한 결과, 이들은 흉노 이후 유목사회의 발달을 지속하여서 투르크가 등장하기 이전의 유목문화의 발흥에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 문화의 경우 동쪽으로는 말갈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유연제국으로 계승되는 점을 살펴보아서, 고구려와 북쪽으로 이웃한 선비가 초기 중세시기 북방지역 유목문화를 이해하는 핵심되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유라시아 역사 편년 상에서 민족의 대이동시기로 대표되는 시기(서기 3~5세기)에 고구려의 발달과 북방지역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흉노, 선비, 유연, 민족의 대이동, 불란-코바 문화, 투르크 시기, 고구려

ABSTRACT

Archae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the Xianbi-Rouruan Period in the Eastern Part of the Eurasian Steppe Region

Kang In Uk

After the collapse of Xiongnu in the first century, the rise of Xianbi has been one of the most interesting subjects i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of East Asia and Eurasia.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Xianbi replaced most of the Xiongnu boundary from Manchuria to Altai, and from Baikal to the Great Wall region of China. In the fifth century, the Rouran empire occupied most of Eastern Eurasia. To date, the succession of nomadic states (or empires) from in the early medieval age of East Asia have been mainly discusse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Traditionally, this period is regarded as “the Great Migration period” in western history. However, because of a lack of archaeological materials, the eastern part of Eurasia was poorly discussed. Thus, in this article, the author seeks to examine the archaeological culture of the

Altai, Mongolia, and Baikal area in southern Siberia during the second century to the fifth century. Recent archaeological findings in Mongolia and Southern Siberia show that in this period, after the collapse of Xiongnu, Xianbi's influence extended to Altai. The Rouran tombs also show the succession of Xianbi cultural elements.

Let us take a glimpse at the relationship with Goguryeo. As the author has mentioned in previous works,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the stirrups and the horse harness of Altai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Goguryeo horse harness. This could be also explained by diplomatic alliances of Goguryeo and Rouran in the second half of the fifth century. However, here the author shows that the archeological findings of the third century to the fifth century share more similarity with the Xianbi. This means that the Rouran-Goguryeo relationship and alliance had just started in the late Rouran empire period and coincided with the rise of ancient Turkic (Tujue) peoples in Altai. In this way, recent archaeological findings of the Xianbi-Rouran period in the eastern Eurasia Steppe give us new perspectives on the early medieval history of East Asia, including Goguryeo.

Keywords: Xiongnu, Xianbi, Rouran, the great migration period, Bulan-Koba culture, the Turk period, Goguryeo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이정빈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 I. 머리말
- II. 370년 업성(鄴城)의 질자와 그 기원
- III. 질자의 전연 생활과 동상(東庠)
- IV. 질자의 귀환과 활동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대·중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및 정치·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질(人質)이 존재하였다.¹ 부여·고구려와 모용선비 전연(前燕, 337~370)의 국제관계에서도 인질이 보인다. 그동안 전연의 부여·고구려 인질은 주로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² 특히 조공·책봉과 같은 고구려-전연 관계의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³ 그런데 부여·고구려의 인질은 비단 당대의 국제정치만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 교류·인구이동 및 문화

* 투고: 2017년 2월 8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 1 Lien-Sheng Yang, 1952, "hostages in chinse histo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5, No. 3, Harvard-Yenching Institute, 507쪽; 韓祐 旂, 1960,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上)」, 『歷史學報』 12, 106~107쪽; 小倉芳彦, 1962, 「中國古代の質」, 『歷史學研究』 255, 青木書店; 梁起錫, 1981,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對하여」, 『史學志』 15, 檀國大學校 史學會, 44쪽; 陳金生, 2008, 『中國古代民族關係中的 質子研究』, 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11~69쪽.
- 2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池培善,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91~97쪽; 池培善, 2006, 「高句麗와 鮮卑의 전쟁-慕容廆와 慕容皝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4, 80~86쪽; 朴京哲, 1994, 「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 『한국사 2-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 한길사; 朴京哲, 2011, 「夫餘의 國勢變動相 認識에 對한 試論」, 『高句麗渤海研究』 39;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36~40쪽; 孔錫龜, 2003, 「高句麗와 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4-고대국가의 대외관계-』,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63~66쪽. 부여와 전연의 관계는 이성계, 2008, 「夫餘와 高句麗의 關係史에서 보이는 몇 가지 쟁점-西晉과 東夷校尉 그리고 前燕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한중관계 2000년-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119~124쪽.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는 金洪培, 2016, 「中國學界의 高句麗와 慕容鮮卑 關係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5 참조.
- 3 全海宗, 1966, 「韓中 朝貢關係考-韓中關係史의 鳥瞰을 위한 導論-」, 『東洋史學研究』 1, 26쪽;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53~54쪽.

접변의 측면에서도 주목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⁴

고대·중세 주요 인질의 대부분은 왕족과 귀족의 자제(子弟)인 질자(質子)였다.⁵ 전연에 보내진 부여·고구려의 인질 중에도 질자가 있었다. 370년 전연의 업성(鄴城) 함락 때 보이는 부여·고구려의 질자가 대표적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연은 적극적인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선비의 전통을 계승한 면이 있었다. 이를 중시해 본다면, 질자 생활과 경험은 부여·고구려의 정치사, 특히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국가체제 정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작으나마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질자의 생활과 귀환, 그리고 귀환 이후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그럼에도 고·중세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어느 정도의 설명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370년 전연의 업성에서 활동한 부여·고구려·상당의 질자와 그 기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전연의 질자 생활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포로 인질과 질자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 전연의 국립학교로 설립된 동상(東庠)의 운영을 주목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질자의 귀환과 이후의 활동을 추적해 봄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李成市, 1992, 「東アジアの諸國と人口移動」, 『東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古代の日本2-』, 角川書店; 李基東, 1996, 「高句麗史 발전의 劃期로서의 4世紀-慕容·燕과의 尙쟁을 통해서-」, 『東國史學』 30; 공석구, 2003, 앞의 논문, 82~90쪽처럼 4~5세기 유이민·망명인의 수용이 고구려 국가체제 정비의 기반이 되었다고 본 연구가 주목된다.

5 『史記正義』 권6, 진시황본기6, “秦始皇帝者 秦莊襄王子也 莊襄王爲秦質子於趙(質音致 國疆欲待弱之來相事 故遣子及貴臣爲質 如上音 國弱懼其侵伐 令子及貴臣往爲質 音直實反 又二國敵亦爲交質 音致 左傳云 周鄭交質 王子狐爲質於鄭 鄭公子忽爲質於周 是也).”

II. 370년 업성(鄴城)의 질자와 그 기원

전연의 부여·고구려 질자와 관련하여 우선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A-1. 散騎侍郎 徐蔚 등이 부여·고구려 및 上黨의 質子 500여人を 거느리고, 밤에 성문을 열어 [符]堅(前秦)의 군대를 들었다. [慕容]曄는 [慕容]評 등 수십騎와 더불어 昌黎로 달아났다.⁶ (『진서』 권111, 載記11 慕容曄)

A-2. [태화 5년(370) 11월] “戊寅(7일)에 燕의 散騎侍郎 餘蔚이 부여·고구려 및 上黨의 質子 500여인을 거느리고〔…〕燕은 군대를 보내 上黨에 수자리를 두고 그子弟를 취하여 鄴에 머무르도록 하면서 質을 삼았던 듯하다. 餘蔚은 扶餘의 王子다. 그러한 연고로 몰래 여러 質子를 거느리고 문을 열어서 秦兵을 받아들인 것이다. 밤에 鄴의 北門을 열어 秦兵을 받아들였다. 燕의 軍主 [모용]위와 上庸王 모용평·樂安王 [慕容]臧·定襄王 [慕容]淵·左衛將軍 孟高·殿中將軍 艾朗 등은 龍城으로 달아났다.”⁷ (『자치통감』 권100, 진기22)

위 사료는 전연의 수도 업성(지금의 중국 河北省 臨漳縣)이 함락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다. 사료 A-2에 기술된 것처럼 370년 11월의 일이었다. 이 사료에서 여울과 함께 움직인 부여·고구려·상당의 질자 5백여 명이 주목된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질자가 되었을까.

먼저 상당의 질자부터 살펴보자. 상당의 중심지는 지금의 중국 산서성(山西

6 “散騎侍郎徐蔚等率扶餘·高句麗及上黨 質子五百餘人 夜開城門以納堅軍 曄與評等數十騎奔于昌黎.”

7 “戊寅 燕散騎侍郎餘蔚扶餘·高句麗及上黨質子五百餘人〔…〕燕蓋遣兵 戊上黨 取其子弟 留於鄴以爲質 餘蔚扶餘王子 故陰率諸質子 開門以納秦兵 夜開鄴北門 納秦兵 燕主曄與上庸王評·樂安王臧·定襄王淵·左衛將軍孟高·殿中將軍艾朗等奔龍城.”

省) 장치시(長治市)로, 업성 서쪽의 태행산맥(太行山脈)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하였다. 이 지역은 북방 유목지대와 중원지역의 경계로 군사적인 요충지였다.⁸ 오호십육국 시기에다 마찬가지였다. 여러 세력의 각축이 치열했다. 전연은 351년 처음 상당을 세력범위에 두었다.⁹ 그전에는 오환의 고녹관위(庫偁官偉)가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는 전연이 후조를 제압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오자 곧 투항했다. 그런데 상당 지역의 유력세력은 중원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전연의 세력범위에서 이탈하기도 했다.¹⁰ 전연이 재차 상당 지역을 확보한 것은 358년이었다.¹¹ 이때부터 370년까지 상당은 전연의 세력범위에 속하였지만,¹² 이탈의 가능성은 상존하였다. 그러므로 사료 A-2에 보이는 호삼성(胡三省)의 주처럼 유력자의 자제를 질자로 삼아 업성에 두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여의 질자에 관하여 살펴보자.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B-1. [영화] 3년(347)에 그 세자 [모용]준을 보내 [모용]각과 함께 기병 1만 8천 명을 이끌고 동쪽으로 부여를 습격하도록 하였다. 그를 이기고 그 왕과 部

-
- 8 『전국책』 권19, 趙2 武靈王, “王曰 […] 自常山以至代·上黨 東有燕·東胡之境 西有樓煩·秦·韓之邊 而無騎射之備 […] 今騎射之服 近可以備上黨之形 遠可以報中山之怨 而叔也順中國之俗 以逆簡·襄之意 惡變服之名 而忘國事之恥 非寡人所望於子.”
- 9 『진서』 권123, 재기23 慕容垂, “招庫偁官偉于上黨 東引乞特歸于東阿 各率衆數萬赴之 衆至十餘萬”; 『자치통감』 권99, 진기21 영화 7년(351) 8월, “庫偁官偉帥部衆 自上黨降燕.”
- 10 『진서』 권8, 재기8 목제 영화 11년(355) 12월 壬戌(25일), “上黨人馮鴛自稱太守 背苻生遣使來降”; 『진서』 권110, 재기10 모용준, “又上黨馮鴛自稱太守 附于張平 平屢言之 僞以平故 赦其罪 以爲京兆太守 護·鴛亦陰通京師 張平跨有新興·雁門·西河·太原·上黨·上郡之地 壘壁三百餘 胡晉十餘萬戶 遂拜置征·鎮 爲鼎峙之勢”; 『자치통감』 권100, 진기22 영화 11년(355) 12월, “上黨人馮鴛逐燕太守段剛 據安民城 自稱太守 遣使來降.”
- 11 『진서』 권8, 재기8 목제 승평 2년(358) 6월, “慕容恪進據上黨 冠軍將軍馮鴛以衆叛歸慕容儁 僞盡陷河北之地.”
- 12 『자치통감』 권102, 진기24 태화 5년(370) 6월 乙卯(12일), “秦王堅送王猛于灞 上曰 今委卿以關東之任 當先破壺關 平上黨 長驅取鄴 所謂疾雷不及掩耳.”

衆 5만 여구를 사로잡아서 귀환하였다.¹³ (『진서』 권109, 제기9 모용황)
 B-2. 『영화 2년(346) 정월 己卯(14일)] 이전에 부여는 鹿山에 자리하였는데, 백제의 침입을 받아 部落이 쇠약하고 흩어졌고, 서쪽으로 옮겨서 연과 가까워졌지만, 방비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燕王 [모용]황이 [모용]준을 보내 慕容軍·慕容恪·慕容根 세 장군과 1만 7천여 명의 기병을 통솔하여 부여를 습격하도록 하였다. [모용]은 中軍에 있으면서 지도하였고, 軍事는 모두 [모용]각에게 위임하였다. 마침내 부여를 공략하여 그 왕 [여]하과 部落 5만여 구를 포로로 잡아서 귀환하였다. [모용]황이 [여]현을 鎮軍將軍으로 삼고, [자신의] 王女로써 아내를 삼도록 하였다.¹⁴ (『자치통감』 권97, 진기19)

위 사료는 전연의 부여 공격에 관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료 B-2에 보이는 것처럼 부여는 백제의 침입을 받아 쇠퇴하였고, 서쪽으로 옮겨졌다고 한다.¹⁵ 그리고 사료 B-1·2에 나오듯 346년 전연의 공격을 받아 국왕을 비롯한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하였다.¹⁶

사료 B-2에 보이듯 전연으로 잡혀온 이후 국왕 부여현은 관직을 받고 왕녀(王女)와 결혼하였다고 하였다. 비단 국왕 부여현만 아니라 옥저로 피난하지 못

13 “三年 遣其世子儁與恪率騎萬七千東襲夫餘 克之 虜其王及部衆五萬餘口以還.”

14 “初 夫餘居于鹿山 爲百濟所侵 部落衰散 西徙近燕 而不設備 燕王皝遣世子儁帥慕容軍·慕容恪·慕容根三將軍·萬七千騎襲夫餘 儁居中指授 軍事皆以任恪 遂拔夫餘 虜其王玄及部落五萬餘口而還 皝以玄爲鎮軍將軍 妻以女.”

15 이때 백제의 정체에 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고구려로 보지만, 백제·전연·伯咄·勿吉로 보기도 한다. 부여의 중심지와 그 변천에 관해서도 다수의 학설이 제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사는 宋基豪,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韓國古代史研究』 37, 22~28쪽 및 이성계, 2008, 앞의 논문, 104~113쪽 및 이종수, 2016, 「부여 초기 및 전기왕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東洋學』 6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참조.

16 『자치통감』(사료 B-2)의 경우 ‘初’라고 하여 시점이 명확치 않지만, 『진서』(사료 B-1)와 비교해 시점의 차이를 보인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왕족·귀족의 적지 않은 수도 포로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들 또한 전연의 관직을 받고 전연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료 A-1·2의 부여 질자는 그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한다. 사료 A-2 즉 『자치통감』의 호삼성주에 나오듯 여율이 부여의 왕자였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질자에 관해 살펴보자. 먼저 342년 고구려-전연 전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왕실의 인질(왕모 주씨·왕비)과 남녀 5만여 명이 상기된다.¹⁷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C. [함강 8년(342) 11월] [모용]황이 장차 귀환하고자 하니, 한수가 말하였다. “고구려의 지역은 주둔해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군주가 패망하고 민은 흩어져 山谷에 숨었습니다. 大軍이 모두 떠나면 반드시 돌아와 비둘기처럼 모이고, 그 남은 병졸을 수습할 것이니, 여전히 우환이 될 것입니다. 그[고국원왕] 부친의 시신을 신고 그 생모와 처를 포로로 잡아 귀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국원왕이] 그 몸을 묶어 스스로 귀부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그들을 돌려주면서 은혜와 신의로써 위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모용황이 그 말을 좇았다. 釗(고국천왕, 재위: 331~371)의 부친 乙弗利(미천왕, 재위: 300~331)의 묘를 파서 그 시신을 신고, 그 府庫에 대대로 내려온 보물을 거두었으며, 남녀 5만여 구를 포로로 잡고 그 궁실을 불태웠으며, 丸都城을 허물고 귀환하였다.¹⁸ (『자치통감』 권97, 진기19)

위 사료는 342년 고구려-전연 전쟁의 결과를 전해주고 있는데, 주지하다

17 『진서』 권109, 재기9 모용황; 『자치통감』 권97, 진기19 함강 8년(342) 겨울 10월 및 11월.

18 “旣將還 韓壽曰 高句麗之地 不可戍守 今其主亡民散 潛伏山谷 大軍旣去 必復鳩聚 收其餘燼 猶足爲患 請載其父尸 囚其生母而歸 俟其束身自歸 然後返之 撫以恩信 策之上也 旣從之 發釗父乙弗利墓 載其尸 收其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毀丸都城而還.”

시피 전연은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 전쟁에서 모용황을 비롯한 전연의 주력은 남도에서 승리해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그러나 북도의 군대는 궤멸되었고 고국천왕은 항전을 지속하였다고 한다.¹⁹ 이에 위 사료처럼 모용황은 전쟁을 멈추고 귀환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한수(韓壽)의 발언이 주목된다.

한수는 전연의 군대가 철수한 이후 고구려가 재기하여 여전히 우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그는 고국천왕 부친의 시신을 탈취하고 왕모·왕비를 인질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한수의 제안이 수용되면서 고국천왕의 왕모·왕비는 전연의 인질이 되었던 것이다. 전연은 왕모·왕비만 아니라 5만여 명의 포로도 데려갔다. 그 5만여 명의 포로 중에는 지배층은 물론 왕족·귀족의 자제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사료 A-1·2에 보이는 고구려 질자의 일부가 기원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료에서 한수는 인질을 통해 고구려의 귀부를 받고 인질을 송환해 “은혜와 신의로써 위무”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한수의 대책이 장기적인 인질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사료 A-1·2의 고구려 질자와 관련하여서는 342년 고구려-전연 전쟁만 아니라 다음의 사료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D-1. 이듬해(342)에 쇄가 사신을 보내 모용황에게 칭신하였고, 그 나라의 方物을 조공하였다. 이에 그 부친의 시신을 돌려보냈다.²⁰ (『진서』 권109, 載記 9 慕容皝)

D-2. [건원 원년(343)] 봄 2월에 고구려왕 쇄가 그 아우를 보내 칭신하고 燕에 입조하였으며, 진귀하고 특이한 물품 수천을 조공하였다. 연왕 모용황은 곧

19 『자치통감』 권97, 진기19 함강 8년(342) 11월, “會王寓等戰於北道 皆敗沒 由是虜不復窮追 遣使招釗 釗不出.”

20 “明年 釗遣使稱臣於皝 貢其方物 乃歸其父尸.”

그 부친의 시신을 돌려주었지만, 여전히 그 모친은 머물도록 하여 인질로 삼았다.²¹ (『자치통감』 권97,晉紀19)

D-3. 영화 11년(355) 12월에 고구려왕 쇠가 사신을 보내 연에 이르도록 하였는데, 인질을 바치고(納質) 조공을 헌납하면서 그 모친을 청하였다. 燕主 모용준이 이를 허락하였다. 殿中將軍 刁龕을 보내 쇠의 모친 주씨를 송환해 그 나라로 귀환하도록 하고, 쇠를 征東大將軍·營州刺史으로 삼고 樂浪公에 봉하였으며 왕호는 이진과 같이 하였다.²² (『자치통감』 권100,晉紀22)

위 사료는 부친의 시신과 왕모 주씨를 송환받기 위한 고구려의 대(對)전연 교섭 사실을 전하고 있다. 먼저 사료 D-1·2는 고구려와 전연의 교섭으로, 사료 C에서 살펴본 전쟁 이듬해에 추진되었다. 사료 D-1(『진서』)과 D-2(『자치통감』)는 시점의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인 이해처럼 343년으로 보고자 한다.²³ 이를 보면 고구려는 칭신·입조하였고 각종 물품을 조공하였으며, 이에 부친의 시신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연은 여전히 왕모를 인질로 삼았다.

왕모의 송환은 사료 D-3에 보이는 것처럼 355년에서야 가능했다. 이때 고구려가 납질(納質)한 사실이 주목된다. 납질은 조공과 함께 왕모의 귀환을 위한

21 “春二月 高句麗王釗遣其弟稱臣入朝於燕 貢珍異以千數 燕王眺乃還其父尸 猶留其母爲質.”

22 “十二月 高句麗王釗遣使詣燕納質修貢 以請其母 燕主儁許之 遣殿中將軍刁龕 送釗母周氏歸其國 以釗爲征東大將軍·營州刺史 封樂浪公 王如故.”

23 이와 같은 차이는 『진서』에서 고구려와 전연의 전쟁을 함강 7년(341)으로 적은 데서 발생하였다(권109, 재기9 모용황). 『위서』에서도 建國 四年 즉 341년에 전쟁이 전개되었다고 기술하였다(권95, 열전83 慕容元眞 및 권100, 열전88 고구려). 한편 『양서』에서는 康帝 建元 元年 즉 343년의 일로 나온다(권54, 열전48 諸夷 高句麗). 각 사료의 차이는 향후 자세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원』(권30, 변이부 高麗)에 인용된 『십육국춘추』 前燕錄 및 『십육국춘추집보』(권24, 전연록2)에서 모용황 9년(함강 8년, 342)의 일로 적은 만큼, 일단은 이를 중시하여 전쟁을 342년으로, 사료 D-1·2의 교섭을 343년의 사건으로 보고자 한다.

반대급부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납질의 대상은 왕모의 귀환을 가능케 할 만큼 중요성이 높은 인물이었다고 짐작된다. 왕족·귀족의 자제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 A에 보이는 고구려 질자의 일부는 이때 보내졌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사료 A에 보이는 부여·고구려·상당은 전연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상당은 전연의 영역에 포함되어 지배받았다면, 부여·고구려는 국가 체제를 유지했다. 그런 만큼 질자의 목적과 성격 또한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상당은 물론 부여와 고구려의 질자 역시 전연의 우위를 인정하고 복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료 D-3의 표현처럼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보낸, 이른바 납질에 속하였던 것이다.²⁴ 그들의 전연 생활은 어떠하였을까.

Ⅲ. 질자의 전연 생활과 동상(東庠)

1. 피로인 사회와 인질·질자

부여·고구려 질자의 일부는 포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자를 이해하는 데는 포로를 빼놓을 수 없다. 먼저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E. 모용황의 記室參軍 封裕가 간언하였다. “[...] [고]구려·백제 및 우문·段部の 사람은 모두 무력으로 옮겨졌습니다. 中國人처럼 義를 사모해 온 것과 같지 않으니, 모두 귀국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고구려·백제·우문·단부의] 호가 약 10만으로, 都城에 밀집해 있습니다. 장차 국가에 심각한 해가 될까 걱

24 韓祐勣, 1960, 앞의 논문, 106~107쪽; 梁起錫, 1981, 앞의 논문, 45~46쪽, 52~53쪽 참조.

정됩니다. 마땅히 그 兄弟·宗屬을 나누어 서쪽 변경의 諸城으로 옮기고, 그 들은 은혜로써 위무하시고 법으로써 단속하시며, 거주민을 흠어지도록 하여 국가의 허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소서.”²⁵ (『진서』 권109, 載記9 慕容皝)

위 사료는 345년 전연 봉유가 모용황에게 올린 간언의 일부다.²⁶ 이때 봉유는 조세를 비롯한 전연의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 중심의 국가체제 정비를 위한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사민된 고구려·백제·우문·단부의 인민을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봉유는 그 수가 10여만 호라고 하였고, 또 무력으로 옮겨졌다고 하였다. 대부분 전쟁포로 즉 피로인(被擄人)이었던 것이다. 342년 전연은 고구려를 공격하여 5만여 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하였다. 위 사료에 보이는 전연의 고구려 피로인 중 다수는 그때 사민되었다고 생각된다.

봉유는 고구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피로인이 도성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341년 전연은 극성(棘城, 지금의 요령성 錦州市)에서 용성(龍城, 지금의 요령성 朝陽市)으로 천도하였다.²⁷ 그러므로 봉유가 간언을 올릴 당시 고구려의 피로인은 용성에 거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성에 밀집해 있었다(狹湊都城)고 해서 10여만 호가 모두 용성 내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용성 주변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용성으로 천도하기 이전부터 모용선비·전연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 유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위해 극성 주변에 교군(僑郡)을 설치하

25 “眺記室參軍封裕諫曰[···] 句麗·百濟及宇文·段部之人 皆兵勢所徙 非如中國慕義而至 咸有思歸之心 今戶垂十萬 狹湊都城 恐方將爲國家深害 宜分其兄弟宗屬 徙于西境諸城 撫之以恩 檢之以法 使不得散在居人 知國之虛實.”

26 池培善, 1998, 「前燕 慕容皝재위시의 사회 경제정책에 대하여-封裕의 상서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99, 16~41쪽. 특히 위 사료의 분석은 36~39쪽 참조.

27 『진서』 권109, 載記9 모용황, “咸康七年(341) 皝遷都龍城.”

였는데,²⁸ 이는 용성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용성 주변에 교군을 설치하고 이종족과 피로인을 사민하였다고 생각된다. 비단 전연만 아니라 오호십육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적대 세력의 주민을 자국의 도성 주변으로 사민하였다. 적대 세력을 약화시키고, 사민시킨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였다.²⁹ 나아가 전연은 그들을 농업생산력의 확보에 활용하고자 하였다고 이해된다.³⁰

그런데 위 사료에서 봉유는 피로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통제력을 상실하고 위험요소가 될까 걱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피로인의 형제(兄弟)·종속(宗屬)을 나누어 서쪽 변경의 제성(諸城)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리 통제책을 제안한 것이다. 봉유는 피로인을 분리하여 통제함으로써 항구적인 전연의 민으로 동화시키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연이 피로인을 자국의 민으로 간주하였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봉유의 간언에 나오듯 피로인은 선비족은 물론 한족(漢族)과 구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형제·종속’이란 표현이 주의된다. 형제·종속은 친족집단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적어도 345년 이전까지 고구려를 비롯한 제국(諸國)의 피로인은 이종족과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생각된다. 모용선비·전연의 교군도 출신에 따라 설정되었다.

모용황은 봉유의 개선책 중 일부를 수용해 시행했다.³¹ 모용황은 간언 중 일부만 수용하였던 것이다.³² 그런데 피로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28 『진서』 권109, 재기9 모용황, “時二京傾覆 幽冀淪陷 虜刑政修明 虛懷引納 流亡士庶多襁負歸之 虜乃立郡以統流人 冀州人爲冀陽郡 豫州人爲成周郡 青州人爲營丘郡 并州人爲唐國郡 於是推舉賢才 委以庶政”; 『자치통감』 권88, 진기 10 건흥 원년(313) 여름 4월,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虜 虜爲之置樂浪郡.”

29 三崎良章 著, 김영환 옮김, 2007, 『오호십육국』, 경인문화사, 174쪽.

30 王仲犛, 1979, 『魏晉南北朝史(上冊)』, 上海人民出版社, 260쪽.

31 池培善, 1998, 앞의 논문, 41~49쪽 참조.

32 『진서』 권109, 재기9 모용황, “統乃令曰 [...] 夫人臣關言於人主 至難也 妖妄不經之事皆應蕩然不問 擇其善者而從之.”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보아 피로인의 분리 통제책은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여겨지진 않는다.³³ 이 점에서 345년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까지 고구려 ‘피로인 사회’가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피로인 사회는 집단적으로 거주한 만큼 본국에서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전연의 입장에서도 피로인의 사회질서를 온존하도록 한 채 지배층을 매개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편이 용이하였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의 경우 왕모 주씨의 귀환을 위해 양국이 교섭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위 지배층은 국제관계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피로인 중 지배층은 별도로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은 346년 이후 사민된 부여의 피로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부여·고구려의 피로인 중에서 지배층은 일반민보다 우대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A에서 업성의 질자가 복문을 열었다고 한 사실이 상기된다. 이는 부여·고구려의 질자가 도성 내부에서 활동하였음을 말해준다.³⁴ 이는 용성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부여의 피로인 중 왕족·귀족의 일부는 전연의 관직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피로인 중 왕족·귀족도 동일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로인 중 왕족·귀족과 같은 상급의 지배층은 일반민과 구분되어 도성 내부에 거주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고국천왕의 왕모 주씨와 왕비처럼 인질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340년대 이후 전연의 용성 주변에는 고구려·부여의 피로인 사회가 형성되었는데, 상급 지배층은 그들과 달리 도성 내부에 거주하였고, 인질로 기능하였다고 하였다. 피로인이 전연의 민으로 간주되었다면, 인질은 송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관계에서, 또 피로인 사회의 통치에 활용하였다고 하였

33 이와 관련하여 4세기 중반 이후 전연이 중원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제한적으로만 사민하고 직접적인 지배를 도모했다는 사실(여호규, 2012, 「4~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67, 91~92쪽)이 참고된다.

34 宮崎市定, 1961, 「六朝時代華北の都市」, 『東洋史研究』 20-1,

다. 전연은 353년 용성에서 계성으로, 357년 계성에서 업성으로 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로인의 일부는 봉유의 간언처럼 제성(諸城)에 사민되었을 것이다. 차츰 분산되어 전연의 민으로 동화되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부여·고구려의 인질은 전연의 천도에 따라 도성으로 이주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부여·고구려의 인질이 모두 시종일관 전연에 체류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사료 D-3에서 고국천왕 왕모 주씨가 납질 이후 귀환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부는 교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338년 대(代, 310~376)의 왕제(王弟) 탁발십익건(拓跋什翼犍)은 후조(後趙)의 인질로 있다가 왕위계승을 위해 귀환했는데, 이를 위해 대에서는 또 다른 왕제 탁발고(拓跋考)가 대신 인질로 갔다고 한다.³⁵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비록 정기적인 교대는 없었다고 할지언정 가문의 승계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비정기적인 교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 355년 고구려의 납질처럼 별도의 인원이 차출되어 인질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주로 왕족·귀족의 자제, 즉 청소년·청년 연령의 질자가 보내졌을 것이다. 한편 전연의 입장에서 종래의 인질 중 청소년·청년 연령의 남성은 추후 파견·교대될 질자와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함께 질자를 구성했다고 이해된다. 그러면 사료 A에서 업성의 북문을 연 5백여 명의 질자는 모두 왕족·귀족의 자제였을까. 그와 같이 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다고 여겨져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국가와 시기를 달리하지만, 다음의 사료가 눈길을 끈다.

F. 이해(649)에 신라왕이 沙喙部 沙浪 金多遂를 보내 인질로 하였는데, 從者가 37명이었다.〈승려 1명, 侍郎 2명, 丞 1명, 達官郎 1명, 中客 5명, 才伎 10명, 譯語 1명, 雜僮人 16명, 총 37명이다.〉³⁶ (『일본서기』 권25, 孝德天皇)

35 『자치통감』 권96, 진기18 함강 4년 10월.

36 “是歲 新羅王遣沙喙部沙浪金多遂爲質 從者卅七人〈僧一人 侍郎二人 丞一人 達官郎一人 中客五人 才伎十人 譯語一人 雜僮人十六人 竝卅七人也〉.”

위 사료는 649년 신라와 왜의 교섭과 관련한 것이다. 신라에서 김다수를 보내자 왜에서 그를 질(質)로 삼았다고 하였다. 김다수는 『문관사림(文館詞林)』에 644년 신라가 당에 보낸 사신으로 확인된다.³⁷ 김다수의 행적과 신라-왜의 국제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 사료의 ‘質’을 일반적인 ‘인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찍이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보낸 납질로 보았지만, 위 사료의 질이 왜 측의 일반적인 인식일 뿐 실상은 외교 사절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³⁸

그럼에도 왜에서 신라가 보낸 모든 사신을 질로 삼지는 않았다. 사신 중 일부만 질로 하였다. 647년 왜에 사신으로 간 김춘추가 질이 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다.³⁹ 그러므로 질에 담긴 의미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김춘추·김다수처럼 사신 중 일부가 질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인질처럼 가능한 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김다수 일행의 인적 구성은 인질·질자를 이해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다수 일행은 그와 37명의 종자로 구성되었다. 위 사료의 주문에 종자의 구체적인 직책도 나온다. 시랑부터 중객까지는 중·하급 관인으로, 재기와 역어는 말단 관인 내지 이속(吏屬)으로 생각된다.⁴⁰ 넓은 의미의 지배층이었던 것이

37 『문관사림』 권664, 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書一首, “去年王使人金多逵還日 具有璽書 以水軍方欲進路 令王見大達官 將領入船 來相迎引.” 이 사료 및 입당 시점에 관해서는 주보돈, 1992, 「『문관사림』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관련 외교문서」, 『경북사학』 15; 최현화, 2009, 「『文館詞林』 소재 「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의 분석과 羅唐關係」,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24~25쪽 참조.

38 이재석, 2010, 「『日本書紀』大化 5년의 新羅使 金多逵에 관한 小考」, 고려대학교 일본사연구회 편,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 제이앤씨, 311~314쪽.

39 『일본서기』 권25, 효덕천황 3년(647), “是歲 新羅遣上臣大阿浪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顏善談笑.”

40 김현구 외,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3, 일지사, 142~143쪽;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35~236쪽의 주486~주492.

다. 이와 비교해 잡점인(雜僱人)은 시종(侍從)을 의미한다. 대부분 노비와 같은 처지의 피지배층이었다고 생각된다. 핵심적인 귀족 인질 1명에 중·하급 관인부터 노비와 같은 피지배층까지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인물이 함께 파견된 것이다.⁴¹ 종자집단은 신라의 질이 왜에서 생활하는 동안 업무를 보좌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왔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김다수 일행의 인적 구성을 참고해 보면, 부여·고구려에서도 질자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종자집단을 같이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인질·포로에서 질자가 된 이들 또한 종자집단과 함께 생활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료 A에서 업성의 복문을 연 5백여 명의 질자는 왕족·귀족의 자제와 그의 종자집단을 포함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들은 질관(質館)과 같은 별도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⁴² 거주구역을 특정함으로써 관리·통제 하에 두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이 고립적·폐쇄적이진 않았을 것이다. 왕족·귀족 출신 질자의 사회생활이 궁극하다. 그들은 전연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을까.

41 이와 관련하여 업성의 질자를 『십육국춘추집보』에서 ‘質民子弟’라고 한 사실이 참고된다(권29, 前燕錄7 慕容暉 建寧 11年). ‘질민자제’는 質과 民의子弟로 풀이된다. 비록 그 서술이 후대의 이해일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지위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서술로 파악되므로 본고의 논의에 참고된다.

42 梁起錫, 1981, 앞의 논문, 63쪽. 물론 현재로서 전연에 질관이 설립·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2세기 전반 선비와 후한의 교섭·교역 과정에서 후한이 質館 또는 質宮을 운영한 사실(『후한서』 권120, 오환선비열전80 선비, “安帝永初中 鮮卑大人燕荔陽詣闕朝賀 鄧太后賜燕荔陽王印綬 赤車參駕 令止烏桓校尉所居甯城下 通胡市 因築南北兩部質館 鮮卑邑落百二十部 各遣入質 是後或降或畔 與匈奴·烏桓更相攻擊”; 『삼국지』 권30, 위지30 오환선비동이전 선비, “裴松之注 魏書曰 [...] 漢賜鮮卑王印綬 赤車參駕 止烏丸校尉所治甯下 通胡市 築南北兩部質宮 受邑落質者 [百]二十部”)로 미루어 보면, 모용선비·전연도 후한의 질관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참고하여 그와 유사한 시설을 설립·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생각된다.

2. 질자의 임무와 동상

질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일찍이 도성 및 왕궁의 숙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부여 국왕 여현이 전연의 진군장군(鎭軍將軍)을 수여받은 사실이 상기된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부여·고구려의 질자 중 상당수도 전연의 관직을 수여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현이 수여받은 진군장군은 위진남북조 시기의 여러 장군호처럼 관작의 성격이 강했다. 이 시기의 장군호는 주로 정치권력의 강약과 지위의 고하를 표시하는 데 기능하였다.⁴³ 그러므로 이를 통해 그의 직무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사료 A에 보이는 여울의 활동과 관직이 관심을 끈다. 이때 여울이 질자였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가 질자를 이끌었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여울은 질자를 대표하였다고 짐작된다. 평소 질자와 밀접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변하기도 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울을 통해 질자의 사회생활을 추론해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울과 5백여 명의 질자는 업성의 북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이는 그들 중 일부가 평소부터 북문 지역의 수비와 무관하였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현존 업성 유적을 보면 북문은 궁궐구역과 연결해 있었다.⁴⁴ 따라서 ‘북문’을 열었다고 한 사실에 주목해 보면, 그들은 평소 도성만 아니라 왕궁과 인접한 데서 근무하였고, 일부는 도성과 왕궁의 숙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울이 산기시랑(散騎侍郎)이었다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산기(散騎) 관명은 진(秦, B.C. 221~206)에서 시작되었는데, 말을 타고 황제의 수레를 따른다(“騎而散從”)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⁴⁵ 산기시랑은 위진남북조 시

43 金翰奎, 1997, 『古代東亞世亞幕府體制研究』, 一潮閣, 319~320쪽.

44 錢國祥, 2015, 「魏晉南北朝都城의 形制結構」, 『중국고중세사연구』 35, 104쪽.

45 『通典』 권21, 직관3 宰相, “自秦置散騎 又置中常侍 散騎騎竝乘輿(騎而散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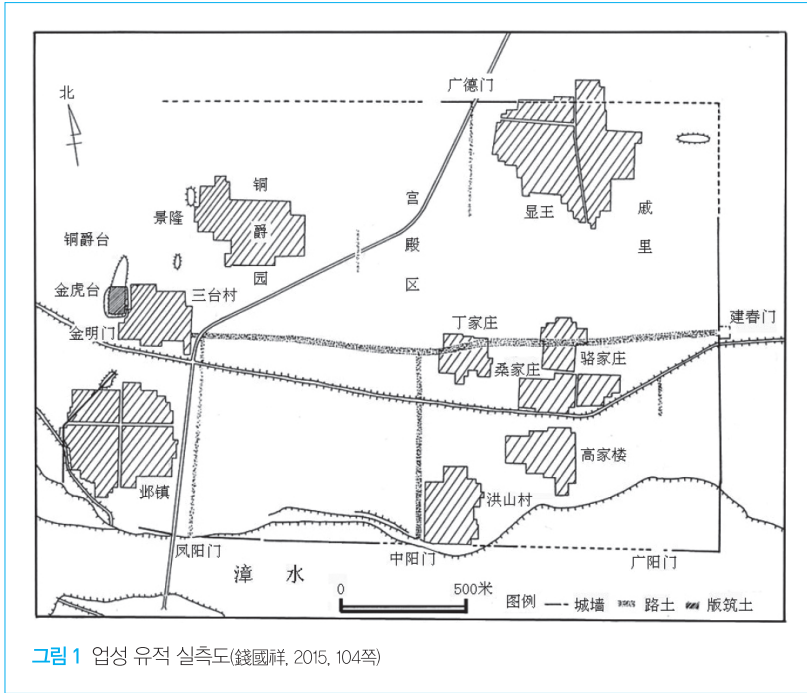


그림 1 업성 유적 실측도(錢國祥, 2015, 104쪽)

기의 관직으로 산기상시·시중·황문시랑과 함께 상서의 주사(奏事)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서진대부터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郎)도 설치·운영되었다.⁴⁶ 전연은 337년 모용황이 연왕(燕王)을 칭하며 본격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는데, 이를 위해 다수의 한인(漢人)을 중용하였다. 그들을 통해 『주례』에 나타난 제왕의 격식을 참고하고 조위·서진의 전례를 준용해 각

無常職》.”

46 『진서』 권24, 지14 직관, “通直散騎常侍 案魏末散騎常侍又有在員外者 泰始十年 武帝使二人與散騎常侍通員直 故謂之通直散騎常侍 江左置四人 通直散騎侍郎四人 初武帝置員外散騎侍郎 及太興元年 元帝使二人與散騎侍郎通員直 故謂之通直散騎侍郎 後增爲四人”; 『당육전』 권8, 門下省 左散騎常侍, “自魏至晉 散騎常侍·侍郎與侍中·黃門侍郎共平章尚書奏事 江左乃罷之 又有員外散騎侍郎 無常員 晉武所置.”

종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⁴⁷ 이로 미루어 보아 여율이 맡은 산기시랑은 조위·서진의 산기시랑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정원과 직무가 분명한 산기시랑보다 원외산기시랑이 아니었을까 한다.

물론 원외산기시랑이었다고 해도, 직무가 없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율이 원외산기시랑이었다고 해도 상서의 주문을 비롯한 국왕의 근시직 업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동진 이후의 원외랑 즉 원외산기시랑 중에서 태자첨사승(太子詹事丞)을 뽑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⁴⁸ 예컨대 남조 유송(劉宋, 420~479)의 강병지(江秉之)는 전례에 따라 원외산기시랑으로 태자의 첨사승(詹事丞)을 역임하였다고 한다.⁴⁹ 이때의 전례는 동진의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를 참고해 보면 전연의 원외산기시랑 중 일부도 세자와 밀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에서 부여·고구려의 질자와 전연의 세자·왕족 자제의 관계가 생각된다. 가령 후연(後燕, 384~409)을 세운 모용수(재위: 384~396)는 후술하듯이 여율을 중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전연에서의 맺어진 인적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이해된다.⁵¹ 여타의 질자 출신도 전연의 세자·왕족 및 귀족 자제와 인적

47 『진서』 권109, 재기9 모용황, “奕等以號任重位輕 宜稱燕王 號於是 以咸康三年 僭即王位 赦其境內 以封奕爲國相 韓壽爲司馬 裴開·陽鶩·王寓·李洪·杜羣·宋該·劉瞻·石琮·皇甫真·陽協·宋晃·平熙·張泓等並爲列卿將帥 起文昌殿 乘金根車 駕六馬 出入稱警蹕 以其妻段氏爲王后 世子僞爲太子 皆如魏武·晉文輔政故事.”

48 『당육전』 권26, 太子三師三少詹事府左右春坊 太子詹事府, “晉令 詹事丞一人 品第七 銅印·墨綬 進賢一梁冠 皂朝服 局擬尙書左·右丞 過江 多用員外郎及博士爲之 遷爲尙書郎.”

49 『송서』 권92, 열전 52 良吏 江秉之, “初爲劉穆之丹陽前軍府參軍 高祖督徐州 轉主簿 仍爲世子中軍參軍 宋受禪 隨例爲員外散騎侍郎 補太子詹事丞 少帝即位 入爲尙書都官郎 出爲永世·烏程令 以善政著名東土.”

50 김택민 주편, 2008, 『역주 당육전』 하, 신서원, 261쪽 주77.

51李明仁, 2012,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慕容鮮卑와의 관계 및 문화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7, 259~260쪽.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 G-1. 平原의 劉讚은 儒學에 해박·통달하였으므로 초빙해 東庠의 齋주로 삼았다. 그 世子 [모용]황은 國胄를 이끌고 입학의 예물을 바친(東修) 후 [그로부터] 수업받았다. [모용]외도 정무의 여가에 친림하여 칭강하였다. 이에 길에 칭송의 소리가 있었고, 禮讓이 흥성하였다.⁵² (『진서』 권108, 재기8 모용외)
- G-2. [태흥 4년(321) 12월] [모용]외가 [모용]황을 세워 世子로 삼았다. 東橫〈橫은 龔과 같다. 學舍이다. 載記에서는 東庠이라고 하였다.〉을 짓고 평원의 유찬을 齋주로 삼았다. [모용]황으로 하여금 諸生과 함께 수업받도록 하고, [모용]황은 여가를 얻으면 또한 친림하여 칭강하였다.⁵³ (『자치통감』 권91, 진기13)

위 사료는 모용선비 모용외 재위기의 ‘동상’ 설립과 세자 교육에 관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료 G-1에서는 동상, 사료 G-2에서는 동횡(東橫)으로 나온다. 『자치통감』(사료 G-2) 호삼성 주에 횡(橫)의 의미가 자세히 나온다는 점에서 동횡이 본래의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치통감』에 수록된 봉유의 간언을 보면, 이를 상서(庠序)로 지칭하였다.⁵⁴ 이로 미루어 보아 애초의 명칭이 동횡이었다고 해도, 상서로 인식되었고 차후 동상으로 명명되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상(庠)은 상(商)·주대(周代)의 대학이었다.⁵⁵ 전한(前漢) 무제

52 “平原劉讚儒學該通 引爲東庠祭酒 其世子毓率國胄東修受業焉 龐覽政之暇 親臨聽之 於是路有頌聲 禮讓興矣.”

53 “龐立子毓爲世子 作東橫〈橫與龔同 學舍也 載記作東庠〉以平原劉讚爲祭酒 使毓與諸生同受業 龐得暇亦親臨聽之.”

54 『자치통감』 권97, 진기19 영화 원년(345) 봄 정월 甲戌朔(1일), “記室叅軍封裕上書諫 [···] 毓雅好文學 常親臨庠序講授考校 學徒至千餘人 頗有妄濫者 故封裕及之.”

55 『禮記注疏』 卷13, 王制, “上庠右學 大學也 在西郊 下庠左學 小學也.”

대(武帝代, B.C. 141~B.C. 87) 상·주대의 대학을 모범으로 삼아 태학을 세운 이후 중원의 여러 왕조에서는 중앙의 국립학교로 태학을 설립·운영하였는데, 전문적인 유교 교육기관이었다.⁵⁶ 모용외가 설립한 동상 또한 유교 교육기관이었다고 보인다. 사료 G-1에서 동상의 교수가 된 유찬이 유학에 해박·통달하였다고 한 점, 동상의 설립 이후 예양(禮讓)이 흥성하였다고 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H-1. ㉠ 기실참군 봉유가 간언하였다. “[...] 四業(士農工商)은 나라의 자산이고, 敎學은 나라의 盛事가 있도록 합니다. 전투를 익히고 농사에 힘쓰는 것은 그 근본의 으뜸입니다. 여러 工人과 商人은 오히려 그 말단일 뿐입니다. 마땅히 軍國의 필요한 바를 헤아려 그 인원수를 두어야 하고, 이외의 [인원은] 귀농시켜야 합니다. 戰法을 교육하는 데 學生으로 3년 동안 성취가 없으면, 또한 마땅히 귀농시켜야 합니다. [...]” ㉡ 그 大臣子弟에게 은혜를 베풀어 官學生으로 삼고 高門生이라고 이름하였다. 舊宮에 東庠를 세우고 鄉射禮를 행하였는데, 매일 친림하여 관람하고, 우열을 考試하였다. [모용] 황은 文籍을 아름답게 여기고 좋아하여 講授에 노력하였으니, 學徒가 매우 많아 천여 명에 이르렀다. 친히 『太上章』을 지어 『急就(篇)』를 대신하도록 하였고, 또한 『典誡』 15편을 저술해 胄子를 가르쳤다.⁵⁷ (『진서』 권109, 재기9 모용황)

H-2. ㉠ 영화 원년(345) 봄 정월 甲戌朔(1일), 기실참군 봉유가 上書하여 간언

56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옮김, 2011,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 함께, 765~766쪽; 渡邊義浩 지음, 김용천 옮김, 2011, 『후한 유교국가의 성립』, 동과서, 25~29쪽 참조.

57 “記室參軍封裕諫曰 [...] 四業者 國之所資 敎學者 有國盛事 習戰務農 尤其本也 百工商賈 猶其末耳 宜量軍國所須 置其員數 已外歸之於農 敎之戰法 學者三年無成 亦宜還之於農 [...] 賜其大臣子弟爲官學生者 號高門生 立東庠于舊宮 以行鄉射之禮 每月臨觀 考試優劣 號雅好文籍 勤於講授 學徒甚盛 至千餘人 親造太上章以代急就 又著典誡十五篇 以教胄子.”

하였다. “[...] 工商은 末利이니 마땅히 정원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으로 3년 동안 성취가 없는 자는, 단지 총명하고 뛰어난 인재의 길을 막을 뿐이니, 모두 마땅히 귀농시켜야 합니다. [...]” ㉠ [모용]황은 文學을 아름답게 여기고 좋아하여 항상 庠序에 친림하여 講授하고 考試하였으니, 학도가 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자못 망령되고 외람된 자가 있었으므로 봉유가 그와 같이 상서한 것이다.⁵⁸ (『자치통감』 권97, 진기19)

위 사료는 사료 E와 마찬가지로 345년 전연 봉유가 모용황에게 올린 간언의 일부인데(㉠), 그와 관련한 사서 찬자의 보충설명이 추가되어 있다(㉡).⁵⁹ 사료 H-1(『진서』)이 보다 자세하지만, 사료 H-2(『자치통감』)에서도 비교·참고할 대목이 있다.

먼저 사료 H-1·2의 ㉠에서 봉유의 간언 중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귀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 주목된다. 이때 학생의 실체는 H-1·2의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모용황은 매일 동상에 친림했다고 하며 이에 학생의 수가 천여 명이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에서 봉유가 말한 학생은 구체적으로 동상의 학생이었다고 파악된다. 사료 G-1·2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용황은 세자(世子)의 자격으로 동상에서 수학하였고, 부왕 모용외도 종종 친림하였다고 하였다. 모용황은 동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의 재위시 동상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교육되었을까.

모용외가 설립한 동상은 유교 교육기관이었다고 하였다. 위 사료에 보이듯 모용황 또한 문적(文籍) 내지 문학(文學)을 좋아하였다고 하였다. 직접 『태상장

58 “記室叅軍封裕上書諫 [...] 工商末利 宜立常員 學生三年無成 徒塞英雋之路 皆當歸之於農 [...] 孰雅好文學 常親臨庠序 講授考校 學徒至千餘人 頗有安濫者 故封裕及之.”

59 이하 동상과 관련한 내용은 이정빈, 2014, 「고구려 태학 설립의 배경과 성격」, 『한국교육사학』 36-4를 수정·보완하였다.

《太上章》과 같은 아동용 사전(字典)을 편찬했고,⁶⁰ 『진계(典誡)』와 같은 계자서(誡子書)를 저술해 주자(胄子)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한문(漢文)으로 된 ‘중국’의 학문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아 동상의 주요 교육내용은 한문으로 된 중국의 학문이었고, 그중에서 유교가 중시되었다고 생각된다. 가령 모용황은 347년 동상의 고시에서 경전(經典)에 뛰어난 자를 뽑아 근시직으로 삼았다고 하는데,⁶¹ 이때 경전은 유교 경전을 의미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동상의 설립과 운영은 전연의 여러 국가체제 정비와 함께 한화정책(漢化政策)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모용황은 연왕을 칭하기 전부터 유목·수렵사회의 지배자만이 아니라 농경사회의 지배자임을 천명하였는데,⁶² 다수의 한족(漢族)을 지배하고 나아가 농경사회 중심의 중원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화정책이 요구되었다.⁶³ 그런데 현전 사료에 나타난 모용선비의 한화정책은 한족·중원왕조의 관점에서 주목된 것이다.⁶⁴ 예컨대 『진서』 찬자는 한화정책의 추진 여부를 두고, 오호십육국의 흥망성쇠를 논하였고 그를 포괄하였다.

하지만 오호십육국의 국가체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한화정책이 추진된 국가조차 종래의 유목·수렵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소멸되거나 전면적으로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이른바 호한분치(胡漢分

60 『太上章』은 『急就』를 대신하였다고 하는데, 『急就』는 漢의 元帝代(B.C. 76~B.C. 33) 史游가 편찬한 『急就篇』을 말한다. 이 책은 學童 즉 아동이 서책을 읽을 수 있게 문자를 학습시킨 字典의 일종이었다. 따라서 『太上章』은 아동용 사전이었다고 파악된다.

61 『진서』 권109, 재기9 모용황, “[영화 3년(347)] 孰親臨東庠考試學生 其經通秀異者 擢充近侍.”

62 『진서』 권109, 재기9 모용황, “置藉田於朝陽門 置官司以主之.”

63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 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237쪽.

64 杉山正明 지음, 이진복 옮김, 1999, 『유목민이 본 세계사-민족과 국경을 넘어-』, 학민사, 201~204쪽.

治)의 원칙이 관철되었고,⁶⁵ 지배층의 경우 기존의 전통이 강고히 온존한 면면도 종종 찾아진다. 전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352년 전연이 대위(大魏) 황제를 칭한 염민(冉民, 재위: 350~352)을 제압하고 업성을 차지하였을 때, 군신(羣臣)은 모용준(재위: 348~360)에게 칭제를 권유하였지만, 모용준은 스스로 ‘머나먼 변경의 수렵지대 출신으로 오랑캐의 풍속을 지녔으므로 칭제가 분수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사양하였다.⁶⁶ 비록 겸양을 내세운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지만, 동상의 교육을 받은 국왕조차 여전히 선비족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상의 설립과 운영을 한화정책의 일부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봉유의 간언 내용 중 학생의 성취를 언급한 대목이 주의된다. 『자치통감』 찬자가 설명한 것처럼 동상의 학생 중에는 자질이 부족한 학생이 있었는데(사료 H-2-㉞), 봉유는 그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를 걱정하였던 것이다. 사료 H-1·2에서는 모두 학생으로 3년 동안 성취가 없으면 귀농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 중 사료 H-1에 그 교육내용이 전법(戰法)으로 나와 주목된다. 봉유는 사업(四業, 土農工商) 중 공상(工商)을 말(末)로 보았는데, 그가 본(本)으로 본 것은 “습전무농(習戰務農)”이었다. 농업과 아울러 군사교육이 강조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봉유가 말한 사업(四業) 중의 사(土), 즉 지배층의 중심은 전사(戰士)였고, 성사(盛事) 즉 국가의 전성을 가능케 할 교학(敎學)도 전법의 교육에 있었다고 파악된다.

사료 H-1에서 매일 실시된 동상의 고시가 향사례(鄉射禮)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도 눈길이 간다. 향사례는 활쏘기를 중심으로 한 의례로 중원왕조에서도 유교적인 예법에 입각한 인재선발방식의 하나로 기능하였다. 동상의

65 이에 관한 諸說은 여호규, 2012, 앞의 논문, 99~100쪽 참조.

66 『진서』 권100, 재기10 慕容儁, “幹單騎還鄴 於是羣臣勸稱尊號 儁答曰 吾本幽漠射獵之鄉 被髮左衽之俗 曆數之錄寧有分邪 卿等苟相褒舉 以覬非望 實匪寡德所宜聞也.”

향사례 또한 그러한 전례를 참고하여 개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매월 동상에서 향사례가 개최되었고, 이를 고시(考試)하였다라는 사실은 활쏘기가 중시된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활쏘기와 같은 군사훈련이 동상의 중요한 평가기준 중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전법과 군사훈련 또한 동상의 주요 교육내용이자 평가기준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동상의 교육내용은 유교를 비롯한 중국의 학문이 포함되었고 또한 이를 중시하였지만, 그 안에는 전법과 군사훈련이 포함되었다. 동상은 전문적인 유교 교육기관이었던 여러 중원왕조의 태학과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선비는 동호(東湖)의 지파(支派)로 오환(烏桓)과 언어와 풍속이 같다고 하였다.⁶⁷ 선비·오환은 동쪽으로 시라무렌부터 내몽골 초원지대에 거주하였고, 유목·수렵생활을 하였다고 한다.⁶⁸ 여타의 유목·수렵종족처럼 기사(騎射)에 능숙하였다고 하는데, 용맹하고 건실해야 지도자(大人)로 추대받았다고 한다.⁶⁹ 전연의 지배층은 이와 같은 유목·수렵문화의 전통을 계승해 군사적인 역량을 중시하였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전연의 군대는 기병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기병의 핵심은 선비족이었고,⁷⁰ 핵심적인 지휘부는 모용씨 출신의 종친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⁷¹ 그러므로 전연의 지배층은 선비족 전통의 기사(騎射)와 군사적인 역량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에 동상에서도 전법과 군사훈련을 주요 교육내용에 포함

67 『후한서』 권120, 오환선비열전80 선비, “鮮卑者 亦東胡之支也 別依鮮卑山 [...] 其言語習俗與烏桓同”; 『삼국지』 권30, 위지30 오환선비동이전 선비.

68 『후한서』 권120, 오환선비열전80 오환, “烏桓者 本東胡也, [...] 餘類保烏桓山 因以爲號言.”

69 『후한서』 권120, 오환선비열전80 오환, “俗善騎射 戈獵禽獸爲事 [...] 有勇健能理治鬪訟者 推爲大人.”

70 『자치통감』 권99, 진기21 영화 8년(352) 정월, “慕容恪巡陳 [...] 閱以所將多步卒 而燕皆騎兵 [...] 乃擇鮮卑善射者五千人 以鐵鎖連其馬爲方陳而前.” 전투 중 활을 잘 쏘는 鮮卑人을 뽑았다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71 여호규, 2012, 앞의 논문, 106쪽.

시켰다고 생각된다. 전법과 군사훈련의 교육은 모용선비의 전통적인 면모였던 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원왕조의 태학과 같은 유교 교육과 선비족 전통의 군사 교육의 혼재된 전연의 동상은 호한융합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와 부여·고구려 질자의 관계가 궁금하다. 동상의 학생에 관해 생각해 보자.

사료 G-1·2에서 모용외는 모용황을 세자로 삼고 동상을 설립하였다고 하였는데, 사료 G-1에 나오듯 세자 모용황은 국주(國胄)를 이끌고 동상에서 수업받았다고 하였다. 사료 G-2에서는 제생(諸生)이라고 하였다. 세자와 다수의 왕족·귀족 자체가 동상에서 함께 수업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상은 세자를 위시하여 다수의 왕족과 귀족 자제를 교육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은 모용황 재위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사료 H-1에 나오듯 모용황은 대신자제를 관학생(官學生)으로 삼고 고문생(高門生)이라고 이름하였고, 직접 주자(胄子) 즉 왕족·귀족의 자제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그들이 동상의 주된 교육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때 대신 또는 국주·주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모용황 재위시 동상의 학생 수는 천여 명에 육박하였고, 자질이 부족한 학생을 귀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실에 주목해 보면, 동상의 교육대상은 상급 귀족만 아니라 중·하급의 귀족 내지 말단의 지배층까지 확대되었다고 보인다.

여기서 부여왕 여현이 진군장군을 수여받은 사실을 상기해 보면, 부여·고구려의 질자 중 일부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록 부여·고구려의 질자가 처음부터 동상의 학생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할지언정 차후 동상의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여율과 같이 부여·고구려의 질자 중 일부가 원외산기시랑과 같은 관직을 역임하면서 전연의 왕족 자제와 밀접하였다고 한다면, 질자가 동상에서 수학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⁷²

72 다음과 같은 사례도 참고된다. 『진서』 권113, 제기13 부견상, “翼犍戰敗 遁于弱水

이상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부여·고구려의 질자는 전연의 동상을 통해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학문을 익히고 각종 한화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파악된다. 또한 호한융합의 문물을 경험하였다고 이해된다. 370년 이전에도 부여·고구려의 질자 중 일부가 교대로 왕래하였음은 물론이고 전연의 멸망 이후 상당수가 귀환하였다고 보인다. 전연의 멸망 이후 그들의 활동이 궁금하다.

IV. 질자의 귀환과 활동

370년 전연의 멸망 이후 부여계 인물의 일부는 그 지역에 남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활동상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⁷³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부여의 왕족·귀족 출신은 전진을 거쳐 후연과 남연(南燕, 398~410)에서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고,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앞서 4세기 중반 부여·고구려의 피로인 10여만 명이 사민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후손은 4세기 후반~5세기 전반까지 집단적으로 거주하였고, 전진·후연·남연의 군사력으로 기능하였다.⁷⁴ 이때 부여계 왕족·귀족 출신은 군사력의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전진·후연·남연의 입장에서도 부여계 왕족·귀족 출신이 요구되었고, 일부를 중용하였다고 이해된다.⁷⁵ 그와 같은 중용의 배경에는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부여의 질자가 전연의 왕족·귀

苻洛逐之 勢窘迫 退還陰山 其子翼圭縛父請降 洛等振旅而還 封賞有差 堅以翼圭荒俗 未參仁義 令入太學習禮 以翼圭執父不孝 遷之於蜀 散其部落於漢郭邊故地.”

73 姚薇元, 1962, 『北朝胡姓考』, 中華書局, 269~270쪽; 余昊奎,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4세기 후반 夫餘系 人物의 동향과 관련하여-」, 『震檀學報』 91, 19~24쪽, 및 특히 19쪽의 표1 참조.

74 여호규, 2012, 앞의 논문, 107~108쪽.

75 余昊奎, 2001, 앞의 논문, 20쪽.

〈표 1〉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부여계 인물의 동향

인명	연대	활동 내용
餘蔚	384년 정월	滎陽太守 → (後燕) 征東將軍 · 統府 左司馬 · 夫餘王
	392년 7월	(後燕) 右光祿大夫 → 左僕射 [夫餘王]
	396년 5월	(後燕) 夫餘王 · 太傅
餘巖	385년 7월	(後燕) 建節將軍 → 반란: 武邑 · 薊城 · 令支 점거
	385년 11월	반란실패(참수)
餘嵩	396년 1월	(後燕) 鎮東將軍
餘崇	397년 3 · 4월	(後燕) 中堅將軍 · 建威將軍: 餘嵩의 자
	398년 3 · 4월	鹵汗의 반란에 피난 → 鹵加難에게 피살
餘超	399년 4월	(後燕) 散騎常侍 → 모반 연루 주살
餘鬱	406년 9월	(南燕) 鎮西大將軍 → 石塞城에서 전사
餘熾	未詳	(南燕) 壽光公

족과 인적 관계를 맺었던 사실도 일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346년 전연의 공격을 받아 부여가 대파되었고, 「모두루묘지」에 보이듯 고구려가 북부여수사(北扶餘守事)를 두었다는 점에서 4세기 중반 이후 녹산(鹿山)을 중심으로 하였던 종래 부여 영역의 상당 부분은 고구려의 세력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이해된다. 이에 이 무렵 부여의 역사가 종막을 고하였다도 보기도 하였다.⁷⁶ 그런데 457년 북위에 조공한 50여 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우전(于闐)과 부여였다.⁷⁷ 또한 494년 부여의 왕실은 고구려에 항복하였다고 전한다.⁷⁸ 이로 보아 5세기 후반까지 부여는 미약하게나마 왕조를 유지해 나갔다

76 李丙燾, 1976, 「扶餘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22쪽.

77 『위서』 권5, 고종기5 태안 3년(457) 12월, “是月 于闐 · 扶餘等五十餘國各遣使朝獻.”

78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명왕 3년(494) 2월, “扶餘王及妻孥 以國來降.”

고 판단된다.⁷⁹

5세기 후반의 부여에 관해서는 504~507년 무렵 북위에 사신으로 간 고구려 예실불(芮悉弗)의 발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⁸⁰ 예실불은 부여가 고구려에 신속해 있었는데, 물길의 압박을 받아 그 왕실을 자국의 영역 내에 안치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346년 전연에 대파된 이후는 물론 5세기 후반까지 부여는 형식적으로 전연과 고구려에 신속되어 있었지만, 왕조를 유지한 채 국가체제를 운영해 나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연이 멸망한 370년 이후 부여 질자의 일부는 귀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연의 인질이 된 구(舊)왕실과 신속관계를 맺고 새로이 구성된 신(新)왕실 간의 정치권력 문제로 인해 귀환의 여부가 갈리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부여로 귀환한 질자 출신의 활동은 추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전연에서 고구려의 질자와 함께 생활한 사실을 감안해 보면, 차후 부여-고구려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의 질자 출신 또한 일부는 전연 지역에 남아 전진~남연에서 활동하였다고 파악되지만, 부여와 비교해 대부분 귀환하였다고 보인다. 물론 그들의 활동 역시 살펴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국가체제 정비를 보면 그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372년 고구려 태학의 설립과 373년 율령의 반포가 주목된다. 흔히 태학의 설립과 율령의 반포는 연이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밀접하였다고 이해된다. 고구려의 태학은 율령에 포함된 중국식 학교제도(學令)의 수용을 의미한다고 해석

79 朴京哲, 1994, 앞의 논문; 朴京哲, 2011, 앞의 논문, 39~40쪽;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512~513쪽 및 517쪽; 송호정, 2013, 앞의 논문, 22~23쪽; 송호정, 2015, 앞의 책, 96~97쪽.

80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 “正始中(504~507)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되었다.⁸¹ 이때 태학은 물론 울릉도 서진·동진(317~420)과 같은 한족(漢族)이 세운 중원왕조의 제도를 수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동진은 왕조의 수립 직후인 317년에 태학을 설립하였다.⁸² 그러나 동진의 태학 운영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동진의 세속(世俗)은 노장에 심취했고 이 때문에 유교는 결국 진흥되지 못하였고, 치폐를 반복하였다고 한다.⁸³ 이로 보아 고구려의 태학이 동진에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의 태학 설립에 관한 사실이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한 사실과 연이어 나온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⁸⁴

전진의 국왕 부견은 불교는 물론이고 유교 역시 중시하였고, 학교의 진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⁸⁵ 그는 매월 한 차례 태학에 친림해 박사(博士)와 제생(諸生)을 독려하며 경의(經義)를 고시(考試)하였고,⁸⁶ 관민(官民)에 유교를 장려하였다.⁸⁷ 심지어 노장(老莊)과 도참(圖讖)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유교진흥정책

81 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110쪽 및 163쪽; 金賢淑, 1996, 「체제정비」, 노태돈 외, 『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 I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52~53쪽.

82 『자치통감』 권90, 진기12 건무 원년(317) 11월 丁卯(19일), “始立太學.”

83 『송서』 권14, 지4 禮1, “國子祭酒袁瓌·太常馮懷 又上疏曰 [...] 由是議立國學 徵集生徒 而世尚莊老 莫肯用心儒訓.”

84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소수림왕 2년(372) 여름 6월, “秦王符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迴謝 以貢方物 立大學 教育子弟.”

85 『진서』 권113, 재기13 부견상, “堅臨太學 考學生經義 上第擢叙者八十三人 自永嘉之亂 庠序無聞 及堅之僭 頗留心儒學 王猛整齊風俗 政理稱舉 學校漸興 關隴清晏 百姓豐樂.”

86 『진서』 권113, 재기13 부견상, “(5년: 361) 堅親臨太學 考學生經義 優劣品而第之 問難五經 博士多不能對 堅謂博士王寔曰 [...] 堅自是每月一臨太學 諸生競勸焉.”

87 『자치통감』 권103, 진기25 함안 2년(372) 3월 戊午(25일), “秦王堅詔 關東之民 學通一經才成一藝者 在所以禮送之 在官百石以上 學不通一經才不成一藝者 罷遣還民.”

을 추진하였다.⁸⁸ 이로 보아 고구려 태학의 제도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전진에서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진의 태학도 전연과 마찬가지로 전법과 군사훈련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⁸⁹ 호한융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고구려의 경당(肩堂)이 상기된다. 경당에서는 독서(讀書)처럼 유교적인 학문을 교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습사(習射)와 같은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⁹⁰ 경당은 고구려의 청소년조직의 유제를 개편한 것으로, 태학 역시 설립 초기에는 청소년조직의 유제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이해된다. 이 점에서 고구려에 태학이 설립된 초기에는 유교만이 아니라 군사도 교육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⁹¹

이처럼 고구려의 태학은 전연·전진과 통한다는 면이 있다. 그리고 보면 태학의 설립에는 동상에서 수학한 전연의 질자 출신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동상에서 익힌 중국의 학문과 각종 한화정책, 그리고 호한융합의 문물이 태학의 설립에 반영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태학과 밀접하다고

88 『자치통감』 권103, 진기25 영강 3년(375) 겨울 10월 癸酉朔(1일), “秦王堅下詔曰 新喪賢輔 百司或未稱朕心 可置聽訟觀于未央南 朕五日一臨 以求民隱 今天下雖未大定 權可偃武修文 以稱武侯雅旨 其增崇儒教 禁老莊·圖讖之學 犯者棄市 妙簡學生太子及公侯百僚之子 皆就學受業 中外四禁·二衛·四軍長上·將士 皆令受學 二十人給一經生 教讀音句 後宮置典學 以教掖庭 選閹人及女隸慧慧者 詣博士授經 尚書郎王佩讀讖 堅殺之 學讖者 遂絕。”

89 『자치통감』 권104, 진기26 태원 5년(380) 2월, “作教武堂于渭城 命太學生明陰陽兵法者 教授諸將 祕書監朱彤諫曰 陛下東征西伐 所向無敵 四海之地 什得其八 雖江南未服 蓋不足言 是宜稍偃武事 增修文德 乃更始立學舍 教人戰鬪之術 殆非所以馴致升平也 且諸將皆百戰之餘 何患不習於兵而更使受教于書生 非所以彊其志氣也 此無益於實而有損于名 惟陛下圖之 堅乃止 [...] 其大臣子弟爲官學生者 號高門生 立東庠于舊宮 以行鄉射之禮 每月臨觀 考試優劣 號雅好文籍 勤於講授 學徒甚盛 至千餘人.”

90 李基白, 1996, 「高句麗의 肩堂 -韓國 古代國家에 있어서의 未成年集會의 一遺制」, 앞의 책, 96~97쪽.

91 이상 고구려 태학의 설립과 배경은 이정빈, 2014, 앞의 논문 참조.

믿어지는 율령도 마찬가지로였다.

물론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국가체제 정비가 전연·전진과 같은 오호십육국과 동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물의 수용에는 고구려의 능동적인 선택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다만 고구려와 모용선비·전연의 전쟁·교류, 그리고 질자의 파견과 귀환은 선택을 위한 학습과 경험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V. 맺음말

370년 전연의 업성이 함락되었다. 이때 부여·고구려·상당의 질자 5백여 명이 복문을 열었다. 이 중에서 부여·고구려의 질자는 340년대부터 두어졌다. 양국의 질자는 모두 전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의 우위를 인정하고 복속한다는 의미에서 질자를 보냈다. 업성의 부여·고구려 질자는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보낸, 이른바 납질(納質)이었다.

전연은 부여·고구려를 공격해 다수의 포로를 끌고 갔다. 그리하여 340년대 이후 전연의 용성 주변에는 부여·고구려의 피로인 사회가 형성되었는데, 상급 지배층은 그들과 구분되었다. 상급의 지배층은 도성 내부에 거주하였고, 부여·고구려와의 국제관계에서 인질로 기능하였으며, 피로인 지배에 활용되었다. 그 중 남성 자제가 질자였다. 질자의 일부는 교대되기도 하였다.

부여·고구려의 질자는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종자집단과 함께 생활했다. 업성의 복문을 연 5백여 명의 질자 또한 종자집단을 포함했다. 질자와 종자집단은 질관(質館)과 같은 별도의 시설에 거주했다. 그들 중 일부는 도성과 왕궁의 숙위업무를 담당했고, 전연의 관직을 얻기도 했으며, 동상과 같은 학교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유교를 비롯한 학문을 익히고 한화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호한융합의 문물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전연의 멸망 이후 일부의 질자 출신은 전진~남연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다

른 일부는 부여·고구려로 귀환했다. 귀환한 질자 출신은 부여와 고구려에서 국가체제 정비에 일익을 담당했다. 예컨대 고구려의 태학은 전연·전진에서 수용했는데, 그 설립에는 동상에서 수학한 전연의 질자 출신이 관여했다. 전연의 학문과 한화정책, 그리고 호한융합의 문물이 태학의 설립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태학과 밀접하다고 믿어지는 율령도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태학과 율령을 비롯한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국가체제 정비가 일방적인 문물 수용의 결과는 아니었다. 고구려의 선택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 점에서 질자의 전연 생활은 그러한 선택을 위한 학습과 경험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 김택민 주편, 2008, 『역주 당육전』 하, 신서원.
- 金翰奎, 1997, 『古代東亞世亞幕府體制研究』, 一潮閣.
- 김현구 외,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3, 일지사.
-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 池培善,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 渡邊義浩 지음, 김용천 옮김, 2011, 『후한 유교국가의 성립』, 동과서.
- 미조구치 유조 외 역음,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옮김, 2011,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 함께.
- 三崎良章 著, 김영환 옮김, 2007, 『오호십육국』, 경인문화사.
- 杉山正明 지음, 이진복 옮김, 1999, 『유목민이 본 세계사－민족과 국경을 넘어－』, 학민사.
-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 공석구, 2003, 「高句麗와 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4－고대국가의 대외관계－』,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金賢淑, 1996, 「체제정비」, 노태돈 외, 『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 I－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 金洪培, 2016, 「中國學界의 高句麗와 慕容鮮卑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5.
- 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 梁起錫, 1981,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對하여」, 『史學志』 15, 檀國大學校 史學會.
- 李基東, 1996, 「高句麗史 발전의 劃期로서의 4世紀－慕容·燕과의 항쟁을 통해서－」, 『東國史學』 30.

- 李明仁, 2012,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慕容鮮卑와의 관계 및 문화교류」, 『한국고대사 연구』 67.
- 李丙燾, 1976, 「扶餘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朴京哲, 1994, 「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 『한국사 2-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 한길사.
- 박경철, 2011, 「夫餘의 國勢變動相 認識에 對한 試論」, 『高句麗渤海研究』 39.
- 宋基豪,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韓國古代史研究』 37.
-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 余昊奎,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4세기 후반 夫餘系 人物의 동향과 관련 하여-」, 『震檀學報』 91.
- 여호규, 2012, 「4~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67.
- 이성제, 2008, 「夫餘와 高句麗의 關係史에서 보이는 몇 가지 쟁점-西晉과 東夷校尉 그리고 前燕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한중관계 2000년-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 이재석, 2010, 『『日本書紀』大化 5년의 新羅使 金多遂에 관한 小考』, 고려대학교 일본사연구회 편,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 제이앤씨.
- 이정빈, 2014, 「고구려 태학 설립의 배경과 성격」, 『한국교육사학』 36-4.
- 이중수, 2016, 「부여 초기 및 전기왕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東洋學』 6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 全海宗, 1966, 「韓中 朝貢關係考-韓中關係史의 鳥瞰을 위한 導論-」, 『東洋史學研究』 1.
- 주보돈, 1992, 「『문관사림』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관련 외교문서」, 『경북사학』 15.
- 池培善, 1998, 「前燕 慕容皝재위시의 사회 경제정책에 대하여-封裕의 상서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99.
- 池培善, 2006, 「高句麗와 鮮卑의 전쟁-慕容廆와 慕容皝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4.
- 최현화, 2009, 「『文館詞林』 소재 「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의 분석과 羅唐關係」,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대적』, 주류성.

韓祐勳, 1960,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上)」, 『歷史學報』 12.

王仲犛, 1979, 『魏晉南北朝史(上冊)』, 上海人民出版社.

姚薇元, 1962, 『北朝胡姓考』, 中華書局.

錢國祥, 2015, 「魏晉南北朝都城的形制结构」, 『中國古中世史研究』 35.

陣金生, 2008, 『中國古代民族關係中的質子研究』, 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宮崎市定, 1961, 「六朝時代華北の都市」, 『東洋史研究』 20-1.

小倉芳彦, 1962, 「中國古代の質」, 『歷史學研究』 255, 青木書店.

李成市, 1992, 「東アジアの諸國と人口移動」, 『東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古代の日本2—』, 角川書店.

Lien-Sheng Yang, 1952, “hostages in chinse histo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5, No. 3, Harvard-Yenching Institute.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이정빈

본고는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질자 생활과 귀환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였다. 370년 전연의 업성(鄴城)이 함락될 때 부여·고구려·상당의 질자 5백여 명이 북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부여와 고구려의 질자는 340년대 이후 국제관계 속에서 인질로 기능하였고, 전연의 피로인(被擄人) 지배에 활용되었다. 부여·고구려의 질자는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종자집단(從者集團)과 함께 생활했다. 질자의 일부는 도성과 왕궁의 숙위(宿衛)를 담당했고, 전연의 관직을 얻기도 했으며, 동상(東庠)과 같은 학교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유교를 비롯한 각종 학문을 익히고 전연의 한화정책(漢和政策)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호한융합(胡漢融合)의 문물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전연의 멸망 이후 일부의 질자 출신은 전진(前秦)~남연(南燕)에서 활동했고, 다른 일부는 부여·고구려로 귀환했다. 귀환한 질자 출신은 부여와 고구려에서 국가체제 정비에 일익을 담당했다. 예컨대 고구려의 태학(太學)은 전연·전진에서 수용했는데, 그 설립에는 동상에서 수학한 질자 출신이 관여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모용선비, 전연(前燕), 질자(質子), 동상(東庠), 태학(太學)

ABSTRACT

Hostages of Buyeo and Goguryeo in the Former Yan of Murong Xianbei

Lee Jeongbi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ves of hostages of Buyeo and Goguryeo in Former Yan and the historical meanings of their return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When the Eopseong of Former Yan fell to the enemy in 370, approximately 500 hostages of Buyeo, Goguryeo, and Sangdang opened the north gate. Among them, the hostages of Buyeo and Goguryeo had functioned as host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the 340s and were used to rule the kidnapped people by Former Yan. They lived with valet groups of various social positions. Some of the hostages were responsible for the Sukwi function for the capital city and royal palace. Others held public office in Former Yan, and still others studied at the same school as Dongsang. They were thus able to study various kinds of science with a focus on Confucianism and understand the Chinese assimilation policy of Former Yan, experiencing the culture of Nomad-Han infusion. After Former Yan fell,

some of the hostages were active in Jeonjin and Namyeon, while others returned to Buyeo and Goguryeo. The latter contributed to the arrangement of national systems in Buyeo and Goguryeo. The Taehak of Goguryeo, for example, was introduced from Former Yan and Former Qin, and it is thought that the hostages that studied at Dongsang were involved in its establishment. Goguryeo, of course, made its own choices in the arrangement of its national systems in the second part of the fourth century, in which sense the lives of hostages in Former Yan hold their historical meanings as learning and experiences for those choices.

Keywords: Murong Xianbei, Former Yan, hostages, Dongsang (東庠), Taehak (太學)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고자료를 통해 본 만반한

–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

이후석 | 송실대학교 초빙교수

- I. 머리말
- II. 전쟁 이전 고조선과 연의 경계
- III. 전쟁 이후 고조선과 연의 경계
- IV. 맺음말



I. 머리말

만번한(滿潘汗, 또는 滿番汗)은 연(燕)이 고조선(古朝鮮)을 공략하고 나서 획정했던 경계이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魏略)』에는 연과 고조선이 ‘왕’을 칭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며, 양국 간의 전쟁 결과 연은 고조선의 서방 2천여 리를 획득하고 만번한을 경계삼아 고조선과 대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¹ 이에 비해 『사기(史記)』 흉노열전(匈奴列傳)에는 연이 동호(東胡)를 기습 공격하여 1천여 리를 물러나게 하였으며,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까지 장성(長城)을 축조하고 5군(郡)을 설치하였다고 한다.²

한편 연이 요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동호’와 ‘조선’을 공격하였다는 것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는 『염철론(鹽鐵論)』 벌공편(伐功篇)을 보면³ 이 두 사건은 연의 장수 진개(秦開)가 주요하게 활약했던 순차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즉, 연은 전성기인 소왕(昭王) 재위 시기 동북 방면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호’는 장성시대 이북으로, ‘조선’은 만번한 이동으로 각각 물러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만번한의 위치를 찾는 것은 고조선의 영역 변천 과정이나 연의 요동 방면 진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연은 요동으로 진

* 투고: 2017년 2월 13일, 심사 완료: 2017년 7월 26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1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所引『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2 『史記』卷110, 匈奴列傳 第50,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開之孫也.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3 『鹽鐵論』卷8, 伐功 第45,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출하여 ‘양평’까지 점령했던 것은 틀림없으므로 만변한은 그 이동 또는 이남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시 고조선과 연의 전쟁 결과 확인되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는 ‘연(都邑) ↔ (동호) ↔ 요수 ↔ 양평 ↔ 만변한 ↔ 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 논쟁과 관련시켜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먼저 ‘평양설’의 시각으로 보면 고조선은 요하 방면의 서쪽 영역을 상실하고 만변한의 남쪽 지역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중심지 이동설의 입장에서 보면 고조선은 서쪽 영역을 잃고 나서 요하 방면에서 한반도의 서북 방면으로 이동하여 중심지가 바뀐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 이후 고조선과 연의 경계를 청천강 일대로 보는 것이 전자의 주장이며, 천산산맥 일대로 보는 것이 후자의 견해이다.

또한 연과 고조선의 전쟁 과정에서 고조선이 잃은 서쪽 영역이 어디이며, 또한 전쟁 이전 고조선과 연의 경계가 어디인지 규명하는 것도 초기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문헌 기록에는 구체적인 지명 기술조차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고조선이 2천여 리를 잃었다는 『위략』의 기사를 말 그대로 믿는다면 하북-요서 접경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요동을 지나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의 기사대로라면 요동 동부 또는 요하 하류 일대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문헌 사료만으로는 ‘만변한’의 등장 무렵을 전후하여 고조선과 연의 경계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위략』이나 『사기』 흉노열전은 물론 『염철론』의 ‘조선’이나 ‘동호’ 관련 기사들은 당대 인식과 후대 인식이 섞여 있어 기원전 4~3세기대의 역사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대 중국인의 시각에서 동방 영역의 확대 과정을 이념적인 맥락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령지역과 그 주변부의 문화변동에 주목하여 고고학적 물질문화 간의 분포권이 변화하는 과정이나 단계별로 확인되는 문화 경계(또는 접이지대)를 확인하여 문헌 기

록의 역사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조선과 연의 전쟁이 시공간이 한정되는 특정사건이란 점을 고려할 때 물질문화의 편년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전쟁 발발 전후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확산 과정과 요령지역 토착문화의 변동 과정을 보여주는 고고자료들을 전국 전기~중기 단계(또는 기원전 4세기대 전후)와 전국 후기 단계(또는 기원전 3세기대)로 구분하고, 관련 물질문화의 분포 변화 과정을 검토하여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학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 연대를 대폭 올려보는 연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⁴ 이에 따르자면 남한지역의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되는 彌生時代 중기의 개시 연대를 약 100년 가량 올려보며, 이와 연동되는 한반도와 요령지역 고고자료의 연대 역시 대폭 올려본다. 또한 중국 학계 역시 최근 들어 여러 맥락에서 요령지역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연대를 올려보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⁵

일본이나 중국 학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와 같은 연대관의 문제점은 단순히 고고자료의 연대를 올려보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중원세력이 일찍부터 요동지역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으로 진출하였음을 강조하고, 한반도나 일본 열도로 중원문화를 전달해준 주체로서 고조선의 역할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고조선과 연의 물질문화 변동이나 분포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春成秀爾·今村峯雄 編, 2004,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小林青樹 編集, 2016, 『季刊 考古學』 135(東アツアの青銅器と彌生文化), 雄山閣.

5 周海峰, 2011, 『燕文化研究-以遺址·墓葬爲中心的考古學考察-』,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II. 전쟁 이전 고조선과 연의 경계

1. 전쟁 이전 하북~요서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담당자

『위략』에는 전쟁 전에 연과 고조선은 서로 ‘왕’을 칭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였다고 하며, 『사기』 흉노열전에는 전쟁 전에 진개를 인질로 파견하는 등 연이 호(胡 또는 東胡)와도 교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두 사서에는 전국 중기(기원전 4세기대 후반) 무렵 ‘조선-동호-연’이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듯이 기술하고 있어 전쟁 이전 고조선과 동호, 그리고 연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이다.

먼저 전국시대 연의 경우를 살펴보자. 연은 북경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지만 易縣 일대에 연하도(燕下都, 武陽城)를 건설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했던 것은 전국 중기 이후이다.⁶ 그 이전에는 ‘易市’ 명문 토기 등이 출토되어 ‘臨易’ 또는 ‘易’일 가능성이 높은 용성(容城) 일대(남양촌-고현촌)가 거점으로 지목되며, 그 이후에는 연상도(燕上都, 薊城)가 중심지로 기능하였다고 한다.⁷ 그러므로 전국 중기~후기 단계 연의 물질문화는 ‘연하도문화’로 명명되고 있다.⁸

연이 동북 방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연하도가 중심지로 기능하는 시기인데, 이 과정에서 연의 물질문화는 토착문화를 대체하며 전면적으로 확산된다. 즉, 연하도문화의 전면적인 확산 과정은 연의 영역 확대 과정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계 물질문화의 확산 과정은 문헌 기록에서 엿보이는 영역화의 과정과는 달리 점진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계 물질문화는 주변 토착문화 속에 일부만이 수용되는 단계를 거친 후에 거점별로 확산되는 단계를 거치다가 이후 전면 확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6 趙鎮先, 2015, 「燕下都의 造營과 都城 機能의 變遷」, 『한국고고학보』 96.

7 배진영, 2010, 『고대 北京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178~203쪽.

8 배진영, 2010, 위의 책, 286~288쪽.

물론 최종적으로는 토성(土城)이나 변군(邊郡)으로 상징되는 지배거점이 설치 되는 것이 영역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의 전형적인 물질문화 요소들이 연산산맥 외곽지역으로 대거 확산되는 것은 전국시대 이후이다. 이를테면 춘추 말~전국 초 단계(기원전 5세기대)에는 연산산맥 일대에서 토착문화 속에 일부 복합되는 정도였고, 전국 전기(기원전 4세기대 전반)에는 연산산맥 중심부를 동화시키면서 난하 방면으로 대거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후 전국 중기(기원전 4세기대 후반)에는 난하 이동지역에서 연계 유물들만 부장되는 무덤들이 조영되기 시작하나, 토착계통 무덤들과 함께 일부 공존하는 정도이다. 즉, 난하 이동지역의 경우 연문화가 대거 확산되는 단계에도 토착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며, 토착 지배층의 무덤들도 계속 조영되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연의 하북 북부지역의 영역화는 전국 후기 이전부터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북-내몽고의 접경지역이나 하북-요서 접경지역에서 토착문화 속에 연문화의 요소들이 다수 보인다고 하여 이를 정치군사적인 영역화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전국시대 이후 연의 동북방면에서 확인되는 여러 지역문화가 연계 물질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문화 성격을 추론하여 본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국연계 물질문화가 전면 확산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화변동 양상이다. 이를테면 목곽묘제가 확산되며, 분묘 주축이 동서 방향에서 남북 방향으로 변화하여 결국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분묘 또는 분묘군이 조영된다. 또한 토착식 동검 대신 중원식 동검과 중원식 동과가 부장되고, 전국연계 예기류가 확산되어 청동예기나 도제예가 부장되며, 연식단경호가 토착토기류를 대체하여 부장되는 것이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양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물순생이 사라지는 점도 참고된다. 결국 이와 같은 분묘 구조와 장법의 변화, 부장유물의 교체 등은 토착문화가 연하도문화로 전환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화는 이와 병행하여 또는 이 다음

단계에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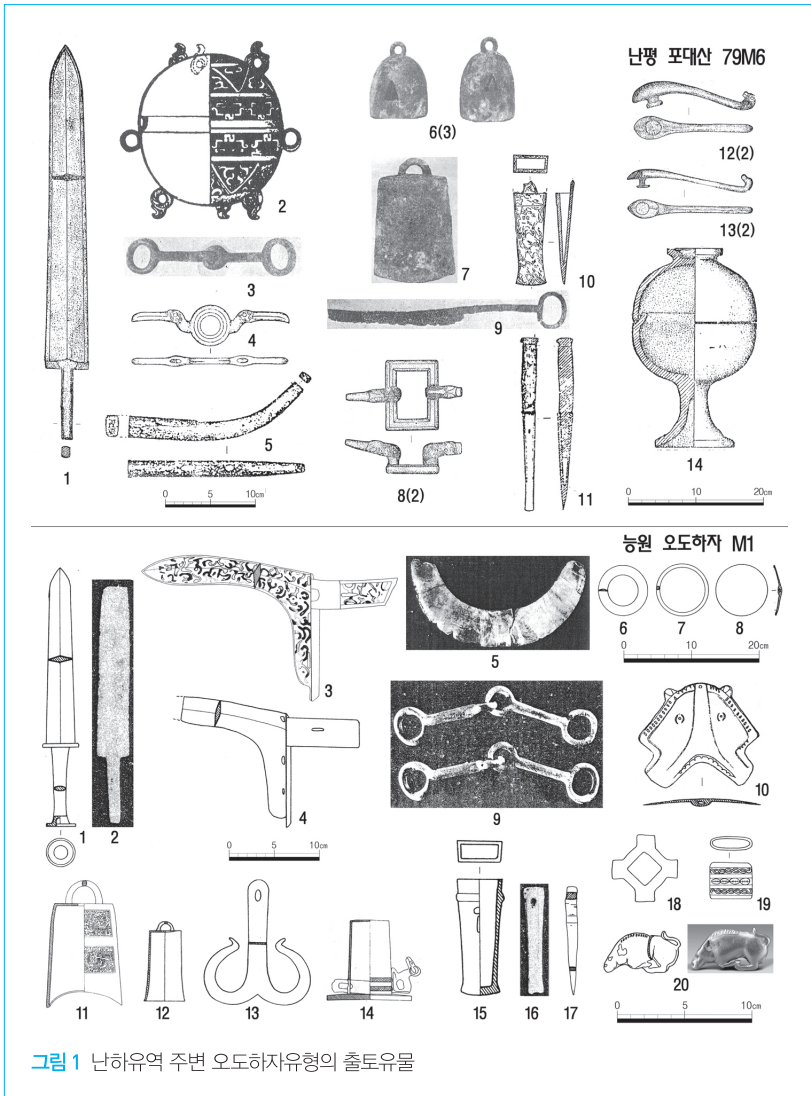
연의 내몽고 동남부나 요서지역의 영역화는 연산산맥 일대의 영역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옥황묘문화에 연계 물질문화가 대거 확산되고 연하도문화의 분묘군이 난하유역에서 조영되기 시작하는 때의 시공간적 관련성이 중요하다.

옥황묘문화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군도산 일대의 延慶 玉皇廟·葫蘆溝·西梁堯 등의 유적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은 전국 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灤平 砲臺山과 凌源 五道河子 등의 난하유역 주변 유적에는 전국 중기까지 토착문화가 잔존하는 것이 확인된다.⁹

다만 포대산 유적에는 주축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분묘들이 함께 확인되며, 중원계통 유물들이 확인되는 무덤(M6·M28)이라 하더라도 무기류(동촉·골촉), 차마구류(동표·골표·동령), 공구류(도자·동착), 장식류(골식) 등의 다수 기종에서 토착성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에 비해 오도하자 유적에는 주축 남북방향의 분묘만이 확인되며, 중원계통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는 무덤(M1·M8)들은 일부 무기류(동검), 차마구류(철약·동액), 공구류(동착), 장식류(동물장식·금제황식·동포)를 제외하면 중원화가 다소 진전되어 있는 양상이다(〈그림 1〉).

이에 따라 전국 전기부터 전국 중기까지 난하유역에는 중원계통 물질문화가 상당부분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양상들은 같은 분묘유적 내에서도 상위등급 분묘에서 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또한 분묘 구조에서 위석 구조가 남아 있고, 장법에서 동물순생이 확인되며, 부장유물 역시 전형적인 연계 무덤과는 배치 양상을 달리하고 있어 연계 물질문화의 전면적인 확산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遷西 大黑汀 유적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연계 물질문화의 분묘군이 기원전 400년경 전후 난하중류 서안까지 진

9 滕銘予·張亮, 2011, 「玉皇廟文化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 2011-4. 연산산맥 일대의 옥황묘문화가 연문화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것은 보통 기원전 400년경 전후 무렵으로 이해된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4, 『中國考古學 兩周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24~525쪽).



출하는 것을 볼 때 연의 지방 거점을 통한 비일상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비중원계 물질문화를 바탕으로 연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했던 남하유역의 집단들은 연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그 정체성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몽고 동남부와 요서지역에서 연계 물질문화 요소들은 난하유역과 멀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춘추 말~전국 초 단계에는 토착문화의 수장급묘에서 청동무기(동과)나 청동예기가 단수 부장되는 정도였던 것에 비해 전국 전기 이후에는 토착문화의 지배층묘에서 여러 기종의 연계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때부터 연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원전 400년경 전후 난하 중류(천서) 서변까지 연의 지배 거점이 마련됐던 것과 관련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이때 내몽고 동남부지역에는 북방초원계통 유목문화가 남하하여 유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학계의 경우 대개 ‘정구자유형’(또는 철장자유형)으로 명명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정구자유형’을 초원유목문화 색채가 강한 적봉 이북의 지역군에 한정하고, 이에 십이대영자문화 요소들이 다수 복합되어 있는 오한기 일대의 유적군을 ‘수천유형’으로 한정하는 한편, 연계 유물들이 다수 복합되어 있는 적봉 이남의 지역군을 ‘철영자유형’으로 설정하며, 각각의 유적군을 포괄하여 철영자문화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¹⁰

철영자문화는 기원전 5~4세기대 내몽고 동남부 지역에서 하가점상층문화를 대체하여 유행했던 물질문화로서 북방계통 장식류와 이중구연 쌍이관으로 대표되는 토기문화의 동질성이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하가점상층문화의 경우 농경 흔적이 확인되는 것과 달리 철영자문화는 유목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했던 것은 喇沁旗 鐵營子 유적을 중심으로 한 철영자유형의 상위계층이다.

철영자유형을 대표하는 객라심기 철영자 유적에서는 총 59기의 토광묘(목관묘 포함)가 조사되었는데, 일부 분묘들은 위석 구조의 목관묘로 추정되고 있다. 주축은 대개 북서-남동방향이며, 분묘 규모에 따라 대형묘-중형묘-소형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대형묘는 이단묘광으로 구축되어 있는 수장급묘에 해

10 이후석, 2016b,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그림 2 내몽고 동남부지역 철영자유형의 주요유물(꺀라심기 철영자)

당된다. 동물 순생(말·소·개·사슴)과 함께 순장 습속까지 확인되며, 부장유물에는 토착계통과 중원계통(연계)이 다수이나, 일부 요서계통(동대장자유형) 유물까지 확인된다. 이를테면 23호묘에서는 전국연계 청동예기 10건 18점과 토착 토기류가 수습되었으며, 33호묘에서는 순장인의 묘광에서 청동요대·골각제활 등이, 묘주인의 묘광에서 중원계통 거여구(난령·차기)와 토착계통 마구류(골표),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의 무기류(요령식 동과)와 토착계통 무기류(동촉·골촉) 등이 수습된 바 있다. 도굴무덤임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청동유물들이 부장되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토기류의 경우 다수 무덤에서 토착토기류(이중구연쌍이관·평저마연호)와 타날문단경호가 확인되고 있다(〈그림 2〉).

이와 같이 철영자유형의 표지 유적인 꺀라심기 철영자 유적은 분묘 규모와 부장유물, 순장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철영자문화의 최고 수장묘가 조영되어 있는 상위 유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물 구성으로 보면 수장급묘의 경우 전국연계 유물들이 다수 보이지만 마구류와 장식류는 물론 토기류에서는 비중원

적 문화전통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전국시대에 유행했던 북방초원계통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측면에서 내몽고 동남부의 철영자문화는 전국 후기 이전 초기동호와 관련되는 물질문화로 추정되고 있다.¹¹ 인골 감정 결과 오환·선비 계통과도 일치하는 점도 지목된다.¹² 다만 전국 후기 이후 관련 문화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 착목하여 신래 사카문화 요소들을 흉노·동호의 등장과 관련시켜 보는 연구자도 있다.¹³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동호의 등장 시기와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동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기』 흉노열전이다. 흉노열전의 앞에 있는 연대기적 기사¹⁴에는 동호는 연의 북쪽 방면에 위치하고 있을 따름인데,¹⁵ 이에 대해 흉노열전의 뒤에 언급되어 있는 장성 축조와 5군 설치 기사¹⁶를 보면 동호는 요서 방면에서 북쪽 또는 동쪽 방면으로 물러났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자세하게 보면 동호 퇴축과 장성 축조-5군 설치 사이에는 ‘진시황제 암살 시도 사건’이란 다른 사건이 끼어 있어 두 사건은 시공간적으로 틀어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¹⁷ 무엇보다 흉노열전에 나타나는 진(秦)-조(趙)-연(燕)의 장성 축조 기사들은 『사기』 편찬 과정에서 ‘북족(北族) 격퇴 → 장성(長城) 축

11 王立新, 2004, 「探東胡遺存的一介新線索」, 『邊疆考古研究』 3; 朱永剛·王立新, 2006, 「西拉木倫河流域先秦時期文化遺存的編年與譜系研究」, 『邊疆考古研究』 4; 中村大介, 2016, 「東端の遊牧民」, 『季刊考古學』 135, 雄山閣.

12 朱泓, 2006, 「東胡人種考」, 『文物』 2006-8.

13 강인욱, 2016, 「기원전 9~3세기 요서지역의 고고학문화와 山戎·東胡」, 『백산학보』 106.

14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而晋北有林胡·樓煩之戎, 燕北有東胡山戎”.

15 林炳泰, 1991,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 1.

16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是秦有隴西北地上郡 築長城以拒胡. 而趙武靈王亦變俗胡服 習騎射 北破林胡樓煩 築長城 …… 而置雲中鴈門代郡.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荆刺秦 秦王秦舞陽之孫也.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當是之時 冠帶戰國七 而三國邊於匈奴”.

17 林滢, 1995,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知識出版社.

조→변군(邊郡) 설치'라는 도식화에 고쳐져서 서술되었다고 생각된다.¹⁸ 연의 장성 축조-5군 설치 기사가 동호 관련 역사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면 '거호(拒胡)'라고 하면서도 '삼국변어흉노(三國邊於匈奴)'하였다는 말은 없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성 축조와 5군 설치의 기사는 단순하게 동호만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동호' 명칭 그 자체가 '호(胡)'의 동쪽 집단이란 의미 외에 조(趙)의 동쪽 방면에 위치하는 '호'란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면,¹⁹ 『사기』 조세가(趙世家)에 동호가 임호(林胡)와 누번(樓煩)의 동쪽에 있으면서 삼호(三胡)로도 불렀다고 하는 것²⁰과 조의 동쪽에는 연과 동호의 경계가 있었다는 것²¹이 쉽게 이해된다. 동호는 그 명칭으로 보면 단일 민족(또는 종족)으로 보기 어렵지만²² 그 주된 활동 무대는 하북 북부 장성지대에서 서요하의 상류 일대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호는 흉노와 같은 신래 유목문화 집단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요하 상류 방면에서 일찍 흥기했던 집단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사카 문화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전국 말기 이후라는 점도 참고된다. 다만 철영자문화가 북방초원계통 유목문화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호 일파의 지역문화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전쟁 직전 연과 경쟁했던 동호와 전쟁 한참 후에 흉노가 멸망시킨 동호는 시공간성이 달라 물질문화 양상 역시 일정하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때 요서지역에는 십이대영자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전국연계 물질문

18 吉本道雅, 2008b, 「東胡考」, 『史林』 91-2, 98~99쪽.

19 김병준, 2016, 「요서지역과 燕秦 세력의 확대」, 『요서지역의 고고학과 고대사』, 고고학·역사학 협의회 제1차 학술대회.

20 『史記』 卷43, 趙世家 第13, “變服騎射, 以備燕三胡秦韓之邊”.

21 『史記』 卷43, 趙世家 第13, “吾國東有河薄洛之水 與齊中山同之 無舟楫之用. 自常山以至代上黨, 東有燕東胡之境 而西有樓煩秦韓之邊, 今無騎射之備”.

22 니콜라스 디코스모, 이재정, 2005,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화 요소들이 다수 복합되어 있는 지역문화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동대장자유형’으로 설정되어 있다.²³ 동대장자유형은 기원전 4세기대를 전후하여 요서 남부지역에서 크게 유행한다. 철영자문화가 초원 유목문화 계통이란 것과 달리 십이대영자문화는 토착 농경문화 계통이란 측면에서 두 문화는 서로 구분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연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했던 것이 建昌 東大杖子 유적을 중심으로 한 동대장자유형의 상위계층이다.

동대장자유형을 대표하는 건창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100여 기가 넘는 무덤 중에 총 47기의 분묘들이 조사되어 있다. 주축은 대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는 동서 방향이며, 목관(곽)묘가 다수 보이는데, 적석 또는 위석 구조의 적석 목관묘형 분묘들이 많다. 분묘 등급으로 보면 상위등급 분묘들은 적석 구조의 목관(곽)묘에 한정되며, 하위등급 분묘들은 주로 단순 토광묘에 해당된다. 특히 수장묘급의 중대형묘에는 이단 묘광, 동물 순생(소·말), 순장 습속 등이 확인되며, 청동무기와 청동예기 등의 전국연계 유물들이 다량 보이지만 요령식 동검, 요령식 동과 등의 토착 청동무기가 예외 없이 부장된다. 이를테면 동대장자 45호묘에서는 철영자 33호묘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 순생과 순장 인골이 확인되어 동대장자 11호묘와 함께 동대장자유형 상위계층 분묘 중에서도 최고 수장묘로 판단된다. 전국연계 유물들이 다량 부장되었으나 요령식 동검과 요령식 동과를 반출한다. 이외에도 토기류의 경우 많은 무덤에서 토착토기류(이중구연점 토대토기발·평저장경호·평저호)가 출토되며, 일부 무덤에서 연계토기류(평저호·도두)가 확인되고 있다(〈그림 3〉).

이와 같이 동대장자유형의 표지 유적인 건창 동대장자 유적은 분묘 규모와 출토유물이 다양하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토착 무기류와 함께 전국연계 청동유물이 다량 부장되는 적석목관묘형 분묘이다. 이때에는 중원지역의 청동무기 체

23 이청규,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이후석, 2015,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28.



그림 3 요서지역 동대장자유형의 주요유물(건창 동대장자·우도구)

계가 전이되어 토착 청동무기에도 동검·동과·동모의 구성이 완비되며, 토기류가 분화되어 장경호·단경호·광구호·주구관 등의 토착 토기류를 비롯하여 두형토기 같은 재지화된 전국연계 토기까지 일부 사용된다(그림 3). 전국연계 청동유물의 경우 무기류와 예기류의 부장이 현저한데, 특히 청동예기는 건창 일대에만 분포하고 도제예기와 무기류는 건창-객좌 일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전국연계 유물들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관계망은 하북-요서 접경지역이나 요서 서남부지역에 한정됐던 것 같다.²⁴ 이는 동대장자유형의 중심 거점

24 이후석, 2016b,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이 건창 일대이며, 이를 중심으로 정치군사력과 대외교섭력이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대장자유형의 동대장자 7호묘와 30호묘에서는 연하도문화의 일상 용기(분형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동대장자 15호묘에서는 철영자문화의 취사용기(이중구연쌍이판)가 확인되고 있어 주변 사회와는 인적 교류까지 일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高碑店과 같은 연하도의 주변 유적에서 동대장자유형의 요령식 동검이 수습된 바 있고, 철영자 33호묘와 같은 철영자유형의 수장묘에서는 동대장자유형의 요령식 동과가 출토되고 있어 연-철영자유형-동대장자유형의 중심집단 간에 정치적인 교섭 또는 군사적인 충돌까지 일부 있었다고 생각된다.²⁵

그러므로 전국시대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를 계승하는 동대장자유형은 동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정치체의 문화이며, 예맥(또는 맥)이나 고조선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전국시대 연국(燕國) 관련 사적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선진문헌 등에 기록되지 않은 집단이나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기원전 4세기대에 한정하면, 난하 이동지역에서 연과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성장했던 정치체가 선진문헌에 기록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요서지역의 물질문화 담당자를 동호로 본 것은 과거 중국 학계와 일본 학계의 연구 전통에서 비롯된 바 크다.²⁶ 과거에는 십이대영자문화의 독자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연구자가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국내학계 역시 하가점상층문화는

25 이후석, 2017a,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고조선의 성장 과정-십이대영자문화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송실사학』 38.

26 중국 학계의 경우 靳楓毅가, 일본 학계의 경우 秋山進午가 요서지역의 청동단검문화 담당자를 '동호'라고 한 이래 근래까지 많은 영향을 준 바 있다(靳楓毅, 19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下)」, 『考古學報』 1983-1; 秋山進午, 1969,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樣相-考古資料とくに青銅短劍を中心として-(下)」, 『考古學雜誌』 54-4).

공벽식동검(鍔柄式銅劍)과 삼족력(三足鬲)을 표지유물로 하여 서주 초기~춘추 후기 무렵 내몽고 동남부 지역에서 유행했던 북방계통 물질문화이며, 십이대영자문화는 단경식동검(短莖式銅劍, 비파형동검)과 이중구연점토대토기발(二重口緣粘土帶土器鉢)을 표지유물로 하여 서주 중기~전국 중기 무렵 요서지역과 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토착계통 물질문화라고 보는 것이 통설화된 상황이다.²⁷

이에 따라 최근에는 요서-요중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는 예맥(또는 맥)이나 고조선과 관련되는 정치체로 보는 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²⁸ 결국 과거 연구에서 요서지역의 전국시대 물질문화를 동호와 관련시켜 보게 된 것은 『사기』 흉노 열전의 ‘동호’ 관련 기사의 문제점을 간과한 채,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변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전국시대 요서지역 물질문화의 담당자가 ‘동호’라면,²⁹ 전쟁 이전 요서 지역에는 북방 유목문화 요소들이 증가해야 하나 그 반대로 거의 소멸하며, 요서지역 집단들이 연의 요서 진출 과정에서 요하 이북 방면으로 다수 이동하였다면 그 지역에는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 요소들이 일정하게 확인되어야만 하나 그와 같은 증거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³⁰ 물론 요

27 金玟燦,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악」, 『韓國青銅器學報』 15; 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靑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선사와 고대』 20; 이창규, 2008, 앞의 글;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28 李清圭, 2005, 「靑銅器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 53; 趙鎮先,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靑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 56; 이후석, 2017a, 앞의 글.

29 박대재, 2017,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5; 송호정, 2015,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 문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역사와 현실』 98.

30 이후석, 2017a, 앞의 글.

서-요중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는 여러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이 유형들이 예맥이나 고조선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 것인지는 고조선의 영역 또는 위치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2. 전쟁 이전 고조선과 연의 물질문화 범위와 경계

고조선과 연의 전쟁 이전 기원전 4세기대의 십이대영자문화는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과 요동지역의 정가와자유형으로 분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대장자유형은 전국 전기 단계에는 요서지역의 건창(동대장자)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전국 중기 단계에는 조양(원대자)이나 금주(산금주) 일대까지 확산되어 이곳까지 물질문화 범위 내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정가와자유형은 이미 춘추 말~전국 초 단계(기원전 5세기대)부터 요중지역의 심양(정가와자)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전국 전기~중기(기원전 4세기대)에는 대련이나 단동 또는 평양 일대까지 물질문화 요소가 확산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강상유형과 이도하자유형은 사라지고 있어 더욱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두 지역문화에는 적석목관묘형 분묘를 포함하는 토광묘계 묘제, 요령식의 세형동검·동과 등의 특징적인 청동무기, 점토대토기웅과 평저장경호, 두형토기 등의 토착토기류가 함께 확인되고 있어 문화적인 유사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요서지역에는 다뉴경이 없는 대신 건창 일대를 중심으로 중원계 무기류와 예기류가 적지 않게 부장되며, 요동지역에는 중원계 무기류와 예기류가 없는 대신 심양과 단동 일대를 중심으로 다뉴경이 부장되고 있어 일정부분 차이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대장자유형과 정가와자유형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상상성과 상이성을 일정하게 나타내는 것은 두 지역의 지배층이 서로 교류하면서도 권력기반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동대장자유형의 수장층은 연국과의 대외 교류망을 장악하고 이에 대한 재분배를 기반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정가와자유형의 수장층은 제의권을 행사하며 주변 집단과의 유대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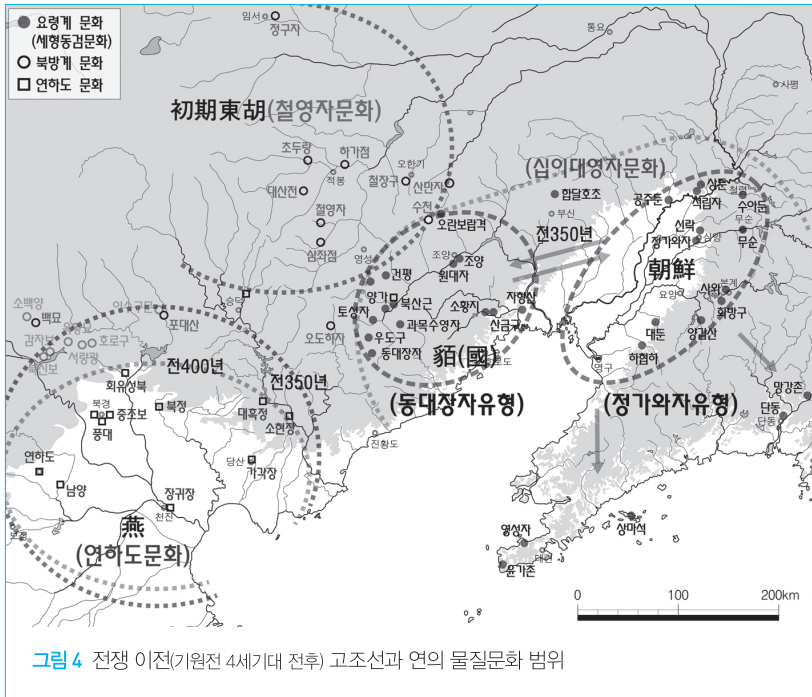


그림 4 전쟁 이전(기원전 4세기대 전후) 고조선과 연의 물질문화 범위

을 바탕으로 점차 권력을 강화시켜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까지 자료로만 보면 요령지역 최고 수장모는 기원전 5세기대의 경우 정가와자유형(정가와자 M6512)에만 분포하나, 기원전 4세기대의 경우에는 동대장자유형(동대장자 M11·M45)에서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인 권력 관계는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두 지역문화는 기층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장층의 권력 기반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정치체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수장층의 권력 기반(원천)은 이념적 측면, 무력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의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는데,³¹ 해당 사회조직을 유지하는 수장권의 강화라

31 이희준,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

는 측면에서 보면 기원전 5세기대의 정가와자유형은 전통적인 이념적·종교적 권위에 더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기원전 4세기대의 동대장자유형은 무력적·경제적 권위에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대장자유형은 정가와자유형에 비해 연 또는 동호 등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하에 있었으며, 수장묘에서는 순장 인골이 확인되고 있는 점도 수장권의 강화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가와자유형의 교류 관계망이 요서지역뿐만 아니라 요동 동부지역을 거쳐 한반도의 평양 일대(신성동)까지, 길림 중부지역을 거쳐 내몽고의 호룬패이 일대(이민하)까지 각각 확대되는 것도 수장권의 강화 현상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동대장자유형과 정가와자유형의 문화 관계를 고려하여 선진문헌이나 한대 문헌에서 관련 집단이나 정치체를 찾아보면 ‘조선(朝鮮)’과 ‘맥(貊)’(또는 貊國)이 가장 유력하다. 주지하다시피 ‘(예)맥’이나 ‘조선’의 등장을 알려주는 선진문헌으로 『관자(管子)』와 『전국책(戰國策)』의 관련 기사는 채록 과정이나 후대 편집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자』 규탁편(揆度篇)과 경중갑편(輕重甲篇)의 ‘발조선(發朝鮮)’은 고조선과 제(齊)의 문피교역 여부를 논의에서 차치하면, ‘발’과 ‘조선’의 관계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별개 집단³²으로 보든, 수식 관계(죽명+국명)³³로 보든 간에 이 두 집단은 일정하게 친연 관계하에 있는 집단으로 이해된다. 즉, ‘발’과 ‘조선’은 시공간적 측면에서 인접하여 위치하며 문화적인 친연 관계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된다. 다만 『관자』의 ‘발조선’ 관련 기록은 춘추시대의 전승인지, 전국시대의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는 ‘발(發)’이 ‘맥(貊)’ 또는 ‘박(亳)’과 같은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³⁴ ‘박’과 ‘맥(국)’의 등장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南考古學』58; 티모시 열, 김경택, 2008, 『족장사회의 정치권력: 선사시대의 정치경제학』, 考古.

32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33 박대재, 2017, 앞의 글.

34 박대재, 2013,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박준형, 2014,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 9년(기원전 533년)조에 보면³⁵ ‘숙신(肅慎)·연(燕)·박(亳)’이 연칭되어 있고, 제(齊)가 연(燕)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하는 정황이 각서되어 있는 ‘진장호(陳璋壺)’에서 ‘연박방(燕亳邦)’³⁶이 보이므로 춘추 후기이래 존재했던 박(발)은 기원전 300년경 전후 연이 복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해경(山海經)』 해내서경(海內西經)의 ‘맥국(貊國)’ 기사³⁷와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맥국은 ‘한수(漢水)’ 동북쪽에 위치하였는데, 연에 가까워서 멸망했다고 한다. ‘한수’가 어디인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다만 동호를 언급하고 난 후 맥국이 언급되고 있어 전국 중기 전후에는 요서-요중지역 범위 안에 위치하였다가 연에 복속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조선’과 함께 언급됐던 ‘발’은 ‘박’이면서 ‘맥(국)’이며, 선진문헌으로 확인되는 존속 기간은 춘추 후기(기원전 6세기대 후반)~전국 중기(기원전 300년경 전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침언하면 『춘추좌전』의 경우 전국시대의 인식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정치체는 주로 전국시대에 활동하였으며, 연의 동방 영역 확장 과정에서 복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서 지역이나 그 인접 지역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선’과는 친연 관계하에 있는 집단으로 정리된다. 이를 전국시대 이후 요령지역의 물질문화 측면에서 보면 십이대영자문화라는 동질적인 문화 배경하에 권력 기반을 달리하는 동대장자유형과 정가와자유형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이 ‘맥국’(발 또는 박)과 관련되는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송호정, 2003, 앞의 책.

35 『左傳』昭公 9年, “肅慎燕亳 吾北土也”.

36 ‘佳王五年, 尊○陳得再立事歲 孟冬戊辰 大罍○孔陳璋 內伐區亳邦之隻’라는 銅壺 명문으로 인해 제작 시기는 齊宣王 5년(B.C. 315)으로 보는 견해(吉本道雅, 2008a, 「中國先秦時代の貊」,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47)와 齊襄王 5년(B.C. 279)으로 보는 견해(林滢, 1994, 「“燕亳”和“燕亳邦”小議」, 『史學集刊』 1994-2)가 제시되어 있다.

37 『山海經』卷11, 海內西經, “東胡在大澤東 夷人在東胡東 貊國在漢水東北 地近于燕 滅之”.

지 않다.³⁸

한편 ‘조선’의 등장은 보통 『관자』보다 『사기』에도 반복 언급되어 있는 『전국책』의 관련 기사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³⁹ 『전국책』 연책(燕策)에는 소진(蘇秦)이 문후(文侯, 기원전 361~333년 재위)에게 연의 사방 강역을 말하면서 연의 동쪽에는 조선(朝鮮)·요동(遼東), 북쪽에는 임호(林胡)·누번(樓煩), 서쪽에는 운중(雲中)·구원(九原), 남쪽에는 호타(曷沱)·이수(易水)가 각각 위치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⁴⁰ 이 가운데 ‘조선’과 ‘요동’이 함께 언급되는 점을 중시하여 ‘조선’의 위치는 종종 요서지역⁴¹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⁴²으로 비정되곤 한다. 그렇지만 이 기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임호와 누번의 근거지는 연의 북방이 아닌 조(趙)의 북방으로, 즉 섬서-산서 이북의 장성지대이다. 운중과 구원도 연과 관련없는 조의 북쪽 영역으로 무령왕(武靈王)의 이후 또는 전국 후기 군현 명칭이다. 조선(國名)과 요동(郡名, 地名)도 다른 방위 설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함께 언급되어 있어 말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조선’과 ‘요동’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서한 때의 인식으로 평가된다.⁴³ 그러므로 소진의 언급에서 등장하는 ‘조선’과 ‘요동’은 그 구체적인 위치를 확정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국책』의 관련 기사로는 전국 중기 무렵 ‘조선’이란 정치체(집단)가 연의 동방에 위치하며 유력하

38 ‘貊國’의 물질문화에 대해서는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와 관련시켜 보는 견해(吉本道雅, 2008a, 앞의 글)와 내몽고 동남부의 ‘수천유형’으로 보는 견해(邵國田主編, 2004, 『放漢文物精華』, 內蒙古文化出版社)가 제시되어 있다. 다만 수천유형은 대릉하로 유입되는 老虎山河 변에 분포하며,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의 확산 범위 내에 속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39 盧泰敦, 1990, 「古朝鮮 中心地の變遷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 23.

40 『戰國策』 卷29, 燕策 1, “蘇秦將爲從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曷沱易水 地方二千餘里”.

41 趙鎭先, 2014, 앞의 글.

42 송호정, 2003, 앞의 책.

43 吉本道雅, 2008b, 앞의 글.

게 인식되었다는 점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대 이후 문헌에는 서로 다른 맥락으로 ‘조선’의 위치와 영역이 기술되어 있다. 전국 중기 단계 연과 교류하며 전쟁까지 불사하였다는 『위략』의 기사⁴⁴에 집중하면 고조선은 요서지역에 위치하였거나 하북-요서 접경 지역에서 연과 조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연이 동호를 축출하고 난 후 요동을 지나 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의 기사⁴⁵를 중시하면 고조선은 한반도의 서북지역에 위치하여 요서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관되지 않은 기록으로 인해 그 동안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두 사료 모두 고조선의 멸망 후에 저술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략』의 경우 한대 이후 등장하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에 더 나아가 기자조선설(箕子朝鮮說)이 보이면서 『사기』 조선열전(朝鮮列傳)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후대 윤색됐던 인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명이나 지명 그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조선후(왕)의 계보(王系), 칭왕 명분(尊周), 전쟁 거리(서방 2천여 리) 등은 그대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⁴⁶ 다만 ‘칭왕’이란 것이 당사국들 간에 상호 승인이 필요하며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원사회와의 상호작용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⁴⁷ 그렇다면 ‘조선’은 연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했던 정치체여야만 하며, 양국 간의 물질문화 교류망에 포함되는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략』으로 보면 ‘조선’은 동대장자유형 집단들과 관련되었거나 또는 정가와자유형이라 하더라도 동대장자유형을 연맹체적 관계하에 포섭했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44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所引『魏略』,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45 『鹽鐵論』卷8, 伐功 第45,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46 이후석, 2017a, 앞의 글, 30쪽.

47 이성규,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민강좌』 32.

사실 『염철론』 별공편은 ‘동호’와 ‘조선’이 함께 언급되어 있고, 고조선 중심지 평양설의 근거로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사료이다. 그렇지만 별공편의 관련 기사는 무제(武帝) 사후 흉노가 북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제(齊)가 산용(山戎)-고죽(孤竹)-영지(令支)를 정벌하고, 연이 동호-조선을 퇴축시킨 사건들을 압축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제환공의 산용 정벌과 고죽-영지 정벌은 구분되는 사건이란 점을 고려할 때, 연의 동호-조선 퇴축 사실 역시 행위 그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위치 관계나 정벌 과정을 말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⁴⁸ 또한 『사기』 연소공세가(燕召公世家)의 소왕대의 기록에서 장성 구축이나 5군 설치 관련 기사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도 동호·조선 퇴축 기사의 신뢰성에 흠이 된다. 『염철론』 별공편과 『사기』 흉노열전 관련 기사 모두 흉노로 대표되는 북방 이민족과 중원 국가(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식적인 전제이며, 앞서 이미 밝혔지만 ‘조선’과 ‘요동’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서한 때의 인식으로 생각된다.⁴⁹ 다만 『염철론』에 따르면 ‘조선’은 동대장자유형보다 정가와자유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초기고조선의 물질문화를 정가와자유형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고고학적 근거로는 후기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지목되는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와의 계승성과 연속성에 있다.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를 후기고조선의 물질문화로 보는 것이 다수 견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기종의 무기류와 의기류를 공유하며, 점토 대토기문화라는 토기문화가 동질적이라는 것은 정가와자유형을 초기고조선의 물질문화로 비정하지 않고서는 설명되기 힘든 현상이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문화와는 달리 광역 교류망이 형성되어 있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요동 동부 지역(단동 일원)이나 한반도의 평양 일대까지 정가와자유형이 파급되는 한편, 정가와자식의 비파형동검이 북방초원계통 유목집단들이 거주하는 흑룡강성 쌍성

48 이후석, 2017a, 앞의 글, 29쪽.

49 吉本道雅, 2008b, 앞의 글.

일원(吳家村)이나 내몽고 동북부의 호룬패이 일원(伊敏河)까지 확산된다.⁵⁰ 이와 같이 지역 간의 관계망이 강화되고 원거리의 광역 교류망이 구축되는 것은 이전 단계에는 볼 수 없던 정가와자유형 단계의 특징적인 양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십이대영자문화 범위 안에서도 연과 더 가까이 있는 집단으로 기술되어 있는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이 ‘맥국’과 관련되는 문화라면, 연의 동방에서 요동지역(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관계망을 강화시켜 갔던 정가와자유형은 ‘조선’으로 비정할 수 있다. 동대장자유형의 주민집단과 정가와자유형의 주민집단은 십이대영자문화라는 문화 전통을 공유하는 동류집단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고대문헌 속의 고조선은 모두 당시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것이므로 고조선의 국가 구조 또는 정치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고조선이 여러 지역정치체가 연맹체적 관계망에 결속되어 있는 초기국가로 설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⁵¹ 정가와자유형(朝鮮)은 물론 동대장자유형(鎭國)도 고조선의 연맹체적 관계망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치체 간 관계망은 가변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당대 중국인의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인식됐을 가능성도 있다.

전국시대 이후 연의 물질문화가 요서지역으로 대거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전국연계 물질문화는 대릉하의 상류 일대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중하류나 소릉하유역의 경우 청동유물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특히 무기류와 예기류는 건창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하북-요서 접경 지역 또는 요서 서부지역에만 밀집되어 있어 전국연계 물질문화는 제한적으로만 파급되었으며, 토착유물들과 공반되는 예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요서지역의 주민집단의 대부분은 맥계(鎭系) 또는 고조선계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다.

50 이후석, 2017a, 앞의 글, 21쪽.

51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정치체제」, 『동북아역사논총』 47; 박준형, 2014, 앞의 책.

이와 같이 전국 전기~중기(기원전 4세기대 전후)에는 요서지역으로 연계 물질문화가 상당부분 확산되었지만, 이는 요서 서부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 속에 포함되어 동대장자유형을 성립·발전시킨 계기였고, 이때 요동지역에는 십이대영자문화 정가와자유형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망이 한층 강화된다. 중국 고대문헌 기록이나 비파형동검문화가 세형동검문화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고고학적 맥락으로 보아 요동지역의 정가와자유형이 ‘조선’으로 비정되며, 이와 문화 배경을 공유하는 동류 집단으로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은 맥(국)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전국시대 이후 요서지역에는 연의 물질문화가 일정하게 확산되었지만, 전국 중기까지 연은 요서지역으로 직접 진출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역화와 관련되는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고조선은 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주변 지역과의 관계망을 강화시켜 나갔는데, 요서지역 정치체를 연맹체로 결속시킨 후에 연과 교류했던 일이 중국인의 시각에는 같은 무리로서 인식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조선계 물질문화와 연계 물질문화는 하북-요서 접경지역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고, 중국인의 시각에는 고조선과 연의 경계 역시 하북-요서 접경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Ⅲ. 전쟁 이후 고조선과 연의 경계

1. 전쟁 이후 요동~서북한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담당자

『위략』에는 전쟁 후에 연이 조선 서방 영토를 빼앗은 후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며, 『사기』 흉노열전에는 연이 동호를 퇴축시킨 후에 조양에서 양평까지 장성을 축조하고 5군을 설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연이 ‘동호’와 ‘조선’을 단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공격하여 장성이나 5군 외곽으로 퇴축시킨 셈

이 된다. 그렇다면 전국시대 연의 요동 방면 진출 범위와 전쟁 후의 고조선의 재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연이 요동 방면으로 진출했던 것은 『사기』 조선열전 등을 볼 때 전성기인 소왕(기원전 311~279년 재위)시기, 특히 기원전 3세기대 초엽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⁵² 그럼에도 일본 학계의 彌生年代 상향론자들은 建昌 東大杖子 40호묘⁵³나 朝陽 袁臺子 1호묘⁵⁴와 같은 요서지역의 일부 연묘들과 遼陽 徐往子 戰國墓⁵⁵나 瀋陽 新光院 戰國墓⁵⁶와 같은 요중지역의 일부 연묘들을 전국 전기~중기(기원전 4세기대)까지 올려 보고 늦더라도 이때에는 연이 요중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주장한다.⁵⁷ 이는 결국 중원세력이 문헌 기록보다 일찍 요동지역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까지 진출하였다는 것이어서 고조선의 존재와 역할은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요서-요중지역의 상위계층 연묘들은 연하도의 연묘들과 출토유물을 비교하여 편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사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요 무덤들에 대한 상대편년은 어느 정도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이를테면 ‘東沈村 5호묘→解村 2호묘·東斗城村 29호묘→九女臺 16호묘→辛莊頭 30호묘’는 전국 중기 초두에서 서한 전기 초두라는 연대 폭에 속해 있는 무덤이다.

그렇지만 연대 상향론자들이 주요 근거로 활용했던 연하도 구녀대 16호묘는 이와 유사 예기 조합을 나타내는 中山王墓(조묘; 기원전 313년)보다 늦게 조

52 盧泰敦, 1990, 앞의 글; 배진영, 2010, 앞의 책; 徐榮洙, 1988, 앞의 글.

5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M40發掘簡報」, 『考古』 2014-12.

5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朝陽袁臺子』, 文物出版社.

55 邢愛文 主編, 2009, 『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56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93, 『瀋陽市文物志』; 李曉鍾, 2007, 「瀋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瀋陽考古文集』 1.

57 宮本一夫, 2000, 「戰國燕의 擴大」, 『中國古代北疆史의 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石川岳彦, 2016, 「東北アジア青銅器時代の年代」, 『季刊 考古學』 135; 小林青樹, 2016, 「遼寧青銅器文化」, 『季刊 考古學』 135.

영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보다는 이른 해촌 2호묘가 전국 중기로 편년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시 편년은 해촌 2호묘와 동두성촌 2호묘의 관계 설정과 이에 후행하는 구녀대 16호묘의 절대편년이 관건이다.

최근에는 ‘해촌 2호묘 → 동두성촌 29호묘’로 보는 견해⁵⁸와 ‘동두성촌 29호묘 → 해촌 2호묘’로 보는 견해⁵⁹가 제시되어 가장 큰 견해차를 드러내었는데, 연하도의 귀족무덤에서 방호(方壺)라는 신종 도제예기가 채용되는 것은 해촌 단계부터이며, 중형묘인 해촌 2호묘와 소형묘인 동두성촌 29호묘의 부장유물에는 시기차가 아닌 계층차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⁶⁰ 이는 연후(燕侯)의 칭왕(稱王) 단계부터 나타나는 부장예기 조합의 변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촌 2호묘는 전국 중기 후반(기원전 4세기대 후엽)으로, 이에 후행하는 구녀대 16호묘는 전국 후기 전반(기원전 3세기대 전엽)으로 편년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연의 귀족무덤과 요서-요중지역에서 확인되는 대형연묘 출토유물을 비교하여 보면, 일단 연하도 구녀대 16호묘와 건창 동대장자 40호묘, 요양 서왕자 전국묘가 거의 같은 도제예기 조합을 나타내는 한편 일부 기종에서 기형 차이가 확인되고 있어 거의 같은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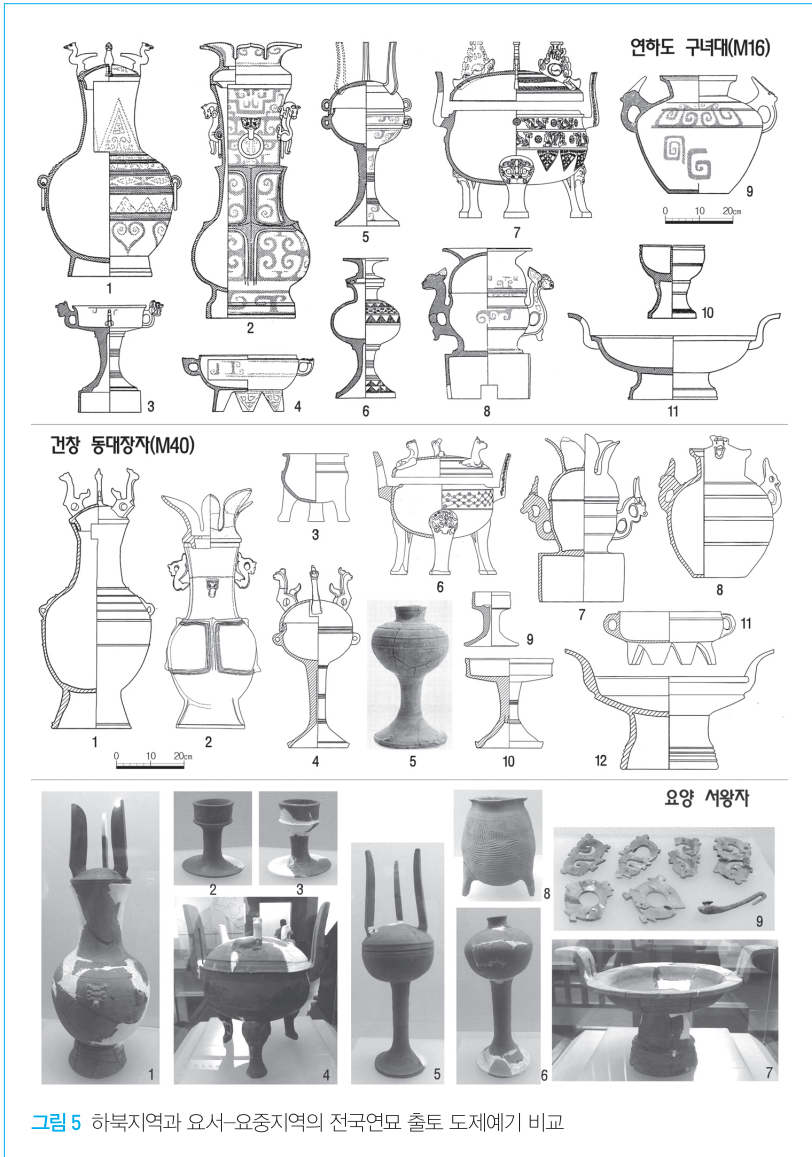
요서-요중지역의 대형연묘 출토 도제예기에는 ‘특별기군’과 ‘통상기군’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⁶¹ 상위계층 무덤임에 틀림없다. 구녀대와 동대장자, 서왕자의 도제예기 중에 편년 관계가 확인되는 공통 기종들은 기본적으로 도호(陶壺, 圓壺), 도정(陶鼎), 도두(陶豆), 도반(陶盤), 도이(陶匱) 등의 통상기군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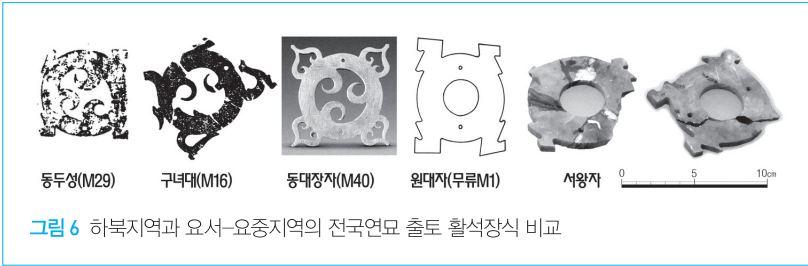
58 裴炫俊, 2017, 「燕下都 土製禮器 副葬무덤의 年代에 대한 비판적 檢討」, 『한국상고사학보』 96.

59 趙鎭先, 2015, 「燕下都의 造營과 都城 機能의 變遷」, 『韓國考古學報』 96.

60 이후석, 2016b, 앞의 글.

61 로타 본 팔겐하우젠, 심재훈, 2011,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세창출판사, 458~463쪽.





가운데 원호와 도두, 도반은 공통적으로 구녀대 16호묘에 비해 동대장자 40호묘와 서왕자묘의 것이 몸체와 대각이 더 세장하고, 뚜껑이나 손잡이가 더욱 길어진다든지 배신 손잡이의 외반 곡률이 더욱 커져 후행하는 형식이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또한 활석 장식으로 보면 구녀대 16호묘와 동대장자 40호묘 출토품이 최상품에 해당되고, 동두성촌 29호묘 출토품에 비해 약간 간략해졌지만 원대자 1호묘나 서왕자묘 출토품과 함께 한 그룹으로 볼 수 있다(그림 6). 원대자 1호묘와 서왕자묘에서 도제예기 일부 기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같은 상위계층 내에서도 등급 차이가 확인된다.⁶²

이와 같이 연하도의 연묘들과 요서-요중지역에서 일부 확인되는 대형연묘들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일본 학계의 연대 상향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국 후기 이전부터 연의 상위계층 무덤들이 조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연 요동군의 지배거점으로 추정되는 토성들과 함께 전국 후기 이후야 조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나마도 이와 같은 연의 토성이나 중대형의 연묘들은 요중지역을 포함한 그 이서지역에만 분포하

62 요양 서왕자묘의 경우 특별기군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무덤 파괴 과정에서 수습조사되었으며, 부장유물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함께 수습되었다고 하는 燕式甬이 동근 저부를 가진 것이어서 전국 중기로 편년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나(宮本一夫, 2000, 앞의 글; 石川岳彦, 2016, 앞의 글), 타날이나 족부 접합 등의 제작기법에는 일부 차이점도 확인된다. 다른 기종에서 확연하게 늦은 속성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기존 燕式甬의 편년안은 실제보다 다소 올려 본 것 같다.

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국연계 물질문화가 요하방면으로 본격 확산되는 것은 전국 후기 이후이며, 이에 따라 연이 요하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도 이때에야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서-요중지역에서 전국 중기까지 올려 볼 수 있는 연계 분묘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서지역의 喀左 眉眼溝 戰國墓⁶³와 요중지역의 瀋陽 熱愛里 戰國墓⁶⁴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미안구는 채집 유물들로 보아 여러 기의 목곽묘(M1·M2 등)와 옹관묘(M1·M2 등)가 조영되어 있는 묘지이며, 열애리는 1기만이 분포하는 단독목곽묘에 해당한다. 모두 중소형의 관곽묘로 분묘 주축은 남북방향이며, 두향은 북향이다. 부장유물은 연계 도제예기 일색으로 모두 두향 쪽의 관곽 사이에 일괄 배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연계 무덤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안구묘의 경우 북방초원계통 동물 순생(양)이 확인되고 있어 피장자는 연하도문화의 주변부나 외곽 출신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의 경우 미안구묘(M1)에서는 도정 2점, 도두 2점, 도호 2점, 도반 1점, 단경호형도격(短頸壺形陶甬) 2점 외에 장조형소석판(長條形小石板) 16점이 출토되었으며, 열애리묘에서는 도정 1점, 도호 2점, 도반 1점, 도이 1점 등이 출토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국 중기단계 ‘정+두+호+반+이’의 도제예기 조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안구의 단경호형 도력은 연하도문화의 도제예기에는 확인되지 않는 기형이란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도호가 전국 전기까지 올려볼 수 있는 기형이라 하더라도⁶⁵ 전국 중기로 편년하는 것이 합당하다. 열애리의 도호는 동체가 세장하고 뚜껑이 삼각상에 가까워진 형태여서 동침촌 5호묘나 그 직후 단계이며, 도반과 도이는 동침촌 5호묘보다는 늦고, 해촌 2호묘에 가까워진

63 朝陽地區博物館·喀左縣文化館, 1985, 「遼寧喀左大城子眉眼溝戰國墓」, 『考古』1985-1.

64 金殿士, 1959, 「瀋陽南市區發現戰國墓」, 『文物』1959-4;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93, 『瀋陽市文物志』.

65 石川岳彦, 2001, 앞의 글.

형태여서 전국 중기 늦은 단계로 편년된다.⁶⁶

그러므로 연계 분묘들은 전국 후기 이전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상위계층으로 볼 수 없는 중소형묘이고, 출토유물 역시 전국 중기부터 확인되는 도제예기 조합이다. 또한 맥락 없이 1기만이 단독으로 분포한다든지 토착 분묘들과 인접하여 조영되는 점과 북방초원계통 동물 순생(양)이 확인되고 일부 도제 예기는 연식 토기와는 다른 기형을 나타내는 점도 연하도문화의 전형 연묘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징이다. 연계 도제예기의 상한연대와 달리 하한연대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전국시대 이래 하북지역과 요서지역의 정치체나 주민집단 간의 물질문화 교류 과정에 수반되는 인적 교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위략』 등의 문헌 기록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 현상이다. 연의 군현 지배와 관련되는 상위계층 무덤들은 전국 후기 이후에야 조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편 요중지역에는 燕의 遼東郡이 설치되었음을 알려주는 명문 자료가 일부 출토되어 있다. 遼陽 下麥窩 매납유적에서 襄平布가, 遼陽 三道壕 옹관묘군에서 ‘昌平’명의 대용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요양과 심양 일대에는 연계 반와당이 적지 않게 출토된 바 있고, 遼陽 古城이나 瀋陽 宮后里古城은 초축연대가 전국 후기까지 소급되는 자료이다.⁶⁷

이와 달리 요중지역을 제외하면 요동 산간지역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 전국 후기 단계의 전형적인 전국연묘나 토성 유적은 물론 기와건물지와 같은 중원문화 유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국연계 유물들이 출토되는 유적들은 상당수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세형동검문화 유적에서 소량 출토되는 정도

66 해촌 2호묘는 연하도의 연묘 편년관에 따라 기원전 4세기대 중엽(裴炫俊, 2017, 앞의 글)이나, 기원전 3세기대 전엽(趙鎭先, 2015, 앞의 글)으로 보기도 하는데, 연하도문화의 외곽에서 도제예기 제작기술의 트렌드가 얼마만큼 적용됐는지는 현재 자료로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67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瀋陽考古發現六十年: 出土文物卷』, 遼海出版社; 邢愛文 主編, 2009, 『瀋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이며, 중원계통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한대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기원전 3세기 초 연의 요동지역 진출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테면 연이 청천강유역에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로도 제시되는 박천 단산리 유적의 경우 반외당은 전국연계 유물로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문양이 간략화된 것인데다 연하도문화의 중심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어서⁶⁸ 연의 요중지역 진출과는 관련 없는 자료이다. 평기와도 서북한지역의 한대 토성에서 종종 출토되는 승문회색기와여서 진한교체기나 그 전후의 전국연계 유이민과 관련되는 유물이라 생각된다.⁶⁹ 동모용범(銅鉞鎔范) 역시 활석제로 추정되며, 형태대로 보면 삼진(三晉)계통으로 연의 동모에서 찾아지지 않는 형식이다(그림 7)). 그러므로 전국 후기 단계 연의 요하 방면 진출은 요중지역 또는 요동반도 서북지역에 한정되었으며, 요동 동부지역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에는 토착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동반도 남부지역 역시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흔적들은 명도전(明刀錢)을 제외하면 일부 토기류나 철기류에 한정되며, 전국 후기부터 연의 지배 거점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적이나 유구들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

68 吳磬軍, 2014, 『燕下都瓦當』, 古宮出版社.

69 이후석, 2017b, 「上堡村類型的 변천과 성격」, 『고고학』 16-2.

다. 이는 동 시기의 요서지역이나 요중지역에서 확인되는 분묘 또는 생활유적에서 연계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⁷⁰

연과 관련되는 것으로도 언급되는 유적들도 사실 旅順 牧羊城과 그 주변의 소위 남산리(윤가촌) 철기묘가 유일하다. 목양성의 경우 최근 축조 연대를 전국 후기까지 올려보는 연구들이 제시되었지만⁷¹ 연식 토기류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파편 몇 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일부 자료들은 전형적인 연식 토기 그 자체가 아닌 소위 요동식 부형토기라고 하는 변형토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⁷² 다량 출토되었다는 명도전도 층위 맥락없이 수습됐던 것이어서 전국 후기 축조 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목양성은 최초 보고대로 서한 초기 또는 전국 말~서한 초 무렵 축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⁷³ 또한 남산리 철기묘라 하는 중원문화 추정무덤 역시 철제농구 20여 점이 대호(大壺) 안에 일괄 매납되어 있는 것이어서 전국 말~서한 초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재 자료로는 연요동군의 직접적인 지배 범위 내에 요동반도 남부지역(대련 일대)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한편 전쟁 전후 요동반도 남부지역과 요동 동부지역에는 토착문화에 동대장자유형과 정가와자유형의 물질문화 요소들이 복합되는 과정에서 비파형동검문화가 세형동검문화로 전환된다. 다만 요동반도 남부지역과 요동 동부지역은 묘제와 유물 구성 형식에서 일정부분 차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크게 두 지역문화로 분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동반도 남부지역은 대련 지구를 중심으로 검신 양쪽이 평행한 직인형동검

70 이후석, 2016a, 「尹家村類型的 변천과 성격」, 『중양고고연구』 19.

71 大貫靜夫, 2007, 「戰國秦漢時代の遼東郡と牧羊城」,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石川岳彦, 2007, 「牧羊城2・3類土器」における戰國時代土器」,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72 鄭仁盛, 2014, 「燕式土器文化의 확산과 後期 古朝鮮의 토기문화-細竹里·蓮花堡類型的 이해를 바탕으로-」, 『白山學報』 100.

73 이후석, 2016a,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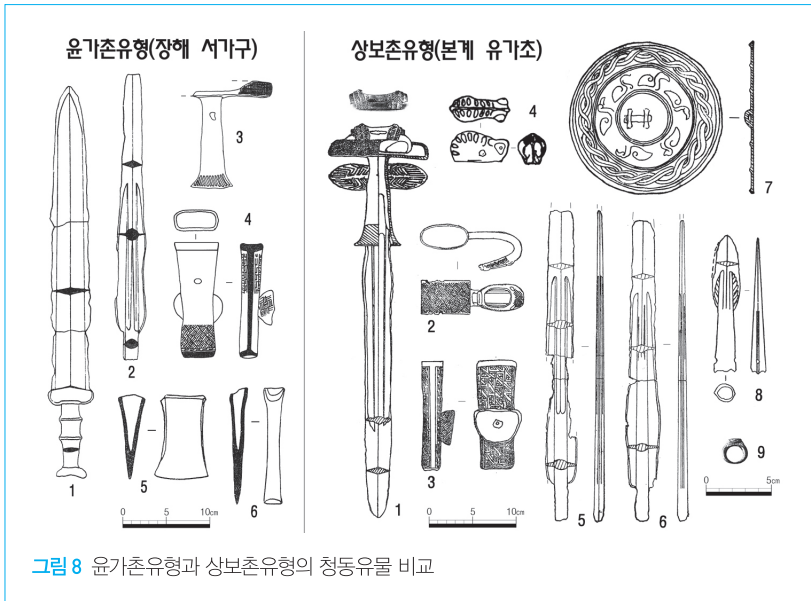


그림 8 윤가촌유형과 상보촌유형의 청동유물 비교

(윤가촌식동검)이 사용되고 다뉴경과 함께 요령식 동과나 세형동모 같은 신종 청동무기가 제작되지 않는 것에 비해, 요동 동부지역과 한반도의 서북지역은 본계-단동-평양지구를 중심으로 검신 상부 폭에 비해 하부 폭이 넓어 불룩해진 유건식동검(상보촌식동검)이 사용되고 다뉴경과 함께 요령식 동과나 세형동모가 사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전자의 지역문화는 윤가촌유형으로, 후자의 지역문화는 상보촌유형으로 각각 설정되고 있다(그림 8).⁷⁴

두 지역문화의 차별성은 토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윤가촌유형에서는 이전 단계의 상마석식 이중구연토기를 계승하는 이중구연심발과 중대형의 파수부호가 조합되며, 상보촌유형에서는 정가와자유형을 계승하는 점토대토기심발과 평저장경호가 다수 출토된다. 이외에도 공통 기종으로 두형토기가 보이는데, 윤가촌유형의 것은 배신이 얇고 대각에 투창이나 장식성이 있는 ‘나

74 이후석, 2016a, 앞의 글; 이후석, 2017b, 앞의 글.

팔두'가 많은 것에 비해, 상보촌유형의 것은 배신 깊이가 다양하고 대각에도 장식과 투창이 전혀 없는 '나팔두'와 '고병두'가 주로 확인된다.

자연 지형이나 문화 교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요동 남부지역은 요중지역의 연 요동군과 해안 교통로를 통해 왕래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연계(燕系) 유물들은 물론 제(齊)나 삼진(三晉)계통 유물들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 출토되는 예가 많다. 이에 비해 요동 동부지역은 천산산맥 일대의 자연계선으로 인해 하천변의 수변 교통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요중지역의 요동군과 쉽게 왕래할 수 없는 지역이다. 간혹 요동반도 해안지역을 거쳐 유입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월계(越系) 동검 등이 보이지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주로 연계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연에 밀려 후퇴했던 고조선의 일부 주민들은 요동 산간지역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까지 이동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은 요중지역의 정가와자유형이 이미 파급되어 그 관계망에 포함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고조선의 국가구조나 정치체제에 얼마만큼 포괄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전쟁 이후 고조선은 기존 연맹체가 상당부분 와해되어 요하 방면 유이민과 요동 동부~서북한지역의 토착민이 결속되어 다른 연맹체로 재편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연의 정치군사적인 압력은 토착세력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외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미 확보되어 있던 정가와자유형의 관계망은 토착세력이 서로 교류하며 고조선이 재편되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요동 동부지역과 한반도의 서북지역은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청동무기류와 다뉴조세문경의 양식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점토대토기문화 또한 연속성과 계승성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물론 서북한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식 세형동검이 보이지만 요령식 세형동검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는데다 한국식 동과와 동모 역시 요령식 동과와 세형동모에서 전이되어 새로 등장하는 신종 무기라는 측면에서 문화 배경이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청동유물의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아 제작집단을 통괄하는 상위집단이 존재하였다고 생



그림 9 요동 동부~북한지역 상보촌유형의 세형동검문화 유물(전국후기)

각되며, 한반도의 서북지역은 요령식 세형동검문화와 한국식 세형동검문화가 교차하는 점이지대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그림 9).⁷⁵

북한 학계에서 세형동검문화 관련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 많아 구체적인 문화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의 문화 관계는 전쟁 이후의 문화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쟁 과정에서 고조선이 요중지역에서 후퇴하였다면 요동지역의 정가와자유형이나 상보촌유형의 물질문화 요소들이 한반도의 서북지역에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전쟁 이후의 고조선은 상보촌유형의 관계망을 바탕으로 한 연맹체로 재편되었다고 생각된다.

요동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요동 동부지역과 달리 연의 요동군과 고조선의 직접지배를 받지 않은 지역으로 생각되나, 지리적인 측면이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두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고조선보다는 연의 간접적인 영향하에 있는 예맥계통 정치체가 자리했을 가능성도 있다.⁷⁶ 약간 늦은 다음 단계 자료지

75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の細形銅劍文化和古朝鮮」, 『東北亞歷史論叢』 44.

76 요동반도 남부지역의 구체적인 역사 정황은 아직 가변적이라고 생각된다.

만 普蘭店 張店古城에서 출토되었다는 ‘臨穢丞印’ 封泥 등은 이 일대에서 예맥계통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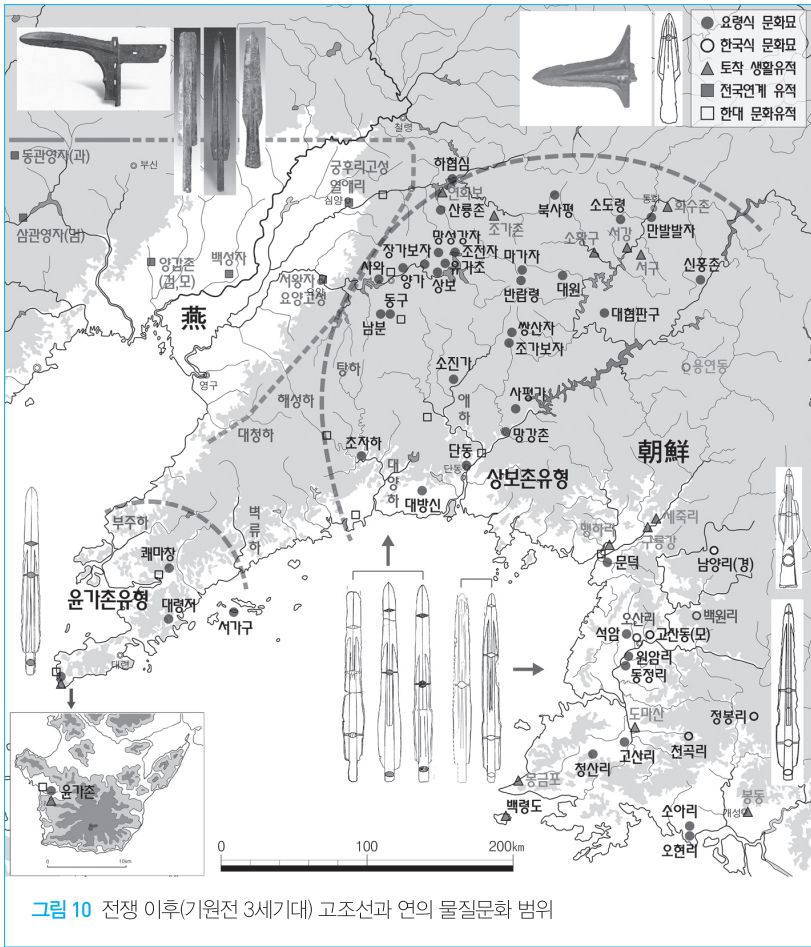
2. 전쟁 이후 고조선과 연의 물질문화 범위와 경계

고조선과 연의 전쟁 이후 기원전 3세기대 요동지역의 물질문화는 요중지역의 전국연계 중원문화와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로 확연하게 구별된다. 요중지역은 요하 평원지역을 중심으로 연의 요동군이 설치됐던 지역으로 중원 문화의 교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요동~서북한지역은 고조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역으로 요동반도 남부지역의 윤가촌유형과 요동 동부~서북한지역의 상보촌유형으로 세형동검문화가 분화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면, 윤가촌유형은 예맥계통 정치체나 주민집단으로 추정되며, 상보촌유형은 전쟁 후에 재편되어 있는 고조선의 물질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동반도 남부지역은 요동 동부지역과 문화적인 차이가 일정부분 확인되고 있어 고조선의 직접적인 지배영역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진한교체기에 들어오면 위만조성과 관련되는 옹관묘나 토기류가 대련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어 고조선과 간접적인 관계망은 한때나마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윤가촌유형과 상보촌유형은 천산산맥 일대에서 남류하는 벽류하와 대양하의 사이에서 물질문화가 동서 양쪽으로 구별된다. 두 지역은 일정하게 교류했을 법도 한데, 전국 후기 단계 세형동검문화의 교류 흔적은 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요중지역과 요동 동부지역은 천산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긴 하나 해성하와 연결되는 대양하의 수변 교통로를 통해 서로 왕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서한 전기 무렵 전국연계 유이민과 관련되는 유적으로 추정되는 岫巖 宏新村 유적⁷⁷은 이와 같은 지리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77 鞍山市岫巖滿族博物館, 2009, 「遼寧岫巖城南遺址」, 『北方文物』 2009-2.



연 요동군의 물질문화와 상보촌유형의 고조선계 세형동검문화는 대략 천산 산맥 일대를 기준으로 구분되나 천산산맥의 규모가 워낙 커서 구체적으로는 수 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혼하 수계에서는 무순시를 기준으로 그 상하류 방면으로 연계 중원문화와 세형동검문화가 구별된다. 세형동검문화 유적들은 소자하를 따라 부이강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따라 널리 분포한다. 다음으로 태자하 수계에서는 요양-본계 접경지역을 점이지대로 하여 그 상하류 방면으로 연

계 중원문화와 세형동검문화가 구별된다. 전국연계 물질문화 요소들은 본계 일대에서 널리 확인되나 고조선계 지배층의 분묘에서 세형동검문화 유물들과 공반되는 것이어서 문화 교류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당하와 대양하의 중간지대는 흑산(해발 1181m) 일대의 가장 험한 산지여서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세형동검문화는 대양하유역의 수암 일대까지 분포한다. 전국연계 중원문화와 세형동검문화는 ‘당하-대청하-해성하’의 상류 일대에서 서로 만났거나 이를 공백지대로 하여 서로 접촉하지 않은 것 같다(그림 10).

이와 같이 고조선계 세형동검문화와 전국연계 중원문화는 천산산맥의 북서변을 연결하는 선이 물질문화의 접이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조선과 연(요동군)의 경계지대를 설정할 수 있겠는데, 결국 천산산맥 서변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위략』에서 고조선과 연의 경계라고 기술되어 있는 ‘만변한’을 천산산맥 서변에서 구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 성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⁷⁸ 만변한은 연 요동군의 ‘양평’ 남쪽 또는 동쪽에 위치했을 것이므로 중국 문헌 기록과도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학계의 경우 『한서』 지리지⁷⁹와 『후한서』 군국지⁸⁰의 요동군의 속현 중에 문현(文縣, 또는 汶縣)과 변한현(番汗縣)이 연칭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만변한’을 문현과 변한현의 연칭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주 부근이나 ‘대청하’로 구체화하거나,⁸¹ 문현은 동일하나 변한현은 청천강의 인근으로 보는 견해⁸² 등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⁸³ 대체로 전자는 중심지 이동설의 입

78 盧泰敦, 1990, 앞의 글;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徐榮洙, 1988, 앞의 글.

79 『漢書』 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 …… 縣十八, 襄平, 新昌, 無慮, 望平, 房, 候城, 遼隊, 遼陽, 險瀆, 居就, 高顯, 安市, 武次, 平郭, 西安平, 文, 番汗, 沓氏”.

80 『後漢書』 卷30, 志23 君國5, “遼東郡 十一城 …… 襄平, 新昌, 無慮, 望平, 候城, 安市, 平郭有鐵, 西安平, 汶, 番汗, 沓氏”.

81 盧泰敦, 1990, 앞의 글; 박준형, 2014, 앞의 책; 徐榮洙, 1988, 앞의 글.

82 송호정, 2003, 앞의 책.

83 중국 학계의 경우 문현에 대해서는 營口 英守溝古城(中央民族學院出版社 編,

장이며, 후자는 평양 중심설과 관련되는 견해이다.

그렇지만 문현과 변한현이 아주 가까이 인접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다. ‘문현-변한현’의 앞에 언급되어 있는 서안평현(西安平縣)은 요동군의 가장 동남부로, 그 뒤에 언급되어 있는 답씨현(沓氏縣)은 요동군의 가장 서남부로 각각 비정되는 속현이다. 그러므로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의 속현 기재 순서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보여줄 뿐 구체적인 인접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앞의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변한이 ‘문현+변한현’의 반영인지, ‘변한현’만 반영하는 말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변한현의 위치를 한반도의 서북지역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문현을 천산산맥 이서지역에, 변한현을 청천강의 중하류에 비정하게 되면 이를 연결하는 선은 천산산맥을 횡단하고 난 후 여러 개의 큰 하천을 다시 횡단하여 경계선이 정해지게 되어 자연 지형이나 물질문화의 범위와는 완전 상이하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물질문화가 완전 달리 나타나는 곳을 모두 고조선의 영역으로 묶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지만 청천강유역의 중하류에서는 전국 후기 단계까지 연의 전형 유적들이 확인된 바 없다. 더군다나 변한현의 이북지역에 위치하는 요동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 武次縣)가 후한대에 폐지되는 상황에서 최전방의 변한현은 폐지되지 않고 요동군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결국 청천강의 주변 지역에서 변한현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그림 10〉).

그럼에도 고조선과 연의 경계지대를 종래 청천강의 중하류로 보아왔던 것은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 변한현조(遼東郡 番汗縣條)에 나와 있는 반고(班固) 주석에서 ‘패수(沛水)’가 언급되어 있는 점과, 대략 청천강유역을 경계삼아 그 이북에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이란 전국연계 철기문화가, 그 이남지역에는 세형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東北卷』, 海城 析木城古城(孫進己·王綿厚 主編, 1989, 『東北歷史地理』 1, 黑龍江人民出版社) 등이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동검문화(한국식)가 유행했던 것을 연과 고조선의 경계로서 이해하여 왔던 전통적인 인식 때문으로 생각된다.

먼저 『한서』 지리지의 변한현에 대한 내용 문제인데, 이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다.⁸⁴ 반고 주석에는 패수(沛水)가 새외(塞外)에서 나와 서남으로 입해(入海)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원 전후 시기 인식이며, 올려보더라도 낙랑군을 통해 입수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석자가 채록했던 내용으로 생각된다. 이에 서한 말기 때의 인식으로 서한 초기 이전 단계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패수와 변한현을 시종일관 청천강의 지류 또는 그 하류 일대로 보기 위해서는 더 확실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염철론』 주진편(誅秦篇)에 진(秦)이 동쪽으로 패수(沛水)를 끊어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하는⁸⁵ 것을 보면 이때 진은 연에 비해 더욱 조선 방향으로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진이 천산산맥 이남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고조선의 북쪽 또는 서쪽 경계는 좀 더 후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전국 말~전한 초 단계 이후 윤가촌유형이 급격하게 소멸하고, 상보촌유형도 그 서쪽 범위가 약간 축소되는 것이 천산산맥 이남지역으로 진이 진출했던 것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패수와 변한현도 이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진한대의 요동군은 지배 범위와 속현 수가 다소 변동되었는데, 서한 초기에는 요서군의 속현들과 합산하여 29개 현이 있었으며,⁸⁶ 서한 말기에는 요동군에 18개 현이 있었다고⁸⁷ 한다. 주목되는 것은 서한 말기 요서군과 요동

84 『漢書』卷28下, 地理志 第8下, “沛水出塞外 西南入海”; 『說文解字』11篇上, “沛水出遼東番汗塞外 西南入海”.

85 『鹽鐵論』卷8, 誅秦 第44, “秦既并天下 東絕沛水 並滅朝鮮”.

86 『史記』卷57, 世家 第27 絳侯 周勃, “定上谷十二縣 右北平十六縣 遼西遼東二十九縣 漁陽二十二縣”.

87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 …… 縣十八”.

군의 속현들을 합산하면 모두 32개 현이 되어 서한 초기보다 3개 현이 증가하는 것에 있다. 물론 이 3개 현 중에는 요서군에 속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5군(郡) 중에 어양군과 우북평군의 속현 수가 변동되지 않았으며, 진대(秦代)에는 동방으로 영역을 더 확장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한(漢)이 국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요동군의 속현 수가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동군의 속현 중에 대부분은 위치 비정에 큰 이견차가 없어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다.⁸⁸ 속현 위치 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천산산맥 이서에는 14개 현이, 그 이남에는 1개 현(杏氏縣)이, 그 이동에는 3개 현(武次縣·西安平縣 등)이 각각 비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진한(秦漢) 초기 이후 천산산맥 이남 또는 이동지역으로 요동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략 3~4개 현이 추가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그 치소가 普蘭店 張店古城으로 추정되는 답씨현, 鳳城 劉家堡子 유적으로 추정되는 무차현, 丹東 靉河尖古城으로 추정되는 서안평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유가보자와 애하침고성은 중심연대가 서한 중기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한(西漢) 무제(武帝) 즉위 전후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벽류하와 대양하의 사이에는 아무 현도 비정되지 않아 넓은 공백지대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변한현이 이 무렵, 이 일대(장하~동향)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

다음으로 ‘세죽리-연화보유형’과 세형동검문화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 학계와 중국 학계의 관련 유적조사 자료들을 국내에서 쉽게 활용하지 못한 1990년대 이전에는 서한대의 패수(溍水)를 청천강에 비정하는 일부 문헌 연구 결과와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의 분포권과 명도전의 분포권이 청천강유역을 경계삼아 서로 구별되어 나타나는 문화 양상을 중시했다.⁸⁹ 그리하여 전쟁 이후 고조선의 물질문화를 청천강의 이남지역에서 유행했던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로

88 배진영, 2008, 「한대 요동군의 군현 지배」,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89 尹武炳, 1972, 「韓國 靑銅遺物의 研究」, 『白山學報』 12.

보는 것은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문화 양상을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과거 요하유역의 초기세형동검문화로 인식되어 왔던 요령식 세형동검문화와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는 시기적으로나 형식학적으로 직접적인 계승관계하에 있지 않고,⁹⁰ 시기적·지역적으로 병행하는 지역문화라는 것이 최근 밝혀짐에 따라⁹¹ 요중지역의 후기비파형동검문화(정가와자유형)가 한반도의 중서부지역에 유입되어 한국식 세형동검문화가 성립하였거나,⁹² 연의 요동 진출 이전 한반도의 서부지역에서 자체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성립하였다는⁹³ 견해들이 주목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전쟁 이전 고조선의 중심지로 요중지역의 정가와자유형에 주목하는⁹⁴ 한편, 고조선의 이동 후에 나타나는 물질문화로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 또는 초기철기문화에 주목하는 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⁹⁵

한편 북한 학계의 경우 전국연계 유물들이 복합되어 있는 대릉하의 이동부터 대동강의 상류 일대까지 확인되는 초기철기문화를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으로 규정하고 전쟁 이후 등장하는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인식하였지만,⁹⁶ 연

90 이견무, 1990, 「초기철기시대 유적」, 『북한의 문화유산』 I, 고려원.

91 李厚錫, 2008, 「中國 東北地域의 細形銅劍文化 研究-遼寧式細形銅劍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21; 趙鎭先, 2005, 「북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發展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7.

92 李健茂, 1994, 「韓國式銅劍文化의 性格-成立背景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靑銅器文化』, 國立文化財研究所; 趙鎭先, 2005, 앞의 글.

93 李清圭, 2005, 앞의 글.

94 金玟燦, 2014, 앞의 글; 박준형, 2014, 앞의 책; 吳江原, 2013, 앞의 글; 이청규, 2005, 앞의 글; 이후석, 2014, 앞의 글.

95 김상민, 2017, 「요령지역 철기문화의 전개와 한반도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역사논총』 55; 이후석, 2017b, 앞의 글; 정인성, 2016, 「연계 철기문화의 확산과 그 배경」, 『영남고고학』 74.

96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편,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39~143쪽.

진한대 요동군의 양평이 현재의 요양 일대이고 한대 이후 요동반도 남부지역이 요동군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이상 요동 서부지역은 세죽리-연화보유형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천산산맥 일대를 기준으로 그 이서지역은 연 요동군의 영역이고, 그 이동지역은 고조선(연맹체)의 범위라고 생각된다.

또한 ‘세죽리-연화보유형’은 ‘명도전 관계 유적’이란 별칭에서 보이듯이 명도전이 문화 성격 규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천산산맥 이동지역에서 명도전을 부장하는 분묘들은 모두 상보촌유형의 세형동검문화 유적이며,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 명도전이 출토되는 매납유적들도 진한대의 화폐들이 함께 발견되는 예가 많아 대부분이 전국 말기 이후의 혼란기와 관련되는 것인데다⁹⁷ 주로 산간지역의 교통로 부근에 위치하여 모피교역과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⁹⁸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⁹⁹ 전국연계 철기 역시 매납유구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토착 세형동검문화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요동군을 통한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선택적인 수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¹⁰⁰ 중국 학계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더라도 세죽리-연화보유형의 표지유적으로 지목되는 무순 연화보 유적과 영변 세죽리 유적은 모두 요동군의 장새(障塞) 밖에 위치하고 있어¹⁰¹ 연의 지배영역으로 보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¹⁰²

이와 같이 전국 후기 단계 천산산맥 이동지역을 중심으로 요동 동부지역과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 확인되는 물질문화는 청천강유역을 기준으로 그 이북 지역의 요하유역까지 포괄하는 세죽리-연화보유형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그

97 이청규,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東北亞歷史論叢』 44.

98 姜仁旭, 2011,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한국고대사연구』 64.

99 이후석, 2017b, 앞의 글.

100 박준형, 2014, 앞의 책; 이후석, 2014, 앞의 글.

10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4, 『遼海記憶』, 遼寧人民出版社.

102 이후석, 2017b, 앞의 글.

이남지역의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에 전쟁 직후 고조선의 물질문화는 상보촌유형의 세형동검문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 본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중지역에서 한반도의 서북지역으로 이동하였다면 두 지역 물질문화의 상관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의 요동군은 천산산맥 이서지역의 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서한 무제 즉위를 전후하여 천산산맥 이동지역으로 지배 거점을 확장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쟁 후의 고조선과 연의 경계 역시 청천강유역이 아닌 천산산맥 일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¹⁰³

IV. 맺음말

이와 같이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문헌 기록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서술 내용이 소략하고, 그나마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변동과정에서 경계지대가 변화하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문헌 기록과 대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헌 사료만을 통해 보면 연은 전성기인 소왕 시기 동북 방면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호’는 장성 이북으로, ‘조선’은 만변한 이동으로 각각 물러나게 하였는데, 기술 내용으로 보아 조·연전쟁 직후 고조선과 연의 상대적인 위치는 ‘연(舊土) ↔ (동호) ↔ 요수 ↔ 양평 ↔ 만변한 ↔ 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3 秦漢帝國의 邊郡(遼東郡)과 이민족(衛滿朝鮮)의 경계 변화는 국경 개념의 변화, 즉 內境과 外境의 개념(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 『歷史學報』 217; 李成珪, 2005,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186)이나 無主地帶(宋眞, 201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76)까지 고려해야 한다. 漢과 위만조선의 경계 변화에 대한 고고학적 재검토는 향후 별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먼저 전쟁 전의 기원전 4세기대 하북지역과 내몽고 동남부-요서지역의 물질문화를 확인한 후 고조선과 연의 경계가 어디인지 논하였다. 연은 이미 기원전 4세기대부터 연산산지의 용적집단(옥황묘문화)을 동화시키면서 난하유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요서지역의 맥계집단(동대장자유형)은 건창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연은 물론 요중지역의 조선(정가와자유형)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 요서지역과 요중지역의 수장층은 권력 기반을 달리하여 같은 지역정치체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고조선의 정치체제가 연맹체적 관계하에 있는 초기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인의 시각에는 동류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전쟁 전의 고조선과 연의 경계는 하북-요서 접경지역으로 인식되어 일부 중국 문헌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쟁 후의 기원전 3세기대 요동지역과 서북한지역의 물질문화 분포권을 확인한 후 그 담당자를 추론하였는데, 요중지역에는 연의 물질문화가 전면 확산되고 있어 문헌 기록대로 요동군이 설치되었으며, 요동 남부지역(윤가촌유형)과 요동 동부지역(상보촌유형)은 세형동검문화가 유행하고 있어 예맥계통 토착세력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요동 동부지역과 한반도의 서북지역이 상보촌유형의 세형동검문화로 묶여지는 것은 고조선의 연맹체적 결속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선이 요하 방면에서 한반도의 서북 방면으로 이동하였다면 요동지역의 물질문화가 서북한지역에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전쟁 후의 고조선과 연의 경계는 청천강유역이 아닌 천산산맥 일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 고조선과 연의 경계지대를 청천강의 중하류로 설정했던 것은 그 이남에서 유행했던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만을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인식하였으며, 그 이북에서 확산됐던 ‘세죽리-연화보유형’을 연의 영역 지배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서북지역은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와 요령식 세형동검문화가 공존하는 점이지대였고, 요동 동부지역은 요령식 세형동검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국연계 철기문화를 수용했을 따름이다.

‘만변한’은 문헌과 변한현의 연칭인지, 변한현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확실하

지 않다. 변한현과 패수(沛水) 또한 천산산맥 이남에서 한반도의 이북 사이에서 찾을 수도 있으리라 본다. 고고학적 측면에서 보면 요동군은 진대 또는 서한 무제 즉위를 전후하여 천산산맥 이남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고조선과 연진한의 경계 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양상이다.

참고문헌

국문

-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출판사.
- 배진영, 2010, 『고대 북경과 연문화』, 한국학술정보.
-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니콜라스 디코스모, 이재정, 2005,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 로타 본 팔켄하우젠, 심재훈, 2011,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세창출판사.
- 티모시 얼, 김경택, 2008, 『족장사회의 정치권력: 선사시대의 정치경제학』, 考古.
- 姜仁旭, 2011,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한국고대사연구』 64.
- 강인옥, 2016, 「기원전 9~3세기대 요서지역의 고고학문화와 山戎·東胡」, 『백산학보』 106.
-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 『歷史學報』 217.
- 김병준, 2016 「요서지역과 燕秦 세력의 확대」, 『요서지역의 고고학과 고대사』, 고고학·역사학 협의회 제1차 학술대회.
- 김상민 2017, 「요령지역 철기문화의 전개와 한반도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역사논총』 55.
- 盧泰敦,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정치체제」, 『동북아역사논총』 47.
- 박대재, 2017,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5.
- 배진영, 2008, 「한대 요동군의 군현 지배」,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裴炫俊, 2017, 「燕下都 土製禮器 副葬무덤의 年代에 대한 비판적 檢討」, 『한국상고사학보』 96.
-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 宋眞, 201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76.

- 송호정, 2015,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 문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역사와 현실』 98.
- 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靑銅短劍文化的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선사와 고대』 20.
-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 53.
- 이건무, 1990, 「초기철기시대 유적」, 『북한의 문화유산』 I, 고려원.
- 李健茂, 1994, 「韓國式銅劍文化的 性格-成立背景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靑銅器文化』, 國立文化財研究所.
- 이성규,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민강좌』 32.
- 이중수, 2014, 「요하 평원지역 ‘燕유적’의 특징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 『東北亞歷史論叢』 44.
- 李清圭, 2005, 「靑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 사회」, 『北方史論叢』 6.
- 이청규,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 이청규,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和 衛滿朝鮮」, 『東北亞歷史論叢』 44.
-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和 古朝鮮」, 『東北亞歷史論叢』 44.
- 이후석, 2015,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28.
- 이후석, 2016a, 「尹家村類型的 변천과 성격」, 『中央考古研究』 19.
- 이후석, 2016b,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 이후석, 2017a,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고조선의 성장 과정」, 『승실사학』 38.
- 이후석, 2017b, 「上堡村類型的 변천과 성격」, 『고고학』 16-2.
- 李熙濬,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
- 林炳泰, 1991,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 1.
- 鄭仁盛, 2014, 「연식토기문화의 확산과 후기고조선의 토기문화」, 『백산학보』 100.
- 鄭仁盛, 2016, 「燕系 鐵器文化的 擴散과 그 背景」, 『嶺南考古學』 74.
- 趙鎮先, 2005, 「북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發展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7.
- 趙鎮先,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靑銅器文化和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 56.
- 趙鎮先, 2015, 「燕下都의 造營과 都城 機能의 變遷」, 『한국고고학보』 96.

중문

-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瀋陽考古發現六十年: 出土文物卷』, 遼海出版社.
- 吳營軍, 2014, 『燕下都瓦當』, 古宮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4, 『遼海記憶』, 遼寧人民出版社.
- 邢愛文 主編, 2009, 『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 滕銘子·張亮, 2011, 「玉皇廟文化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2011-4.
- 李曉鐘, 2008, 「瀋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瀋陽考古文集』1, 2008.
- 林雲, 1994, 「“燕亳”和“燕亳邦”小議」, 『史學集刊』1994-2.
- 林雲, 1995,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知識出版社.
- 趙國棟 編著, 2014, 「喀喇沁旗西橋鐵營子戰國墓地」, 『赤峰古代墓葬』, 內蒙古文化出版社.
- 朱永剛·王立新, 2006, 「西拉木倫河流域先秦時期文化遺存的編年與譜系研究」, 『邊疆考古研究』4.
- 周海峰, 2011, 「燕文化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 朱泓, 2006, 「東胡人種考」, 『文物』2006-8.

일문

- 春成秀爾·今村峯雄 編, 2004,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 宮本一夫, 2000, 「戰國燕의 擴大」, 『中國古代北疆史의 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吉本道雅, 2008a, 「中國先秦時代の貊」,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47.
- 吉本道雅, 2008b, 「東胡考」, 『史林』91-2.
- 大貫靜夫, 2007, 「戰國秦漢時代の遼東郡と牧羊城」,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 石川岳彦, 2001, 「戰國期における燕墓葬について」,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16.
- 石川岳彦, 2016, 「東北アジア青銅器時代の年代」, 『季刊 考古學』135.
- 小林青樹, 2016, 「遼寧青銅器文化」, 『季刊 考古學』135.
- 中村大介, 2016, 「東端の遊牧民」, 『季刊考古學』135, 雄山閣.

고고자료를 통해 본 만변한 -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

이후석

고조선과 연의 경계는 기본적으로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만 서술 내용이 소략하고, 그나마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연구자 간 많은 이견들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분포 정형이나 그 변화 양상을 문헌 기록과 대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헌 사료만을 보면 연은 소왕 때에 동북 방면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호’는 장성지대 이북으로, ‘조선’은 만변한 이동으로 각각 물러나게 했다. 이때 고조선과 연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는 ‘연(도읍)↔(동호)↔요수↔양평↔만변한↔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원전 4세기대 하북지역과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는 일정하게 구분된다. 이때 연은 연산산지의 용적집단을 동화시킨 후에 난하유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내몽고 동남부의 철영자유형과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 집단들과 다양하게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때 철영자유형은 초기동호 또는 그 일파와 관련되는 문화이며, 동대장자유형은 맥(또는 밭)과 관련되는 문화라고 생각된다. 두 지역문화 모두 중원문화 요소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나, 토착문

화의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는 연의 거점 확대 또는 영역화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요서지역과 요중지역의 정치체는 문화 배경을 공유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어, 고조선의 정치체제가 연맹체적 결속 관계하에 있는 초기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중국인은 동류 집단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쟁 전의 고조선과 연의 경계는 하북-요서의 접경지역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기원전 3세기대 요동~서북한지역의 물질문화는 천산산맥 일대에서 그 이서지역과 이동지역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요중지역에는 연의 물질문화가 대거 확산되고 있어 요동군이 설치되었다는 문헌 기록에 부합한다. 요동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은 세형동검문화의 계승성과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어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볼 수 있다.

고조선이 요하 방면에서 한반도의 서북 방면으로 이동하였다면 요동지역의 물질문화가 서북한지역에 등장하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 서북한지역은 토착적인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와 요하 방면에서 들어왔던 요령식 세형동검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접이지대였다. 그러므로 전쟁 후의 고조선과 연의 경계는 천산산맥 일대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조선, 맥, 동호, 연, 세형동검문화, 경계, 만변한

ABSTRACT

Manfanhan as Viewed in Archaeology: Changes to the Border of Old Joseon and Yan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Yi Whoseok

Attempts to find a border between Old Joseon and Yan should be found in an archeological border of material culture, compared with such a border in extant records, and select a rational alternativ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 relative location of the relations of Old Joseon and Yan were in “Yan ↔ (Donghu) ↔ Liaoshui ↔ Xiangping ↔ Manfanhan ↔ Joseon.”

There was a clear distinction in the material culture of Hebei and Liaoxi in the fourth century BCE. It is difficult to see the Maek (or Bal) groups in Liaoxi and Liazhong as the same political body. However, they might have been placed in the same category in the eyes of Chinese people of that period since the political system of Old Joseon was an early state in confederacy relations during that period. It can be thus assumed that the border between Old Joseon and Yan before war

was the border between Hebei and Liaoxi.

There was also a clear distinction in the material culture of Liaodong and northwestern Korea around the Qianshan mountain range in the third century BCE. The eastern area of Liaodong and northwestern Korea were connected together within the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and can thus be considered within the territory of Old Joseon. This means that the border between Old Joseon and Yan after the war was the western area of the Qianshan mountain range.

Keywords: Joseon, Maek, Donghu, Yan, Slender Bronze Dagger Culture, border, Manfanhan

‘덕흥리벽화고분(德興里壁畵古墳)’의 현실 동벽(玄室 東壁)에 묘사된 ‘칠보행사도(七寶行事圖)’의 성격 검토

안정준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칠보행사도의 공간적 배치와 ‘칠보(七寶)’의 성격
- III. 행사 진행 인물들의 특징과 칠보행사의 성격
- IV. 맺음말



I. 머리말

1976년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발견된 덕흥리벽화고분은 구조상 석실 봉토벽화분으로서 크게 전실(前室)과 현실(玄室)로 이루어진 이실분(二室墳)이다. 내부에는 약 6백여 자에 달하는 묵서와 벽화들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¹ 이 무덤은 고고학과 미술사뿐만 아니라 문헌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특히 묘주의 출신지 문제, 묘주와 고구려 중앙정권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제 등이 주된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벽화자료 및 묵서들이 갖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선협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들도 없지 않았다.

북한 학계에서는 덕흥리벽화고분에 대한 발굴 직후부터 이 고분이 전형적인 고구려 고분이며, 묘주 진(鎭)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고구려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왔다.² 현재 남한·일본 학계는 진의 묘지(墓誌)에 기재된 출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가 중국인이었음을 밝힌 상황이지만,³ 북한 학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7월 31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1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주인 鎭은 408년 12월 25일(음)에 안葬되었으며, 40여 일 뒤인 이듬해 409년 2월 2일(음)에 묘실이 완전히 폐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분은 이미 도굴되어 유골이나 부장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덕흥리벽화고분의 구조 및 벽화와 묵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은 張相烈·金宗赫·朴晋煜, 1986, 「德興里壁畫古墳發掘報告」,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朝鮮書報社, 49~8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 朱榮憲, 1986, 「德興里壁畫古墳의 주인공について」,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朝鮮書報社, 85~103쪽; 손영중, 1987, 「덕흥리 벽화무덤의 주인공의 국적 문제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7-1, 13쪽; 손은철, 2006, 「덕흥리벽화무덤과 관련한 그릇된 견해에 대한 비판」, 『조선고고연구』 2006-4(142호),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12쪽.

3 武田幸男, 1989, 「德興里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朝鮮學報』 130, 12~13쪽;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148~149쪽.

계의 입장에서 쓰여진 초기 보고서의 판독안과 변화 분석이 갖는 문제점들까지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룬 현실 동벽의 칠보행사도에 대해 우리 학계는 묘주와 고구려 중앙정권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주목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 측의 초기 보고서 내용을 상세한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칠보행사도는 묘주와 관련된 불교행사 장면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림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행사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불경(佛經) 내용 내지 불교인식을 일정하게 투영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불교사적 접근을 통해 칠보행사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불교적 이상이 특정한 전거(典據)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상(이념)이 그림과 묵서 표현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견해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도상의 상황 및 묵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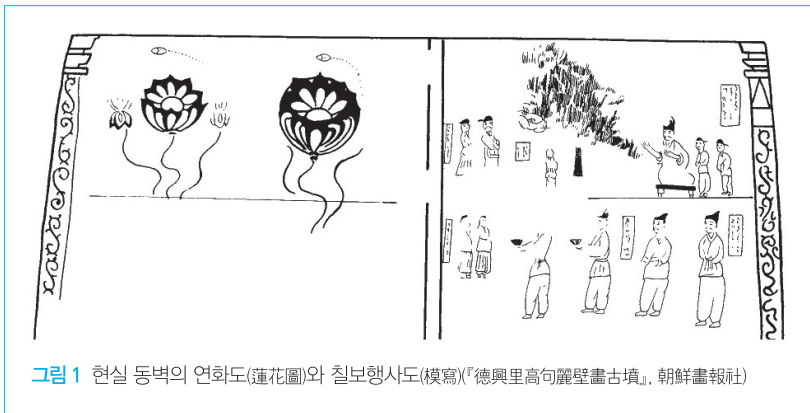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는 가운데 고분의 전체 구조 속에서 칠보행사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도상의 묵서 판독과 해석,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특히 불교 행사로서 칠보행사가 지니는 종교적 의미를 관련 경전의 내용을 통해 밝힘으로써 이 그림의 성격과 여기에 등장하는 ‘중리도독(中裏都督)’ 및 묘주 진과 고구려 중앙정권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해도 재고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서는 徐永大, 1992, 「德興里古墳 墨書銘」, 『(譯註)韓國古代金石文(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81~88쪽을 참조.

II. 칠보행사도의 공간적 배치와 ‘칠보(七寶)’의 성격

1. 칠보행사의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

먼저 덕흥리벽화고분 현실 동벽의 벽화들을 살펴보겠다. 동벽의 벽화는 크게 좌우로 나뉘는데, 좌측에는 붉은색의 큰 연꽃 두 송이가 피어오른 장면이 보이며 그 아래쪽은 그림이 원래 비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꽃들을 우측의 칠보행사도와 관련시켜서 아미타정토의 칠보 연못에서 피어오른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하지만,⁴ 연꽃의 아래에 그림이 빈 곳은 사실 묘주의 시신이 놓일 자리(棺臺)로서 관이 들어갈 자리 위에 단순히 연꽃 도안을 그려놓은 것일 수도 있다. 즉 이 연꽃이 우측의 칠보행사와 직접 관련된 그림인지, 혹은 현실의 다른 벽화들(남벽의 마구간 좌측과 남벽 문의 좌측)에 그려진 것과 같은 단순한 도안 성격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4 문명대, 2013, 「덕흥리 고구려 고분벽화(德興里 高句麗 古墳壁畫)와 그 불교의식도(淨土往生七寶儀式圖)의 도상의미와 특징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강좌미술사』 41, 234쪽.

한편 동벽의 우측에는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 그림이 그려졌는데, 상단에는 중앙에 큰 나무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각각 3인의 인물이 서 있다. 우선 나무 바로 우측의 평상에 앉은 채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인물이 가장 눈에 띈다. 이 인물은 담황색 겉옷에 머리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 개책(介幘)을 착용하고 있는데, 주변의 인물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졌다. 그리고 이 인물의 바로 우측에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2인(남성)이 두 손을 소매 속에 넣은 채로 나란히 서 있는데, 평상에 앉은 인물을 보좌하는 역할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 3인의 우상부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칸이 마련되어 있고 ‘此人爲中裏都督典知/七寶自然音樂自然/飲食有□之燔□□□□(3행 27자)’라는 3행의 문구가 적혀 있다.

덕흥리벽화고분에서는 다른 고구려 고분벽화들처럼 묘주와 예하 인물들의 위계(位階)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대상의 크기를 달리 표현한 경우들이 많은데,⁵



그림 2 현실 동벽의 칠보행사도 모사도

5 전호태, 1998, 「회화」, 『한국사』 8(삼국의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81~182쪽; 전호태, 2015, 「고구려 덕흥리벽화분 연구」, 『역사와 경계』 95, 7~19쪽.

칠보행사도의 상단에서도 중앙의 평상에 앉은 채 개책을 착용한 인물의 크기가 좌우의 다른 인물들을 압도한다. 이 인물이 우상부의 목서에 ‘중리도독’이라고 표현된 인물로서 행사를 주재(主宰)했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또한 중앙 나무의 바로 좌측에는 작은 크기의 동자(童子)로 보이는 인물이 공수(拱手)한 채로 서 있으며, 그 좌측에는 각각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된 2인이 나란히 서 있다. 이들의 각 좌측에도 목서가 적혀 있는데, 일단 목서 내용은 차치하고 화면상의 크기나 행색만 놓고 판단해 보더라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행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하부에도 역시 6인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데, 우선 그림의 중앙부에는 손에 그릇을 받쳐 들고 서 있는 남성 2인과 그 우측에 무언가를 지키고 서 있는 듯한 남성 2인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양손으로 그릇을 받쳐 든 남성 2인은 “此二人持菓口食時”라는 목서로 보아 행사에 쓰일 과자(菓子) 혹은 실과(實果)를 든 것으로 보이며, 우측의 남성 2인은 “此二人持刀侍衛/七寶口時”라는 문구로 미루어 보아 칼을 차고 행사의 시위(侍衛)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⁶ 또한 그림의 맨 좌측에는 치마 차림의 두 여인이 공손한 자세로 화면 중앙부의 남성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 좌측의 목서는 현재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다.

칠보행사도는 전반적으로 현실 내부의 다른 벽화들에 비해 등장인물들의 생동감이 떨어져서 다소 정적(靜的)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아마도 칠보행사 자체가 경건한 불교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한 화공의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벽화의 구도와 도안, 그리고 불교행사로서 갖는 특징들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었으며, 벽화에 등장하는 ‘중리도독’과 ‘대묘작식인(大廟作食人)’의 존재 등을 통해 진과 고구려 중앙의 관계를 규명하는 정치사적 관점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도상에서 묘사된 행사와 ‘칠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자마다 의견이 제각각이다.

칠보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 행사를 12월 8일에 칠보죽을 먹는

6 목서의 판독과 의미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후술할 것이다.

의식으로 보거나,⁷ 4월 8일에 일곱 가지 보물(칠보)로 장식한 불상을 안치한 대좌(臺座)나 거여(車輿)를 모시고 행렬하는 의식으로 보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덕흥리벽화고분이 만들어진 5세기대에 행해졌다고 볼만한 전거가 없으며, 칠보행사도에 묘사된 정경 및 묵서 내용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⁹

한편 현실 동벽의 원편에 있는 거대한 연꽃, 그리고 칠보행사도의 나무와 음식에 관계된 인물들에 주목하여, 『대선견왕경(大善見王經)』에 나오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의 거처인 ‘구사파제성(拘舍婆提城)’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¹⁰ 이에 따르면 나무 좌측의 작은 인물이 곧 벽화의 주인공인 전륜성왕으로서 묵서의 칠보는 곧 전륜성왕이 구유(具有)하고 있다는 일곱 가지 보물인 윤(輪)·상(象)·마(馬)·주(珠)·여(女)·거사(居士)·병(兵)·사(士)며, 평상에 앉은 중리도독은 전륜성왕을 근시(近侍)하는 의미의 관직이라고 보았다.¹¹

이는 구체적인 불경 속의 전거를 바탕으로 벽화와 묵서 내용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묵서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나무 원편의 인물은 묘사된 크기가 외양만으로도 이 그림의 주인공(전륜성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구려의 관인이었을 중리도독이 『대선견왕경』 속에 등장하는 전륜성왕을 근시한다는 해석도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이다.¹² 그 밖에도 도상에는 “此二人持菓口食時”, “此二人持刀侍[衛]七寶口時”와 같이 ‘모종의 작업을 했을 때’의 형태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묵서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형태는 경전(經典) 속의 설화적 장면을 묘사한 문투라기보다는 실제 행사 현

7 町田章, 1987, 『古代東アジアの裝飾墓』, 同朋舎, 231쪽.

8 齊藤忠, 1989, 『壁畫古墳の系譜』, 學生社, 266~267쪽.

9 深津行徳,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종교와 사상의 연구」, 『高句麗研究』 4, 411~415쪽.

10 「大善見王經」(『南傳大藏經』長部經典 17).

11 深津行徳, 1997, 앞의 논문, 429~430쪽.

12 李文基, 1999, 「高句麗 德興里古墳壁畫의 ‘七寶行事圖’와 墨書銘」, 『歷史教育論集』 25, 214쪽.

장의 인물들을 설명한 형태로 생각되는 것이다.

칠보행사도에 묘사된 현실적인 상황, 예컨대 행사를 주재한 고구려 관원이 그려져 있으며 그의 직명(중리도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휘하에서 행사를 보조하는 낮은 지위의 인물들이 도상에 대거 등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그림은 묘주의 생애 동안 실제로 치러졌던 행사를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상의 칠보행사는 고구려 국왕의 주도로 측근신료인 중리도독을 앞세워 평양 지역에 사원을 창건하는 과정에서 열렸던 행사며, 당탑(堂塔)의 건립에 앞서 지신(地神)을 진압하기 위한 불교 의례(地鎮祭)의 성격을 띠다고 보기도 했다.¹³ 이는 결국 낙랑·대방군 고지에 안치된 묘주의 집단과 고구려 중앙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칠보행사도의 상황을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칠보행사도에는 불탑(佛塔)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단 중앙의 큰 나무가 부각될 뿐이므로 지진제(地鎮祭) 성격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몇 안 되는 행사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여성 3인과 어린 동자가 표현되어 있으며, 나머지 행사를 보조하는 인물들의 신분적 지위도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즉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연 고구려 중앙의 주도로 이행되는 공적(公的) 행사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칠보행사가 실제 벌어진 장소와 행사의 성격 문제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덕흥리벽화고분 내에서 칠보행사도가 차지하는 공간적 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그림의 공간적 배치와 전거(典據) 문제

덕흥리벽화고분은 구조상 남쪽부터 연도-장방형 전실(前室)-통로-정방형 현실(玄室)로 이루어졌다. 크게 전실과 현실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벽화의 주제도

13 李文基, 1999, 위의 논문, 217~2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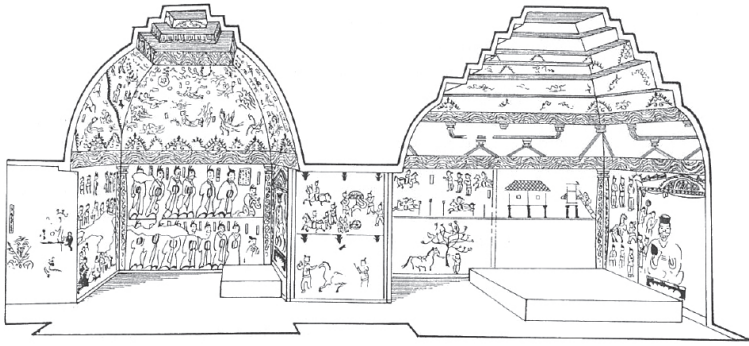


그림 3 덕흥리벽화고분 투시도(서측)(『덕흥리고구려벽화고분』, 조선화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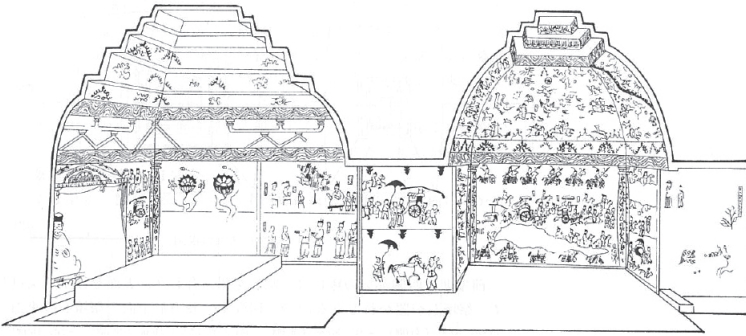


그림 4 덕흥리벽화고분 투시도(동측)(『덕흥리고구려벽화고분』, 조선화보사)

이러한 구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전실은 서벽의 13군(郡) 태수내조도를 비롯해 동벽과 북벽의 행렬도, 남벽의 막부관리도, 북벽의 묘주 정무도(政務圖) 등 주로 묘주의 공적인 영역을 그려놓았다. 이 공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복(公服) 차림이 다수인데 북벽에 앉아 있는 묘주 진도 정무(政務)를 보는 모습이며 그 주변에도 관모(官帽)를 쓴 관원들이 주로 등장한다. 반면에 연도를 지나 현실로 들어가면 진의 거주지(일

상 공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정경들이 주로 그려져 있다. 예컨대 현실 북벽에는 평상에 앉아 있는 묘주의 초상이 그려져 있으며, 그 주변에는 평상복차림의 남녀 시종들과 빈 말, 소가 끄는 수레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서벽 위상부의 고상(高床) 건축물 2동은 창고로 보이며, 서벽 좌상부에 그려진 마사희도(馬射戲圖) 역시 공무(公務)와는 무관한 그림이다.

특히 마사희도에는 “此爲西園中馬射戲人”이라는 목서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西園’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고유지명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진의 저택을 중심으로 한 ‘서쪽 동산’ 정도의 의미로 생각된다. 즉 저택의 서쪽에 실제로 있던 마사희 장소 및 그 광경을 묘사했다는 것이다. 마사희도 아래에는 나무에 묶인 말과 시종이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진의 저택 주변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실의 남벽 우측에는 상부에 작은 규모의 마구간과 그 아래에 빈 수레를 뒤로 한 소 우리가 보인다. 마구간의 뒤편에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 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진의 일상 생활공간(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그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덕흥리벽화고분의 벽화 주제는 크게 공적 영역(前室)과 일상 영역(玄室)으로 구분되는 것이다(별첨1) ‘덕흥리 벽화고분 구조와 주제별 벽화 배치도’ 참조). 그렇다면 현실 동벽 우측에 그려진 ‘칠보행사도’ 역시 진의 일상적인 공간 혹은 그 주변에서 열렸던 행사였을 가능성을¹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칠보행사’가 묘주인 진의 일상적인 공간 혹은 그 주변에서 열렸던 행사였다면, 이 행사의 불교적 의미와 도상에 나타난 주변 인물들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근래 칠보행사도의 목서에 등장하는 “自然音樂”, “自然飲食”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칠보행사의 사상적 근거와 목서

14 이는 묘주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佛事가 시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같은 행사가 現世求福뿐 아니라 來世生과의 관련 아래 행해졌다고 보기도 했다(전호태, 1989,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教的 來世觀」, 『韓國史論』 21, 26~27쪽).

의 의미에 접근한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自然’이라는 용어가 불경에 출현한 빈도 및 용례에 대한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였고, 덕흥리벽화고분의 칠보행사도와 그 목서에 대해서도 5세기 초반 이전에 한역(漢譯)된 『무량수경(無量壽經)』의 저본 내용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⁵

이에 따르면 『무량수경』에 자주 표현된 ‘자연’은 한역 과정에서 나타난 도교(道敎)적 표현[無爲自然]이지만, 동시에 대승(大乘)의 반야(般若)사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이기도 하다.¹⁶ 이 ‘자연’은 아미타불국(阿彌陀佛國, 佛國土) 즉 정토(淨土)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¹⁷ 곧 「미타정토(彌陀淨土)’의 덕상(德相)」을 나타낸 것이며, 「인위(人爲)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적인 움직임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고 한다.¹⁸

덕흥리벽화고분의 칠보행사도에 쓰여진 ‘自然音樂’, ‘自然飲食’, ‘七寶俱生’과 같은 목서 표현들도 초기 『무량수경』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이들의 용례는 모두 ‘아미타(阿彌陀)의 불국토(佛國土)’ 즉 정토사상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¹⁹ 『무량수경』에 따르면, 불국토[淨土]는 금·은·유리·파리·산호·마노·자거 등 칠보로 이루어진 곳이며, 여기는 칠보로 이루어진 나무숲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나무숲에서 모한 음악이 저절로 연주된다고 한다. 또 정토의 궁전 좌우에 있는 연못은 바닥의 모래까지도 칠보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못

15 門田誠一, 2011, 『高句麗壁畫古墳と東アジア』, 思文閣出版, 153~162쪽.
 16 徳永道雄, 1979·1980, 「自然法爾の系譜(1·2)」, 『佛敎文化研究所研究紀要』 9·10, 京都女子學園佛敎文化研究所.
 17 ‘自然’이라는 표현은 초기 『無量壽經』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수가 阿彌陀佛國 즉 淨土에 관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다(末木文美士, 1996, 「第四章自然」, 『佛敎-語葉の思想史』, 岩波書店).
 18 森三樹三郎, 1984, 「無量壽經の漢吳魏三譯に見える“自然”の語について」, 坪井俊映博士頌壽記念會 編, 『佛敎文化論叢』, 佛敎大學.
 19 門田誠一, 2011, 앞의 책, 158~162쪽. 한편 金基雄, 1982,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公社, 266쪽에서도 칠보행사도 중앙부의 나무에 七寶가 걸렸을 것이며, 이는 淨土를 형상화하는 의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은 씻고 싶다고 생각하면 저절로[自然] 씻어지고, 무량한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저절로 미묘한 음악이 연주된다. 또 궁전이나 의복, 음식도 저절로 나타나서 만약 먹으려 하면 저절로 칠보 밥그릇이 나타나며, 백미음식(百味飮食)이 저절로 채워져 먹었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배가 부르다고 한다.²⁰

칠보행사도에서 등장하는 화면 중앙부의 나무와 ‘七寶’라는 표현, 그리고 ‘자연음악’, ‘자연음식’, ‘칠보구생’의 표현들 역시 『무량수경』에 보이는 정토의 정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칠보행사는 『무량수경』에 기록된 ‘정토’의 정경을 구현하는 행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상에 쓰여진 불경의 표현인 ‘자연음악’, ‘자연음식’, ‘칠보구생’ 등의 표현들도 이 칠보행사의 취지와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인물에 의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이 다소 정적(靜的)으로 표현된 것도 행사 자체가 경건한 종교의식이기 때문이거나, 정토세계의 이상에 근거하여 인물들의 인위적 행위와 관련된 묘사 자체를 의도적으로 기피했던 결과일 수도 있다. 즉 도상의 묵서와 인물들의 실제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보행사의 사상적 근간인 『무량수경』의 정토세계가 갖는 이상을 고려하는 가운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행사 진행 인물들의 특징과 칠보행사의 성격

1. 행사 보조원들의 신분적 지위와 성격

칠보행사도의 상황과 행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리도독 이외에도 그를 보좌하는 행사 보조원들의 신분과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 문명대, 2013, 앞의 논문, 232~23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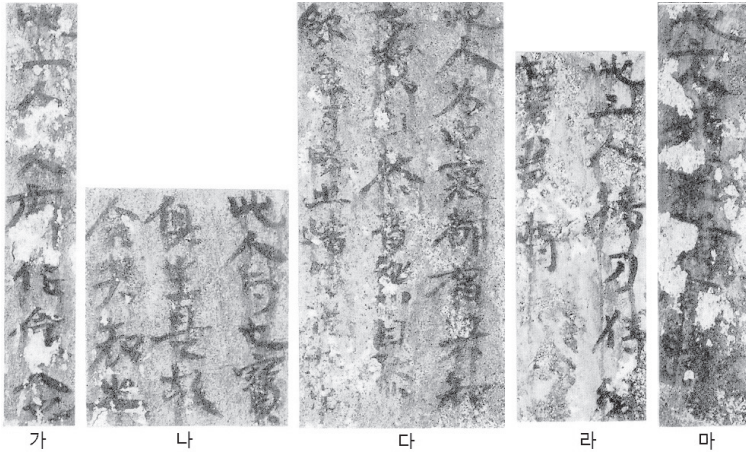


그림 5 칠보행사도에 쓰여진 묵서(『덕흥리고구려벽화고분』, 조선화보사)

이를 위해 설명문인 묵서뿐만 아니라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외양 및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상에는 총 6종의 묵서가 쓰여 있으나, 현재 판독이 가능한 것은 5종이다. 이를 상부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㉗ 此二人大廚²¹作食人也(1행 9자)
- ㉘ 此人与七寶/俱生 是故/僉²²□²³知之(3행 13자)

21 최초 보고서에서 ‘廚’자로 판독한 이래로(鄭燦永, 1986, 「德興里壁畫古墳の文字について」,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朝鮮畫報社, 127쪽), 지금까지 판독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廚’로 판독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22 기왕에는 이를 儉의 古字로 판독하거나(鄭燦永, 1986, 위의 논문, 127쪽), 미상으로 처리하였다(深津行徳, 1997, 앞의 논문, 411쪽). 그러나 이는 전설 남벽 막부판 리도에 있는 묵서 가운데 ‘僉’의 이체자와 동일한 글자로 생각된다(李文基, 1999, 앞의 논문, 205쪽).

23 鄭燦永은 ‘喫’으로 판독하였고(鄭燦永, 1986, 위의 논문, 127쪽), 미상으로 보기

㉔ 此人爲中裏都督 典知/七寶 自然音樂 自然/飲食 有□之燔□□□□(3행 27자)

㉕ 此二人持刀侍[衛]²⁴/七寶□²⁵時(2행 11자)

㉖ 此二人持菓□²⁶食時(1행 8자)

이 가운데서도 행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부에 있는 ㉔, ㉕, ㉖ 3종의 묵서와 등장인물들이다. ㉔부터 순서대로 원문과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㉔ 판독문: 此二人大廚作食人也

해석: 이 두 사람은 大廚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도상의 가장 좌측에는 남녀가 1인씩 서 있고 그 좌측에 묵서가 기록되었다. 기존에 북한학의 정찬영(鄭燦永)이 “此二人大廟作食人也”로 판독한 이래로,²⁷ 지금까지 판독에는 이견이 없었다. 여기서의 ‘大廟’는 고구려 왕실의 종묘(宗廟)를 가리키며, ‘作食人’은 음식을 만들고 제공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왔다.²⁸ 즉 ‘大廟作食人’이란 본래 고구려 왕실의 종묘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준

도 했다(深津行德, 1997, 위의 논문, 411쪽). 이문기는 글자의 윗부분이 ‘++’가 분명하고 아래에 ‘口’가 보이므로 ‘若’으로 판독할 수 있다고 하였다(李文基, 1999, 위의 논문, 205~206쪽). 본고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미상으로 둔다.

24 판독이 어려우나 문맥상 ‘衛’로 추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鄭燦永, 1986, 앞의 논문, 127쪽; 손영중, 1999, 『고구려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5쪽).

25 맨 위의 ‘𠄎’ 형태만 보이며 아래쪽은 보이지 않는다. 손영중, 1999, 위의 책, 205쪽에서는 奠으로 판독하기도 했다.

26 薦으로 보기도 하지만(손영중, 1999, 위의 책, 205쪽),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빈칸으로 둔다.

27 鄭燦永, 1986, 앞의 논문, 127쪽.

28 ‘作食人’이라는 표현은 6세기 신라의 ‘川前里書石’ 原銘과 追銘 이외에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신라·고구려만의 고유한 표현은 아니다[“國中呼內左右



그림 6 大廚作食人 2인
 (『중보판』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재단)



그림 7 '廚'字 확대

비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존재는 중리도독과 더불어 이 행사가 고구려 중앙에서 주도했던 공적인 불교행사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⁹

그러나 현실 내에 그려진 내용들은 묘주의 실내 생활도·마사희·창고·마구간 등 묘주 진의 가내(家內)·내정(內庭)과 관련한 일상적인 모습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고구려 왕실 종교의 작식인(作食人)이 평양 일대에서 열렸던 지진제(地鎮祭) 행사에 파견되어 음식을 만들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상에 나온 남자 1인·여자 1인의 구성도 중앙 조정에서 행사의 중요성

爲直真 外左右爲烏矮真 曹局文書吏爲比德真 檐衣人爲樸大真 帶仗人爲胡洛真 通事人爲乞萬真 守門人爲可薄真 偽臺乘驛賤人爲拂竹真 諸州乘驛人爲咸真 殺人者爲契害真 爲主出受辭人爲折潰真 貴人作食人爲附真”(『南齊書』卷 57, 列傳 第38 魏虜).

29 칠보행사는 고구려 국왕의 주도로 측근신료인 중리도독을 앞세워 평양 지역에 사원을 창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사며, 堂塔의 건립에 앞서 地神을 진압하기 위한 불교 의례[地鎮祭]라고 보기도 한다(李文基, 1999, 앞의 논문, 217~218쪽).

을 감안해 파견했다고 보기에는 어색한 점이 있다.

이에 위 목서의 판독을 다시 살펴보면 ‘大㉔作食人’의 ㉔는 보고서에 있는 정찬영의 최초 판독 당시부터 ‘广’ 안쪽의 획이 잘 보이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였다.³⁰ ㉔를 ‘廟’로 판독했던 것은 남아 있는 자획을 통한 추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독(推讀)은 글자의 형태뿐만 아니라 모주인 진을 고구려 출신의 귀족관료로 보고자 하는 북한 학계의 입장과도 무관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㉔를 다시 살펴보면 ‘广’ 아래의 우측에 내려온 세로획이 매우 굵고 왼쪽의 자획과 근접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月’의 우측 세로획으로 보기에는 좌측에 자획이 들어갈 공간이 좁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이 세로획의 상부 우측에 가로획이 일부 보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㉔를 廟자로 판독하기 어려우며, 형태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다른 글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㉔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자획에 형태상 가장 유사하고, 뒤에 이어지는 ‘作食人’이라는 표현에도 의미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글자는 ‘廚’자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 廚는 기본적으로 부엌·주방을 가리키며, ‘廚人’·‘廚吏’ 등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에 대한 표현 사례가 다수다.³¹ 따라서 ‘大廚’와 ‘作食人’의 결합은 전혀 어색할 것이 없으며, ‘大廚作食人’은 곧 큰 저택 혹은 관아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정도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大廚作食人’으로 설명된 두 사람을 굳이 고구려 중앙에서 파견되었다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 현실의 사방에 표현된 벽화들의 배경이 진의 저택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정경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수식어가 붙지 않은 ‘大廚’라

30 鄭燦永, 1986, 앞의 논문, 126~127쪽의 목서 사진 참조(본고 그림 5의 ㉔에 제시).

31 “與代王飲 而陰告廚人曰 即酒酣樂 進熱獸 即因反斗擊之”(『戰國策』燕策1); “在都且臨公事 廚人進食 誤覆之 去而登車 竟朝不飯 亦弗之誚也”(『南史』卷52, 梁宗室傳下 安成康王秀傳); “遠歸於廚吏 入貢於腊人”(南朝 梁 劉孝威, 『謝東宮賚鹿脯等啟』); “自潁川邯鄲淳(裴松之注)乃命廚宰 酒炙交至 坐席默然 無與抗者”(『三國志』卷21, 魏書 21 王衛二劉傳傳 第21 王祭).

는 표현은 특정한 관청의 주방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진의 사저(私邸)에 부속된 주(廚)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大廚作食人’은 진의 사저에 부속된 주방의 인원을 가리키거나, 혹은 도상에 표현된 칠보행사의 음식을 담당하는 인원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이 남녀 각 1인씩으로 구성된 이들의 신분적 지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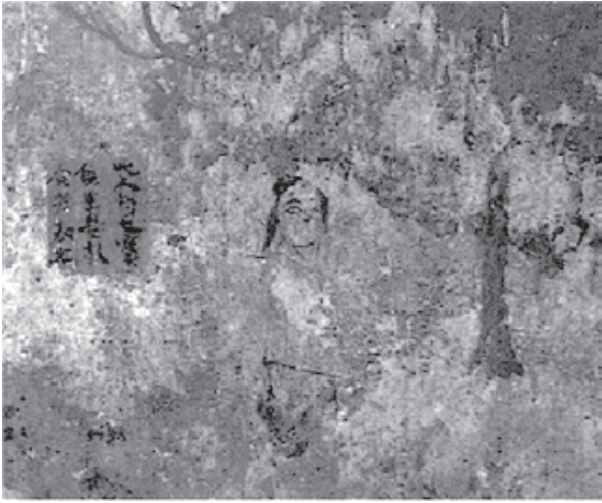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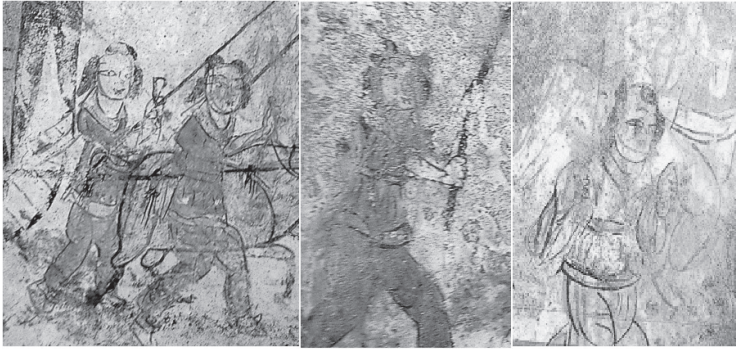


그림 8 칠보행사도 상단 중앙부의 나무와 동자(『고구려 고분 벽화』, 조선화보사)

④ 판독문: 此人与七寶俱生 是故僉□知之

해석: 이 사람은 ‘七寶俱生’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고로 僉□하고 주관한다.

중앙에 그려진 커다란 나무(보리수) 좌측 아래에는 키가 작은 동자 모습을 한 인물이 공수(拱手)하고 서 있다. 이 인물은 행사의 음식을 담당하는 2인(大廚作食人), 그리고 중리도독의 우측에서 보좌하는 2인보다 훨씬 작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신분적 지위가 매우 낮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인물은 관모를



수레를 이끄는 시동(연도 동벽 상단) 양산을 든 시동(연도 동벽 상단) 행렬대열의 동자(전실 남벽 임구 동측)

그림 9 덕흥리벽화고분에 묘사된 시동들의 머리 모양(『중보판』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재단)

쓰지 않았으며, 얼굴도 수염이 없이 둥그스름하게 그려져 있다. 머리 모양은 미성년의 두발 형태인 장발(長髮)을 하고 있는데,³² 같은 고분에서 전실 동벽의 행렬도, 그리고 연도 동벽 상단에서 수레 앞의 소를 끄는 인물들과 머리 모양이 동일하다. 이들은 모두 수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많지 않은 혼인 이전의 연령이었을 것이며, 맡은 임무를 고려할 때 낮은 지위의 가동(家僮) 혹은 시동(侍童)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존에는 위 목서에서 “此人与七寶俱生”을 “칠보와 더불어 함께 산다”고 해석했다.³³ 또 이어지는 “是故僉” 다음의 글자를 ‘若’으로 판독하는 가운데, 이를 ‘蘭若’[사찰]으로 이해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찰[若]의 일을 담당한다”(是故僉口知之)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때 나무 원편의 인물은 평상시부터 사찰에서 칠보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물인 칠보를 관리하는 한편, 사원의 각종 잡사를 담당했던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32 張相烈·金宗赫·朴晋煜, 1986, 앞의 책, 80쪽.
 33 鄭燦永, 1986, 앞의 논문, 127쪽; 深津行德, 1997, 앞의 논문, 411쪽; 李文基, 1999, 앞의 논문, 206쪽.

그러나 칠보행사도의 주변에 사찰로 추정할만한 건물지가 보이지 않는다. 불교행사에 쓰일 귀중한 기물들을 이 동자가 평소에 관리했는지 의문스럽다. 설사 평시에 기물 관리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러한 임무만으로 낮은 지위의 동자를 행사도의 중앙에 그려둔만한 이유가 제대로 해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칠보행사의 배경 자체가 ‘무위(無爲)’의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것이었고, 그 이념에 의거하여 벽화와 묵서에도 인위적인 행위의 묘사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했던 사례가 나타난다(“自然音樂 自然飲食”).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아미타경(大阿彌陀經)』과 『평등각경(平等覺經)』에 칠보와 관련해 ‘七寶俱生’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³⁵ 그렇다면 ㉔의 “与七寶俱生”이라는 표현도 ‘정토’라는 이상향을 배경으로 한 불교적 수사(修辭)일 가능성이 있으며, 한문 해석 자체만으로 이 동자의 임무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위 불경의 ‘七寶俱生’이라는 표현과 도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중앙의 나무는 정토에서 칠보가 저절로 열린다는 칠보수(七寶樹)를 구현한 것이며,³⁶ 행사를 위해 나무를 칠보 혹은 귀한 기물들로 꾸몄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아미타경』과 『평등각경』의 “與自然七寶俱生”, “七寶俱生”은 “자연히(저절로) 칠보가 모두 갖추어졌다”는 의미인데, ㉔의 “与七寶俱生”이라는 표현 역시 도상의 나무가 칠보수로 꾸며진 모습과 연관될 것이다.

앞서 검토한대로 나무 원편의 인물은 나이 어리고 지위가 매우 낮은 인물이다. 아마도 진의 사저에 있던 시동 혹은 가동 정도의 인물로서 행사에서도 그다

34李文基, 1999, 위의 논문, 206~207쪽.

35 “阿彌陀佛講堂精舍 及諸菩薩阿羅漢 所居舍宅中 內外處處 皆復有自然流泉浴池 皆與自然七寶俱生 金銀水精琉璃虎珀車渠 轉共相成”(『大阿彌陀經』 304頁上段); “無量 清淨佛講堂精舍 及諸菩薩阿羅漢所居 七寶舍宅中外內處處 皆復自然流泉水浴池 其浴池者 皆復以自然七寶 七寶俱生 金銀水精琉璃虎珀車渠 轉共相成也”(『平等覺經』 283頁中段). 이에 대해서는 門田誠一, 2011, 앞의 책, 160~162쪽을 참고.

36 문명대, 2013, 앞의 논문, 233쪽.

지 비중 있는 직임을 담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동자가 상단의 중앙에 배치된 것은 그 사회적 지위나 행사에서의 비중 때문이 아니라 중앙의 나무와 관련된 모종의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마도 그 작업은 동자의 신분적 지위 및 작은 체구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정컨대 행사의 중심인 나무를 ‘칠보수’로 꾸미거나 이를 보조하는 수고로운 업무가 아니었나 추측된다.

그런데 『대아미타경』, 『평등각경』에 표현된 ‘(來世)淨土’에서는 칠보수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므로, 그림과 묵서에 이를 인위적으로 꾸몄다는 표현은 기괴했던 것 같다. 이에 동자는 나무 옆에 공수한 채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칠보수를 꾸미는 인위적 작업 행위는 ‘與七寶俱生’이라는 불교적 수사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상인물의 지위와 상황 해석을 고려한다면, 나무 왼편의 동자는 고구려의 국가적 제의에 참석하거나 관련 기물을 담당할만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 행사가 ‘大廚’를 비롯해 진의 일상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렸다고 본다면, 이 인물도 진의 저택에 평상시 거주하는 인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칠보행사도에 그려진 행사 보조원들의 신분적 지위와 그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에도 이 행사는 진의 사적인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 중리도독과 묘주 진의 관계

동벽의 우상부에는 평상에 앉은 인물이 양팔을 벌리고 주변에 지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우측에는 보좌역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그려져 있다. 맨 우측 인물의 위에 묵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도상에서 다른 묵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기재되었다.

㊤ 판독문: 此人爲中裏都督 典知七寶 自然音樂 自然飲食 有□之燔□□□□

해석: 이 사람은 中裏都督이 되어 七寶행사를 맡아 주관한다. 自然히(저절로) 音樂이 되고, 自然히(저절로) 飲食이 되며, 有□之燔□□□□.

묵서에서 표현된 “自然音樂 自然飲食”은 보통 한문어순으로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대아미타경』·『평등각경』·『무량수경』에 내세정토(來世淨土) 사상과 연관된 불교적 수사로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³⁷ 『무량수경』에 나타난 정토장엄 부분을 살펴보면, 내세의 정토에서는 거주하는 궁전이나 의복, 음식은 저절로(自然) 나타나며, 만약 먹고자 할 때에는 칠보 밥그릇이 저절로(自然) 앞에 나타난다. 또 마음먹은대로 백미음식(百味飲食)이 저절로(自然) 채워져, 먹었다고 생각하면 저절로(自然) 배불러 만족하게 되며, 바람이 칠보 나무숲에 불면 묘한 음악이 연주되고 온화한 향기를 발한다고도 하였다.³⁸ 칠보행사 자체가 이러한 내세의 정토(無爲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었으므로, “自然音樂 自然飲食”이라는 표현은 행사의 주재자인 중리도독의 ‘인위적’ 행위, 즉 음악과 음식을 주관하는 행위 자체를 종교적 수사로 대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상의 평상에 앉은 인물은 크기를 고려할 때 행사원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인물일 것이며, 묵서의 표현을 통해서도 이 행사를 주관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 인물을 칠보행사의 주재자이자 중리도독으로 파악하고 있다.³⁹ 중리도독은 진의 묘지(墓誌)에 기재된 역임관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㊸에서 중리도독을 가리킬 때 ‘此人’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전실

37 『大阿彌陀經』, 『平等覺經』, 『無量壽經』에 표현된 “自然音樂”과 “自然飲食”, 기타 “自然”과 관련한 구체적인 용례에 대해서는 門田誠一, 2011, 앞의 책, 153~162쪽을 참조.

38 『無量壽經』에 나타난 정토장엄 관련 기록은 문명대, 2013, 앞의 논문, 231~233쪽을 참조.

39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56~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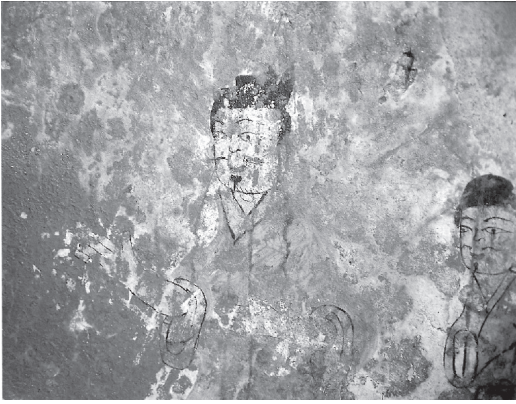


그림 10 칠보행사도의 '중리도독'
 (『(증보판)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재단』)



그림 11 태수내조도 상단

동벽의 행렬도에서 묘주를 가리켜 ‘鎮’ 혹은 ‘使君’이라고 표현된 것과는 구분되는 표현으로, 제3자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⁴⁰

현재까지 발견되는 고구려의 중리(中裏) 관련 직위는 주로 관동 앞에 관청하고 있는 형태다. ‘中裏’는 이내(裏內) 혹은 금중(禁中)의 의미를 지닌 고구려 특유의 관칭으로서, 국왕의 근시(近侍) 업무를 수행하는 국왕 직속의 관료군(官僚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⁴¹ 덕흥리벽화고분의 중리도독은 뒤에 도독이라는 외관직이 붙는 형태지만, 기존에는 낙랑·대방군 고지에서 국왕의 막부를 관장했던 진에게 수여된 관직으로 보고, 고구려 국왕의 측근에서 각종 근시봉공(近侍奉供) 업무를 담당했던 최고위 근시직으로 파악하기

40 余昊奎,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韓國古代史研究』 53, 190쪽.

41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日本古代史講座(4)』, 學生社, 56~57쪽; 李文基, 2003,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大丘史學』 71, 2~3쪽.

도 하였다.⁴²

그러나 중리가 관칭되는 관등은 중리소형(中裏小兄)부터 중리태대형(中裏太太兄)까지 다양한 층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리가 관칭된 관등들의 담당 직책도 일관된 형태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최근에 발견된 ‘고을덕묘지명(高乙德墓誌銘)’에서는 중리소형의 관등으로 남소도사(南蘇道史)나 귀단도사(貴端道史) 등 외관직(外官職)을 역임한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한다.⁴³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중리 관련 직위를 국왕의 근시 관련 업무에만 한정하기는 어려우며,⁴⁴ 기존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직위들을 포괄하는 범칭의 성격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⁴⁵

진과 중리도독이 별개의 인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적어도 칠보행사도에 등장하는 중리도독을 고구려 중앙에서 파견한 관인으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들이 보인다. 우선 평상에 앉은 인물이 쓴 관모의 형태는 덕흥리벽화고분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태수·현령 혹은 막부(幕府) 및 주부(州府)의 고급속관들이 착용한 관모인 개책(介幘, 進賢冠)과 형태가 동일하다.⁴⁶

42 李文基, 1999, 앞의 논문, 223~225쪽.

43 葛繼勇, 2015,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315~316쪽.

44 ‘고을덕묘지명’에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 ‘中裏’ 관등은 각 귀족 가문에서 신분과 정치적 위상을 승계할 자제에게 수여한 관등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국왕 근시나 궁중 사무 등 왕실 업무를 담당할 관원이 선발되었다고 보기도 했다(여호규,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百濟文化』 54, 262~267쪽).

45 中裏 관련 직위 가운데 시기가 가장 앞서며 관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중리도독의 사례는 고구려 중리제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된 단서가 된다. 다만 고구려의 중리제를 보여주는 여타 사료들에 대한 검토는 본고의 주제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46 중리도독의 관모가 전실의 태수내조도와 행렬도, 幕府·州府圖에 나타나는 문관모 [進賢冠] 형태와 같은 유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孔錫龜, 2000, 「高句麗의 南進과 壁畫古墳」, 『한국고대사연구』 20, 366쪽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중국 요서·요동 지역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중국식 관모 형태다.⁴⁷

현재까지 집안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고구려의 관인이나 귀족이 개책이나 평상책(平上幘)을 착용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덕흥리벽화 고분의 인물들이 착용한 관모는 대개 그 관직의 성격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리도독’이라고 표현된 이 인물이 고구려 중앙에서 파견한 관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또한 중리도독이 담당한 직무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묵서에서 중리도독은 칠보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행사의 그림은 진의 일상영역을 다룬 현실 내에 그려져 있다. 특히 칠보행사도에서 ‘大廚’의 작식인 2인이나 칠보수 좌측에 서 있는 동자의 신분적 지위나 행사가 이루어진 장소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고구려 중앙에서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진의 저택 주변에서 벌어진 소규모의 사적 행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현실 주변의 다른 그림들이 진의 저택을 중심으로 한 ‘서원중(西園中)’의 마사희(馬射戲)와 창고의 정경(서벽), 남벽의 외양간·마구간과 빈 수레[車]를 세워둔 모습 등으로 표현된 정황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칠보행사도에 묘주인 진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행사를 주관했던 중리도독이 과연 진의 상급자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실제로 고분 전실과 현실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진의 하위 관원들이다. 또 전실에 나타난 진의 화려한 예하 관원들과 행렬도의 모습에 비해 칠보행사도에 나타난 중리도독은 진의 일상영역 내에 거주했던 인물들(大廚의 作食人, 칠보수 옆의 家僮 등)을 지휘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행사 주관자의 주된 역할로 묵서에 기재된 내용은 음식과 음악을 주관하는 행위, 혹은 행사에 쓰일 요리(‘有口之爇’) 등에 관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칠보’ 행사도에 표현된 복식과 직무에 대한 기록을 감안한다면, 중리도독은 진의 관할지 내에 상주하는 예하 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

47 孔錫龜, 2000, 위의 논문, 367~387쪽.

시 진이 망명 이후 고구려에서 수여받은 소대형(小大兄)이라는 고구려 관등을 근거로 예하의 일부 중국인 관원에 대해 고구려 직함을 사가(私假)하거나 혹은 직접 수여한 뒤에 고구려 중앙에서 추인(追認)받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관원은 진의 예하에 있던 중국인 관속(屬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고구려 관호를 부여받고 진의 관하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낙랑·대방군 고지에서 중국계 망명인 예하의 중국인 관원이 그의 일상영역에서 벌어진 행사를 주관했던 것은 전례가 없지 않다. 예컨대 황해북도 봉산군 일대에서 발견된 대방태수(帶方太守) 장무이(張撫夷)의 묘는 348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덤의 명문전에서는 조씨성(趙氏姓)의 주부(主簿)를 칭한 자가 태수 장무이의 고분 조영을 관장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때 조모(趙某)가 굳이 주부직을 내세우는 가운데 묘주의 무덤 조영에 조력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장무이가 이끄는 망명집단의 예하 속관으로서 묘주와의 사적인 결속 하에서 고분 조영의 일에도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칠보행사도에서 중국식 관모(문관모)를 착용한 채 평상에 앉아 있던 인물(중리도독)도 진의 예하에 있던 관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진의 일상영역 내에서 사적인 행사를 주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음악과 음식을 관장하는 정도의 역할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고구려 중앙의 2군 고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요컨대 덕흥리고분의 현실 동벽에 그려진 칠보행사도에는 이 행사를 전반적으로 주관했던 진의 속관(屬官, 중리도독)을 비롯해, 진의 저택 내[大廳]에서 일하는 작식인 2명과 칠보나무를 구현하는 작업에 종사했던 가동 등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된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인물들의 소속이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이 칠보행사는 고구려 중앙 정부의 개입 하에 개최된 공적 행사라기보다는, 지위나 재산이 있는 인물의 일상적인 공간 혹은 그와 멀지 않은 곳에서 열렸던

48 안정준, 2013, 「高句麗의 樂浪·帶方 故地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韓國古代史研究』 69, 147~149쪽.

사적인 성격의 행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기존에 칠보행사도를 고구려 중앙과 묘주[鎭]와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드러내는 자료로 해석해왔던 시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칠보행사도는 낙랑고지에 안치되었던 중국계 망명인 집단의 관할지 내에서 있었던 일상 행사의 모습이었으며, 5세기 초반 당시 이 지역에 안치된 소규모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며 장기간 거주했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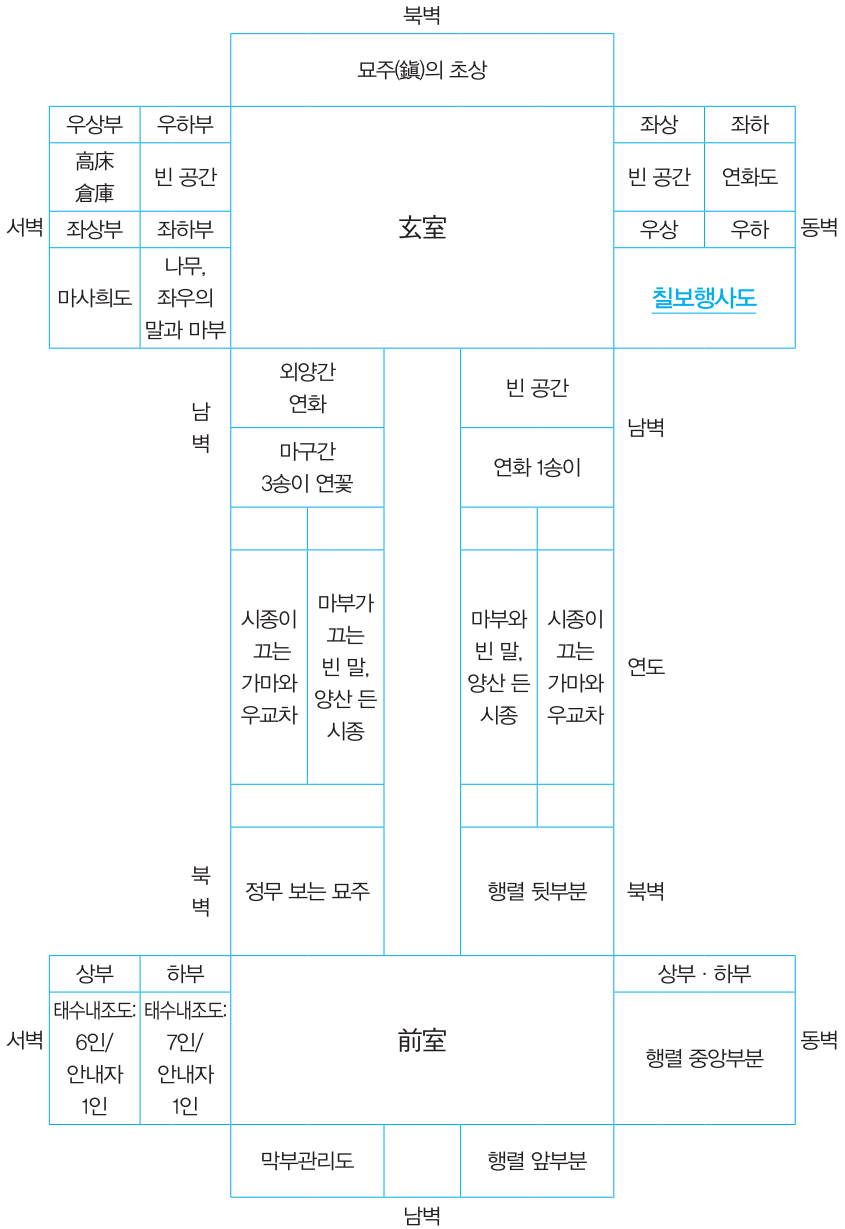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북한 학계의 입장에서 쓰여진 덕흥리벽화고분에 관한 초기 보고서의 분석 및 관련 문서들의 판독안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실 동벽의 칠보행사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불교적 이상이 특정한 전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내용이 그림과 문서 표현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 이에 고분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칠보행사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살폈고, 이후 도상의 문서 판독과 해석,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검토해보았다. 특히 불교행사로서 칠보행사가 지니는 종교적 의미를 『무량수경』 등 관련 경전의 내용을 통해 밝힘으로써 그림의 성격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특히 ‘중리도둑’ 및 묘주 진과 고구려 중앙정권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해도 재고해보았다.

칠보행사도에는 이 행사를 전반적으로 주관했던 진의 예하 관원[중리도둑]을 비롯해, 저택 내[大廳]에서 일하는 작식인 2명과 칠보나무를 구현하는 작업에 종사했던 가동 등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된다. 행사를 주재하고 이를 보좌했던 인물들의 소속 및 신분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이 칠보행사는 고구려 중앙 정부의 개입 하에 개최된 공적 행사라기보다는, 지위나 재산이 있는 인물의 일상적인 공간 혹은 그와 멀지 않은 곳에서 열렸던 사적인 성격의 행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칠보행사도를 고구려 중앙과 묘주[鎬]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드러내는 자료로 해석해왔던 시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칠보행사도는 낙랑고지에 안치되었던 중국계 망명인 집단의 관령지(管領地) 내에서 있었던 일상행사의 모습이었으며, 5세기 초반 당시 이 지역에 안치된 소규모의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며 장기간 거주했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글은 고구려 중리직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고구려 관등제와 관련한 별고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별첨 1 덕흥리 벽화고분 구조와 주제별 벽화 배치도



참고문헌

단행본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평양일대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재단.
- 金基雄, 1982,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社.
- 社會科學院, 1986,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朝鮮畫報社.
- 손영중, 1999, 『고구려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門田誠一, 2011, 『高句麗壁畫古墳と東アジア』, 思文閣出版.

논문

- 葛繼勇, 2015,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 姜賢淑, 2001, 「古墳을 통해 본 4·5세기대 高句麗의 集權體制」, 『韓國古代史研究』 24.
- 孔錫龜, 1998, 「安岳3號墳 主人公의 冠帽에 대하여」, 『高句麗研究』 5.
- 孔錫龜, 2000, 「高句麗의 南進과 壁畫古墳」, 『한국고대사연구』 20.
- 김재용·고영남, 2002, 「최근에 발굴된 돌천정 벽돌무덤」,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 문명대, 2013, 「덕흥리 고구려 고분벽화(德興里 高句麗 古墳壁畫)와 그 불교의식도(淨土往生七寶儀式圖)의 도상의미와 특징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강좌미술사』 41.
- 박현주, 2006, 「德興里壁畫古墳研究」, 『미술사학연구』 5-44.
- 손영중, 1987, 「덕흥리 벽화무덤의 주인공의 국적문제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7-1.
- 孫永鍾, 1997, 「고구려 벽화무덤의 목서명과 피장자」, 『高句麗研究』 4.
- 손은철, 2006, 「덕흥리벽화무덤과 관련한 그릇된 견해에 대한 비판」, 『조선고고연구』 2006-4(142호),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 深津行德,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종교와 사상의 연구」, 『高句麗研究』 4.
- 안병찬, 2003, 「안악군 로암리 전실묘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3-3, 사회과학

원고고학연구소.

- 안정준, 2013, 「高句麗의 樂浪·帶方 故地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韓國古代史研究』 69.
- 余昊奎,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帶方 經營과 中國系 亡命人の 정체성 인식」, 『韓國古代史研究』 53.
- 여호규,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百濟文化』 54.
- 오영찬, 2003, 「帶方郡의 郡縣支配」, 『강좌 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이경희, 2009, 「평양지역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묘주복식의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56.
- 李文基, 1999, 「高句麗 德興里古墳壁畫의 ‘七寶行事圖’와 墨書銘」, 『歷史教育論集』 25.
- 李文基, 2003,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大丘史學』 71.
- 李仁哲, 1998, 「德興里壁畫古墳의 墨書銘을 통해 본 고구려의 幽州經營」, 『歷史學報』 158.
- 전호태, 1989,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敎的 來世觀」, 『韓國史論』 21.
- 전호태, 1998, 「회화」, 『한국사』 8(삼국의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 全虎兌, 2002, 「고구려 고분벽화의 起源」, 『강좌 한국고대사(9)』,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전호태, 2009, 「고구려 안악2호분 벽화 연구」, 『韓國古代史研究』 54.
- 전호태, 2015, 「고구려 덕흥리벽화분 연구」, 『역사와 경계』 95.
- 정완진, 2001, 「袁台子墓 벽화 주인공 복식에 관한 연구」, 『服飾』 51-5, 韓國服飾學會.
- 정완진, 2003,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인성, 2010, 「대방태수 張撫夷墓의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69.
-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 武田幸男, 1989, 「德興里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朝鮮學報』 130.
- 門田誠一, 1999, 「高句麗壁畫古墳に描かれた佛敎關聯の行事について」, 『朝鮮古代研究』 1, 朝鮮古代研究刊行會.
- 門田誠一, 2001, 「銘文の検討による高句麗初期傳來の實相－德興里古墳墨書中の傳敎語彙を中心に－」, 『朝鮮學報』 180.

‘덕흥리벽화고분(德興里壁畵古墳)’의 현실 동벽(玄室 東壁)에 묘사된 ‘칠보행사도(七寶行事圖)’의 성격 검토

안정준

본고에서는 북한 학계의 입장에서 쓰여진 덕흥리벽화고분에 관한 초기 보고서의 분석 및 관련 문서들의 판독안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실 동벽의 칠보행사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불교적 이상이 특정한 전거(典據)를 가지고 있으며, 이 내용이 그림과 문서 표현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 이에 고분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칠보행사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살폈고, 이후 도상의 문서 판독과 해석,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불교행사로서 칠보행사가 지니는 종교적 의미를 『무량수경』 등 관련 경전의 내용을 통해 밝힘으로써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중리도독(中裏都督)’ 및 묘주 진(鎭)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해도 재고해보았다.

칠보행사는 고구려 중앙 정부의 개입 하에 개최된 공적 행사라기보다는 지위나 재산이 있는 인물의 일상적인 공간 혹은 그와 멀지 않은 곳에서 열렸던 사적인 성격의 행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칠보행사도를 고구려 중앙과 묘주

[鎭]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드러내는 자료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5세기 초반 당시 이 지역에 안치된 소규모의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며 장기간 거주했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덕흥리벽화고분, 칠보(七寶), 중리(中裏), 중리도독(中裏都督), 무량수경(無量壽經)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 of Seven Jewels Ceremony” (七寶行事圖) in the Goguryeo Tomb of Dukhungni (德興里)

An Jeongjun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examine the contents of the initial report on the Dukhungni (德興里) mural tomb written by the North Korean academic community. Second, the Buddhist thought embodied in this mural is based on a certain book.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documents (墨書) related to murals.

In this regard, I first examined the location of the painting of the “Seven Jewels Ceremony” (七寶行事圖) within the entire structure of the tomb. I then interpreted the text in the murals and examined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appearing in the images comprehensively. In particular, the religious significance as a Buddhist event was examined through related scriptures such as the Muryangsugyeong (無量壽經). And I critically examined the character

of the individuals in the paintings and the existing clai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ngri-dodok (中裏都督) and the tomb's owner (鎭).

This religious event (七寶行事) was not a formal event held under the intervention of the Goguryeo government. However, it is likely that this was a personal event held in the daily space of high-ranking figur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is picture as supporting the clos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guryeo government and the owner of the tomb (鎭). Rather, it is believed that this mural shows a small group of people who settled in Nangnang (樂浪), in the Daebang (帶方) area, at the beginning of the fifth century, and lived there for a long time while maintaining their cultural characteristics.

Keywords: Tomb of Dukhungni (德興里壁畫古墳), Seven Jewels (七寶), Jungri (中裏), Jungri-dodok (中裏都督), Muryangsugyeong (無量壽經)

1945~1947년 북·중관계의 형성과 북·중혈맹의 근원

김선호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해방 직후 조선인 간부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과 북·중관계의 토대
- III. 정권기관·상설기구의 역할과 공식적 북·중관계의 형성
- IV.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역할과 비공식적 북·중관계의 형성
- V. 맺음말



I. 머리말

1945년 8월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북한지역과 중국은 식민지·반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이후 북한과 중국의 정치세력은 자체 지역에서 통일된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지역에서는 1948년 9월 9일에 국가가 수립되었고, 중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에 국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북·중관계는 당과 정권기관의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북한의 건국세력 중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출신은 모두 해방 이전 중국공산당원으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해방과 동시에 북한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였다. 해방 이후 북·중관계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밀접한 연관 속에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일부 인물들은 1945년 9월부터 38선 이북지역으로 입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입북 직후부터 공산당을 조직하고 군대를 창설하며 국가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건국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 직후 동북(東北)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입북한 인물들이었다. 대표적으로, 1946년 여름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장을 맡았던 강건(姜健)은 해방 직후 연변(延邊)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연변의 중국공산당 부대를 총지휘하는 길동분구사령부 사령원으로 활동하다가 입북하였다.¹ 강건뿐만 아니라 김광협(金光俠)·이익성(李益成)·박일우(朴一禹)·최용건(崔庸健) 등 건국사업을 주도한 많은 간부가 해방 직후 동북지역에 투입되었다.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8월 9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1 김덕천, 2011, 「잊을수 없는 날에」,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중국동북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1, 조선로동당출판사, 271~272쪽.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중국공산당은 해방 직후 중국내전²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양측은 1945년 12월부터 비밀리에 군사연락망을 구축하고 비공식적 협력을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은 열세에 놓인 중국공산당 군대에게 후방기지와 교통로를 제공하였다. 한편, 중국공산당도 1946년 여름부터 1947년까지 동북국을 통해 북한에 약 3만 톤의 식량과 공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였다.³ 이 같은 협력과정에서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군사간부와 병력이 입북해 건국사업을 주도하였다. 예를 들어, 보안간부훈련소의 기간병력 가운데 2,000여 명은 1946년 8월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훈춘보안단(琿春保安團)이었다.⁴

이처럼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의 건국과정은 지역 내부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북·중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북·중 간의 협력관계는 건국사업의 제 1단계부터 이루어졌고,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국가체제 형성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이 시기 북·중관계는 1948~1949년에 형성된 양측의 국가관계에서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 북·중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정정도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브루스 커밍스는 1947년 초 김일성(金日成)이 수만 명의 북한 군대를 동북지역에 파병했다고 분석하였다.⁵ 백학순과 박명림도 북한이 중국내전 시기에 중국

2 해방 직후 중국 전체지역에서 진행된 국·공내전은 중국내전이라는 용어를, 동북지역에서 진행된 국·공내전은 전체지역의 내전과 구별하기 위해 동북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이상숙, 2016, 「국공내전 시기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경제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北韓研究學會報』 20-1, 222~226쪽.

4 김중생, 2000,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141쪽.

5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58. 커밍스가 주장한 동북파병설은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동북파병설의 진위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 김선호, 2017,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북한의 중국내전 지원과 군대창설을 중심으로」, 『軍史』 102.

공산당에 후방기지를 제공하고 군부대를 파병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⁶ 이 중석은 1946~1947년 국공내전 시기 북·중 간의 접촉통로를 밝히고, 북한이 중국공산당에 후방기지·교통로·전략물자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⁷

김상원은 1945~1950년까지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치·사회 분야에서 5개 범주에 걸쳐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한 사실을 밝히고, 1945~1947년 시기는 주로 군사협력이 진행되었으며 1948년 2월 이후에는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고 분석했다.⁸ 이상숙은 중국내전 시기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제공한 물질적 지원이 북한정권 수립의 경제적 토대와 북·중 경제협력의 원형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⁹

기존 연구를 통해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이 정치·군사·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해명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해방 이후 북·중관계와 중국·북한의 건국과정이 가지는 상관관계에 주목하지 못했다. 1946년부터 시작된 중국내전의 핵심 전장(戰場)은 바로 조선인들의 중심거주지인 동북지역이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국에 지시해 조선인들의 당·정권기관·군대·사회단체를 동북전쟁에 총동원하였다. 1947년도에 들어서 중국공산당과 북조선로동당은 긴밀한 당·군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북지역의 전세를 역전했다.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북·중관계는 북·중혈맹(血盟)의 근원이 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이 공식적 계통과 비공식적 계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한 사실에 주목하지 못했다. 북한과 중국의

6 백학순, 1994, 「중국내전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북한군의 파병 및 후방기지 제공」, 『한국과 국제정치』 10-1, 263~281쪽;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나남, 243~247쪽.

7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52~77쪽.

8 Kim Sang Won, 2014,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7, No. 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pp. 91~113.

9 이상숙, 2016, 앞의 글, 209~231쪽.

협력관계는 한편으로 양측의 당·정권기관·군대·상설기구를 통해 형성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양측에서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조선인·중국인들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들은 해방 이전부터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해방 이후 각각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으로 파견된 이후에도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북전쟁 과정에서 공식적 계통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계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중 사이에는 비공식적 외교라인이 구축되었고, 이 외교라인은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 연구는 1945~1947년까지 북·중관계의 형성과정을 공식적·비공식적 계통을 통해 해명하고, 이 과정에서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조선인·중국인들이 수행한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을 건국하는 조선인 간부들이 해방 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조선인의 당·정권기관·군대를 건설하는 과정과 북·중관계의 맹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출신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해방 직후 등장한 북·중관계의 기원을 해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46년부터 중국내전이 발발함에 따라 북·중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중에서도 북한과 중국이 공식적 계통을 통해 북·중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1946년부터 북한과 중국이 비공식적 계통을 통해 북·중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형성된 북·중관계의 역사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II. 해방 직후 조선인 간부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과 북·중관계의 토대

북·중관계의 역사적 기원은 일제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 의미의 북·중관계는 해방 직후 출현하였다. 북·중관계의 출현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소련이 대일전을 개시하기 전, 중국의 동북지역

은 제국일본의 대리정부인 만주국(滿洲國)이 지배하고 있었다. 해방 전 동북지역에는 3,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 지역은 동쪽·북쪽·서쪽의 3면이 조선·소련·몽골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다. 동북지역은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했으며, 특히 중공업이 발달해 강철의 연간 생산량이 중국 전체 연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이 같은 동북지역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1931년 ‘9·18사변’ 이후 동북항일연군을 조직·지도해 동북지역에서 14년에 걸쳐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¹⁰

소련군의 대일전은 1945년 8월 9일에 시작되었다.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 극동군은 제1극동전선군, 제2극동전선군, 제3극동전선군, 태평양함대로 편성되었다.¹¹ 극동군은 8월 9일을 기점으로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을 급속히 점령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제1극동전선군 제25군은 8월 11일 만주의 훈춘시를 점령하고 두만강 도하작전을 성공하였다. 그 후 진격을 계속해 ‘오이조-연길(延吉)’ 방면에서 관동군(關東軍)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다.¹² 소련군은 8월 20일경 동북지역의 거점도시인 심양(瀋陽)·장춘(長春)·하얼빈(哈爾濱)에 진주하였고, 관동군과 만주국군을 무장해제하였다.¹³ 소련군은 동북지역에 진입한 후, 신속히 하얼빈·제제합이(齊齊哈爾)·가목사(佳木斯)·목단강(牡丹江) 등 대도시·중도시·중요 현성에 동북항일연군 간부를 경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파견해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또한, 소련군은 ‘중소우호동맹조약’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팔로군(八路軍)·신사군(新四軍)이 동북지역에 진입하는

10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저, 홍순도·홍광훈 역, 2016, 『중국공산당역사』 1권 하, 서교출판사, 410쪽.

11 치스차코프, 1989, 「제25군의 전투행로」,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 함성, 19~23쪽.

12 태평양함대 참모장 해군중장 A. 후를로프, 「1945년 8월 12일에서 17일까지 실시된 소련 태평양함대에하 육전대의 북조선 청진항 상륙에 관한 함대사령부의 보고」 (1945. 9),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譯, 1987, 『蘇聯과 北韓의 關係』, 國土統一院, 41~42쪽.

13 엽인호, 2010, 『또하나의 한국전쟁』, 역사비평사, 40쪽.

것을 비공개적으로 지지했다.¹⁴

중국공산당도 동북지역으로 진군하는 것이 중국혁명의 전략적 구도를 조정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중공 중앙은 8월 29일 진찰기(晉察冀) 중앙국 등에 간부와 부대를 신속히 동북으로 파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항촌과 소련 홍군이 진입하지 않은 중·소 도시를 통제하고, 우리의 지방정권과 지방부대를 건립하며 담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기열군구(冀熱遼軍區) 사령원 이운창(李運昌)이 부대를 세 개로 나누어 열하(熱河)와 요녕(遼寧)으로 진군했고, 8월 30일에는 소련군과 협동해 산해관(山海關)을 점령하였다. 이와 함께 중공 중앙은 9월 15일 중국공산당 동북국(東北局)을 건립했다. 동북국 서기로 팽진(彭真)이 임명되었고, 위원으로는 팽진·진운(陳雲)·정자화(程子華)·임풍(林楓)·오수권(伍修權)이 임명되었다.¹⁵

소련의 대일전과 동시에 중국과 소련에 있던 조선인 간부들도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대일전 당시 소련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 활동하고 있었고, 중국관내에서는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양대 정치세력은 해방 직후 동북지역과 한반도로 진출하였다. 양자의 차이점은 동북항일연군이 해방과 동시에 동북지역과 한반도로 나뉘어 진출했음에 비해,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은 모두 동북지역으로 진출했다가 일부는 잔류하고 일부는 한반도로 진출했다는 점이다. 이 양대 정치세력의 동북지역·한반도 진출과 초기활동은 북·중관계가 출현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945년 7월 말, 소련 영내에 있던 동북항일연군교도려(東北抗日聯軍教導旅, 소련국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는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를 구성했다.¹⁶ 동북위원회는 대일전 이후 동북지역과 한반도 진출계획을 입안했고, 동북항일연군을 조선공작위원회와 동북공작위원회로 분리했다. 동북공작위원회는 장춘에

14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저, 홍순도·홍광훈 역, 2016, 앞의 책, 395쪽.

15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저, 홍순도·홍광훈 역, 2016, 위의 책, 410~412쪽.

16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489쪽.

주보중(周保中), 하얼빈에 이조린(李兆麟), 심양에 풍중운(馮仲雲), 연길에 강신태(姜信太, 일명 姜健), 목단강에 김광협(金光俠)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¹⁷

동북위원회 서기 주보중은 8월 17일 소련 영내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동북 지역의 사업방침을 확정하였다. 동북위원회는 “국민당에 앞서 동북의 57개 대·중·소도시를 점령하고 동북 각지의 당조직을 재조직하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해 인민무장을 건립하여 팔로군을 영접하며, 동북혁명근거지를 창설할 것”을 결정했다.¹⁸ 동북항일연군은 대일전 개시와 함께 배치지역에 따라 이조린·왕효명(王效明)·강건의 부대로 편성되어 각각 하얼빈·길림(吉林)·연변으로 진출했다.¹⁹ 9월 초까지 동북항일연군 총 330명이 소련군과 함께 장춘·심양·길림·하얼빈·제제합이·가목사·연길·북안·수화·해룬 등 57개 지역에 진출을 완료했다.²⁰ 동북위원회는 국민당군대보다 먼저 동북지역의 주요도시를 점령하고, 이곳에 중국혁명의 근거지를 창설하고자 구상했다.

동북지역에 도착한 동북항일연군은 소련군과 협력해 조선인 사회의 치안을 확보하고 각종 권력기관을 접수했다. 이와 동시에 즉시 각 지역으로 진출해 건당(建黨)·건군(建軍)·건정(建政)의 “3건(三建)” 사업을 추진했다. 동북항일연군은 각 지역에 중국공산당의 11개 지구위원회를 건립했다.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을 ‘동북인민자위군(東北人民自衛軍)’으로 개칭해 동북지역에 중국공산당의 무력기반을 조성했다. 동북인민자위군은 9월 중순 장춘에서 정식으로 건립되었고, 주보중이 총사령을 맡았다. 또한 항일연군은 중공 중앙이 제출한 “민주연합정부”의 정신에 따라 임시정권기관으로 ‘동북민주대동맹(東北民主大同盟)’을

17 량재화, 1992, 「목단강군구의 조선족관병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이하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승리』, 민족출판사, 22쪽.

18 중공연변주위조직부·중공연변주위당사연구소·연변조선족자치주당안관(이하 중공연변주위조직부), 1989,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조직사(1928. 2-1987. 11)』, 연변인민출판사, 127~128쪽.

19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2002, 『북조선』, 창작과비평사, 68쪽.

20 東北抗日聯軍史料 編寫組, 1987, 『東北抗日聯軍史料』上, 中共黨史資料出版社, 353~354쪽.

건립했다. 동북항일연군의 3건사업은 소련군 철수 이후 동북혁명근거지를 건설하는 정치적·군사적 기반으로 작용했다.²¹

1945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동북지역의 중국공산당 당조직에 대한 지도권은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북지역 당조직의 지도권은 9월 18일을 시점으로 전환되었다. 팡진을 비롯해 중공 중앙에서 파견한 간부들은 9월 18일 심양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을 공식적으로 설치하였다. 동북국이 설치됨에 따라,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 서기 후보중과 최용건은 10월 20일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 투쟁과정과 3건사업과정을 동북국에 보고하고, 동북위원회의 전체 조직관계·문서·경비 등을 모두 동북국에 인계했다. 이후 동북지역의 3건사업은 동북국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였다.²²

해방 후 소련군과 함께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동북항일연군 중에는 조선인 간부도 있었다. 동북공작위원회의 11개 지구사업위원회 중 조선인 간부가 가장 많이 포함된 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연변지구사업위원회(또는 연변지구공작위원회)’였다. 연변지구공작위원회의 지휘부는 강건·박락권(朴洛權)·최광(崔光) 등 3명의 당원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인원은 16명 이상이었다. 이들은 9월 5일 소련의 주둔지를 출발해 9월 18일 연길에 도착했다.²³

동북지역에 진출한 동북항일연군은 각 지역마다 중국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조직해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핵심간부는 최용건·강건·김광협이었다.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최고위급 조선인 간부는 최용건이다. 그는 동북진출 당시 동북항일연군교도려 부참모장과 동북위원회의 조선공작위원회 서기를 겸임하고 있었다. 최용건은 연안에서 도

21 孟宪章·楊玉林·張宗海, 1995, 『蘇聯出兵中國東北』,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10~212·215쪽.

22 孟宪章·楊玉林·張宗海, 1995, 위의 책, 216쪽; 중공연변주위조직부, 1989, 앞의 책, 267~268쪽.

23 리창, 1992, 「연변에서의 중공지방조직의 재건」,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승리』, 민족출판사, 143~144쪽.

착할 중공 중앙 간부들에게 동북항일연군의 소련 활동을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 받고, 여단장 주보중과 함께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였다.²⁴ 주보중과 최용건은 동북지역의 당사업을 동북국에게 인계한 이후에도 동북에 남아 건당사업을 펼쳤다. 예를 들어, 주보중은 10월 20일 강건에게 중공 연변공작위원회를 해소하고 공식적으로 중공 연변위원회를 건립하라고 지시하였다.²⁵ 최용건은 10월 하순에 중국공산당 길림특별지부를 방문해 당건설사업을 지도하였다.²⁶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 간부 중 강건은 연변의 소련 경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파견되었다. 연변지구공작위원회 대원 중 김만익은 연길에 남았고, 최광은 왕청(汪靑), 박락권은 용정(龍井), 최시영은 화룡(和龍)으로 파견되었다.²⁷ 동북항일연군은 각 지역의 조선인들을 기반으로 지방당조직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예를 들어, 동북항일연군은 연변에서 당재건사업을 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1945년 10월 20일 중국공산당 연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동북항일연군의 지도하에 연변의 5개 현에 노농청부총동맹이 조직되었고, 이 조직은 10월에 연변민주대동맹으로 개칭되었다.²⁸ 연변민주대동맹의 부위원장은 지희겸이 맡았는데, 그를 추천한 사람은 동북항일연군의 강건과 최용건이었다.²⁹

또한 연변에 도착한 항일연군 출신들은 연변 각지에 조선인 무장부대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9월에 연변에서 경비 제1·2·3연대가 조직되었다. 전체 부대는 강건이 지휘하였고, 연길의 제1연대장은 박락권, 왕청의 제2연대장은 최

24 신주백, 1999, 앞의 책, 486~487·490~491쪽.

25 리창, 1992, 앞의 글, 144쪽.

26 량환준, 1992, 「중공길림특별지부 조선인 분지부」,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승리』, 민족출판사, 150쪽.

27 중공연변주위조직부, 1989, 앞의 책, 267쪽.

28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1992, 앞의 책, 2~3쪽.

29 최용건은 1927년 흑룡강성 요하현에서 지희겸의 아버지 지장회를 만났고, 그의 인맥을 통해 요하유격대를 창설하였다. 최용건은 이 같은 인연으로 지희겸을 추천한 것이다. 유병호·박창욱, 2002, 「중국 조선족 제1세대 역사학자 박창욱」, 『정신문화연구』 25-2, 251~251쪽.

광, 화룡의 제3연대장은 박근식이 맡았다.³⁰ 강건은 무장부대가 조직되자, 10월 9일 직접 소련군사령부와 무기지원문제를 협상했다. 그 결과 소련군사령부에서 2개 중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일본제 99식보총을 지원받았고, 이 무기를 기반으로 연길보안단을 창설하였다.³¹

김광협은 목단강지역의 소련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9월 초순 목단강에 도착한 직후 조선 청년 50여 명을 선발해 고려경찰대를 조직하였다. 당시 목단강시정부의 보안국과 보안대는 친국민당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김광협은 10월 하순 고려경찰대를 동원해 보안국을 포위하고 친국민당세력을 축출하였다. 또한 김광협과 이형박(중국인)은 10월 10일 목단강시정부를 건립하였다. 이들은 11월부터 참군사업을 조직해 목단강군구 제14단 3영, 제15단 3영, 군구사령부 경위련을 각각 창설하였다.³²

한편 중국 관내에 있던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도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였다. 1945년 8월 11일, 주덕(朱德)은 “소련 홍군의 중국 및 조선 경내 작전과 배합하여 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현재 화북에서 대일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의용군의 총사령 무정(武亭), 부사령 박효삼(朴孝三)·박일우(朴一禹)는 즉각 소속부대를 통솔하고 팔로군과 원(原) 동북군 각 부대를 따라 동북으로 진병(進兵)하여 적위(敵僞)를 소멸하고 동북의 조선 인민을 조직하여 조선 해방의 임무를 달성하라”고 명령했다.³³ 조선의용군은 팔로군총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고, 동북지역의 조선인들을 결집해 일제로부터 한반도를 해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30 윤봉·요작기, 2000, 「광복후 연변인민무장력의 건립과 발전경과」,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이하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해방초기의 연변』, 료녕민족출판사, 36쪽.

31 박창범·천수산, 1992, 「연길보안단」,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26~27쪽.

32 량재화, 1992, 「목단강군구의 조선족관병들」,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22~25쪽.

33 「延安總部命令第六號」(1945. 8. 11), 楊昭全 等編, 1987,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 下, 료녕민족출판사, 1455쪽.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은 1945년 11월 3일 남만주 심양에 도착했다.³⁴ 이들은 심양에서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합동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조선의용군의 향후 진로에 대해 중대결정이 내려졌다. 조선의용군 사령부는 11월 10일 “조선의용군 군인대회”를 개최해 합동회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사령관 무정은 이 대회에서 소수의 노혁명가는 한반도로 귀국하고, 전체 조선의용군은 제1지대·제3지대·제5지대로 재편해 남만주·동만주·북만주의 조선인 거주지로 진출한다고 선포했다.³⁵ 이 결정에 따라 간부 중에서 입북대상자들이 선발되었고, 각 부대는 3개 지대로 나뉘어 동북 각지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동북지역에 잔류하기로 결정된 조선의용군은 각 지역에 진출해 중국공산당의 당조직과 사회단체를 결성하고 부대를 확편하였다. 조선의용군 제1지대는 11월 10일 심양에서 조선의용군 선건총대 1,600여 명과 연안조선혁명군정학교 졸업생, 복상한 의용군병력을 주축으로 창설되었고,³⁶ 제3지대는 11월 15일 북만주 비극도(蜚克圖)에서 하얼빈보안총대 조선독립대대를 모체로 창설되었다.³⁷ 제5지대는 11월 초순 심양에서 태항산 조선혁명군정학교의 간부·학생들을 주축으로 창설되었고,³⁸ 제7지대는 1945년 11월 29일 길림시 화전현에서 길림성보안총대 제7대대를 주력으로 창설되었다.³⁹ 즉, 조선의용군의 각 지대는 기존의 조선의용군부대, 혁명군정학교 간부·학생, 해방 후 동북지역에서 결성

34 “해외투쟁의 血劇史—華北서 온 女鬪士 金命時 會見記”, 『解放日報』, 1945. 12. 28.

35 중앙일보특별취재반, 1992,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 중앙일보사, 158쪽; 서명훈, 1987, 「조선의용군 3지대의 탄생과 활동」, 리희일·서명훈 주편, 『조선의용군 3지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5쪽.

36 최강, 1992, 「조선의용군 제1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49~50쪽.

37 조경형·서명훈, 1992, 「조선의용군 제3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63~66쪽.

38 김응삼·김환, 1992, 「조선의용군 제5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1992, 77쪽. 원문에는 창설일이 11월 9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대편성을 결정한 군인대회가 11월 10일에 개최되었으므로 정정하였다.

39 송무섭, 1992, 「조선의용군 제7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94쪽.

된 조선인 무장부대를 중심으로 창설되었다.

조선의용군도 동북항일연군과 마찬가지로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군사적 토대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남만주의 조선의용군 제1지대는 1946년 2월 3일 통화(通化)에서 국민당 통화지하당과 일본군 패잔병들이 일으킨 반혁명폭동을 진압하였다. 제1지대는 이 진압작전에서 폭동 지휘자인 관동군 제125탱크사단 참모장 후지다[藤田] 대좌를 체포하는 등 전투의 주력군으로 활약하였다.⁴⁰ 또한, 제3지대는 송강성(松江省)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군사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1945년 11월까지 하얼빈에는 팔로군부대가 진출하지 못했고, 만주국시기 관리·만주국군·경찰·헌병·지주들이 정치질서를 장악하고 있었다. 제3지대는 동북인민자치군 송강군구의 직속부대로 편제되어 군구사령부의 경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목란·통하·방정·연수·상지현성 등 송강성의 주요 현성을 점령하는 전투에 참전하였다. 특히, 1946년 3월에는 상지현성전투에 참전해 국민당선견대가 조직한 보안대 120여 명을 무장해제하였고, 이로써 상지현인민정부가 수립되었다.⁴¹

해방 이후 동북지역에 진출한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인 사회의 치안을 확보하고 동북지역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 지역마다 중국공산당의 당조직·인민정부·사회단체·군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만주국의 잔존세력과 친국민당세력을 축출하였다. 동북위원회는 중공 중앙에 지도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길림·장춘지역에 5개 보병단(團)과 2개 기병련(連)을 창설하였다. 또한 북만주의 하얼빈·가목사·제제합이·북안·해륜·수화 등지에서도 중·소규모의 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무장부대는 국민당의 토비(土匪)·선견군(先遣軍)·정진군(挺進軍) 등과 전투를 전개했고, 연변지역에서는 1만여 명의 토

40 최강, 1992, 앞의 글, 50~51쪽.

41 조경형·서명훈, 1992, 앞의 글, 64쪽.

비군대를 격파하였다.⁴² 특히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간부들은 동북위원회의 지도간부와 연변·왕청·하얼빈의 소련군 경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부임해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동북지역 소련군사령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이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보다 앞서 동북지역에 정치적·군사적 토대를 구축한 것은 향후 동북지역을 둘러싼 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중공 중앙 간부들이 동북지역에 진출하기 전까지 혁명단체를 조직·지도하고, 무장부대를 조직하였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해방 초기 조선인 간부들이 동북지역에서 펼친 중국공산당의 지방조직·민주정권 건설활동은 동북전쟁에 조선인을 조직·동원하고, 공고한 동북근거지를 창설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⁴³

이들의 역할에 대해, 해방 후 중공 중앙에서 파견되어 동북국 연변위원회 제1서기로 활동한 옹문도(雍文濤)는 “항일련군 동지들이 연변에 돌아와 목소 군중 사업을 하여 무장대어를 창건하고 군중단체를 건립했는데, 우리의 정권건설과 군대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면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일으켰다. 연변의 사업토대는 강신태 등 항일련군 동지들이 마련한 것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연변에 도착하기 전에 강신태가 조선족 당원들을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때 발전시킨 당원들의 당령문제는 강신태가 당원으로 발전시킨 그날부터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⁴⁴ 옹문도는 중공 중앙 간부들이 도착하기 전, 강건 등 동북항일연군이 연변의 당·정권기관·군대를 건설해 중국공산당의 사업토대를 구축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2 주보중, 1987, 「동북의 항일유격전쟁과 항일련군(초고)」, 한준광·권오근·남대명 편역, 『주보중문선』, 연변인민출판사, 177~178쪽.

43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1992, 앞의 책, 100쪽.

44 리창역, 2000, 「강신태의 군대생활」,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95~296쪽.

또한 동북지역의 조선인 간부들은 입북한 조선인 간부들과 같은 집단에서 항일운동을 펼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이후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에서 각각 활동을 개시한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집단별로 항일운동 경험과 인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간부들은 조선의용군이 도착하기 전인 1945년 9월부터 동북지역에서 중공 중앙과 동북항일연군의 중국인 간부와 함께 당·정권기관·군대의 건립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 이후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이 동북지역에서 펼친 건당·건군·건정 활동과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항일운동 경험과 인적 유대감은 1946년 이후 북·중관계가 형성되는 역사적 기원이었다.

Ⅲ. 정권기관·상설기구의 역할과 공식적 북·중관계의 형성

해방 이후 중국 각지에서 충돌하던 공산당과 국민당은 1946년 1월 10일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민당 군대의 이동과 중국공산당 해방구에 대한 진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장개석은 정전협정에서 동북지역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고, 정전결정을 하달하기 직전 국민당 군대에 “신속히 전략적 요충지들을 점령하라”는 밀명을 하달했다.⁴⁵ 국민당 군대는 이 명령에 따라 동북지역의 중국공산당 해방구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동북지역의 전세는 중국공산당 군대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국민당 군대가 동북의 주요지역을 장악함에 따라 교통요로가 차단되었다. 당시 동북지역은 남쪽으로 북한과 접해 있었다. 동북 방면에서는 안동(安東)에서 도문(圖們)까지, 북한 방면에서는 신의주에서 남양까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다. 양쪽의 국경은 800km에 달했으며, 수로교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북한의 북부지역은 남

45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저, 홍순도·홍광훈 역, 2016, 앞의 책, 429쪽.

만주와 북만주, 산해관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다.⁴⁶

1946년 이후 북·중관계는 동북전쟁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형성되기 시작했다. 1946년 3월, 국민당 군대는 7개 군단, 19개 사단 병력을 동북지역에 투입하였으며, 3월 중순 심양을 점령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동북지역 북부로 진격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민주연군은 5월 18일 전격적으로 철수를 단행해 길동지구로 이동하였고, 중국공산당 동북국도 장춘에서 하얼빈으로 이전하였다. 동북민주연군은 국민당군이 북쪽으로 진공할 것을 예상하고 교하부터 돈화에 이르는 철도를 모두 파괴하였다. 또한 국민당군이 장춘철도를 장악함에 따라 남만주 근거지에 있던 동북민주연군은 후퇴로가 차단되었다.⁴⁷ 이로써 동북민주연군의 주요교통로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중국공산당은 내전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로가 필요했다. 이때 대안으로 부상한 곳이 북한지역이다. 중국공산당은 북한 측에 북부지역의 교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정치세력은 즉시 두 개의 교통로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남만주 근거지의 동북민주연군이 북만주로 이동했다. 첫 번째 교통로는 안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평북 신의주에서 기차를 타고 함북 남양으로 이동하는 경로였다. 동북민주연군은 당시 신의주에서 남양으로 가는 직통열차가 없었기 때문에 정의본선을 타고 평양으로 간 후, 평원선으로 원산에 도착해서 원라본선을 타고 남양까지 이동했다.⁴⁸ 두 번째 교통로는 길림성 통화지구의 장백(長白)에서 압록강을 건너 함남 혜산에 도착한 후, 혜산에서 기차를 타고 남양으로 이동하는 경로였다. 2개 교통로를 통해 남양에 도착한 동북민주연군은 도문강대교를 건너 도문에서 기차를 타고 북만주의 목단강·가목

46 丁雪松 外, 1988, 「回憶東北解放戰爭時期東北局駐朝鮮辦事處」, 中共中央黨資料征集委員會 編, 『遼瀋決戰』(上), 人民出版社, 624쪽.

47 장택민 구술, 2000, 「동북중국 도문관사처에서의 지난날」,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해방초기의 연변』, 료녕민족출판사, 350~351쪽.

48 교통성 운수국 열차부 편, 1950, 5. 30, 『기차시간표』, 교통성 공급관리처, 2·16~32쪽.

사·하얼빈으로 이동했다.⁴⁹

북한 정치세력은 1946년부터 동북민주연군에 교통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도 지원했다. 군수물자 지원업무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담당했다. 김일성은 1946년 4월 26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지령 제50호로 「면직물 일체(광목·무명 등등) 수집회수에 관한 건」을 황해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하달했다. 김일성은 황해도의 모든 면직물을 수집해 만포진사무소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일성은 4월 2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지령 제51호로 「면직물통제를 강화하여 만포진 무역소에 수송함에 관하여」를 평북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하달했다. 그는 신의주 등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면제품을 수집해 만포진무역소에 수송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⁰

이 같은 지령의 존재여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생산한 원자료를 통해 증명된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1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지령 제141호 「광목이양에 관한 건」을 평북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하달했다. 그는 신의주의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광목천을 수집해 평양으로 수송하라고 지시했다.⁵¹ 이 지령의 원자료가 북한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문서번호는 “北朝鮮委指 第141號”며, 지령 제목은 “廣木移讓에 關한 件”이다. 발송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으로, 수신자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위원장”으로 적혀 있다. 원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제(首題)에 관하여 산업국 경공업부장 이원곤(李元坤)과 상업국 상업과장 김이주(金理柱)를 귀지(貴地)에 파견하오니 신의주 각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목 일체를 모집하여 그 전부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이양하며, 급속히 평양으로

49 장택민 구술, 2000, 앞의 글, 351쪽.

50 길재준·리상진, 2008,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16쪽.

51 길재준·리상진, 2008, 위의 책, 116쪽.

수송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⁵²

김일성은 평북인민위원장에게 신의주의 각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광물을 모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이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김일성이 광물 수집을 위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경공업부장과 상업국 상업과장을 평북지역에 파견했다는 사실이다. 동북민주연군에 대한 북한의 지원은 개인적·비공식적 계통을 통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공식적 행정계통을 통해 추진되었고, 여기에 참여한 부서는 산업국과 상업국이였다.

또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8월 23일 지방인민위원회에 「피난동포 처치에 관한 건」을 하달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이 지령을 통해 동북지역에서 들어온 피난민들을 각 지역에 안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지방인민위원회에 지령 제149호로 「특별화물수송에 관한 건」을 하달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이 지령을 통해 동북민주연군에 필요한 무기를 특별화물로 취급해 신속히 수송하라고 지시했다.⁵³

1946년 8월까지 동북민주연군의 무기·군수물자 수송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지령을 통해 집행되었다. 그러나 9월부터 무기·군수물자 수송은 북·중 사이의 공식적인 협정을 통해 집행되었다.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9월에 「화물수송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북민주연군의 무기·군수물자 수송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다. 북한은 동북전쟁의 전황이 급한 경우, 여객수송을 중지하고 모든 열차를 동원해 중국의 전략물자를 수송하였다. 그리고 동북국판사처의 수송임무를 원조하기 위해 북조선로동당 평북도

52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 金日成, 「北朝鮮委指 第141號: 廣木移讓에 관한 件」(1946. 8. 17), 길재준·리상전, 2008, 위의 책, 115쪽. 책에 원자료가 사진으로 실려 있다.

53 길재준·리상전, 2008, 위의 책, 315쪽.

당 부위원장과 함북도당 부위원장이 전적으로 투입되었다.⁵⁴

이와 함께 북한 정치세력은 동북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교통요지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대표적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동북지역 통화의 맞은편인 만포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만포진무역소”를 설치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각지에서 수집한 면직물·면제품 등을 만포진무역소로 보냈다. 예를 들어 황해도에서 수집된 면직물과 신의주 등지에서 생산된 면제품이 1946년 4월에 만포진무역소로 수송되었다.⁵⁵ 만포진무역소에 취합된 군수물자는 동북민주연군에 직접 전달되었을 것이다.

북한 정치세력은 1947년에도 계속해서 정권기관을 통해 동북전쟁을 지원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도에 평북인민위원회 보안부에 새로운 행정부서로 “도강계(渡江係)”를 설치했다. 도강계는 1947년 9~10월경에 조직되었다. 도강계장은 전 평북 희천군보안서 문화부장이었던 김석형이 맡았다. 도강계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첫째, 중국공산당 군대의 전략적 후퇴를 보장하는 군수지원업무를 맡았다. 도강계는 북한지역으로 후퇴해온 중국공산당 군대가 만포를 통해 다시 만주로 들어갈 때까지 교통수단 보장 등 군수지원업무를 담당했다. 둘째, 북한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에 대한 피난대책을 담당했다. 당시 피난민 중에는 중국인도 있었으나, 절대 다수는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으로 들어온 상인들의 물품을 심사하는 업무와, 피난민과 함께 북한으로 잠입한 국민당 첩보원들을 색출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도강계는 입북한 중국공산당 군대 간부들과 평안북도 주재 소련군 경비사령부를 접촉하며 군수지원업무와 피난대책업무를 수행하였다.⁵⁶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1947년 4월 13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내

54 길재준·리상전, 2008, 위의 책, 107쪽.

55 길재준·리상전, 2008, 위의 책, 116쪽.

56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2001, 『김석형구술자료집: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요!』, 선인, 207~209쪽.

무국장 박일우에게 공식적으로 북한 경내에 들어온 동북민주연군 장병들의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내무국 간부들에게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국경지역에 있는 동북민주연군 상점을 자주 방문하라고 지시하고, 상점에 들어오는 상품의 유통과 판매가격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동북민주연군의 물자문제를 지원해줄 것을 지시하였다.⁵⁷

북한은 중국내전 당시 중국공산당에 10만여 정의 무기와 포를 지원하였다. 이 무기와 포는 소련군사령부가 일본군에게서 압수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북한은 “황색폭약” 등 각종 폭약을 제공했는데, 이 폭약은 동북전쟁에서 교량과 요새화된 화점을 폭파하는 데 사용되었다.⁵⁸ 또한 북한의 청년들은 1945년 말부터 1947년까지 개인이나 무장대 단위로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하였다. 나아가, 북조선공산당(그 후신인 북조선로동당)은 의사(醫師) 등 동북전쟁에 긴급히 필요한 전문병력을 선발해 직접 파견하였다.⁵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46년 이후 북·중관계는 동북민주연군·중국공산당 동북국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의 공식적 계통을 통해 구축되었다. 북한 측에서 동북전쟁 지원에 관여한 단위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산업국·상업국·만포진무역소,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평북·함북인민위원회, 북조선로동당 평북도당·함북도당이었다. 북조선로동당·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는 도당 부위원장, 행정부서·지방인민위원회에 지령을 하달해 동북민주연군의 무기·군수물자를 우선적으로 수송하라고 지시했고, 동북민주연군에 교통로와 후방기지를 제공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포진무역소를 신설했고, 평북인민위원회는 동북민주연군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부에 도장계를 신설하였다.

북한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도 북·중관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

57 길재준·리상진, 2008, 앞의 책, 107쪽.

58 길재준·리상진, 2008, 위의 책, 101~102·312쪽.

59 김선호, 2017, 앞의 글, 132~137쪽.

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하였다. 중국공산당 동북국은 북한 정치세력과 협의 후 1946년 6월, 북한지역을 남만주전투를 지원하는 새로운 비밀후방기지로 삼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북민주연군 부총사령 소경광(肖勁光)과 동북국 북만분국 비서장 주리치(朱理治)가 평양에 파견되었다. 파견간부들은 북조선공산당 중앙간부들과 회담을 진행했고, 회담결과 주리치가 중공중앙 동북국·동북민주연군의 평양주재 전권대표를 맡기로 합의했다.⁶⁰

동북국은 7월에 공식적으로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東北局辦事處)”를 설치했다. 중국 측은 “동북국 평양주재판사처(东北局在平壤的办事处)”라고 불렀고, 동북국판사처는 대외적으로 “평양이민공사(平壤利民公司)”라는 명칭으로 활동했다. 동북국판사처는 “중국의 동북해방작전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물자 수송과 인원수송, 물자교류를 진행하는 상설기관”이었다. 소경광은 9월에 귀국했고, 주리치가 판사처의 전권대표를 맡았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 구락부장 정률성(鄭律成)의 중국인 부인 정설송(丁雪松)도 동북국판사처에서 근무했다. 중국공산당이 동북국판사처를 평양이민공사로 위장한 것은 알타협정의 규제와 당시 한반도에서 진행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때문이었다.⁶¹ 중국과 한반도의 국가수립문제는 연합국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상설기구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

판사처의 중요임무는 “① 부상병들의 안전한 철수보장, 안전하게 전략물자의 이전 보관, ② 조선이 외랑(外廊)으로서 동북지구의 남북만의 연결, 대련(大連)과 기타 근거지의 물자 교류, 인원들의 국경 넘어 수송보장, ③ 조선으로부터의 지원과 전략물자의 구매, ④ 조·중 당과 인민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경제

60 「第7章 我与郑律成-在朝鲜的日子」, 丁雪松 口述, 杨德华 整理, 2000, 『中国第一位女大使 丁雪松 回忆录』, 江苏人民出版社, 정률성기념관(http://www.zhenglvcheng.net/ko/books_show.asp?contentid=544).

61 길재준·리상진, 2008, 앞의 책, 121쪽; 丁雪松 口述, 杨德华 整理, 2000, 위의 책.

무역거래보장, ⑤ 조선과 협동하여 화교들과의 사업진행”이었다. 동북국판사처는 비서·상무(商務)·운수·부기(簿記)·총무 등의 부서를 설치했다. 또한 동북국판사처는 업무량이 늘어나자 남포·신의주·만포·나진에 분판사처(分辦事處)를 설치하고, 대외적으로 “평양리민공사 분공사(分公司)”라는 이름을 달았다.⁶² 분판사처는 이 4개 도시뿐만 아니라 청진에도 설치되었다.⁶³

중국공산당이 이상의 5개 도시에 분판사처를 설치한 이유는 이 지역이 국경의 교통요지이자 주요항구였기 때문이다. 동북국판사처의 인원은 100명 미만 이었고, 분판사처의 인원은 업무량에 따라 달랐다. 이 중 나진분판사처는 가장 인원이 많아 간부가 100여 명, 하역인부가 500명이 넘었다. 동북국판사처는 북·중 간 주요 외교사무와 상무에 관한 협상을 담당했다. 남포분판사처는 중국 관내 인원·물품의 월경·수송업무를 담당했고, 신의주분판사처·만포분판사처는 부상병·전략물자의 이송과 남만·북만 사이의 운수업무를 담당했다. 나진분판사처는 식량·소금·피복·석탄의 운수업무와 일부 병력의 월경업무를 담당했다.⁶⁴ 동북국판사처는 국교수립 이전에 대사관의 업무와 무역대표부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분판사처 가운데 동북민주연군 병력·전략물자의 이동·수송을 주로 담당한 곳은 신의주분판사처와 만포분판사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만포에 무역소를 설치한 것은 중국 측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만포분판사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북국판사처는 1946년부터 안동·통화에서 철수한 동북민주연군 중 1만 8000여 명의 부상병·가족·후근인원과 2만여 톤의 전략물자를 북한 경내로 이전했다. 북한 경내를 통해 이동한 물자는 1947년 1~7월에 21만 톤이었고, 1948년에는 30만 톤이었다. 북한 경내를 통해 이동한 인원은 1946년 하반기에

62 길재준·리상전, 2008, 위의 책, 91~92쪽.

63 장택민 구술, 2000, 앞의 글, 356쪽.

64 丁雪松 外, 1988, 「回憶東北解放戰爭時期東北局駐朝鮮辦事處」, 中共中央黨資料征集委員會 編, 앞의 책, 626쪽.

3,000명, 1947·1948년에 각각 1만여 명이었다. 주리치가 1947년 6월 27일 동북국에 보낸 보고에 따르면, 동북국판사처는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구해 동북군구 총참모장 유아루(柳亞樓)를 통해 1만 톤, 동북국을 거쳐 2000톤을 동북민주연군에 제공했다. 이 시기, 북한이 물물교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물자는 3만여 톤에 달했다. 또한 주리치는 북한의 당·정권기관 지도간부들과 협의해 압록강을 양측이 공동항행(共同航行)하고, 북한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중국은 1947년 전후 동북국판사처를 통해 「우편협정」·「전기협정」 등 20여 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동북국 부서기 겸 동북군구 후근부장 이부춘(李富春)이 협상대표자로 평양에 파견되어 협상을 진행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조선로동당은 동북국판사처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일성은 판사처의 간부들에게 “조선혁명은 곧 중국혁명의 연장이며, 중국해방은 곧 조선해방이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⁶⁵

동북국판사처는 동북민주연군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지역에서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측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중국에서 구입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예를 들어, 북한 정치세력은 1947년 5월에 군사지휘기관으로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를 조직했는데, 집단군총사령부의 협주단에 악기가 부족했다. 이 협주단 군악대의 악기는 동북국판사처를 통해 대련에서 구입했다. 당시 집단군총사령부 협주단장은 정률성이었는데, 그의 아내 정설송이 동북국판사처를 통해 협주단의 악기를 구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⁶⁶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동북민주연군은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 외에도 동북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중국의 국경지역에 사무소와 무역회사를 설치하였다. 동북국은 1946년 5월 18일 장춘에서 하얼빈으로 철수할 때, 도문에 “중국공산당 동북국 도문판사처(圖們辦事處)”를 설치하였다. 동북민주

65 丁雪松 口述, 杨德华 整理, 2000, 앞의 책.

66 정설송 엮음, 1992,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그의 삶』, 형상사, 105쪽.

연군 동북군구 부사령원 후보중과 길림성당위원회는 요빈을 도문판사처의 처장으로, 장택민을 부처장으로 임명하였다. 동북군구 총참모장 유아루는 부처장 장택민에게 도문판사처가 수행해야 할 5개 과업을 지시하였다. 도문판사처의 임무는 도문강대교를 보위할 것, 도문시의 치안을 확보할 것, 철도의 교통을 보장할 것, 중국 측 왕래인원의 안전보위사업을 보장할 것, 전방의 물자공급을 보장할 것이었다. 동북국이 도문에 판사처를 설치한 것은 도문이 동만해방구에서 북만해방구로 가는 교통중추였기 때문이다. 당시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하는 군수물자가 모두 도문에서 발송되었다.⁶⁷

먼저, 장택민이 도문으로 이동해 원래 있던 동북민주연군의 병참을 취소하고, 도문판사처를 설립하였다. 그는 판사처의 기틀을 세우고 무선통신소를 설치하였다. 8~9월에 판사처장 요빈이 도문에 도착했고, 새로운 부처장으로 공축삼이 함께 왔다. 판사처에는 재무과·관리과 등 몇 개의 행정부서가 설치되었다. 판사처의 직원 중에는 10여 명의 조선인도 있었다. 또한 도문판사처는 도문강대교와 도문시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위수사령부와 경위중대를 신설하였다. 사령원은 요빈, 정위는 백동재, 참모장은 장택민이 맡았다. 경위중대는 4개 중대로 편성했는데, 2개 중대는 중국인, 2개 중대는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 도문판사처는 동북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직접 북한과 무역거래를 추진하였다. 또한 부처장 장택민이 직접 평양으로 가서 동북국판사처 전권대표 주리치를 만나 군수물자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도문판사처의 최대인원은 100여 명에 달했고, 1948년 봄에 폐쇄되었다.⁶⁸

또한 동북민주연군의 단위부대는 부대경비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의용군 제3지대의 후신인 송강군구 독립8단은 1946년 여름, 부대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하얼빈시에 북흥무역공사를 설립하였다. 북흥무역공사는 군수물자를 구입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67 장택민 구술, 2000, 앞의 글, 351~352쪽.

68 장택민 구술, 2000, 위의 글, 352~353·356쪽.

수리조립공장과 맥주공장을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무역통로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내몽고 하이라르[海拉尔] 군마장의 군마들을 북한에 보내고, 그 대신 피륙·신발·해산물 등 부대에 필요한 물자들을 물물교환의 형태로 받아왔다.⁶⁹

도문판사처와 동북판사처는 주재인원이 비슷했으나 업무는 달랐다. 동북국판사처는 외교업무와 무역업무를 취급했고, 분판사처는 병력·전략물자·식료품·원자재의 이송·월경업무를 취급했다. 도문판사처는 외교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고, 병력·물자의 이송과 안전을 담당했다. 또한 도문판사처는 동북국판사처·분판사처와 달리 도문강대교·철도교통을 보위하는 업무와 도문시의 치안업무를 맡았다. 도문판사처의 보위업무·치안업무·군수지원업무는 평북인민위원회 보안부 도강계가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하다. 결국, 평북보안부 도강계는 북한 측이 동북민주연군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행정부서였고, 도문판사처는 중국 측이 동북민주연군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행정부서였다. 북흥무역공사는 이상의 기구와 달리 독립8단이 자체적으로 군수물자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무역회사였다.

동북국판사처·도문판사처·북흥무역공사 등을 통한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거래는 소련군의 허가과 지원하에 진행되었다. 소련은 동북지역을 점령한 직후부터 비공개적으로 중국공산당을 지원하였다. 소련군은 팔로군·신사군이 동북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묵인했고, 국민당군대가 해로로 대련(大連)·호로도(葫蘆島)·영구(營口)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했다.⁷⁰ 북·중 사이의 무역거래는 소련의 비공개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1947년 11월 19일 극동군사령관 비류조프는 제25군 군사위원 레베데프 소장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그중 하나로 “북한이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것을 반대하지 말

69 강창록·김영순·이근전·일천, 1992, 『주덕해』, 실천문화사, 150쪽.

70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2016, 앞의 책, 395쪽.

것-특히 중국과”라고 지시하였다.⁷¹ 당시 북한지역에도 소련군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북·중 간 군수물자의 거래는 소련군사령부의 허가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

1946년 이후 공식적인 북·중관계가 형성된 결과, 1946년 하반기에 북한 경내를 통해 총 18개의 중국공산당부대가 이동했고, 1947년 1~9월까지 북한 경내를 통해 1만여 명의 병력이 동북근거지로 건너갔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1947년 1~7월까지 북한지역을 통해 총 21만여 톤의 전략물자를 운반했다. 또한 북한은 1946년 여름부터 1948년까지 2,000여 화차분의 물자를 중국공산당에 제공했다. 이 물자들은 일제가 남긴 물자였고, 북한은 이를 무상·물자교환의 방법으로 중국 측에 제공했다. 예를 들어, 산둥성군구는 1946년에 동북국판사처를 통해 북한에서 200톤의 폭약, 300만 개의 뇌관, 120만 미터의 도화선을 구입했고, 1947년 봄에는 120톤의 폭약, 200톤의 염산, 100톤의 류산동, 15만 켤레의 신발을 구입했다. 이 물자들은 남포에서 선적되어 대련을 통해 산둥(山東)으로 보내졌고, 산둥전투·화동(華東)전투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⁷²

IV.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역할과 비공식적 북·중관계의 형성

북·중관계는 1946년 중국내전이 시작되면서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공식적 계통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중관계는 공식적 계통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계통을 통해서도 형성되었다. 북·중관계의 비

71 전현수 역, 2006,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39쪽.

72 길재준·리상전, 2008, 앞의 책, 106~107·110~112쪽. 정설송도 김일성이 소련군사령부와 교섭해 일제가 남긴 전략물자를 물물교환 등의 방법으로 동북국판사처에 제공했다고 회고했다. 丁雪松 口述, 杨德华 整理, 2000, 앞의 책.

공식적 계통은 주로 해방 이후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 간부들이었다. 해방 직후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각각 2개 집단으로 분리되어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 간부들은 동북지역에 중국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건설하였고, 북한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 간부들도 북한지역에 조선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건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북지역의 조선인 간부들과 북한지역의 조선인 간부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먼저, 해방 이후 동북지역으로 진출해 북·중관계에 관여한 동북항일연군의 주요간부는 강건·강위룡·공정수·김만익·김양춘·남창수·이두수·임춘추·박경숙·박락권·박영순·박창범·송무선·오죽순·임철·조명신·주재일·지병학·최광·한창봉·홍춘수 등 21명이다.⁷³ 북·중관계의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동북항일연군의 주요간부로는 최용건과 김광협도 있다. 이들 외에 연변 지구공작위원회 소속으로 김명주·김룡근·김봉산·김옥순·김창봉·여영준·박영선·박춘일·석동수·장정숙·홍태학 등 11명이 연변에서 활동했다.⁷⁴ 또한 김동규·김득수·이경석·유창원·한태룡도 동북지역으로 파견되었고,⁷⁵ 정병갑도 강건과 함께 파견되어 연길과 훈춘에서 활동했다.⁷⁶

해방 이후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은 총 40여 명이었다. 1945년 7월 당시 소련에 있던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소속의 조선인 간부와 대원은 약 290명이었다.⁷⁷ 이 중 소련군이 북한지역의 초기 정치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선

73 길재준·리상진, 2008, 앞의 책, 18~19쪽, 29쪽, 41~63쪽, 143쪽, 159쪽, 191쪽, 202쪽, 204쪽, 223쪽, 273쪽.

74 리창, 1992, 「연변에서의 중공지방조직의 재건」,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143~144쪽.

75 김광운, 2003,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124~125쪽. 김양춘은 122쪽 각주 233번 참조.

76 남만우, 2012, 「장군님품으로 가는 길」,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중국동북해방전쟁 참가자들의 회상기』 2, 조선로동당출판사, 46~47쪽.

77 신주백, 1999, 앞의 책, 490~491쪽.

발한 핵심인물은 김일성·김책(金策)·안길(安吉)을 비롯해 80명이었다.⁷⁸ 해방 이후 독립국가 건설의 과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한반도로 파견된 선발요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이 동북지역에 파견되어 중국혁명을 위해 활동했다는 것은 북·중관계의 형성에 큰 의미가 있다.

동북항일연군 중 북·중관계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강건·김광협·임춘추·최광·최용건이다. 최용건은 동북위원회 조선공작위원회의 서기로 동북지역에 진출해 동북위원회 서기 후보중과 함께 동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중공 중앙 간부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지역에 중국공산당의 당조직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도했다.⁷⁹ 최용건은 후보중과 함께 10월 20일 중공 중앙 동북국에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보고하고 귀국했다.⁸⁰

강건은 연변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194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공산당 연변위원회 서기 겸 군사부장을 맡아 당조직과 무장부대를 조직했다. 그는 동시에 1945년 11월 20일에 조직된 연변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으로 선출되어 정권기관을 조직했다. 강건은 1945년 11월부터 1946년 2월까지 동북민주연군 연변군분구 사령원을 맡았고, 7월까지 길동분군구 사령원을 맡았다.⁸¹ 그는 연변·길동지역의 최고군사지휘관으로 중국공산당의 군사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는 1946년 7월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입북했다.⁸²

최광은 왕청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조직·군대를 건설했고, 장춘전투에 참전

78 치브리, 「제2극동전선군 사령부 참모부 정찰부대장 소르킨 소장 앞」(1945. 9. 2), 소련국방성 중앙고문서보관소, 김국후, 2008,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68~69쪽에서 재인용.

79 량환준, 1992, 「중공길림특별지부 조선인 분지부」,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147~148쪽.

80 孟宪章·楊玉林·張宗海, 1995, 앞의 책, 216쪽.

81 중공연변주위조직부, 1989, 앞의 책, 144쪽, 167쪽, 181쪽.

82 리창, 1992, 「연변에서의 중공지방조직의 재건」,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144쪽.

했다. 그는 194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공산당 왕청현위원회 서기를 맡아 당을 재건하였다. 최광은 11월부터 1946년 2월까지 연변경비려 제2단장을 맡아 군대를 건설하였고,⁸³ 3월부터 동북민주연군 길림군구 보안군 제2연대장을 맡았다.⁸⁴ 그는 1946년 4월 14일부터 제2연대를 이끌고 동북민주연군의 장춘 전투에 참전했고, 전투에서 국민당군의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했다.⁸⁵ 최광은 1946년 8월 하순,⁸⁶ 훈춘보안단 병력 2,000여 명을 지휘해 북한으로 귀국했다.⁸⁷

김광협은 목단강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조직·군대를 건설했고, 연변지역에서 당과 군대의 고위간부로 활동했다. 그는 1946년 7월부터 1947년 2월까지 동북민주연군 길동군분구 사령원을 맡았고, 1947년 2월 5일부터 5월까지 중국공산당 연변지방위원회 상무위원과 연변군분구 사령원을 맡았다.⁸⁸ 김광협은 1947년 5월 “조선 건군절”을 축하하기 위해 입북했다가 김일성의 요청으로 잔류했다. 후보장은 김일성에게 김광협을 대체할 인물을 요청했고, 그 결과 임춘추(林春秋)가 연변에 파견되었다.⁸⁹ 임춘추는 1948년 4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중국공산당 연변지방위원회 부서기를 맡았다. 길림성정부는 1948년 3월 27일 정권기관으로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를 설치했는데, 임춘추가 설립 당시

83 중공연변주위조직부, 1989, 앞의 책, 148~149쪽, 159쪽, 181쪽.

84 염인호, 2010, 앞의 책, 247쪽.

85 길재준·리상진, 2008, 앞의 책, 196쪽, 199쪽.

86 최광, 2011, 「동북땅에 소문났던 조선인 <무쇠련대>」,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앞의 책, 18쪽.

87 김중생, 2000, 앞의 책, 141쪽.

88 중공연변주위조직부, 1989, 앞의 책, 184~185쪽.

89 김형직, 2004, 『격세제일: 문정일 일대기』, 민족출판사, 141쪽.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것은 1948년 2월 8일이다. 김광협이 1947년에 “조선 건군절”을 축하하기 위해 입북한 것은 그해 5월 17일에 조선인민군총사령부의 전신인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가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67, 『韓國戰爭史』 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91쪽.

부터 1949년 3월까지 전원공사 전원을 맡았다.⁹⁰

최용건·강건·최광·김광협·임춘추는 해방 후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창설하고 동북국과 동북민주연군에서 고위간부로 활동했다. 특히 연변지역의 중국공산당 군대는 1945년 9월부터 1947년 5월까지 강건과 김광협이 각각 육성하고 지휘하였다. 또한 연변지역의 정권기관은 강건이 주도해 건립했고, 1948년 3월부터 임춘추가 책임자를 맡아 지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북항일연군이 동북민주연군의 군사간부를 맡아 부대를 이끌고 동북전쟁에 참전했다. 강건은 길동분구 사령원, 강위룡은 동북민주연군 중대장, 공정수는 길동분구사령부 중대장, 김만익은 길동분구사령부 군계과장, 남창수는 길동분구사령부 보안대 2연대장으로 동북전쟁에 참전했다. 박창범은 길동분구사령부 독립3연대 정찰참모, 오죽순은 동북민주연군 156사 303연대 대대장, 임철은 동북민주연군 독립3연대 대대장, 최광은 길동분구사령부 보안대 3연대장으로 동북전쟁에 참전했다.⁹¹ 직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민주연군 길동분구의 사령원과 주요간부는 대부분 동북항일연군이었다.

조선의용군도 동북지역에 진출한 이후 동북민주연군에 편입되었고, 주요간부들이 부대를 이끌고 동북전쟁에 참전했다. 조선의용군 제1지대의 후신인 리홍광지대는 1946년 가을, 동북민주연군 요녕군구 독립4사로 개편되었다. 독립4사는 남만주의 주력사단이었고, 1947년 초부터 휘남현성전투와 하계공세에 참전해 유하·화전·집안·환인 등 남만주의 거점도시를 점령하였다.⁹² 조선의용군 제3지대는 1946년 봄 송강군구 제8단으로 개편되었다. 제8단은 1946년 4월 말부터 하얼빈점령작전, 하얼빈위수임무, 토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⁹³ 제5지대는 1946년 초 연변의 경비1단·2단과 통합해 길동군분구 제15·16단으

90 중공연변주위조직부, 1989, 앞의 책, 153·169쪽.

91 길재준·리상진, 2008, 앞의 책, 18~19쪽, 29쪽, 41쪽, 43~45쪽, 48~49쪽, 52~54쪽, 56쪽, 59쪽.

92 김중생, 2000, 앞의 책, 85~87쪽.

93 김중생, 2000, 위의 책, 93~94쪽.

로 개편되었다.⁹⁴ 제7지대는 1946년 3월 화전보안단으로 개편되었다가 1946년 10월 길남군구 제72단으로 개편되었다.⁹⁵ 조선의용군의 각 지대는 1946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동북민주연군의 예하부대로 개편되었고, 이 부대는 모두 동북전쟁에 참전했다. 특히 동북민주연군 요녕군구의 주력사단은 리홍광지대의 후신인 독립4사였다.

동북전쟁에 참전한 조선인 간부 중 일부는 동북지역에서 전사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동북항일연군 출신 박락권(朴樂權)과 조선의용군 제3지대 출신 이영택이다. 박락권은 해방 후 연길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조선인 무장부대를 건립했다. 이 부대는 동북민주연군 길로군구 제25여단 제75단으로 개편되었다. 박락권은 75단장으로 1946년 4월 14일부터 제1차 장춘전투에 참전했다. 제75단은 동남중대의 주공부대로 선정되어 전투에 투입되었고, 박락권은 4월 18일 장춘시정부청사 공격전에서 전사했다.⁹⁶ 조선의용군 간부 정성호도 장춘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⁹⁷ 김일성부대 대원으로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제12지대 정치지도원이었던 오세영(吳世榮)도 “할빈 서북 풍락진”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⁹⁸

이영택은 조선의용군 제3지대에 입대해 1946년 9월에는 제3대대 7중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9월 2일 하얼빈시 교외에서 활동하던 토비를 소탕하기 위해 30여 명의 대원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이 토비소탕전에서 리영택을 포함해 21명의 조선인 간부·대원이 전사하였다. 제3지대 교도원 최채는 9월 6일 개최된 추도식에서 “우리는 그들의 혁명정신과 유지를 이어받아 비통을 힘으로 바

94 김중생, 2000, 위의 책, 101쪽.

95 김중생, 2000, 위의 책, 107~108쪽.

96 하경적, 1992, 「제1차 장춘해방전투에서의 조선탄», 발자취총서편집위 편, 앞의 책, 267~277쪽.

97 리창역, 2000, 「조선의용군과 제5지대»,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4쪽.

98 전창철, 1950. 2. 1, 「김일성 장군이 직접 지도하신 동년현 시가전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편,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제3호,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61쪽.

꾸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전취하기 위해 계속 분투합시다”라고 호소하였다.⁹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해방 후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창설하였다. 이들이 조직한 조선인 무장 부대는 모두 동북민주연군으로 개편되었고, 조선인 간부들은 이 부대를 이끌고 동북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일부 인물은 동북전쟁에서 전사하였다. 해방전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한 조선인들도 일본군·만주군과의 전투 중 전사했다. 해방 전 전사한 조선인들이 조·중혈맹(朝·中血盟)의 역사적 기원이었다면, 동북전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들은 해방 후 형성되기 시작한 북·중혈맹의 상징이었다. 예를 들어, 박락권의 전사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그는 조중 인민이 다같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력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¹⁰⁰

1946년 이후 북·중관계가 형성된 데에는 동북지역에서 중국혁명에 참여한 인물들과 함께 동북지역과 북간지역에서 양측을 오가며 협력관계를 구축한 인물들도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 측의 대표적인 인물은 동북국 부서기 진운(陳雲)과 길료군구 사령원 후보중이었다. 동북국 부서기 진운은 1946년 봄에 모택동(毛澤東)의 밀서를 가지고 직접 평양을 방문했다. 중국공산당은 김일성에게 동북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무기지원문제를 승인하고, 중국공산당에 10만여 정의 무기와 포를 지원했다.¹⁰¹

1946년 3월 28일 길료군구 사령원 후보중은 함북 온성군 남양에서 김일성과 회담했다. 후보중은 동북항일연군교도려에서 김일성의 상관이었다. 이 회담

99 류동호·조경형, 1987, 「21렬사여, 고이 잠드시라!」, 리희일·서명훈 주편, 앞의 책, 141~146쪽.

100 림용기, 2011, 「제1차 장춘해방전투와 박락권련대장」,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앞의 책, 172쪽. 림용기는 제75단 2소대 2분대장이었다. 그는 이 회상기에서 “박락권동지는 오늘도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길이 살아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101 길재준·리상전, 2008, 앞의 책, 312쪽; 김일성,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국제주의적임무이다-림춘추와 한 담화」(1948. 10. 23), 『김일성전집』 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85쪽.

에서는 국민당군의 공격에 대비해 동북지역을 방어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김일성은 회담 이후 동북지역에 조직된 조선인부대와 북한 사이에 통신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후보중은 1947년 3월 26일에도 남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동북지역의 정풍운동에 대해 협의하였다.¹⁰²

또한 동북민주연군·도문판사처에서 근무하던 조선인·중국인 간부들도 북한과 동북지역을 오가며 정치·군사현안을 협의하였다. 동북민주연군 길동분구 사령부 공급부 부부장 정두환은 1946년 3월 25일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을 접견했다. 그는 길동분구를 대표해 김일성에게 동북해방전쟁에 필요한 군복천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4월 10일 군복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5월 23일 이전에 3,000여 벌의 군복천과 의약품이 길동분구에 전달되었다. 또한 김일성은 4월 하순, 북·중 국경지역에서 연변군분구 사령원 강건을 만나 동북전쟁의 향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¹⁰³

1946년 가을에 국민당군 제184사단이 친공(親共)봉기를 일으키자, 국민당군은 제184사단을 공격해 압록강까지 압박하였다. 이때 후보중은 제184사단을 구하기 위해 “도문주재 동북사무소(동북국 도문판사처)”에 근무하는 강환주에게 북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강환주는 함북 나남으로 입북해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장 강건을 만나 후보중의 지시를 전달했다. 후보중은 곧이어 도문판사처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부인 왕일지(王一知)도 나남에 파견했다. 김일성은 강건의 보고를 받은 즉시 국경을 개방했고, 제184사단은 열차를 통해 남양에 도착한 후 도문강대교를 거쳐 길료해방지구로

102 김재준·리상진, 2008, 앞의 책, 186~188쪽, 191쪽, 313쪽, 316쪽. 정풍운동은 1942년부터 중국공산당에서 전개된 사상투쟁이지만, 해방 이후에도 동북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중국공산당 길림성위는 1947년 5월 초에 용정에 고급간부반을 설치하고 정풍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고급간부들의 과거 경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경력에 문제가 있는 간부는 정풍운동을 통해 당에서 제명되고 직무를 박탈당했다. 장옥지, 1995, 「길림성민주련맹 시말」, 길림성정변문사자료위원회 편, 『길림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347쪽.

103 김재준·리상진, 2008, 앞의 책, 312~314쪽.

이동하였다.¹⁰⁴ 왕일지는 1946년 가을에 두 차례 입북해 김일성을 만났다.¹⁰⁵

중국공산당뿐만 아니라 북한 정치세력도 중국 측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북한의 간부를 동북국에 파견했다. 이때 파견된 인물이 당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황해도당 선전부장이던 정률성의 중국인 아내 정설송(丁雪松)이다. 그녀는 1946년 가을 김일성의 부탁을 받고 하얼빈시에 있는 동북국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하면서 협력업무를 수행했다.¹⁰⁶ 정설송은 개인 신분이 아니라 북조선로동당의 당간부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그녀는 당내에 설치된 화교위원회 비서장을 맡고 있었다.¹⁰⁷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동북국 서기에게 보내는 서한을 정설송에게 주었고, 그녀는 조선인 간부 장계민(張繼民)과 함께 동북국에 파견되었다. 정설송은 동북국에 상주하면서 동북민주연군에 필요한 식량문제에 대해 북한 측과 교섭하였다.¹⁰⁸ 즉, 북조선로동당은 중국인인 당화교위원회 비서장을 정식으로 동북국에 파견해 군수물자를 지원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해방 이후 비공식 연락망을 통해 중국공산당 군대에 대한 군수지원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중국 측 연락자는 동북국 부서기 진운, 동북민주연군 부사령관 주보중, 도문판사처 간부이자 주보중의 부인 왕일지, 동북민주연군 길동군분구 사령원 강건, 길동군분구 공급부 부부장 정두환 등이었다. 북한 측 연락채널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 김일성,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장 강건, 정설송, 장계민 등이었다.

그런데 1946년 이후 형성된 북·중관계는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다. 공식적 북·중관계에서도 해방전후 동북지역·북한지역 간부들의 인적 관계가 작동하였다. 중요한 점은 동북지역에서 중국혁명에 참여한 조

104 길재준·리상전, 2008, 위의 책, 104~105쪽.

105 길재준·리상전, 2008, 위의 책, 315쪽.

106 정설송 엮음, 1992, 앞의 책, 105쪽.

107 김은식, 2016, 『중국의 별이 된 조선의 독립군 정율성』, 이상미디어, 180쪽.

108 丁雪松 口述, 杨德华 整理, 2000, 앞의 책.

선인 간부들이 1946년 이후 대거 입북했다는 사실이다.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 중 최용건은 1945년 10월, 최광은 1946년 봄, 김창봉은 1946년 중반, 강건은 7월, 조명선은 8월경, 김양춘은 9월, 김광협은 1947년 5월에 입북했다.¹⁰⁹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 간부들도 1946년 3월 부터 7월까지 대거 입북했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의용군 제1·3·5·7지대 간부들이었다. 입북한 간부는 제1지대장 김웅, 제1지대 정치주임 주연, 제3지대장 리상조, 제3지대 참모장 김인, 제3지대 정치주임 리근산, 제5지대장 이익성, 제5지대 정치위원 박일우, 제5지대 참모장 리권무, 제5지대 정치주임 주혁, 제7지대장 박훈일, 제7지대 부지대장 최명 등이다.¹¹⁰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간부들은 북한에 건립된 당·정권기관·군대의 고위간부로 임명되었다. 북한 측은 동북민주연군의 이동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평북인민위원회 보안부에 도강계를 신설한 바 있다. 당시 도보안부를 관할하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의 국장은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 간부였던 최용건이었다.¹¹¹ 최용건의 후임으로 보안국장과 내무국장을 맡은 박일우는 동북국연변지방위원회 부서기 겸 동북민주연군 길동분구 부정치위원으로 활동하다 입북했다.¹¹² 길동분구 사령원 강건은 입북 후 남한의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장을 맡았고, 조선의용군 제5지대장 이익성은 입북 후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 참모장을 맡았다.¹¹³ 조선의용군 제1지대장 김웅은 입북 후 개천의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장을 맡았고,¹¹⁴ 왕청에서 활동했던 최광은 입북 후 개천의 보안간부훈

109 강건·김광협·최광은 앞에 서술한 내용을 참조. 김양춘과 조명선은 다음을 참조. 김광운, 2003, 앞의 책, 122쪽 각주 233번, 124쪽 각주 244번.

110 김중생, 2000, 앞의 책, 127~135쪽.

111 「朝鮮에 關한 蘇米英三國外相 모스크바會議의 決定에 對한 北朝鮮行政局 局長會議에서 發表한 聲明書」, 『正路』, 1946. 1. 3.

112 김중생, 2000, 앞의 책, 99~101쪽.

113 주영복, 1990,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74쪽.

114 G-2, USAFIK, ISNK, No.35(1947. 4. 15~3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89,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9쪽.

련소 제1소 참모장을 맡았다.¹¹⁵ 즉, 1946년 이후 북한에서 무력을 지휘하고 중국공산당 군대의 이동문제를 관할한 보안국장·내무국장과, 보안간부훈련소의 간부는 대부분 해방 후 동북위원회·동북국·동북민주연군에서 주요간부로 활동하다 입북한 인물들이었다.

또한 중국공산당 군대의 주요 교통로·후방기지이자 북·중 물자거래의 중심지였던 평안북도의 당·정권기관 간부는 대부분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많고 있었다. 북조선로동당 평북도당의 경우, 도당위원장 윤공흙, 부위원장 최영, 도당선전부장 양계, 도당농민부장 송학현 등 주요간부가 독립동맹·의용군출신이었다.¹¹⁶ 또한 평북인민위원회 보안부(신의주 소재)의 간부는 1946년 2월부터 8월까지 대부분 조선독립동맹 출신이 맡았다. 대표적으로 도보안부장은 조선독립동맹 중앙위원출신 장지민이었다. 도보안부 경비과장은 조선독립동맹 화중분맹 출신이었고, 도보안부 감찰계장은 산동분맹출신이었다.¹¹⁷ 북한 정치세력이 평북의 당·정권기관에 독립동맹·의용군 출신을 임명한 것은 당시 동북지역에서 동북민주연군과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간부들이 계속 입북하고 있었고, 이들이 입북인물들을 두루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6년 이후 북·중관계가 형성된 데에는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해방 전·후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946년 가을, 후보중은 북조선로동당과 정권기관의 지도간부들에게 제184사단의 입북문제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 강환주를 나남에 파견했는데, 그가 선택된 이유는 동북항일연군에서 김일성이 그의 상관이자 입당보증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중은 곧이어 부인 왕일지도 나남에 파견했는데, 그녀도 동북항일연군시절 김일성과 같은 부대에서

115 김일성, 1998,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93쪽.

116 김광운, 2003, 앞의 책, 377쪽.

117 엄영식, 2005, 『탈출-죽어서야 찾은 자유』, 야스미디어, 224쪽, 237~238쪽, 243쪽. 엄영식은 조선독립동맹 화중분맹 출신이다.

활동했다. 이때 강환주와 왕일지가 나남에서 입북문제를 협의한 인물은 바로 길 동분구 사령원으로 활동하다 입북한 강건이었다. 당시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장을 맡고 있던 강건은 이들과 회담한 후, 평양의 김일성에게 동북민주연군의 협조요청을 전달하였다.¹¹⁸ 강건은 1935년 2월 후보중이 군장을 맡은 동북반일연합군 제5군의 군부경위중대 정치지도원에 임명된 이래, 1945년까지 줄곧 후보중이 지휘한 부대에서 활동했다.¹¹⁹

즉, 동북민주연군에서 파견한 강환주와 왕일지는 해방 전 김일성부대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고, 북한에서 이들과 회담한 강건은 후보중부대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특히 강건은 해방 이후 연변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건립하고 중국혁명에 참여했다가 입북한 인물이었다고, 입북 후에는 북한의 고위 군사간부로 임명되어 북·중관계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동북지역과 북한에서 주요간부를 파견한 주체는 후보중과 김일성이었는데, 두 사람은 동북항일연군교도려에서 여단장과 대대장으로 함께 활동하였다. 결국 1946년 이후 북·중관계 형성에 기여한 동북지역·북한지역의 일부 간부는 해방 전 동북항일연군의 같은 부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V. 맺음말

해방 이후 북·중관계는 중국내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 군대가 동북 주요지역을 점령하자, 북한 측에 교통로·후방기지·무기·군수물자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북한 정치세력은 중국 측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다. 북·중관계는 동북민주연군·중국공산당 동북국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의 공식적 계통을 통해 구축되

118 길재준·리상진, 2008, 앞의 책, 104~105쪽.

119 리창역, 2000, 「강신태의 군대생활」,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82~292쪽.

었다. 북조선로동당·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는 지령을 하달해 동북민주연군의 무기·군수물자를 우선적으로 수송하라고 지시했고, 동북민주연군에 교통로와 후방기지를 제공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북·중관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하였다. 동북국은 1946년 7월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를 신설해 병력·전략물자의 이동, 전략물자의 구매, 북·중 간 합작사업과 무역거래, 화교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동북국과 동북민주연군은 중국 국경지역에 동북국 도문판사처와 북흥 무역공사를 설치해 동북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조달하였다. 이 같은 북·중 간 군사·경제교류는 소련군사령부의 허가와 지원하에 진행되었다. 이 같은 북한의 지원에 대해 동북민주연군의 지도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자기의 나라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를 도와 철도수송과 인력이 부족한 난제를 풀어주었다”고 평가했다.¹²⁰

북·중관계는 비공식적 계통을 통해서도 형성되었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조선인 간부들은 해방 후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창설하고 고위간부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은 동북민주연군의 군사간부를 맡아 부대를 이끌고 동북전쟁에 참전했다. 그리고 동북전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들은 해방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북·중혈맹의 상징이었다. 1946년 이후 북·중관계 형성과정에는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을 오가며 협력관계를 구축한 인물들도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이 같은 비공식 연락망을 통해 중국공산당 군대에 대한 군수지원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했다.

해방 이후 북·중관계의 특징은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동북민주연군에서 파견한 강환주와 왕일지는 해방 전 김일성부대에서 활동한 인물이었고, 북한에서 이들과 회담한 강건은 후보중부대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동북지역과 북한에서 주요간부를 파견한 주체는 후보중과 김일성이었는데, 두 사람은 동북항일연군교도려에서 여단장과 대대장으로 함께

120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2000, 앞의 책, 258~259쪽.

활동하였다. 1946년 이후 북·중관계 형성에 기여한 동북지역·북한지역의 일부 간부는 해방전 동북항일연군의 김일성·주보중부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공식적 북·중관계는 해방 전후 동북지역·북한지역 간부들의 비공식적 인적 관계를 통해 완성되었다.

비공식적 북·중관계는 북한과 중국에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시기에 공식적 북·중관계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 북·중관계는 주로 해방 전의 인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었으므로 간부의 이동과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았다. 해방 직후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간부들은 1946~1947년에 대거 입북했고, 동북지역의 조선인민주연맹은 1947년 8월에 해체되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에서 국민당에 우세를 차지하면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조선인 간부들을 축출했고, 북한과 동북지역 조선인 사회의 간격을 넓히려 시도했다.¹²¹

1945~1947년 북·중관계는 공식·비공식 계통을 통해 형성되었고, 동북지역의 조선인 사회와 중국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 간부들은 당·정권기관·군대를 건설해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조직함으로써 조선인 사회와 중국혁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46년 전후 북한 측의 지원은 초기 중국내전의 승패를 가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다수의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간부들이 조선인들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중국내전에 참전해 중국혁명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은 내전과정에서 조선인 사회와 북한 측에서 상당한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다.

중국은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 공식적으로 “북조선주재 동북행정위원회 상업대표단”을 설치했다. 상업대표단은 바로 동북국판사처의 후신이었다. 상업대표단 수석대표는 1949년 봄부터 북조선화교연합총회 위원장이던 정월송이 맡았다. 그녀는 노동당원이었는데, 수석대표를 맡으면서 중국공

121 염인호, 2009, 「중국 국·공 내전기 목단강시 조선인 사회와 한반도와의 관계」, 『한국학논총』 32, 457~458쪽.

산당의 당적을 회복하였다.¹²² 정설송은 1946년에 김일성이 북·중교류를 위해 동북국에 파견했던 인물이었다. 북조선화교연합총회 위원장이자 노동당원이던 정설송이 중국의 공식적인 상업대표단 수석대표를 맡았다는 사실은 북·중관계가 가지는 당적·외교적 긴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1945~1947년에 형성된 북·중관계는 북·중혈맹의 근원이자 북·중 국교수립의 기반이었다.

122 정설송 엮음, 1992, 앞의 책, 106~107쪽.

참고문헌

단행본

- 강창록 · 김영순 · 이근전 · 일천, 1992, 『주덕해』, 실천문화사.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67, 『韓國戰爭史』 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譯, 1987, 『蘇聯과 北韓의 關係』, 國土統一院.
- 길림성정변문사자료위원회 편, 1995, 『길림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 길재준 · 리상전, 2008,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광운, 2003,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 김국후, 2008,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 · 정리, 2001, 『김석형구술자료집: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요!』, 선인.
- 김은식, 2016, 『중국의 별이 된 조선의 독립군 정율성』, 이상미디어.
- 김일성, 1994, 『김일성전집』 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8,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중생, 2000,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 김형직, 2004, 『격정세월: 문정일 일대기』, 민족출판사.
- 리희일 · 서명훈 주편, 1987, 『조선의용군 3지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孟宪章 · 楊玉林 · 張宗海, 1995, 『蘇聯出兵中國東北』,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편, 1950. 2. 1,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제3호,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나남.
-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1989,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 함성.
-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 楊昭全 等編, 1987,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 下, 요녕민족출판사.
- 엄영식, 2005, 『탈출-죽어서야 찾은 자유』, 야스미디어.
- 염인호, 2010, 『또하나의 한국전쟁』, 역사비평사.
- 이중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丁雪松 口述, 杨德华 整理, 2000, 『中国第一位女大使 丁雪松 回忆录』, 江苏人民出版社.

정설송 엮음, 1992,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 그의 삶』, 형상사.

정형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편, 2000, 『해방초기의 연변』, 룡녕민족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2011, 『중국동북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1,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2012, 『중국동북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2,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영복, 1990,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중공연변주위조직부 · 중공연변주위당사연구소 · 연변조선족자치주당안관, 1989,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조직사(1928. 2-1987. 11)』, 연변인민출판사.

中共中央黨資料征集委員會 編, 1988, 『遼瀋決戰』(上), 人民出版社.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저, 홍순도 · 홍광훈 역, 2016, 『중국공산당역사』 1권 하, 서교출판사.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1992, 『승리』, 민족출판사.

중앙일보특별취재반, 1992,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 중앙일보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89,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준광 · 권오근 · 남대명 편역, 1987, 『주보중문선』, 연변인민출판사.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 남기정 옮김, 2002, 『북조선』, 창작과비평사.

전현수 역, 2006,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논문

김선호, 2017,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북한의 중국내전 지원과 군대창설을 중심으로」, 『軍史』 102.

백학순, 1994, 「중국내전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북한군의 파병 및 후방기지 제공」, 『한국과 국제정치』 10-1.

염인호, 2009, 「중국 국·공 내전기 목단강시 조선인 사회와 한반도와의 관계」, 『한국학논총』 32.

유병호 · 박창욱, 2002, 「중국 조선족 제1세대 역사학자 박창욱」, 『정신문화연구』 25-2.

이상숙, 2016, 「국공내전 시기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경제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北韓研究學會報』 20-1.

Kim Sang Won, 2014,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7, No. 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신문

『로동신문』 · 『正路』 · 『解放日報』

1945~1947년 북·중관계의 형성과 북·중혈맹의 근원

김선호

해방 이후 북·중관계는 중국내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 군대가 동북지역을 점령하자, 북한 측에 교통로·후방기지·무기·군수물자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북한 정치세력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북·중관계는 동북민주연군·중국공산당 동북국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의 공식적 계통을 통해 구축되었다. 중국공산당은 북·중관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하였다. 동북국과 동북민주연군은 1946년 중반부터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동북국 도문판사처·북흥무역공사 등을 설치해 병력·전략물자의 이동, 전략물자의 구매, 무역거래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북·중 간 교류는 소련군사령부의 허가와 지원하에 진행되었다.

북·중관계는 비공식적 계통을 통해서도 형성되었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조선인 간부들은 해방 후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정권기관·군대를 창설하고 고위간부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은 동북민주연군의 군사간부를 맡아 동북전쟁에 참전했다. 북·중관계 형성과정에는 동북·북한지역을 오가

며 협력관계를 구축한 인물들도 크게 기여하였다. 해방 이후 북·중관계의 특징은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북·중관계 형성에 기여한 동북·북한지역의 일부 간부는 해방 전 동북항일연군의 김일성·주보중부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공식적 북·중관계는 해방전후 동북지역·북한지역 간부들의 비공식적 인적 관계를 통해 완성되었다.

1945~1947년 북·중관계는 공식·비공식 계통을 통해 형성되었고, 동북지역의 조선인 사회와 중국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 간부들은 당·정권기관·군대를 건설해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조직함으로써 조선인 사회와 중국혁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46년 전후 북한 측의 지원은 초기 중국내전의 승패를 가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다수의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간부들이 조선인들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중국내전에 참전해 중국혁명에 기여하였다. 결국 1945~1947년에 형성된 북·중관계는 북·중혈맹의 근원이자 국교수립의 기반이었다.

주제어: 북·중관계,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중국내전, 중국공산당, 북조선로동당, 동북민주연군, 주보중, 최용건, 강건

ABSTRACT

The Forma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Origins of the Solid Alliance, 1945~1947

Kim Seonho

Since liberation in 1945, North Korea-China relation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ongoing Chinese Civil War. From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made requests of military ai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leadership answered with substantive assistance.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constructed through the official channel between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and the CCP. The CCP established a permanent organization through which it managed the movement of both military forces as well as purchase of strategic goods from mid-1946. These North Korea-China relations developed under the sanctions of the Soviet Union's military command.

Further,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built through the unofficial channel. Both the Korean cadres in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and the Korean Volunteer Army laid the

groundwork for post-liberation hegemonic dominance of the CCP in Manchuria. These military forces also joined in the Chinese Civil War as military cadres of the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The official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completed through informal personal relations between the Northeastern region and the North Korean leader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From 1945 to 1947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formed through formal and informal systems, and had a profound impact on Korean society and the Chinese Revolution in the northeast region. North Korea's support for China around 1946 determined victory and defeat in the early Chinese civil war. After all, the North-Central relations formed in 1945-1947 were the origin of the North Korea-China blood alliance and we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Keywords: North Korea-China Relations,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Korean Volunteer Army, Chinese Civil War, Chinese Communist Party, North Korean Workers' Party,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Zhou Baozhong, Choe Yonggeon, Kang Geon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관계의 강화

문미라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 I. 머리말
- II. 중국에서의 ‘항미원조운동’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 III.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사례와 북한 주민과의 접촉
- IV. 연변 조선인 사회의 ‘항미원조운동’과 북중 협력관계의 구축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인민지원군은 전장(戰場)의 최전선에서 전투에 임하여 패망 직전의 북한을 ‘구원’하였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1958년까지 북한에 주둔하면서 북한의 전후복구사업을 도왔다.¹ 정전 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노동력 지원은 북한의 전후복구 과정을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였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대 북중관계의 요체이자 두 나라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북중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과 역할, 그리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에 관한 선행연구는 ① 참전 배경과 결성 과정,³ ② 도강과 1차 전역(1950. 10. 25)부터 5차 전역(1951. 4. 22~6. 10)까지의 전투 상황,⁴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8월 9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1 박종철, 2007, 「순망치한(唇亡齒寒)의 혈맹: 중국의 북한 지원을 중심으로(1953~55년)」, 『사회과학연구』 31, 13쪽.

2 한 연구자는 북한의 전후복구가 ① 관련 정책의 시행, ②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③ 중국인민지원군 노동력 활용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 진행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영실, 2013, 「『로동신문』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1953~1958년)」, 『통일문제연구』 59, 336쪽.

3 중국의 참전 배경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대표적인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몇 편만 언급하기로 한다. 선즈화(沈志華), 최만원 옮김, 2010, 『모택동,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 선인; 선즈화, 김동길 옮김, 2014,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선인; 선즈화(沈志華),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天朝)』, 선인.

4 이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옮김,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③ 중조연합사령부 구성 및 그를 둘러싼 갈등,⁵ ④ 정전 이후 전후복구 사업에서의 역할,⁶ ⑤ 철군의 원인과 과정⁷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했다가 철군하기까지 일련의 상황들이 정리되었고, 그들이 한국전쟁에서 수행한 역할도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

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은 한국전쟁 기간 중 실제 전투에 가담한 것 외에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후방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후방지원’⁸ 활동은 전쟁의 지속과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
- 5 이종석, 2000,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중심; 박영실, 2012, 앞의 책; 박영실, 2011,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3; 이신재, 201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한국전쟁 시기 북중(北中)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83; 김보미, 2013,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6-2; 서상문, 2015, 「中朝聯合司令部」再論: 설립배경과 과정」, 『군사』 95; 선즈화(沈志華), 2017, 앞의 책.
 - 6 김용현, 2006,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0-2, 152~154쪽; 박영실, 2006, 「정전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對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 105; 박종철, 2007, 앞의 글; 김보미, 2013,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 『아세아연구』 56-4; 박영실, 2013, 앞의 글; 김보미, 2013,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방순, 2014, 『중국의 대북한 원조에 관한 연구: 중-소 관계변화의 영향』,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용현, 2006, 위의 논문; 이상숙, 2009, 「1958년 북한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의 원인과 영향: 북한의 대중국 협력 확대와 대중동원 경제노선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3-2; 장창준, 2009, 「1950년대 북중동맹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철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상준, 2012,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원인과 중·북 관계」, 『아태연구』 19-2.
 - 8 일반적으로 후방지원이란 작전부대의 후방에서 인원·무기·탄약·연료·식량·예비장비 등 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수송하고 후방연락선을 확보하는 것을 일컫지만, 이 논문에서는 비전투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군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전재민 구호,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 부상자 치료와 같은 ‘대민지원’ 활동과 민간인의 군대에 대한 물자 지원, 부상병 치료 등을 가리킨다. 북한에서는 후자를 ‘군대원호사업’·‘전선원호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상의 용어에 대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심사

민지원군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활동은 필연적으로 북한 주민과의 접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들어온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 여성이 결혼을 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⁹ 중국인민지원군과 일반 북한 주민의 접촉은 일상적이었다.

북한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주체는 연변(延邊)지역 조선인 사회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전역에서 ‘항미원조운동(抗美援朝運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¹⁰ 그 가운데에서도 연변 조선인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9 안태운, 2014,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0, 197~198쪽.
- 10 중국에서의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로는 김옥준, 2007, 「중국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과 의의」, 『중국학논총』 23; 손해룡, 2011, 「1950년대 “항미원조운동” 중 나타난 한반도 인식」, 『중국현대문학』 59; 이세은, 2011, 「한국전쟁 시기 中共의 지식인·학생의 대중동원: ‘抗美援朝運動’과 북경대학」,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영실, 2012, 앞의 책, 137~149쪽; 전훈, 2012,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정현, 2013, 「중국의 ‘抗美援朝’ 전쟁과 周恩來」, 『만주연구』 17; 백원담·임우경 편, 2013,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학과학사; 김창규, 2014, 「抗美援朝運動 시기 인민동원과 국가통합 이념으로써 ‘愛國」, 『동양사학연구』 129; 정다운, 2015, 「한국전쟁 시기 中國 東北地域의 “抗美援朝運動”과 내셔널리즘: 吉林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석사학위논문; 최승현, 2017,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시기 선전동원 네트워크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3 등 참조. 중국 학계는 ‘항미원조운동’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徐焰, 2003, 『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 北京: 解放軍出版社; 林伟京, 2007, 「论抗美援朝战争中的政治动员」, 『齐鲁学刊』 2007-1; 陳利, 2009, 「從抗美援朝檔案看安東人民搶脩江橋的巨大貢獻」, 『蘭臺世界』 2009-3; 崔玥, 2009, 「黑龍江人民在抗美援朝運動中的貢獻」, 『世紀橋』 2009-4; 趙寶紅, 2011, 「抗美援朝戰爭中寬甸人民反細菌戰紀實」, 『蘭臺世界』 2011-10; 朱繼光·陶仁人, 2011, 「南京抗美援朝分会活动述略」, 『党史文苑』 2011-4; 朱繼光, 2011, 「抗美援朝运动中的江苏南京志愿医疗团」, 『当代中国史研究』 18-3; 张慧, 2011, 「抗美援朝战争期间东北地区社会控制」, 『軍事歷史研究』 2011-4; 汪暉, 2013, 「二十世纪中国历史视野下的抗美援朝战

사회는 그 자체가 북한의 중요한 후방기지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그간 한국전쟁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몇 편의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¹¹ 연변지역에서 벌어진 후방지원 활동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연변지역이 북한의 후방기지로서 수행한 역할을 정리하고, 중국 전체의 ‘항미원조운동’과 비교하였을 때 연변 조선인 사회의 그것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은 무엇인가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후방지원이 주체와 공간을 달리하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북중 양국에서 강조하는 이른바 ‘혈맹’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묘사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 이 글에서는 『로동신문』과 전쟁 당시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간된 『동북조선인민보(東北朝鮮人民報)』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신문은 각각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연변지방위원회 기관지로서 국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과 연변지역에서 진행된 후방지원 활동의 구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1차 자료다. 이 밖에도 한국전쟁 참전 조선인들의 구술자료와 연변지역 조선인들의 한국전쟁 회상기 등을 활용하여,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북한 지원(援朝)의 실상을 ‘정부 대 정부’보다 더욱 넓은 시야, 다시 말해 지방정부나 민간 교류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爭」, 『文化縱橫』 2013-6.

11 염인호, 2004, 「6·25戰爭과 延邊 朝鮮人 社會의 關聯性에 관한 一考察」, 『한국근현대사연구』 28; 박정수, 2009,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서 본 연변조선족과 6·25전쟁」, 『韓國史學報』 37; 염인호, 2010,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최일, 2013, 「‘민족’에서 ‘국민’으로-‘조선족’과 ‘조선전쟁’-」, 백원담·임우경 편, 앞의 책; 정다운, 2015, 위의 논문.

II. 중국에서의 ‘항미원조운동’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중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만인 1950년 6월 26일 『인민일보(人民日報)』 1면을 통해 개전 소식을 전하고, 27일에는 “조선인민은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여 “정의는 완전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편에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¹² 나아가 중국은 즉각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 전쟁에 대비하였는데 하나는 중국 전역에서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변방군을 구성해 직접적인 군사대비 태세를 취한 것이었다.¹³

중국에서의 ‘항미원조운동’은 평화옹호 서명운동¹⁴과 ‘미국의 대만과 조선에 대한 침략 반대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1950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평화옹호 서명운동 주간으로 정했다.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8월 초까지 중국 전역에서 평화옹호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6천만 명에 달했다. 평화옹호 서명운동은 전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상 수업이기도 하였다.¹⁵ 중국은 신문·라디오와 같은 주요 매체와 벽보·만화·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선전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북한에도 그대로 전해졌다.¹⁶

1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오규열 옮김, 200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7쪽.

13 박영실, 2012, 앞의 책, 68쪽.

1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외국에 대한 정기적인 선전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소련이 주도하였던 가장 공개적인 활동은 핵무기에 대한 스톡홀름 호소문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이 운동은 세계평화옹호대회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소련 주도의 세계평화보위운동이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운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박영실, 2012, 위의 책, 130~137쪽.

1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2, 앞의 책, 73쪽.

16 “평화옹호 서명수집 운동 중국에서 활발히 진행”, 『로동신문』, 1950. 7. 17; “중국에서 대만과 조선에 대한 미국 침략 반대 항의운동 진행”, 『로동신문』, 1950. 7.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을 결정한 이후 중국 내의 ‘항미원조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중공 중앙은 1950년 10월 24일 한국전쟁 참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대중운동, 즉 ‘항미원조운동’의 전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¹⁷ 이에 따라 ‘항미원조운동’의 지도기구인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를 결성하였고, 각 성과 시는 항미원조분회를 잇달아 설치하여 지역 단위의 ‘항미원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였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는 벽보·보고회·좌담회 등 여러 형식을 빌려 광범위한 선전교육 활동이 진행되었고, 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¹⁸ 한국전쟁에 참가할 지원 인력 모집, 자금 및 물자 헌납, 위문단 조직 등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활동도 전쟁 기간 내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항미원조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함께 군사적인 조치도 취해졌다. 중국인민지원군이 공식적으로 참전하기 3개월여 전인 1950년 7월, 중국은 중원(中原)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국방기동부대 제13병단과 동북지역 치치하얼[齊齊哈爾] 등에 주둔하고 있는 제42군단 등 총 25만 5천여 병력으로 동북변방군을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¹⁹ 이들의 임무는 중국 동북지역 국경을 방위하고 필요하다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동북변방군의 조직으로 중국은 국경 방위를

25: “중국에서 평화옹호 서명 4천만 이상 모집”, 『로동신문』, 1950. 7. 25; “평화옹호 서명수집 운동 중국에서 활발히 진행”, 『로동신문』, 1950. 7. 17.

17 「周恩來總理在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第一屆全國委員會第18次常務委員會上的報告: 抗美援朝, 保衛和平(1950. 10. 24)」, 『周恩來文選』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50~54쪽(「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18차 상무위원회에서의 저우언라이 총리의 보고: 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우며 평화를 보위하자(1950. 10. 24)」,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2002, 『한국전쟁 관련 중국 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1, 368~373쪽).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총리이자 외교 부장이며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국 ‘항미원조전쟁’의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진 ‘항미원조운동’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항미원조운동’에서 저우언라이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는 김정현, 2014, 앞의 글 참조.

1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2, 앞의 책, 287쪽.

1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2, 위의 책, 99쪽.

공고히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위급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북변방군의 배치는 1950년 8월 초 완료되었다. 이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 부대는 사상교육·훈련·부대 정비 등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동북변방군은 중국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2천여 명에 달하는 동북지역 조선인들이 통역원이자 연락요원으로 동북변방군에 배치되었다. 예컨대 735명의 조선인들이 제38군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평균 1개 분대에 한 명씩이었다. 이들은 작전 시 행군을 선도하였고 야영지역 배치를 위한 선발대원, 정찰병으로 활약하였으며, 여러 작업 시에는 노동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²⁰

그러나 동북변방군의 조직은 어디까지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이것이 곧바로 중국의 직접적인 참전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동북변방군의 편성 초기 목적은 “대비만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備而不用)”는 것이었다.²¹ 이후 중국은 전황과 중국 국내 상황, 소련의 태도에 따라 참전과 파병 보류를 반복하다가 10월 13일 중공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참전을 최종 결정하였다.²² 그리고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은 드디어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진입하였다. ‘항미원조’의 공간적 배경이 중국 국내를 넘어 북한으로 확대된 것이다.

20 David Tsui, 2007,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VI) 한국전쟁 개입을 위한 준비: 1950년 1월~9월(1)」, 『전략연구』 40, 186쪽.

21 진탁, 2016, 「한국전쟁 시기 ‘중공군’의 참전과 동원 유형 및 구성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145, 41쪽.

22 한국전쟁 참전을 둘러싼 중국의 태도 변화와 참전의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는 김동길·박다정, 201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225; 김동길, 2016,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원인 연구: “국방선(國防線)”의 무혈확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2; 셴즈화(沈志華), 2017, 앞의 책, 295~330쪽 등이 상세하다.

Ⅲ.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사례와 북한 주민과의 접촉

1.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에 대한 구호 사업

북한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후방지역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²³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방의 최전선뿐 아니라 비전투지역인 후방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투에 동원되지 않은 중국인민지원군들도 ‘항미원조운동’의 기치 아래 후방에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활동은 전선이 고착화되는 1951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춘경 파종과 밭갈이와 같은 농경 작업을 돕는 것, 북한 전 주민에 대한 구호, 전쟁고아·어린이 지원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가운데 『로동신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농경 작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을 위한 투쟁”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²⁴ 계획적이고 신속한 농경 사업은 후방의 제1임무 중 하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따로 작업반을 편성하여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는 마을과 그 주변의 농사일을 도왔는데, 대체로 젊은 남성들이 전선에 나가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²⁵ 중국인민지원군의 농경 보조는 파종과 이앙, 추경, 구황작물의 재배, 탈곡 등 농업 전반에 걸쳐 있었다.²⁶ 1952년에는 북한 농민의 밭갈이를 돕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업 모습을 찍은 사진이

23 “인민군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 후방을 철석 같이 굳게 하자”, 『로동신문』, 1950. 7. 13; “최후의 승리 쟁취기 위해 후방을 일층 공고히 하자”, 『로동신문』, 1950. 7. 18; “전쟁의 승리 위하여 후방을 더 한층 공고히”, 『로동신문』, 1950. 7. 19.

24 “전선원호사업은 후방인민들의 전투적 임무이다”, 『로동신문』, 1951. 8. 20.

25 “전선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 농민들의 영농사업을 협조”, 『로동신문』, 1951. 8. 25.

26 “농사일을 협조한 지원군: 왕제후 동무의 일기에서”, 『로동신문』, 1951. 8. 11; “의로운 벼들”, 『로동신문』, 1952. 3. 19;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미거: 봄보리와 감자 파종을 협조”, 『로동신문』, 1952. 4. 3 등.

『로동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²⁷

전쟁고아와 북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의 미담도 자주 소개되었다. 부대 전체가 주둔 지역 전쟁고아들을 위해 양식을 내어주고 함께 생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²⁸ 전쟁고아를 수용하여 돌보는 시설인 ‘애육원’을 방문하여 식량과 의복, 학용품 등을 건네기도 하였다.²⁹ 전쟁고아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의 기사에서는 고향에 두고 온 자신의 “친남매와 꼭 같은 사랑을” 느꼈다거나 ‘형제애의 발현’과 같은 언설을 동원하여 인도적이고 자발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³⁰

이 밖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은 폭격의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의류·신발·담요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³¹ 그들의 월동준비를 도왔다.³² 자신들에게 지원된 의료상의 혜택을 북한 주민들에게 양보하고,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여 피난민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³³ 뿐만 아니라 타국임에도 공연단을 꾸려 곳곳을 순회하면서 위문공연을 펼치는 등,³⁴ 후방지역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호 사업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로와 이유로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빈도도 늘어났다. 다음 절에서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로동신문』은 이러한 중국

27 “조선 농민의 발걸음을 협조하는 지원군 용사들”, 『로동신문』, 1952. 4. 6.

28 “부대의 아들: 조선 전제고아를 사랑으로 기른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지성”, 『로동신문』, 1951. 5. 21.

29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 애육원에 선물 증정”, 『로동신문』, 1951. 9. 19;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조선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선물”, 『로동신문』, 1952. 6. 2;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애육원 원아들에 대한 사랑”, 『로동신문』, 1952. 9. 19.

30 “지원군 오세군 용사와 고아 김영숙 소녀”, 『로동신문』, 1951. 10. 8.

31 “지원군 ○○부대 용사들 평양시 전제민들을 원호”, 『로동신문』, 1951. 8. 28.

32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 전제민의 월동준비를 원조”, 『로동신문』, 1951. 10. 23.

33 “중국인민지원군의 미거: 주민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 『로동신문』, 1952. 4. 25;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 지하교실 굴설을 협조”, 『로동신문』, 1951. 8. 23; “지원군 용사들이 지어준 새집”, 『로동신문』, 1952. 8. 10.

34 “중국인민지원군 씨클들 이동 공연으로 군민을 위안”, 『로동신문』, 1952. 9. 5.

인민지원군의 활동에 북한 주민들은 감사와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북중 친선을 강조하였다.³⁵

이 같은 중국인민지원군의 구호 사업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남성 노동력이 현저히 부족한 북한의 상황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까지 북한에 주둔하면서 건물의 복구공사에 참여하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하고, 농사를 돕는 등 북한의 전후복구 사업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³⁶ 정전 후 전후복구 사업에 나선 중국인민지원군의 활약상은 한국전쟁 시기 북한 후방지역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바꾸어 말하면, 전쟁 중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사업과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이 정전 후 전후복구 사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주민의 중국인민지원군 지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인민지원군은 후방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구호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북한)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중국인민지원군 측의 일방적인 ‘지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북한 측의 지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과의 다양한 협력 또한 존재하였다.³⁷

35 “인민군대와 중국인민지원부대 용사들에게 열렬한 사랑과 존경을”, 『로동신문』, 1951. 1. 22; “존경받는 중국인민지원군”, 『로동신문』, 1951. 7. 22;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지성에 재해 농민들 감격”, 『로동신문』, 1952. 5. 1; “지원군의 애민 미거에 감격하는 마을 사람들”, 『로동신문』, 1953. 2. 12 등.

36 북한 전후복구 사업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박영실, 2013, 앞의 글 참조.

37 서동만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고 나서 단기간에 놀랄 만한 승리를 거둔 요인 중 하나로 현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꼽았다.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402쪽.

먼저 중국인민지원군 부상병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간호와 보살핌이 있었다. 폭격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중국인민지원군 부상병을 구출한 사례와 잠을 줄여가며 부상병들을 돌보아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었다는 미담 등이 대표적이다.³⁸ 이러한 기사에는 주로 여성들이 등장하는데,³⁹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연변에서의 북한 부상병 원호 사업에 연변 여성들이 대대적인 활약을 한 것과 짝을 이루는 것임과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도 매우 흥미롭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문단은 북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꾸리기도 하였지만,⁴⁰ 지역 단위로 조직하여 전선으로 향하거나 지역 내에서 각종 위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⁴¹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사례를 살펴보면,⁴² 노동자·농민·여성·문화인으로 구성된 강원도 인민대표단이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1주년을 맞아 1950년 10월 23일 전선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각지에서 보내온

-
- 38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중국인민지원부대 왕일문 동무의 편지”, 『로동신문』, 1951. 4. 10; “중국인민지원 부대 부상병들을 구출: 간호원 류봉래 동무의 헌신적 노력”, 『로동신문』, 1951. 4. 17; “지원군 용사와 간호병”, 『로동신문』, 1951. 9. 10; “전상자의 친근한 누나: 간호원 리신태 동무”, 『로동신문』, 1952. 3. 8; “피로써 맺어진 전우애: 지원군 용사와 조선간호원”, 『로동신문』, 1952. 5. 3 등.
- 39 “중국 부상병과 녀맹원”, 『로동신문』, 1951. 5. 18; “지원군 용사와 허은숙 녀사”, 『로동신문』, 1951. 8. 27.
- 40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축하 전달코자 조선인민축하단 전선으로 출발”, 『로동신문』, 1951. 8. 1; “전투 마당에서 맺어진 조중 량국 인민의 친선”, 『로동신문』, 1951. 8. 3 등.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위문단 구성은 중국인민해방군 진군 기념일이나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기념일처럼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주로 행해졌다.
- 41 “지원군을 위문 격려: 김순녀 동무들 비롯한 녀맹원들”, 『로동신문』, 1951. 8. 25; “함남도 전선위문단 전선용사들을 격려”, 『로동신문』, 1951. 11. 2; “황해도 인민대표단 전선 위문 위해 출발”, 『로동신문』, 1951. 12. 22; “개성 지구 인민대표단 조중 장병들을 방문”, 『로동신문』, 1952. 8. 25 등.
- 42 “중국 용사들께 축하 전달코자 강원도 인민대표단 전선 향발”, 『로동신문』, 1951. 10. 31.

1만여 점의 선물과 축하문을 가지고 중국인민지원군을 방문하였고, 강원도립극장 이동예술대 소속 무대 예술인들도 이들과 동행하여 예술공연을 준비하였다.

위문단 조직과 방문이 중국인민지원군을 ‘정서적’으로 지원한 것이었다면, 이들을 위한 ‘선물’ 전달은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이었다. 후방지역 북한 주민들은 방한복·장갑·손수건·양말 또는 된장·간장·김치·소금 등 부식물을 직접 만들어 중국인민지원군들에게 보냈다.⁴³ 북한 주민이 만든 손수건에는 “모택동 주석 만세!”, “조중 친선 만세!” 등의 글귀가 수놓아져 있었다.⁴⁴ 『로동신문』에서는 각 지역별 지원 내역을 상세히 보도하였고,⁴⁵ 이를 받은 중국인민지원군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민의 친선을 강조하였다.⁴⁶ 북한 주민들의 ‘선물’은 주로 생필품에 집중되었는데, 타지에서 전투와 생활을 해야 했던 중국인민지원군들로서는 이 같은 물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중국인민지원군 지원은 이들의 참전을 ‘국가 대 국가’의 시야에서만 보면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지점이다. 즉, 북한과 중국이라는 국가의 차원에서는 북한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지만, 그 밑바탕에는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도움과 상호 협력 또한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시기

43 “중국인민지원 부대 청년 용사들에게 각지 청년들 정성의 선물과 서한”, 『로동신문』, 1951. 3. 28;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병에 대한 원호 사업에 열성: 북강원도 인민들”, 『로동신문』, 1951. 4. 7 등.

44 “인민군대와 중국인민지원 부대를 각지 인민들 성심성의로 원호”, 『로동신문』, 1951. 3. 20.

45 “선물과 위문편지”, 『로동신문』, 1951. 4. 5; “인민군과 중화인민지원군 용사들에게 보내는 선물: 최근의 대전과를 축하하며 우리는 이 선물을 보낸다”, 『로동신문』, 1951. 6. 4; “인민군과 중화인민지원군 용사들에게 보내는 선물: 우리는 산채를 보낸다”, 『로동신문』, 1951. 6. 4; “인민군과 중화인민지원군 용사들에게 보내는 선물: 최근의 대전과를 축하하며 우리는 이 선물을 보낸다”, 『로동신문』, 1951. 6. 4; “28만여 점의 선물 전달: 평북도 내 각계 인민들의 정성”, 『로동신문』, 1951. 10. 19;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게 지성의 선물: 강원도, 자강도”, 『로동신문』, 1951. 11. 3 등.

46 “조선인민의 지성에 감사”, 『로동신문』, 1951. 8. 3;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 평양시 인민들에게 감사의 편지”, 『로동신문』, 1951. 8. 13 등.

북중관계 및 중국의 북한 지원 실상을 민간 교류와 북한 주민의 시선이라는 차
원까지 확장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 주민의 접촉·교류가 『로동신문』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선의와 호혜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정전
이후의 사례기는 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의 표면적인 우호관계와는 달
리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1954~1956년
8월 사이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정부 인사와 주민들을 불법 구금하고 모욕한
사건이 355건이나 되었고, 이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의 차량·총기·강간·폭행
사건 등으로 인한 북한 주민 사상자는 417명에 달했으며, 1954~1955년에만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부녀자 강간 사건이 68차례 발생하였다.⁴⁷

일상생활 중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주민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 역시 매우
보편적이었고, 북한과 북한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였다. 비록 이런 위
법 및 군기를 어기는 행위는 모두 중국인민지원군 군법의 법률적 제재를 받았으나
‘치외법권’적 성격을 가지는 처리 방식은 북한 주민들의 굴욕감을 자아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이 같은 태도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1958년 중국이 중
국인민지원군 철수 결정을 내리도록 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⁴⁸ 북중 ‘혈맹’의
이면에는 북중 양국 지도층 간의 잦은 분쟁과 충돌뿐 아니라, 민간 교류 속의 갈
등도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47 한상준, 2012, 앞의 글, 26쪽. 그 밖에도 중국인민지원군들의 樹木의 濫伐, 사병
의 밀수 행위, 경작지와 농작물 및 주민 묘지의 훼손 등은 북한에 심각한 사회 문제
를 일으켰다. 한상준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많은 북한인들이 중국인민지원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주장하
였다.

48 선즈화(沈志華), 2017, 앞의 책, 576~577쪽.

IV. 연변 조선인 사회의 ‘항미원조운동’과 북중 협력관계의 구축

1. 한국전쟁 발발 이후 연변 조선인 사회의 움직임과 후방지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약 4개월 후인 1950년 10월 8일,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명령」 제4항을 통하여, 북한의 후방지원 기지로서 중국 동북지역의 역할을 정식으로 규정하였다.⁴⁹ 실제로 전쟁기간 중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은 북한의 후방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절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연변지역에서 어떠한 후방지원 활동이 전개되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대대적인 참전운동이 일어났다. 직장이나 학교 등 각급 단위에서는 ‘군중결기대회’를 개최해 참전을 호소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연변 조선인들의 참전 분위기를 고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참전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지원병으로서 전장(戰場)에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⁵⁰ 중국인민지원군이 전선에 투입된 직후인 1950년 11월과 12월에는 참전을 다짐하는 독자의 편지, 각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병사들을 환송하는 기사 등이 계속해서 보도되었다.⁵¹ 11월 8일에는 연변사범학교 교원·학생 700여 명이 연명으로 전선에 나갈 것을 청원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마오쩌둥에게 보냈다.⁵²

49 “組成中國人民志願軍的命令”, 『毛澤東軍事文選』 6, 北京: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 109~110쪽(“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명령(1950. 10. 8)”,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2002, 『한국전쟁 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2, 12쪽).

50 “애국청년 8만 참군 지원: 미제의 무력간섭의 야만행위에 조선의 광대한 인민은 분노 격기”,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7.

51 대표적으로 “연변 조선 청장년 1400명 조국전장으로 지원 출발”,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15 기사를 들 수 있다.

52 “연변사범학교 사생 700여명 서명, 결의문을 모주석께 보냄”, 『東北朝鮮人民報』,

연변 측 주장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 동안 연변 5개 현(縣)에서 5천여 명에 가까운 조선인 청년들이 입대하였고, 5,740명이 공작대·통역원·운수대·운전수·담가대(擔架隊: 들것으로 부상병을 운반하는 대원) 등으로 한반도에 들어갔다.⁵³ 5,740명을 분류하면, 중군공작대 1,773명(모두 조선인), 중군통역원 2,163명(중국인 5명 포함), 간호원 898명(모두 조선인), 운수대 330명, 담가대 433명, 자동차 운전수 140명이었다.⁵⁴ 연길시전시간호학교에서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9월 말까지 강습반을 개설하고, 1,000여 명의 연변 조선인 여성 간호원을 양성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의 각 야전병원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⁵⁵ 도문철도국에서는 500여 명의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수송전선에서 활약하였다.⁵⁶⁻⁵⁷

-
1950. 11. 10.
- 53 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연변 40년 기사(1949~1989)』,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51쪽.
- 54 엽인호, 2010, 앞의 책, 293쪽. 한 증언자는 “통역, 간호사, 철도, 다리 수리하러 연변에서 1만여 명이 나갔습니다. 1개 사단정도 되지요”라고 증언하였다. 정현수, 2004, 「중국 조선족의 한국전쟁 참전연구」, 『윤리연구』 57, 한국윤리학회, 264쪽.
- 55 리해식, 「연길시전시간호학교」,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 1994,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6: 창업』, 연길: 민족출판사, 210쪽.
- 56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 1994, 위의 책, 2~3쪽.
- 57 이처럼 연변 전역에서 참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실제로 적지 않은 숫자의 조선인들이 압록강을 건너 전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들이 과연 자발성을 가지고 참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정다운은 중공 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 인민정부가 중공 동북국과 동북 인민정부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신병 21,000명을 동원하라는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문서를 근거로, 대중들의 참전 결정이 겉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목표 인원까지 정해진 반강제적 동원이었다고 주장하였다(정다운, 2015, 앞의 글, 50~51쪽). 참전은 목숨을 담보한 행위이므로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 조국관’에 바탕을 두고 자발적으로 참전하였다고 증언하는 사람 역시 존재하는 만큼(정현수 외, 2006, 앞의 책, 112쪽), 일반적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유로 참전을 결정했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변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북한의 전쟁고아를 부양·교육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수용하였다. 중공은 북한 정부에 전쟁고아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동북지역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 연령 어린이들을 보낼 것을 제의하였다. 1952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의 숫자는 23,000여 명에 달했다.⁵⁸ 중국 측은 전쟁고아들이 도착하면 신체 검사를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질병을 치료해주었고, ‘아동학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배려했다.⁵⁹

연변 5개 현 중 하나인 돈화현(敦化縣)의 사례는 북한 전쟁고아 수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해준다.⁶⁰ 돈화현의 북한 고아 수용과 관리는 현정부 민청과에서 맡았다. 현정부에서는 가정집 15채 57칸을 전쟁고아들을 위한 교실·기숙사·의무실·이발소·목욕탕·식당 등으로 개조하고, 3채 11칸의 새 집을 지어 교직원 기숙사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전쟁고아들을 수용한 ‘조선초등학교’의 인력배치와 교학(敎學) 방침은 완전히 북한식으로 하되, 교직원의 급여와 필요한 비용은 모두 길림성(吉林省) 재정으로 지불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쟁고아들의 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고, 위독한 병이 있는 아이들은 북경(北京) 등지의 대도시로 보내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중국이 북한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면서 착수한 또 하나의 사업은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중국은 전쟁고아들을 방직공장·니트공장 등에 파

5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14쪽. 중국뿐만 아니라 폴란드(200명), 헝가리(200명), 체코슬로바키아(200명), 루마니아(1,500명), 불가리아(200명), 몽골인민공화국(200명)에서도 1951~1952년 사이 북한의 전쟁고아를 수용하여 양육하였다.

59 손춘일, 2015,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국가전략』 21-3, 170~176쪽.

60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2002, 『돌아보는 력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83~286쪽.

견하거나 기술학원에 수용함으로써 이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하였다.⁶¹ 한국전쟁 기간 중 이루어진 북한 전쟁고아에 대한 중국 측의 기술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경험이 전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북한 전쟁고아 가운데 약 2,500명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 남아 기술을 배웠다.⁶² 1950~1960년대 중국은 1만여 명의 북한 '실습생'(산업연수생)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였는데, 전쟁고아들이 그 시초이자 '제1기' 연수생이었던 셈이다.⁶³ 이처럼 연변과 중국 동북지역이 중심이 된 중국의 북한 전쟁고아 부양 경험은 전쟁 이후 중국 전역에서 진행된 북한 '실습생'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연변에는 북한 전쟁고아뿐 아니라 난민들도 몰려들었다. 중공 연변지방위원회와 연변의 지방정부 격인 연변전문공사(延邊專員公署)에서는 “자유롭게 건너온 난민들에 대해서는 초대소에서 당지 정부에 넘겨 배치하게 하여야 한다”는 길림성 제359호 문건 지시에 따라, 1950년 11월에 회의를 열고 북한 난민 문제를 논의하였다.⁶⁴ 이 회의에서는 연길현(延吉縣)·화룡현(和龍縣)·훈춘현(琿春縣) 등지에 난민접대소와 연락처를 설치하고, 당시 중공 연변지방위원회 서기이자 연변 향미원조분회 주석이었던 주덕해(朱德海)가 총 책임을 맡아 북한 난민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변 측 기록에

61 載振亞·邊振剛, 1993, 「朝鮮孤兒在遼陽」, 『黨史縱橫』, 40쪽.

6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옮김,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75쪽.

63 1950~1960년대 중국에 파견된 북한 '실습생'은 그 시기 북중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소재지만 현재 한국 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으로, 북경지역의 북한 '실습생'을 다룬 동지에[董潔]의 논문과 상해의 북한 '실습생'을 분석한 강성의 논문 단 두 편에 불과하다. 동지에, 2012, 「1950~1960년대 북한 산업연수생의 북경 연수활동」, 『현대북한연구』 15-1; 강성, 2016, 「中國 檔案館 資料로 본 上海 北韓 實習生에 대한 中國의 教育(1953~1956)」,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64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2002, 앞의 책, 288쪽.

따르면,⁶⁵ 한국전쟁 기간 동안 연변에서 수용한 북한 난민은 1만 1,728명에 달했다.

부상을 당한 채로 연변으로 피난해온 북한 부상병들에게도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⁶⁶ 우선 중공 연변지방위원회에서는 연길·둔화·훈춘 등지에 ‘후방병원’을 설립하여 수많은 부상병들을 치료하였다. 의료적 행위뿐만 아니라 위문공연단을 조직하여 북한 부상병을 위한 공연을 열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부상당한 중국인민지원군을 위한 위문공연이 대대적으로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변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것이다. 치료와 위문의 수혜자가 북한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연변에서는 조선인민군이었던 것만 다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시기 가장 중요한 연변의 역할로 꼽아야 하는 것은 이곳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이 북한 주요 기관과 인물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는 점이다. 현재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길비행장도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이 건설하여 인민군의 비행장으로 사용하였다.⁶⁷ 허가이의 딸 허가이리라 알렉세이에브나에 증언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 허가이의 가족들도 하얼빈으로 이동하여 생활하였다.⁶⁸

이 훌륭한 ‘피난처’는 무엇보다 계속된 전투로 지쳐 있는 조선인민군 부대를 재편하고 병력을 충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50년 10월 30일 슈티코프 대사는 스탈린에게 조선인민군 9개 보병사단이 재편성과 훈련을 위해 동북지역으로 철수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였다. 11월 3일까지 모든 참모도 이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다.⁶⁹ 10월 30일까지 조선인민군의 9개 보병사단과 특수병과

65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2002, 위의 책, 291쪽.

66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2002, 위의 책, 295~298쪽.

67 정현수 외, 2006, 앞의 책, 240쪽.

68 정현수, 2004, 앞의 글, 263쪽.

69 소련군총참모부 제8국, 「암호전문 제600584/sh호(1950. 10. 31)」, 예프게니 바자노프, 김광린 옮김, 1998,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29쪽.

등 총 117,000명이 동북 각지로 후퇴하여 재편과 훈련에 돌입했다.⁷⁰ 각지로 흩어진 조선인민군들은 중국 민간인의 주택에 기거하면서 군사교육을 받는 한편 농사일을 거드는 등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⁷¹

동북지역에서 인민군의 재편작업은 조선인민군 후방사령부가 담당하였다. 후방사령부는 1950년 10월에 중국 길림성 통화시(通化市)에 설치되었다. 후방사령부의 대외명칭은 ‘동북개간사무처(東北開墾事務處)’였고, ‘동간변사처(東墾辦事處)’로 부르기도 했다. 북한 정부는 최용건(崔庸健)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 정부의 양해를 얻은 후 동간변사처를 창설하였다. 동간변사처는 인민군 후방사령부였지만, 유사시 다른 역할도 고려되었다. ‘동북을 개간하는 사무국’이란 이름과 통화시의 지리적 특성을 봤을 때, 동간변사처는 유사시 북한 망명정부의 소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⁷²

조선인민군의 재편 외에 후방사령부의 또 다른 임무는 군교육기관을 연변 일대로 철수시키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북한 정부는 함경북도 나진(羅津)에 있던 해군학교를 제외한 모든 군교육기관을 중국 동북지역으로 철수시켰다. 그중 연변에 있었던 것은 연길의 공군참모강습소였다. 이곳에서는 비행사들을 훈련시켜 공군참모로 육성하고, 이들을 신의주와 청진 일대로 다시 들여보냈다.⁷³ 이 밖에도 후방사령부는 퇴원한 군인의 부대편성, 후방보장, 야전병원 관리, 당·정 고위직 가족·군관 가족·전쟁고아의 정착과 관리업무도 수행하였다.

70 「슈티코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전문(1950. 10. 31)」(선즈화(沈志華), 2014, 앞의 책, 533쪽에서 재인용).

71 김진계 구술·김응교 정리, 1990, 『조국』(상), 현장문학사, 139~144쪽.

72 김종생, 앞의 책, 225~226쪽; 김선호, 2016,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의 재편 과정과 북한·중국·소련의 갈등과 조율」, 『1950년대 사회주의 블록과 북한: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한국역사연구회 학술회의 자료집.

73 정현수 외, 2006, 앞의 책, 240쪽. 구술자 장한철은 이 교육기관을 “조선인민군 공군학교”라고 말했지만, 김선호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공군학교는 금주(錦州)에 있었고, 연길에 있었던 것은 공군참모강습소였다(김선호, 2016, 위의 글). 장한철 자신도 이곳의 역할이 “공군참모인원을 처음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김선호의 연구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후방사령부가 관리한 인원은 동북지역으로 철수한 모든 군인과 민간인들로, 가장 많았을 때는 17만 명에 달하였다.⁷⁴

연변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의 이 같은 ‘피난처’로서의 역할은 국공내전 시기 북한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동북지역에서 국공내전이 본격화하자 북한은 중공이 중국국민당 군대에 밀려 다시 전열을 정비할 때까지 북한 북부지역을 후방기지로 내어주었고, 전략적 교통로를 제공하여 물자와 병력의 이동을 도왔으며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⁷⁵ 중공군은 북한이 제공한 ‘피난처’에서 병사를 훈련시키고 부상병을 치료하는 등 부대를 정돈하였고, 북한지역을 우회로로 삼아 남만-북만 및 대련(大連)-기타 지역 사이의 물자를 수송함으로써 보급선을 유지하였다.

국공내전 당시 중공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46년 7월 평양에 중공중앙동북국(中共中央東北局) 주조선판사처(駐朝鮮辦事處, 이하 판사처)를 세웠다. 평양 대동강 서쪽 극관리(極貫里) 104번지에 위치한 판사처는 부상병의 퇴각, 전략물자의 이동, 물자 수송, 중공 인원의 국경선 이동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⁷⁶ 판사처는 대외적으로 ‘평양이민공사분공사(平壤移民公司分公司)’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사실상 북한이 중공을 지원하는 유일하고 비밀스러운 정부 측 루트였다.⁷⁷ 한국전쟁 당시 연변지역의 모습은 국공내전 시기 북한 후방기지화의 재연(再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양국은 각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거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원세력으로 기능하면서 ‘혈맹’관계를 강화해갔던 것이다.

74 김선호, 2016, 위의 글; 김중생, 2000, 앞의 책, 227~228쪽.

75 이종석, 2000, 앞의 책, 59~69쪽.

76 胥超, 2006, 「제2차 국공내전기 북조선노동당 대 중공의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석사학위논문, 47~49쪽.

77 黃潤浩, 2012, 「東北地域朝鮮共產主義者の“双重使命”研究」, 延邊大學校 人文社會科學學院 世界史專攻 博士學位論文, 208쪽.

2. 연변지역 ‘항미원조운동’의 성격과 특수성

‘항미원조운동’은 연변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연변은 해방 직후부터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한반도에 뿌리를 둔 조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14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은 곳이기도 하였다.⁷⁸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연변의 역사적 특이성이 ‘항미원조운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달리 말해 연변 조선인 사회의 ‘항미원조운동’의 특수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해보자.

가장 먼저 수많은 통역원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군운동으로 인해 대규모의 참전 지원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이 통역원이었다. 통역원은 주로 연변 조선인들을 대상만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 전역에서 의료지원단이 선발·파견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⁷⁹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고, 북한지역의 풍습과 문화에서 익숙한 연변지역 조선인들만큼 통역원에 적합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군사훈련·언어훈련을 받은 후에 북한으로 들어

78 주지하듯이 1932년 중국 동북지역에 세워진 만주국은 민족협화를 이상으로 하는 독립국가라고 선전되었지만, 일본 관동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물론 만주국을 일제의 ‘꼭두각시’, ‘괴뢰국’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으며, 만주국이 식민모국이었던 일본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79 한국전쟁 초기, 전선에는 부상자들이 많았지만 군대의 의료기술 역량은 부족했기 때문에 의생부·항미원조총회 및 중국 적십자회총회는 각 省市의 의료기술 인원들을 동원하여 전선에서 복무하도록 하였다. 上海·北京·天津·沈陽 등지의 의약위생계에서는 지원의료대, 수술대, 공공위생대와 방역대 등을 조직하여 북한 및 중국 동북지역으로 보냈다. 1951년 10월 현재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각 성시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의료대는 50여 개에 달한다. 정전 때까지 중국 전역에서는 6천여 명의 醫務 인원이 잇달아 의료대로 참가하였다. 朱繼光, 2011, 「抗美援朝運動中的江蘇南京志願醫療團」, 『當代中國史研究』 18-3, 79쪽.

가,⁸⁰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을 보좌하였다.

다음으로, 만주국 시절의 경험이 연변 조선인 사회의 ‘항미원조운동’에 특별한 논리를 제공해주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만주국 경험에 근거한 ‘반일’ 정서가 일본 재무장 문제를 매개로 반미(反美), 즉 ‘항미(抗美)’에 당위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예컨대 “패전국인 일본은 스스로 재무장할 수 없어 미국 제국주의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으니 일본은 미국 제국주의의 도구에 불과하므로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중요한 적”이라는 논리였다.⁸¹ 이러한 선전 방법은 식민지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반미정서를 자극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⁸²

만주국 시기 탄압받았던 기억뿐 아니라 ‘항일공동투쟁’의 역사적 경험 역시 ‘항미원조운동’에 당위성을 부여해주었다. 전자가 ‘항미’와 연결되었다면 후자는 주로 ‘원조(援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이용되었다. 중국인 양징위(楊靖宇)와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이홍광(李紅光)·한광(韓光) 등 조선인 항일무장투쟁 지도자들의 삶이나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북항일연군에 참가한 조선인 여성의 이야기를 신문에 게재한 것을 그 전형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⁸³

마지막으로, 연변 조선인 사회에서 전개된 ‘항미원조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조선인들의 ‘한반도 조국관’에 기대고 있었

80 1950년 11월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하여 번역 업무를 맡은 신창길은 5개월 동안 군사훈련·언어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정현수 외, 2006, 앞의 책, 112쪽).

81 “미국의 일본재무장을 반대하는 선전을 할 때 미제국주의를 미워하도록 인민들을 이끌어야 한다: 항미원조전간시평”,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25.

82 “치 떨리는 왜놈의 도살을 회고: 미제의 일본 재무장 반대한다”, 『東北朝鮮人民報』, 1951. 2. 18.

83 “抗聯第一軍中の幾個朝鮮同志”, 『吉林日報』 1950. 11. 25(정다운, 2015, 앞의 글, 40쪽에서 재인용); “두 조선 처녀: 항일연군의 이야기”,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23.

다는 사실이다.⁸⁴ ‘한반도 조국관’의 존재는 해방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연변 조선인들의 ‘한반도 조국관’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첫 사례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하 반탁운동)’이었다. 한반도를 반탁운동의 물결에 휩싸이게 했던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은 연변 조선인 사회도 뒤흔들었다. 연변을 포함한 동북지역 전역에서 조선인들의 격렬한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1946년 1월 7일 연길에서 열린 ‘반탁군중대회’에는 3천 명이 모여 애국가를 합창하고 “조선의 완전 독립”이라는 구호를 제창했다.⁸⁵

이 집회를 주관한 것은 1945년 10월 27일에 만들어져 1948년 8월경 해체될 때까지 연변 거주 조선인의 구심점이 되었던 연변인민민주대동맹(延邊人民民主大同盟, 이하 민주대동맹)이었다.⁸⁶ 당시 민주대동맹에 가입한 조선인은 13만 7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민주대동맹은 이를 기반으로 3·1절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등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유대와 단합을 도모하였다. 이들 행사에서는 태극기와 같은 민족의 상징물이 등장하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구호와 애국가 제창 등이 행해졌다.

중공도 상당 기간 동안 연변 조선인들의 이러한 ‘한반도 조국관’을 용인하였고,⁸⁷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까지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50년 9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들이 자기의 조국(강조는 필자)으로 되돌아가서 조국을 보위하고 조국의 건설사업에 참여하

84 ‘한반도 조국관’은 염인호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한반도 조국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염인호, 2010, 앞의 책 참조.

85 “조선신탁에 대한 연변조선인민의 분노”, 『延邊民報』, 1945. 1. 8.

86 민주대동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미라, 2014, 『《延邊民報》를 통해 본 해방 직후 延邊人民民主大同盟의 성립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9 참조.

87 「延邊地委關於延邊民族問題(1948. 8. 15)」,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局(館)編, 1985, 『中共延邊吉東吉敦地委 延邊專署重要文件匯編』 1(1945. 11~1949. 1), 383~391쪽; 「關於民族政策中的幾介問題(草案)(1948. 12. 8)」,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局(館)編, 1985, 『中共延邊吉東吉敦地委 延邊專署重要文件匯編』 1(1945. 11~1949. 1), 392~395쪽.

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신성한 책무”라고 발언하였다.⁸⁸ 문맥상 여기에서 말하는 ‘조국’은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메시지는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 조선인들의 ‘한반도 조국관’을 인정하면서 한국전쟁 참전을 호소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연변에서 발행한 신문 등에서도 조선인들의 ‘조국’이 북한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연변 조선인들이 “조국전장”으로 출발했다는 기사가 대표적이다.⁸⁹ 이 기사가 명징하게 보여주듯이, 연변의 ‘열광적’인 참전 물결은 기본적으로 “내 나라 전쟁”이라는 ‘한반도 조국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항미원조운동’의 일환으로 중국 전역에서 전개된 평화옹호 서명운동의 전국 참가율이 28.5%인 것에 비하여(1950년 9월 하순 기준, 중국 동북지역은 60%의 참가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⁹⁰ ‘한반도 조국관’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따라 ‘이웃 나라’ 북한을 돕자는 것이 중국 전역의 일반적인 정서였다면, 연변에서는 한국전쟁을 ‘우리(나라)’의 전쟁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1950년 10월 19일 한반도에 진입하여 1958년 북한에서 철수한 중국인민지원

88 「外交部發言人關於居留中國的朝鮮人民有權利回去保衛祖國的聲名(1950. 9. 20)」,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1,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6~37쪽(「외교부 대변인이 “재중 조선 인민은 귀국하여 조국을 보위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한 성명(1950. 9. 20)」,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2002, 앞의 책, 36쪽).

89 “연변 조선청장년 1400여 조국전장으로 지원 출발”,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15.

90 “전국화평서명운동의 빛나는 성취: 서명자 1억 3천여 만에 도달, 세계 각국 서명인수 중 제1위 차지”,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3.

군은 1950년대 북중관계의 요체이자 두 나라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북중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기존 연구에서 다루이지 않았던 후방지역에서의 중국인민지원군 활동과 그 자체가 ‘후방’이었던 연변 조선인 사회의 ‘항미원조운동’을 함께 그려보았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활동은 춘경 파종, 월동 준비,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로와 이유로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정전 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전후복구 사업 지원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선물과 서한 등을 보내거나 위문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위로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북중관계를 설명할 때 북한은 일방적인 수혜자로 그려지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실제 북한에서 생활하며 전투를 치러야 하는 중국인민지원군들에게 북한 주민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지점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 역시 북한의 후방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후방기로서 연변이 수행한 역할 중 대대적인 참전운동을 통한 지원병 모집, 북한 전쟁고아 수용 및 교육, 북한 주요 기관과 인물들의 ‘피난처’로서의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모습은 국공내전 시기 북한이 중공에 제공한 도움과 매우 닮아 있다. 북한과 중국은 각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거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원세력으로 기능하면서 ‘혈맹’ 관계를 강화해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비전투지역에서 행해진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모습을 ‘후방’과 ‘항미원조운동’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시기 ‘우호적인’ 북중관계의 면모는 충분히 드러났고, 양국이 맺은 ‘혈맹’의 구체적인 실체가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중 양국의 기관지를 주요 사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교류 속에 분명히 존재했을 갈등은 거의 그려내지 못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지원이 과연 ‘자발적’이었는가, 지방 당 조직이나 권력기관의 동원은 없었는가와 같은 중요한 문제도 해명하지 못하였다.⁹¹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설명될 때 한국전쟁 시기 북중관계의 새로운 면모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91 25가구가 한 반인 ‘인민반’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할당량을 주고 발싸개 등 전선에 보낼 위문품을 만들어내도록 했다는 탈북 여성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안태운, 2014, 앞의 글, 191쪽), 북한 주민들의 후방지원 활동 이면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전쟁동원 체제가 작동하였다. 북한 후방지역에서의 노동력 제공·물자 동원 실태와 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총동원체제 구축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한성훈, 2012,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79~92쪽 참조.

참고문헌

자료

『東北朝鮮人民報』

『로동신문』

『延邊民報』

『人民日報』

저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 김보미, 2014,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 선인.
- 염인호, 2010,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 이종석, 2000,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중심.
- 정현수 외, 2006,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선인.
- 김진계 구술·김용교 정리, 1990, 『조국』(상), 현장문학사.
- 백원담·임우경 편, 2013,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학과학사.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 선즈화(沈志華), 최만원 옮김,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 선즈화, 김동길 옮김, 2014,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선인.
- 선즈화(沈志華),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天朝)』, 선인.
- 예프게니 바자노프, 김광린 옮김, 1998,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망』, 열림.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오규열 옮김, 200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옮김,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옮김,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

부 군사편찬연구소.

한성훈, 2012,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들베개.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2002, 『한국전쟁 관련 중국자료선집』 1·2.

논문

- 강성, 2016, 「中國 檔案館 資料로 본 上海 北韓 實習生에 대한 中國의 教育(1953~1956)」,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동길·박다정, 201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225.
- 김동길, 2016,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원인 연구: “국방선(國防線)”의 무혈확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2.
- 김보미, 2013,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 (1953~1955)」, 『아세아연구』 56-4.
- 김보미, 2013,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6-2.
- 김선호, 2016,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의 재편과정과 북한·중국·소련의 갈등과 조율」, 『1950년대 사회주의 블록과 북한: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한국역사연구회 학술회의 자료집.
- 김옥준, 2007, 「중국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과 의의」, 『중국학논총』 23.
- 김용현, 2006,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0-2.
- 김정현, 2013, 「중국의 ‘抗美援朝’ 전쟁과 周恩來」, 『만주연구』 17.
- 김창규, 2014, 「抗美援朝運動 시기 인민동원과 국가통합 이념으로써 ‘愛國」, 『동양사학연구』 129.
- David Tsui, 2007,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VI) 한국전쟁 개입을 위한 준비: 1950년 1월~9월(1)」, 『전략연구』 40.
- 동지예, 2012, 「1950~1960년대 북한 산업연수생의 북경 연수활동」, 『현대북한연구』 15-1.
- 문미라, 2014, 「《延邊民報》를 통해 본 해방 직후 延邊人民民主大同盟의 성립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9.
- 박영실, 2006, 「정전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對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 105.

- 박영실, 2011,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3.
- 박영실, 2013, 「『로동신문』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1953~1958)」, 『통일문제연구』 59.
- 박정수, 2009,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서 본 연변조선족의 6·25전쟁」, 『한국사학보』 37.
- 박종철, 2007, 「순망치한의 혈맹: 중국의 북한 지원을 중심으로(1953~1955년)」, 『사회과학연구』 31.
- 서상문, 2015, 「『中朝聯合司令部』再論: 설립배경과 과정」, 『군사』 95.
- 胥超, 2006, 「제2차 국공내전기 북조선노동당 대 중공의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손해룡, 2011, 「1950년대 “항미원조운동” 중 나타난 한반도 인식」, 『중국현대문학』 59.
- 손준일, 2015,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국가전략』 21-3.
- 안태운, 2014,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 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0.
- 염인호, 2002, 「해방 직후 연변 조선인 사회의 변동과 6·25전쟁: 군중 대회·운동 분석을 통하여」, 『한국근현대사연구』 20.
- 염인호, 2004, 「6·25戰爭과 延邊 朝鮮人 社會의 關聯性에 관한 一考察」, 『한국근현대사연구』 28.
- 이상숙, 2009, 「1958년 북한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의 원인과 영향: 북한의 대중국 협력 확대와 대중동원 경제노선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3-2.
- 이세은, 2011, 「한국전쟁 시기 中共의 지식인·학생의 대중동원: 『抗美援朝運動』과 북경대학」,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신재, 201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한국전쟁 시기 북중(北中)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83.
- 임방순, 2014, 「중국의 대북한 원조에 관한 연구: 중-소 관계변화의 영향」,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창준, 2009, 「1950년대 북중동맹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철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훈,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

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다운, 2015, 「한국전쟁 시기 中國 東北地域의 “抗美援朝運動”과 내셔널리즘: 吉林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현수, 2004, 「중국 조선족의 한국전쟁 참전연구」, 『윤리연구』 57.
- 진탁, 2016, 「한국전쟁 시기 ‘중국군’의 참전과 동원 유형 및 구성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145.
- 최승현, 2017, 「중국의 “항미원조운동”시기 선전동원네트워크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3.
- 한상준, 2012,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원인과 중·북 관계」, 『아태연구』 19-2.

중국 저서 및 논문

- 徐焰, 2003, 『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 北京: 解放軍出版社.
- 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연변 40년 기사(1949~1989)』,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局(館) 編, 1985, 『中共延邊吉東吉敦地委 延邊專署重要文件 匯編』 1(1945, 11~1949, 1).
-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2002, 『돌아보는 력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 1994,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6: 창업』, 연길: 민족출판사.
- 華山, 1986, 『朝鮮戰場日記』, 重慶: 新華出版社.
- 汪晖, 2013, 「二十世纪中国历史视野下的抗美援朝战争」, 『文化纵横』 2013-6.
- 林伟京, 2007, 「论抗美援朝战争中的政治动员」, 『齐鲁学刊』 2007-1.
- 张慧, 2011, 「抗美援朝战争期间东北地区社会控制」, 『軍事歷史研究』 2011-4.
- 載振亞·邊振剛, 1993, 「朝鮮孤兒在遼陽」, 『黨史縱橫』.
- 趙寶紅, 2011, 「抗美援朝戰爭中寬甸人民反細菌戰紀實」, 『蘭臺世界』 2011-10.
- 朱繼光, 2011, 「抗美援朝运动中的江苏南京志愿医疗团」, 『当代中国史研究』 18-3.
- 朱繼光·陶仁人, 2011, 「南京抗美援朝分会活动述略」, 『党史文苑』 2011-4.
- 陳利, 2009, 「從抗美援朝檔案看安東人民搶脩江橋的巨大貢獻」, 『蘭臺世界』 2009-3.
- 崔玥, 2009, 「黑龍江人民在抗美援朝運動中的貢獻」, 『世紀橋』 2009-4.
- 黃潤浩, 2012, 「東北地域朝鮮共產主義者的“双重使命”研究」, 延邊大學校 人文社會科學學院 世界史專攻 博士學位論文.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관계의 강화

문미라

1950년 10월 19일 한반도에 진입하여 1958년 북한에서 철수한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대 북중관계의 요체이자 두 나라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북중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후방지역(비전투지역)에서 행해진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변 조선인 사회의 ‘항미원조운동’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항미원조운동’이 ‘후방’인 북한 일부 지역과 연변에서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려보고자 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후방지역에서 다양한 구호 사업을 벌였다. 농번기에는 춘경 파종 등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겨울철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월동 준비를 도왔다. 자신들에게 지급된 양식을 절약하여 폭격의 피해로 신음하는 북한 피난민들에게 건네거나 전쟁고아 양육 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활동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평

장히 다양한 경로와 이유로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정전 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전후복구 사업 지원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일방적인 시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선물과 서한 등을 보내거나 위문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위로하였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국인민지원군 부상병들을 구조한 북한 간호대원이나 지역 주민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북중관계를 설명할 때 북한은 일방적인 수혜자로 그려지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실제 북한에서 생활하며 전투를 치러야 하는 중국인민지원군들에게 북한 주민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지점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 역시 북한의 후방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후방기지로서 연변의 역할 가운데에서, 대대적인 참전운동을 통한 지원병 모집, 북한 전쟁고아 수용 및 교육 등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중요한 연변의 역할로 꼽아야 하는 것은 이곳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이 북한 주요 기관과 인물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는 점이다. ‘피난처’로서의 연변은 계속된 전투로 지쳐 있는 조선인민군 부대를 재편하고 병력을 충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은 모습은 국공내전 시기 북한이 중국공산당에 제공한 도움과 매우 닮아 있다. 북한과 중국은 각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거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원세력으로 기능하면서 ‘혈맹’관계를 강화해갔던 것이다.

주제어: 북중관계, 중국인민지원군, 연변(延邊), 항미원조운동(抗美援朝運動), 후방지원

ABSTRACT

Rear Supporting Activity of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 Korean Society in Yanbian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China-DPRK "Blood Alliance"

Moon Mira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which entered the Korean peninsula on October 19, 1950, and withdrew from North Korea in 1958, became one of the key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mediato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1950s. In this respect,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activities and role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order to clarify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1950s, a period when North Korea and China had the closest and most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at history. From this perspective of the issue,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aspect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the rear (non-combat) areas, an issue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article seeks to describe

how China's "Movement to Resist America and Aid North Korea" (抗美援朝運動) unfolded in North Korea and the Yanbian area, respectively, by comparing the cases of the rear support by the Chinese People's Support Army with those by members of the Yanbian Korean society.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carried out various relief projects in the rear areas. During the farming season,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farm work such as the spring sowing and helped North Korean residents prepare for the winter. They saved food provisions which were rationed to them, and handed them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suffering from the bombing, and also provided supplies to the nurseries for war orphans.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the Chinese Volunteer Army were not limited to particular areas, and in this process the army encountered North Koreans through a great variety of routes and for many reasons. Such activities may have becom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post-war restoration project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However, it was not that there was only the Army's one-sided giving. North Koreans, too, sent gifts and letters to the Army or organized comfort troupes to console them. The cases of North Korean nursing personnel and local residents rescuing wounded Army soldiers at the risk of their lives were often reported. The cases also show that their relationship reached a point that extended beyond the state-to-state dimension. In other words, when describ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tended to be portrayed as a one-sided beneficiary. However, the assistance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was indispensable to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who had to live and battle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China's northeast region, the Yanbian area in particular,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as a rear area of North Korea. This article examined the recruitment of volunteers through a massive campaign for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the war and accommodating and educating North Korean war orphans, among the roles the Yanbian area played as a rear base.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Yanbian area during the Korean War was that China's northeast region including this area served as a safe 'refuge' for North Korea's major institutions and persons. The Yanbian area, as a "refuge," played a major role in reorganizing and reinforcing the troops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hich were exhausted by the continuous battles. This was very similar to the case in which North Korea provided assistance to Communist China during the Chinese Civil War. North Korea and China strengthened their blood alliance by functioning as the only and absolute supporters for each other in their most difficult times.

Keywords: Sino-DPRK Relations,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Yanbian (延邊), "the Movement to Resist America and Aid North Korea" (抗美援朝運動), rear support

‘봉건사회’-‘군현사회’와 동아시아 ‘근대’ 시론(試論)

박 훈 | 서울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사회유형론으로서의 봉건·군현 개념의 가능성과 동아시아 ‘근대’의 해석
- III. ‘봉건사회·군현사회’와 의회민주주의-근대일본의 경우
- IV. ‘봉건사회·군현사회’와 국민국가
- V. 맺음말



I. 머리말

20세기의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우리는 서양에서 유래한 feudalism¹과 아시아적 전제국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²의 개념 틀로 동아시아 사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시대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서구·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여타 동아시아 사회의 극단적 격차를 주장하는 이런 프레임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틀은 좀처럼 등장하지 못했다.³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 1 이 논문에서 봉건은 군현과 對개념으로서의 봉건이며, 서양사에서 유래한 개념인 봉건은 feudalism으로 표기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이 양 개념의 차이와, 동아시아 학술사에서 봉건이 feudalism으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미야지마 히로시, 2013,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1장, 2장), 창비 참고. 미야지마에 따르면 feudalism의 봉건제라는 개념이 일본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 이후며 주로 경제사학자(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 법제사학자(나카타 가오루[中田薫],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가 사용하다 이어 역사학분야에서는 하라 가쓰로(原勝郎, 『日本中世史』; 内田銀藏, 『日本近世史』)가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다이쇼 시기 이후다. 그 이전까지는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의 『日本開化小史』, 다케고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의 『二千五百年史』 등 메이지를 대표하는 역사서들이 모두 군현·봉건제의 틀로 일본 역사를 설명했다. 따라서 막말유신기의 정치가, 논자들의 봉건제가 feudalism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들이 유럽의 봉건제를 언급할 때도 그것은 군현·봉건제의 그것이었다(박훈, 2015, 『幕末維新期 정치변혁과 봉건·군현론』, 『일본역사연구』 42).
- 2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 feudalism론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 중국문제를 다루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 3 미야지마 히로시의 소농사회론, 유교국가 모델론 등은 그 대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의 하나일 것이며, 與那覇潤의 ‘중국화’, ‘에도시대화’도 그런 고민의 산물일 것이다(與那覇潤, 2011, 『中国化する日本: 日中「文明の衝突」一千年史』, 文藝春秋(최종길 역, 2013, 『중국화하는 일본: 동아시아 ‘문명의 충돌’ 1천년사』, 페이퍼로드)]. 이와 연장선상에서 최근 일본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近世化’論(清

본고에서는 100여 년 전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전통적인 봉건과 군현 개념을 사회유형론으로까지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발전시킨다면 서양산의 여러 개념 틀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역사이해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설적 수준에서 피력해보았다. 이를 ‘봉건사회-군현사회론’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근세’⁴ 이후의 세계사의 전개를 동아시아 역사에서 추출된 개념과 관점에서 좀 더 유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⁵

필자는 최근 “근대주의적, 혹은 유럽중심주의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당시 사람들의 행적을 내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근대적’ 학술용어와 개념의 무차별적 적용을 자제하고, 일차사료에 밀착하여 당시 사람들이 썼던 용어와 개념을 따라가 역사상을 그려내야” 한다

水光明 編, 2015, 『「近世化」論と日本-「東アジア」の捉え方をめぐって』, 勉誠出版)도 이런 측면에서 논의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 학파를 중심으로 한 구미 중국경제사학자들의 이른바 ‘Great China’론도 그런 예에 속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 2015, 『동아시아는 몇시인가』, 너머북스;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이경우 엮음, 2017,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 지속과 변화, 관계와 비교』, 너머북스;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 2017,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보면?: 역사의 길목에 선 동아시아 지식인들』, 너머북스).

- 4 동아시아사 전체를 아우르는, 널리 공유되고 있는 시대구분은 아직 제대로 합의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일본 학계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는 시대구분법에 따라 ‘근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물론 이것도 일본 학계 전체가 합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근세’는 대체로 중국은 송대 이후, 조선은 조선 초 이후, 일본은 전국시대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편의적 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근세’로 표기하기로 한다(박훈, 2013, 「명치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도전: ‘근세’ 동아시아정치사의 모색」, 『역사학보』, 245쪽).
- 5 다만 이 이해의 틀은 중국과 일본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다른 의미에서이긴 하지만, 일본과 유럽을 같이 묶는다는 점은 종래의 서구산 프레임과 결과적으로 가깝다. 이런 파악방법은 일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탈아론적 역사인식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전 일본사에서의 탈아론적 역사인식이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파악방법은 우열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고 제안하고 막말유신기의 일본 정치변동을 당시인들이 빈번히 사용했던 용어와 개념인 봉건과 군현론을 통해 재검토한 바 있다.⁶

위 논문에서 필자는 봉건·군현을 좀 더 유용한 분석 개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중앙집권-지방분권뿐 아니라 세습주의-능력주의, 사회적 유동성, 지역적 유동성, 관(官, 국가)과 민(民)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이 개념의 내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⁷ 이렇게 봉건·군현 개념을 확장시켜 가면 각국의 역사전개와 이른바 근대사회의 전개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피력한 바 있다.⁸ 와타나베 히로시[渡邊浩]의 표현을 빌리면 이 개념을 ‘사회유형’을 나타내는 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다.⁹

만약 봉건과 군현 개념을 사회유형을 파악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충하는 데 성공한다면 전근대 중국·조선과 일본의 사회체제는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feudalism의 차이가 아니라 ‘군현사회’와 ‘봉건사회’라는 사회유형의 차이로 파

6 박훈, 2015, 『幕末維新期 정치변혁과 봉건·군현론』, 『일본역사연구』 42.

7 石約翰(John E. Schrecker)이 거칠기는 하지만 이런 시도를 행한 바 있다(石約翰, 2002, 「封建, 郡縣與中國歷史傳統」, 『安徽史學』 2002年 第3期).

8 박훈, 2015, 앞의 논문.

9 와타나베는 봉건·군현이라는 개념을 토크빌의 데모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유형을 나타내는 데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渡邊浩, 2008, 1, 「トクヴィル氏, 「アジア」へ」, 『UP』, 東京大學出版會). 中田喜萬은 전통언어인 漢語로 근대를 설명할 것을 주장하면서 종래의 봉건·군현 개념은 國制 전체를 포괄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형태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에 井田制·학교제·군대의 존재형태 등 하위범주를 만들어 사용해야 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이 개념을 서양사에 적용하여, 미국에서 군대편성권과 과세권 등을 중앙정부에 주려고 하는 연방파를 郡縣之意를 封建之中에 담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寓封建之意於郡縣之中」에 대해서는 顧炎武, 「郡縣論」 第一과 박훈, 2015, 앞의 논문 참조). 프랑스사의 절대왕정 시기는 귀족이 토지와 관련성이 미약했다는 점에서 feudality를 가진 군현으로 보고, 자코뱅파의 중앙집권정책을 군현제 확립으로 설명했다(中田喜萬, 2006, 「政治学からみた「封建」と「郡県」-概念の限定のために」, 張翔·園田英弘, 『「封建」·「郡県」再考: 東アジア社会体制論の深層』, 思文閣出版).

약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후술하는 대로 근대 이후의 중국·조선과 일본의 역사전개와 사회체제의 파악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거칠게나마 이런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사를 비교, 파악한 작업을 시도한 것이 요나하 준의 연구다.¹⁰ 그는 일본 역사를 중국화(中國化,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전제정권이 지배하나 경제·사회적으로는 광범위한 자유와 인적·물적 이동이 보장되고, 사회적 유동성이 높아 신분제는 약하고 계층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체제)와 에도시대화(江戸時代化,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강한 결속, 신분에 기초한 사회적 고정성, 개인은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속박을 받는 대신 생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체제)의 시도가 번갈아 등장한 것으로 보고 메이지유신을 중국화의 시도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메이지유신의 중국화 실험은 고다이고[後醍醐] 천황의 건무신정(建武新政)처럼 실패했고 쇼와일본은 재에도시대화[再江戸時代化]했다는 것이다.¹¹ 두 개념을 일본사 전 시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초역사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발상이지만, 이를 ‘근세’ 이후 시기에만 한정하여 적용한다면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중국화-에도시대화 개념은 필자가 말하려는 ‘봉건사회-군현사회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그의 논의에는 공업화와 헌정(의회·민주주의) 같은 ‘근대화’의 주요요소들이 다뤄지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는 결함이 있다. 또 중국화-에도시대화보다는 ‘봉건사회-군현사회’로 파악하는 것이 중국·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같은 용어와 개념으로 전개된 장구한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 지식인 사이에서

10 與那覇潤, 2014, 『増補版 中国化する日本: 日中「文明の衝突」一千年史』, 文藝春秋(원저는 2011).

11 이에 대해 필자는 요나하가 메이지유신과 그 이후 일본의 변화를 ‘再江戸時代化’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려는 것은 근대 일본과 ‘근세’ 일본의 연속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는 것이고, 근대의 획기성을 과도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박훈, 2014, 「연속하면서 혁신: 幕末 정치사와 明治維新을 보는 시각」, 『일본역사연구』 40, 133~134쪽).

집중적으로 논의된 봉건·군현론을 계승한다는 점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이 글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봉건·군현론에서 나타나는 중국상이 아시아적 전제국가론,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 제공하는 중국 이미지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이었다. feudalism론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 1920년대 이후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인식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중국 혹은 조선 사회경제사 연구의 최신 성과들은 20세기 초기 이런 지식인들의 중국 역사상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듯하다. 이런 것을 작은 실마리로 하여 하나하나 작업을 수행해간다면 장차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상을 구축할 가능성이 생겨날지도 모를 것이다. 물론 이 글은 기존의 역사상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해보려는 초보적인 시론인 만큼, 많은 한계와 선부름을 노정하고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대담한 가설이긴 하나, 앞으로의 과제를 향한 일보로 보아주시길 바란다.

II. 사회유형론으로서의 봉건·군현 개념의 가능성과 동아시아 '근대'의 해석

19세기 후반 서양의 위협에 맞서 체제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체제구상을 할 때 주로 이용한 개념은 전통적인 봉건·군현론이었다.¹² 이런 현상은 흥미롭게도 20세기 초엽까지 당대의 유력한 지식인들을 통해 계속되

12 청말 지식인들이 의회와 헌정, 지방자치를 논할 때 봉건론에 의거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민두기가 상세히 논한 바 있고(민두기, 1967, 「청대 봉건론의 근대적 변모」, 『아세아연구』 Vol. X, No. 1. 이후 『중국근대사연구-신사층의 사상과 행동』, 일조각, 1977 所收), 필자는 거의 동 시기인 막말유신기에 일본에서도 봉건·군현론이 청초 이상으로 沸騰했던 상황을 검토한 바 있다(박훈, 2015, 「幕末維新期 정치변혁과 봉건·군현론」, 『일본역사연구』 42).

었다.¹³ 중국에서는 장병린·양계초·옹범여(熊範輿) 등 저명한 활동가·지식인들이 그랬고, 일본에서도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의 『일본개화소사(日本開化小史)』, 다케고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의 『이천오백년사(二千五百年史)』 등 메이지를 대표하는 역사서들이 모두 군현·봉건제의 틀로 일본 역사를 설명했다. 이 중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저명한 사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야마지 아이잔(山路愛山)의 「일한문명이동론(日漢文明異同論)」¹⁴이다. 이 글은 「인종을 논한다」, 「황실론」 등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중국과 일본 사회를 비교한 글인데, 야마지는 「봉건과 군현」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양국의 사회적 특질을 대조적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이 글을 중국과 일본의 사회를 매우 조야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봉건사회-군현사회론’으로 파악한 글로 주목하고 싶다.

야마지는 만약 미국인 여행객이 일본과 지나를 다니게 되면 양국 인민생활의 상황이 완전히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일본의 생활은 거의 共産的이어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흡사 집안의 父子와 같은 것에 놀랄 것이다. 일본의 민법은 서구의 법전을 모방하여 개인주의를 채용했지만 일본의 습속에서 사람들은 결코 개인주의의 權化가 아니다. 親戚朋友가 재산을 나누어 궁핍을 돕는 정이 매우 넘쳐난다. 타인이 급한 일을 당하면 기꺼이 나서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없어도, 법률상의 책임이 없더라도 타인의 곤궁은 이를 끝내 좌시하지 않는 풍습이 있다. 법률의 정신은 개인주의라고 하더라도 풍속습관은 실제로는 공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위해 일신을 바치고 타인을 위해 힘쓰는 것은 일본인의 이상으로 국가를 家族父的인 일대조직으로 여기는 것은 대체로 일본인민

13 이 시기는 feudalism 개념이 들어와 봉건개념에 대체되어 쓰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다(미야지마 히로시, 2013,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창비, 34~37쪽).

14 山路愛山, 1907, 「日漢文明異同論」, 『支那思想史·日漢文明異同論』, 金尾文淵堂.

의 근본적 신앙이다.¹⁵

이와 비교해 지나인은 어떨까. “지나는 개인주의가 극히 발달한 나라다. 부호와 소민(小民)의 격차가 매우 심하고 사회는 빈부의 두 계급으로 명확히 나뉘어져 있어서 소위 중등계층이란 것이 없는 나라”다.¹⁶ 그에 따르면 봉건정치는 일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의 공산적 습관을 만들게 한 데 반해서, 지나의 군현정치는 지나 인민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했고,¹⁷ 상하간의 정의적(情誼的) 유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아마지가 보기에 이런 지나와 일본의 차이는 명확한 것이었다.

대체로公私의 두 글자는 일본과 지나의 생활상태를 형용하는 가장 적당한 언어로 일본인의 생활은 공이다. 여럿과 함께 하는 것으로 공동생활의 이상에 가깝다. 지나인의 생활은 私다. 여럿과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주의의 극단이다. 일본은 一家의 바깥에 국가가 있다. 집안의 아버지 바깥에 민의 부모인 황실이 있다. 지나는 집 외에 아무것도 없고, 집의 父 외에 따로 존중할 만한 것이 없다. 愛新覺羅씨가 億兆에 군림한다 해도 지나 인민에게 이것은 단지 정치적 주권자일 뿐 인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인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효자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지나인이 일가를 운영하는 데 급급하여 국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양자의 성정은 실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다.¹⁸

요컨대 아마지는 일본인이 공동체주의적이고 애국적이며 지나인은 개인주

15 山路愛山, 1907, 위의 논문, 208쪽.

16 山路愛山, 1907, 위의 논문, 209쪽.

17 山路愛山, 1907, 위의 논문, 217쪽.

18 山路愛山, 1907, 위의 논문, 209~210쪽.

의적이고 비국가적이라는 것이다.¹⁹ 아마지는 물론 일본인 쪽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있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민국가와 국민의 일체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이 ‘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또 하나의 ‘근대성’의 요소인 개인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앞서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²⁰ 그리고 후술하는 대로, 이런 중일 사회에 대한 인식은 아마지뿐 아니라 당시 중국의 유력한 지식인들에게도 공유되어 있었던, 말하자면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과 일본 사회의 두드러진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지는 이를 “일본은 봉건시대를 떠난 지가 매우 가깝고 지나는 아니기 때문”, 즉 봉건과 군현의 차이에서 구하고 있다. 아마지가 보기에 군현제의 실시(폐번치현, 1871)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간의 봉건정치는 일본 인민의 정신에 쉽게 소멸되지 않는 영향을 미쳤고,²¹ 이런 “봉건정치는 일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의 공산적 습관을 갖게 만들었고, 군현정치는 지나 인민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했다”²²는 것이다.

한편 아마지에게 군현정치는 위에 치자가 있고 아래에 인민이 있어 이를 법률로 다스리는 것(법률주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것이 인민으로 하여금 오로지 일신일가(一身一家)를 보존하는 개인주의에 빠지게 한 것이었다. 이것은 봉건의 무사(武士)가 서로 보기를 부자형제와 같이 하고, 일국을 마치 일가와 같이 본 것에 비한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²³

19 중국인의 심성을 ‘홀어진 모래알’로 비유하며 개탄한 쑨원의 관찰도 이와 상통하는 것일 것이다(孫文, 1924, 「삼민주의 제2부 민권주의 제2강」, 杉山文彦, 2006, 「清末中國社會と封建郡縣論」, 張翔·園田英弘 編, 앞의 책, 204쪽에서 재인용.

20 물론 이때 개인주의는 현재의 의미에서의 ‘민법상 사권이 완벽히 보장된 개인’이라는 의미는 아님은 물론이다.

21 山路愛山, 1907, 앞의 논문, 212쪽.

22 山路愛山, 1907, 위의 논문, 217쪽.

23 山路愛山, 1907, 위의 논문, 218쪽. 이어서 아마지는 메이지 일본의 이런 장점을 사무라이의 藩에 대한 충성, 공동생활에 대한 헌신이 전 사회적으로 확충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일본 국민은 애국심의 사범학교로서 藩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아마지는 공동체주의·애국심·인정주의를 메이지 일본의 우월한 점으로 보았고, 반대로 개인주의·이기주의·법률주의를 지나의 열등한 점으로 보았다. 곧잘 이 시기의 중일을 ‘근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마지의 이런 언설은 당혹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개인주의·이기주의·법률주의를 갖고 있는 군현사회 중국이 더 ‘근대화’인 것은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봉건과 근대를 연속적, 혹은 친화적으로 보는 당시인의 모종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현사회의 속성이라고 지적된 여러 요소들이 ‘근대성’의 또 다른 요소들과 중첩되는 데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뿐 아니라 동 시기 중국의 많은 논자들도 봉건·군현론을 권력의 집중, 분산이란 측면뿐 아니라 사회유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당시의 중국과, 유럽·일본을 비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말 개혁파를 대표하는 양계초(梁啓超)는 귀족제(봉건제)에서 군주전제로의 전환은 중국에서 먼저 일어나 진한(秦漢) 이래 귀족정치가 단절되었다고 했다. 즉 유럽·미국·일본이 근세 및 최근세에 이룬 것을 중국은 2천 년 전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주전제에서 입헌군주제, 공화제로는 서양이 선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양은 귀족제가 충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주전체정체로 발전했고, 이에 이중의 억압을 받은 민중이 봉기해서 군주전체정체를 청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군주전제가 지속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보기에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신분과 가문으로 결정하는 봉건제보다 일군만민의 군주전체체제가 훨씬 평등한데, 특히 중국은 신분이나 가문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과거를 수험하여 대신이 될 수 있었다. 황제를 제외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신분은 없다는 의미에서 중국은 무계급의 국가였다. 민중은 조방(粗放)한 관료제하에서 방치되어 사실상의 ‘자유’(따옴표는 필자)를 향수하는 상태였다.²⁴ 요컨대 군주전제

도쿠가와 봉건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다(222쪽). 그에 따르면 국민국가에 대한 인민의 일체감은 ‘근대적’인 것이라기보다 ‘봉건적’인 것이었다.

24 양계초·장병린 등이 이런 전통 중국의 이미지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데 비해, 유럽의 몽테스키외 등이 광대하고 平滑한 통치공간, 일견 강대하나 취약

정치하의 중국에는 모종의 ‘자유’와 ‘평등’(이하 자유와 평등이라는 용어에 붙은 따옴표는 오늘날의 의미와 구분 짓기 위해 필자가 붙인 것)가 존재했던 데 비해, 서구의 군주전제는 부자유와 불평등의 사회체제였다는 것이다. 이를 양계초는 서양은 유형의 전제·직접의 전제이고, 중국은 무형의 전제·간접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야마지와 마찬가지로 양계초도 이렇게 된 원인을 중국은 봉건을 떠난 지 멀고, 유럽과 일본은 가깝기 때문이라고 봤다.²⁵ 양계초에 따르면 전통 중국은 오히려 민중에게 어떤 의미에서의 ‘자유’와 ‘평등’이 부여된 사회여서, 말하자면 군주전제의 억압이 무형·간접이라는 형태를 띠었기에 굳이 그것을 전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된다.

전통 중국의 사회와 민중 상태를 ‘자유’와 ‘평등’으로 본 것은 그 체제를 혁명하고자 하는 혁명파 장병린(章炳麟)도 마찬가지였다. “대의정체(代議政體)는 봉건의 변상(變相)”²⁶이라며 헌정실시와 국회개설에 반대했던 장병린은 이미 2천 년 전에 이미 봉건제를 청산한 중국이 서구나 일본을 따라 하려는 것은 “저들이 봉건을 떠난 지는 가깝고, 우리가 봉건을 떠난 지는 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봉건을 떠난 지 멀면 민이 모두 ‘평등’하고 봉건을 떠난 지 가까우면 민에 귀족과 서민의 구분이” 있는 것인데, 중국에서 새삼스레 입헌을 하여 민에 귀족과 서민의 구분을 만들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²⁷ 중국에도 가문으로 고하(高下)를 나누거나, 금고(禁錮)를 받아 출사길이 막히는 등 ‘평등’하지 못한

한 군대, 비굴하고 뽀뽀이 흩어져 있는 각 개인, 각 개인에서 격절되어 있는 강력한 정부(河野有理, 2011, 『明六雜誌の政治思想: 阪谷素と「道理」の挑戦』, 東京大学出版会, 193쪽), 즉 장병린 등의 전통 중국에 대한 묘사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최악의 정체로 규정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 25 梁啓超, 「中國專制政治進化史論」(1902), 沈鵬等 主編, 1999, 『梁啓超全集』 第3卷, 北京出版社(第1, 3章); 佐藤愼一, 2006, 「封建制は復活すべき-封建制の評價をめぐる清末知識人の議論」, 張翔·園田英弘 編, 앞의 책, 240~241쪽.
- 26 章炳麟, 「代議然否論」(『民報』 24號, 1908.10.10), 湯志鈞, 1977, 『章太炎政論選集』, 中華書局, 456쪽.
- 27 章炳麟, 1908, 위의 논문, 456쪽.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은 “순백의 종이에 까만 점 하나를 찍는 정도”²⁸에 불과하다.

장병린과는 반대로 입헌실시를 주장한 사람도 중국을 이처럼 유럽·일본의 봉건사회와 대비하여 군현사회로 보는 관점은 공유하고 있었다. 옹범여는 중국은 진(秦) 이래 봉건제도가 파괴된 지가 이미 2천 년이 넘었다. 오늘의 백옥(白屋)이 내일은 공경이 될 수 있는 사회이므로 의회를 설치하면 금방 적응하여 훌륭한 정치를 펼 수 있다고 주장했다.²⁹ 이처럼 중국의 지식인들도 봉건과 군현제를 단순히 분권과 집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의 관계, 신분제, 사회적 융통성 등 사회체제론·사회유형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흔적이 보이며, 이런 점에서 중국과 유럽·일본을 전혀 다른 사회유형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20세기 초엽 중국과 일본의 유력한 지식인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20세기가 되어서도 여전히 봉건과 군현 개념으로 사회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모든 논자가 서구와 일본은 봉건, 중국은 군현으로 명확히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20세기 역사학을 석권한 서구·일본=feudalism과, 중국 등 아시아=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구분법을 바로 상기시키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과 역사적 위치부여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들의 봉건·군현론은 민두기가 주목한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전통적인 논의³⁰를 넘어서 사회유형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이들의 논의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아마지 아이잔이 군현사회의 특징으로 개인주의³¹를 꼽고, 이를 봉건사회의 공동체주의와 대비시키고 있는 점이다. 러

28 章炳麟, 1908, 위의 논문, 457쪽.

29 熊範輿, 1978, 「國會與地方自治」(中國新報 第5期),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第二卷下冊, 三聯書店, 882쪽.

30 민두기, 1966, 「중국의 전통적 정치상-봉건군현논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29·30합병호(『중국근대사연구-신사층의 사상과 행동』, 일조각, 1977 所收); 增淵龍夫, 1969, 「歴史認識における尚古主義と現実批判-日中兩國の「封建」·「郡県」論を中心に」, 岩波講座『哲学』 4.

31 그는 개인주의라고 말하면서 실은 가문(종족)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1910년대 신문

일전쟁의 승리로 득의만만한 야마지는 일본의 성공(‘근대화’)의 원인을 단결·희생·규율·봉사정신으로 보고 중국(지나)이 쇠약해진 것은 그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결·희생·규율·봉사정신이 ‘근대성’의 지표들인 건 맞지만 개인주의 역시 그에 못지않은 ‘근대성’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감안하면 야마지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관찰은 우리에게 군현 중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듯하다. 그는 아예 일본의 이런 미덕은 메이지 일본이 봉건유품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사고에 따르면 근대와 봉건은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현사회가 봉건사회보다 훨씬 ‘근대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된다.³²

다음으로 ‘자유’와 ‘평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논자들은 군현 중국이 봉건사회보다 인민의 ‘자유’와 ‘평등’면에서 앞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와 정도에서의 그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서구나 일본 같은 봉건사회는 귀족계급과 중간단체의 존재로 인민 사이에 각종 계층이 나뉘어져 있으나, 군현 중국은 강력한 황제 이외에 만민은 평등하며, 귀족과 중간단체의 속박을 덜 받는 자유로운, 혹은 유동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서도 양자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봉건은 지역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배자-피지배자 간에 일정한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체제며, 그 공동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근대적’ 현정이 가능하다(장병린).³³

화운동 이후 가족제도와 개인주의의 격렬한 충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의 가문(종족)이 사실은 근세 이후 격렬해진 사회유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일본의 이에[家]에 비하면 상당히 다이내믹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또 가문 구성원이 직업을 제각기 달리할 수 있는 등 일본처럼 이에에 완전히 일체화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면(上田信, 1995, 『伝統中国-〈盆地〉〈宗族〉にみる明清時代』, 講談社), 야마지의 이런 용어 사용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32 물론 이때 개인주의는 현재의 의미에서의 ‘민법상 사권이 완벽히 보장된 개인’이라는 의미는 아님은 물론이다.

33 杉山文彦, 2006, 앞의 논문, 202쪽.

이에 비해 군현사회에서는 인민이 관리 보기를 외국인같이 여긴다. 봉건사회에서는 “군신(君臣)이 세계(世契)하고, 상하가 친해지어 일단 유사시 사력을 다하여 사직을 지키”지만 “군현의 백성은 그 영리(令吏) 보기를 역려(逆旅)주인과 같이” 한다는 것이다.³⁴ 이처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중일 양국의 지식인들은 공통적으로 군현국가의 인민장악이 매우 느슨했음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지방차원에서는 오히려 봉건정부가 인민을 더 밀도 있게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적’인 국민국가가 어느 쪽에 더 친화적인가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봉건사회에서는 국가에서 민간사회를 철저하게 통제·억압·조직하고 있었고, 군현사회에서는 민간사회의 자율성, 혹은 조방함이 상당히 존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군현사회의 경쟁주의, 능력주의, 사회적 유동성도 그들이 주목한 지점이다. 이것들이 이른바 ‘근대성’의 주요 요소들인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그들의 눈에 군현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그려내고 있는 중국과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로 비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봉건·군현론을 단순히 분권-집권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종의 사회유형론으로 활용하여 각각의 사회와 역사를 파악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사실 봉건·군현론을 일종의 사회유형론으로 활용한 것은 그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있어 왔다. 도쿠가와 시대의 지식인들은 군현제를 경쟁과 능력주의사회로 비난하며 봉건제를 옹호했다. 오규 소라이는 봉건에서는 군현에서처럼 입신출세를 생각하지 않는다, 봉건은 엄치를 양성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했고,³⁵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도 조선의

34 園田英弘, 2006, 「森有禮の「封建」・「郡縣」論-制度論的思考の展開」, 張翔·園田英弘 編, 앞의 책, 331쪽. 이렇게 본다면 봉건제가 분권적이고 군현제가 집권적이라는 인식 자체를 재고해야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詳論하지 않겠다.

35 荻生徂徠 「弁道」(中田喜萬, 2006, 「政治學からみた「封建」と「郡縣」-概念の限定のために」, 張翔·園田英弘 編, 앞의 책, 55쪽에서 재인용).

군현제를 견문해보니 역시 봉건제가 더 낫다며, “군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천하의 인심이 서로 경쟁하는 것에 힘쓴다”고 군현제를 비판했다.³⁶ 국학자들이 군현제를 능력주의사회로 비판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³⁷

그들이 보기에 중국과 조선 같은 군현제는 경쟁과 능력주의 사회이다보니 사회적 유동성이 심하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한 조선인의 말로 “우리나라[조선: 인용자, 이하 같음]는 군현제여서 아랫사람이 윗자리로 올라가기 쉽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일이 많고 뇌물도 행해져 아침에는 성하고 저녁에는 쇠하니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대 나라[일본]의 사람들은 제각기 그 분수가 정해져 있으니 부럽습니다”라는 얘기를 소개하면서 일본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표했다.³⁸ 그들이 볼 때 군현제는 역시 “엄치의 미숙을 파괴하고 조진(躁進)의 악폐”³⁹를 일으키는 사회인 것이다.

막말기에도 이런 인식은 일반적이었다. 1858년 유명한 쇼군승계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능한 현 쇼군에 대신하여 영명하기로 소문난 히도쓰바시 요시노부 [一橋慶喜, 후의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쇼군 세자로 세우려는 주장에 대해 막부 다이로[大老] 이이 나ოს케[井伊直弼]는 능력보다는 혈연이라며⁴⁰ “명군을 세운다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르는 것은 완전히 당풍(唐風, 중국풍-인용자)”이라고 일축했다.⁴¹

36 아메노모리 호슈, 김시덕 역, 2012, 『한 경계인의 고독과 증얼거림』[원제: 다와레구사], 태학사, 65쪽.

37 前田勉, 2006, 「近世日本の封建・郡県論のふたつの論点-日本歴史と世界地理の認識」, 張翔·園田英弘 編, 앞의 책.

38 아메노모리 호슈, 김시덕 역, 2012, 앞의 책, 68쪽.

39 「公議所日誌」, 『明治文化全集』4卷(憲政篇), 日本評論社, 1992(復刻板), 65쪽.

40 『井伊家史料』5, 「天下の治平は、大將軍家の御威徳にこれ有る事にて、賢愚にのみこれ有る儀にては御座なく、是れ実に皇国の風儀にして外国と異なる處に御座候。然るに、今、御血脈近き御方をおきて、発明の方にと申し候はゞ、外国流にして正統を尊信すべき皇国の風儀にはこれ無き事に御座候間、主人には何国迄も御血脈近き御方の方、天下の人望はこれ有るべしと思召され候」.

41 歴史學研究會 編, 1997, 『日本史史料4 近代』, 岩波書店, 25쪽; 吉田常吉·佐

막말기의 절박한 시점에 막부의 한 유력 정치가는 “군현제도로 되어 병권(兵權)도 조정에 귀속되고, 공경이나 문벌이라고 해서 높은 관위를 차지하지 않으며, 덕망재간(德望才幹)이 뛰어나 천하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자라면 초망(草莽, 민중-인용자)에서라도 선발하시어 보익(輔翼)의 중임을 맡길 정도로 대변혁을 한다면 이러한 폐단도 없겠지만, 황공하오나 이 두 가지 일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⁴²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가 보기에 군현제 도입은 능력위주의 사회로 되는 것이며 상하 간에 대대적인 권력교체가 일어날 것이며, 일본에서는 그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앞에서 소개한 옹여범의 인식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군현은 봉건에 비해 법률주의적인(법치와는 다름) 사회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오규 소라이는 봉건에서는 아직 가인부자(家人父子) 같은 분위기가 있으나, 군현에 이르러서는 다만 법에만 의존하여 태공(太公)할 뿐, 은애(恩愛)가 없다고 지적했다.⁴³ 이것은 앞서 소개한 아마지 아이잔의 군현=법률주의 인식과 상통한다고 보인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단순화해보면 <표 1>과 같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아적 전제사회론이 전하는 전제·정체·열등의 이미지와는 달리, 전통사회는 물론이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즉 feudalism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 동아시아의 지식인에 큰 영향을 끼치기 전만 해도,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으로 대표되는 군현사회를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앙과 지방의 중심지에 있는 강

藤誠三郎 편, 1976, 『幕末政治論集：日本思想大系56』, 岩波書店, 89쪽(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1967, 『大日本維新史料 類纂之部 井伊家史料』 第5卷, 東京大出版會, 467~469쪽).

42 河津祐邦(若年寄, 長崎奉行 역임)의 발언(『淀稻葉家文書』)(淺井清, 1939, 『明治維新と郡縣思想』, 巖南堂書店, 89쪽).

43 荻生徂徠 「弁道」(松田宏一郎, 2006, 「近代日本における「封建」・「自治」・「公共心」のイデオロギー的結合-覺書」, 張翔·園田英弘 編, 앞의 책, 344쪽에서 재인용).

〈표 1〉 '봉건사회·군현사회' 유형비교

	봉건사회	군현사회
신분제	강고함	없거나 약함
국가의 인민장악(官民關係)	緊密	粗放
사회적 지위의 세습여부	대체적으로 세습	비세습이거나 부분적 세습
능력주의 여부	능력보다는 가문, 혈연	능력중시
공동체 여부	강고한 공동체주의	느슨한 공동체(개인주의, 유연한 가문주의)
지역적 이동	약함	빈번함
법률통치	상위신분: 법치 하위신분: 인정적 유대, 관습적 결정	전제군주는 법률통치 적용제외, 인민엔 법률통치
정치참여	봉건위계에 따른 신분별 정치 참여	'사대부적 정치문화', 원칙상 과거를 통한 인민의 정치참여 가능
정치체제	aristocracy	democracy(다수주의), 혹은 전제
대의정치와의 관련	대의정치	직접적 대의정치, 혹은 전제

력한 전제 권력 바깥에 존재하는, 다이내믹하며 유동하는(무질서한) 민간사회의 존재, 강력한 전제권력을 제외한 만민의 원칙적 평등지향, 미약한 신분제적 요소에서 비롯된 비교적 능력주의적 사회체제, 그에 기반한 활발한 사회 유동성(그것이 작동되지 않을 때 곧잘 발발하는 강력한 민란의 존재까지 포함), 신분에 기초하지 않은, '교양 있는 인민(독서인)'에 대한 정치참여의 원칙적 개방 등등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이미지가 동아시아사 연구의 최근 성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점이다.⁴⁴ 우리는 그동안 잊혀져 왔던 백여 년 전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전통시대에 대한 인식을 재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44 각주 3)에 소개된 저작 이외에도 국내의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 岸本美緒·上田信 등의 중국사 연구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Ⅲ. '봉건사회·군현사회'와 의회민주주의- 근대일본의 경우

서양 근대가 과시하는 '위용(偉容)' 중 산업혁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의회제와 민주주의의 확산일 것이다. 사실 19세기 후반 이래 동아시아의 '근대화' 노력은 동시에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를 위해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희미하나마 민주주의의 '연원'이 될 만한 것들을 발굴하여 과대현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크로폴리스의 '민주주의' 앞에서 무색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feudalism론이 자본주의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따라서 feudalism이 존재하지 않은 사회는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와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하게 의회민주주의·의회제는 feudalism체제하의 신분제의회에서 그 연원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백여 년 전 중국의 체제구상에 고민하던 장병린도 비슷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의회와 헌정 도입은 봉건제가 있던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대의 정체는 봉건의 변상(變相)”⁴⁵이며, “헌정은 단지 봉건(封建), 세경(世卿)의 변상(變相)”⁴⁶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구주제국과 일본이 입헌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이 봉건시대와 떨어진 지는 2,3백 년에 불과하고,⁴⁷ 일본은 더욱 가깝기 때

45 章炳麟, 「代議然否論」(『民報』 24號, 1908.10.10), 湯志鈞, 1977, 『章太炎政論選集』, 中華書局, 456쪽.

46 章炳麟, 「政聞社大會破壞狀」(『民報』 17號, 1907), 湯志鈞, 1977, 『章太炎政論選集』, 中華書局, 371쪽.

47 여기서 2,3백 년 전이란 유럽의 절대왕정 성립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를 봉건에서 군현으로의 전환으로 본 것은 일본의 지식인에도 공유된 인식이었던 것 같다. 니시 무라 시게키[西村茂樹]는 프랑스·영국은 군현이고, 미국은 34부로 나라를 세우니 흡사 봉건과 같으며, 옛날 프랑스 왕 루이 14세 때 그 나라의 巨族大豪가 토지를擁하여 왕명에 대항하자 智術로 이를 삭탈하여 봉건지세를 군현지형으로 변화시켰다고 했다(「郡縣議」, 『增補改訂版 西村茂樹全集』 4, 思文閣出版, 2006, 308쪽). 쓰다 마미치[津田眞道]도 왕이 제후를 멸하여 국내를 통일한 것은 프랑스 왕국이며, 제후가 強大自立하여 國을 세운 것은 게르만 列國이라고 했다(「郡縣議」, 『津田眞道全集』 上卷, みすず書房, 2001, 286쪽).

문이다. 상하양원이 병설된 것만 봐도 그것이 봉건의 변형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다.⁴⁸ 이미 2천 년 전에 이미 봉건제를 청산한 중국이 서구나 일본을 따라 하려는 것은 “저들이 봉건을 떠난 지는 가깝고, 우리가 봉건을 떠난 지는 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봉건을 떠난 지 멀면 민이 모두 평등하고 봉건을 떠난 지 가까우면 민에 귀족과 서민의 구분이” 있는 것인데, 중국에서 새삼스레 입헌을 하여 민에 귀족과 서민의 구분을 만들려 하는 것은 왕자(王者) 일인이 위에서 권력을 잡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중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의회정치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관(貞觀)·개원(開元)의 정치와 같이 관리의 겸직(廉直)을 엄격히 하여 민에는 간섭하지 않는 성당(盛唐)의 전제가 적합하다.⁵⁰ 즉 유럽·일본은 봉건시대와 가까워 헌정을 시행하는 것이 순류(順流)이나 중국은 봉건시대와 멀어 헌정시행은 역류(逆流)라는 것이다.⁵¹ 만약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중국에 무리하게 헌정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토호(土豪)가 의회를 장악하게 되어 민권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압살하게 된다. 의원은 민(民)의 원수이지 민의 친구가 아니다.⁵² 결론적으로 대의정체는 전제정치를 선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 장병린의 주장이다.⁵³

이상의 장병린의 논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봉건사회와 의회민주주의의 친화성을 강조하면서, 군현사회에서는 의회제 실시가 불가능하다

48 章炳麟, 1907, 앞의 논문, 385쪽.

49 章炳麟, 1908, 앞의 논문, 456쪽.

50 杉山文彦, 2006, 앞의 논문, 202쪽.

51 章炳麟, 1907, 앞의 논문, 373쪽.

52 章炳麟, 1908, 앞의 논문, 468쪽.

53 章炳麟, 1908, 위의 논문, 461쪽. 장병린은 아울러 중국의 인구, 국토규모, 납세상황 등 모든 면에서 선거를 통한 의회 구성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총통과 사법, 學官의 세 기관이 정립한 국가 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후 백여 년간 제대로 된 헌정과 의회정치가 실시된 적이 없던 중국 정치의 전개과정,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의회민주주의에 냉담한 중국의 모습을 볼 때 백여 년 전 장병린의 통찰은 의미심장하다.

는 주장이다. 이것은 의회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견해다. 다른 하나는 의회제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의회제가 결국 유력자들의 권력과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며, 민권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압살할 것으로 봤다. 장병린의 관심도 역시 민권신장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의회제의 효용성을 그는 비판적으로 봤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가 봉건사회보다 군현사회를 유동성, '평등', 능력주의 등의 면에서 더 높게 평가했던 것처럼, 의회 있는 봉건사회보다 선한 전제하의 군현사회를 훨씬 민주적인 사회(민권신장)로 파악했다는 점이다.⁵⁴ 그의 견해에 대한 당부(當否)는 차치하고 일단 그가 의회제 도입문제를 '봉건사회·군현사회론'의 관점에서 내다보고 있었던 점에 주의하고 싶다.

앞서 소개한 옹범여는 국회개설 전에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지방자치 없이도 당장 국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 이유로 중국민의 정치능력은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국회를 개설했을 때에 비하면 더 낮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국회를 개설했을 때 봉건시대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다. 봉건제도를 행한다는 것은 국중(國中)에 각종 계급이 있어서 평민이 관리에 임명될 수 없고 정치생활도 대다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진(秦) 이래 봉건제도가 파괴된 지가 이미 2천 년이 넘었다. 오늘의 민초도 내일은 출세할 수 있고, 전국의 인민은 모두 정계에서 활동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일단 국회개설이 결정되면 중국 국민의 정치적 천성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큰 밑받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초기의회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일본과 비교해보자. 일본 국회는 의장 선거하는 데에도 종일 싸움을 할 정도로 지리멸렬했다. 그런데 제2기 의회 이후에는 질서정연하게 국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단 5년 만에 이런 성취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청일전쟁에 승리했다. 일본인이 이러하다면 하물며 정치를 천성으로 하고

54 작금의 중국공산당의 '민본'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있는 중국 국민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⁵⁵ 같은 ‘봉건사회·군현사회론’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봉건사회·군현사회론’이 정치구상과 의회제 도입문제에 중요한 증거들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 서서 일본의 헌정사를 조망해보면 어떻게 될까.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889년에 헌법제정, 1890년에 의회개설로 서유럽을 제외하고는 동 시기 유일의 입헌국가였다. 종래에는 이것을 메이지 일본의 경이적인 문명개화 노력의 결과물로 해석해왔다. 물론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논의와 연결시켜 보면 일본은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국가 중 봉건을 떠난 지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점이 상기된다. 봉건제를 타ť파하여, 아직 봉건 유제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신생군현사회 메이지 일본과 의회제의 자연스런 결합이라는 시점은 불가능한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일본 헌정사의 고전인 오사타케 쓰요시의 『일본헌정사대강(日本憲政史大綱)』 상권(上卷)의 제5장 제목이 「봉건의회」인 것이 주목된다.⁵⁶ 그는 막말기에서 메이지 초기에 걸친 의회론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것은 봉건세력의 조절통합으로서의 구체적 성안(成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막말기에는 번주(藩主)를 주요멤버로 하는 열번회의론(列藩會議論), 즉 상원적 의회론이 주였다면, 메이지기에 들어와서는 각 번사(藩士)를 주요멤버로 하는 하원적 의회론이 비등했다는 것이다.⁵⁷ 그 어느 쪽이든 봉건세력의 의회적 재편, 즉 ‘봉건의 변상(變相)’임에는 다름이 없다.

실제로 막말기에 반(反)막부세력 사이에 비등했던 공의정체론(公議政體論)

55 熊範興, 1978, 「國會與地方自治」(中國新報 第5期),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第二卷下冊, 三聯書店, 882~883쪽.

56 尾佐竹猛, 1938, 『日本憲政史大綱』 上卷, 宗高書房. 河野有理도 이 시기의 정치구상을 ‘봉건의 의회’, ‘군현의 의회’로 설명했다(『明六雜誌의 政治思想: 阪谷素と「道理」의 挑戰』, 第2章).

57 尾佐竹猛, 1938, 위의 책, 177~178쪽.

은 열번회의체(列藩會議體) 구성이 주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부 측 개혁파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브레인으로 대정봉환(大政奉還) 무렵에 막부의 헌법구상을 피력했던 니시 아마네(西周)는 쇼군 정부와 상하양원의 의정원(議政院)으로 구성된 정부구상을 제안하면서 상원은 만 석(萬石)이상의 다이묘, 하원은 한 번(藩)에 한 명씩 번사를 선출하여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⁵⁸ 이것은 완전히 봉건세력의 의회적 재판이었다. 쓰다 마미치[津田眞道]는 상원은 만석이상의 다이묘, 하원은 인구 10만 명에 1명씩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⁵⁹ 그의 주장은 니시에 비해서는 봉건제의 틀을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상원은 다이묘로 채워지게 되어 있었다.

막부가 타도되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후에 실현된 것은 의사소(議事所)·공의소(公議所)·집의원(集議院) 등 봉건의회였다. 의사소의 하국(下局) 구성은 주로 40만 석 이상 번에서 3명, 10만 석 이상에서 2명, 1만 석 이상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 공사(貢士, 藩選代議員⁶⁰)로 이뤄졌는데, 이에 따라 각 번의 강고한 자율성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했다.⁶¹ 고노 유리[河野有理]에 따르면 저 유명한 1874년의 민선의원설립 건백서도 일종의 봉건론이었다. 건백자들은 지금의 일본을 군현세계로 규정하고 이 세계의 특징을 민심의 동요와 상하의 정의적(情誼的) 일체감의 결여로 포착했다. 건백자들은 사민(四民) 중 사족을 높게 평가하고 군현세계의 진전은 사족정신의 소멸을 야기했다고 했다. 그들이 민선의원 설립을 통해 의도했던 것은 군현적인 데모크라시의 상황 속에 봉건적인 아리스토크라시의 정신(사족의 '固有精神元氣')을 심는 것, 다시 말하면 군현으로 잃어버

58 西周, 『議題草案』·『別紙議題草案』(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59 津田眞道, 1989, 「日本國總制度」, 『憲法構想: 日本近代思想大系9』, 岩波書店.

60 尾佐竹猛, 1938, 앞의 책, 185쪽.

61 河野有理, 2011, 앞의 책, 171쪽. 이런 상태였기에 군현을 지향하는 오키노 도시미치가 의사소를 가리켜 “公議府 따위는 무용지론이 많고 아직 오늘날의 政體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단 폐지하려는 內評이 있다”고 일갈했던 것이다(大久保利通, 明治 2年 6月 4日 桂久武宛書翰, 『大久保利通文書』).

린 상하의 일체성을 민선의원으로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⁶²(고염무의 말을 빌리면 寓封建之意於郡縣⁶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메이지 초기 의회설립 과정은 실로 ‘봉건의 변상’의 과정이었다. 의회론은 주로 봉건제에 기반하여 구상되었고, 실제 실현된 의회적 기구도 봉건적 세력에 기반한 것이 태반이었다. 과연 장병린의 통찰대로 의회제와 봉건제는 매우 친화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헌정도입 성공은 일본이 봉건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점도 한번쯤은 궁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의회제를 단순히 봉건의 변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20세기 의회제와 민주주의의 발달을 목도해온 우리의 실감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의회제가 발생초기에는 봉건제와 친화적인 곳에서 봉건의 변상으로서 형성되었는지 몰라도, 그 후 선거권의 확대와 보통선거의 도입으로 단순히 봉건의 변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치사회를 변혁시켰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봉건사회가 군현사회로 진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의회제가 형성, 강화되어갔던 것이다. 유럽과 일본에서 봉건의 변상으로 의회제가 출발했는지 몰라도, 보통선거제 도입으로 상징되는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장과 법치의 대중적 확산은 그 사회들의 군현화 과정에서 쟁취된 것들이다.⁶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봉건과 의회제 형성의 친화성에 유의하면서도 군현사회와 의회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군현사회에서 의회의 등장을 일축했던 장병린과 달리 봉건보다 군현사회에서 의회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은 동시대 일본의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였다.

62 河野有理, 2011, 앞의 책, 192~195쪽.

63 顧炎武「郡縣論」第一; 박훈, 2015, 앞의 논문 참조.

64 유럽에서 법치·인권·의회제 등이 발달한 것을 원래 신분제에서 특정신분에만 보장되었던 특권이 하층민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與那覇潤, 2014, 『増補版 中国化する日本: 日中「文明の衝突」一千年史』, 文藝春秋, 300쪽). 이 과정을 ‘新種 군현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구치도 일본이 봉건에서 군현으로 이행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⁶⁵ 먼저 그는 군현사회를 자유경제와 연결시켰다. 그에게 봉건사회의 경제는 좁게 획정된 공간의 내부를 순환하는 좁은 범위의 것인 데 반해, 군현의 경제는 자유지제(自由之制)·공평지제(公平之制)며, 재화는 인위적 분배가 아니라 자유시장을 통해 적절히 분배되는 것이었다. ‘자유교역’이라는 것은 독립독행(獨立獨行)의 상인이 오주(五州)와 교역을 하는 장벽 없는 군현에 비교되었고, 군현질서는 독립독행의 상인이 자유로이 활동하는 상업사회라는 이미지로 묘사되었다.⁶⁶ 이것은 서양의 상업사회의 이미지가 많이 투영된 것이긴 했으나 위에서 본대로 전통적인, 또는 19세 말-20세기 초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생각하던 군현 이미지와 크게 배치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다구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봉건과 군현 외에, 동시대 많은 지식인이 주목했던 전제정부와 입헌정체라는 다른 개념 축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는 군현으로의 전환이 초래한 집권정부는 그대로 놔두면 전제정부로 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⁶⁷ 장병린은 대의정체는 전제정치를 선하게 하는 것만 못하며, 군현사회의 전제정이 현명한 전제가 되어 대의제보다 오히려 민권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보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⁶⁸ 장병린은 선한 전제에 희망을 걸었으나, 다구치는 전제정치를 믿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그는 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현과 의회의 결합인 것이다. 장병린과 달리 다구치는 대의제야말로 봉건·군현의 애로(隘路)를 돌파할 진정한 제도라고 보았다.⁶⁹

65 田口卯吉 立案, 大井通明 記, 1883, 『時勢論』, 經濟雜誌社, 75쪽(日本國會圖書館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66 河野有理, 2006, 「田口卯吉의 夢-「郡県」의 商業と「自愛」의 秩序」, 『国家学会雑誌』 119(3·4), 282~283쪽(후에 『田口卯吉의 夢』,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3).

67 河野有理, 2006, 위의 논문, 325쪽.

68 章炳麟, 1908, 앞의 논문, 461쪽.

69 河野有理, 2006, 앞의 논문, 327쪽.

다구치가 꿈꾸었던 군현사회는 어디까지나 확대되어가는 개방적 공간이며, 그 개방적 공간은 전체의 이익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제한을 통해 질서 지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군현사회는 전제화를 막는 장치, 즉 의회가 있어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IV. '봉건사회·군현사회'와 국민국가

19세기 중반 서양열강의 외압이 본격화된 이래, 일본은 단기간에 '국민국가(nation state)' 건설에 성공했다. 조선과 중국은 마치 '산사(散沙)'와 같이 지리멸렬,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도 국민국가 건설의 도정에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언제쯤 달성될지, 아니 정말 중국이 국민국가로의 도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와는 다른 역사적 경로를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⁷⁰

위에서 '봉건사회'와 '근대사회'의 친연성을 언급했는데, 이 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일본의 국민국가형성 문제 역시 봉건사회와 근대사회의 친연성을 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nation state는 봉건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들어진다고 말해진다. 이런 시각은 사적 유물론의 시각에서 원시공산공동체-노예공동체-봉건적 공동체 다음에 이를 부수고 자본주의와 함께 nation state가 출현한다는 사

70 자오팅양, 노승현 옮김, 2010, 『천하체계-21세기 중국의 세계인식』, 도서출판 길; 조경란, 2013,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글항아리; 왕후이, 이육연 외 옮김, 2003,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왕후이, 송인재 옮김, 2010,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마틴 자크, 안세민 옮김, 2010,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부키;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2016, 『제국의 구조』, 도서출판 길(가라타니 고진의 '중국론'을 요령 있게 소개하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는 조경란, 2016, 「중국은 '제국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라타니 고진의 『제국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역사비평』 116).

관에 입각한 것이다. 여기서 아시아는 아시아적 공동체로 별도로 구분되며 사실상 이 공동체가 변화 없이 지속돼 왔고, 근대 입구에서도 그 파괴에 실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악명 높은 아시아적 정체론이다.

그러나 공동체론을 nation state 성립문제에 개입시키게 되면, 위와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후술하는 것처럼 최근의 연구성과, 혹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전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면 조선이나 중국은 장기간 공동체가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빈약하거나 부재한 사회였다. 이 지역은 아시아적 공동체가 지배한 사회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전후 마르크시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미나 일본과 같은 원시공산공동체-노예공동체-봉건적 공동체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nation state는 공동체가 강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수많은 봉건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립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nation state는 수많은 공동체를 일률적으로 통합한 거대한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국민국가 성립문제와 연결시켜 중국과 일본 역사의 유형적 이질성을 본격적으로 논한 것은 아다치 게이지(足立啓二)다.⁷¹ 그는 중국사와 일본사·유럽사를 발전단계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각각 전제국가와 봉건사회라는 이질적 유형으로 파악하면서 국민국가는 봉건사회에서나 형성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주로 아다치의 논의에 의거하면서 서술해 나가기로 한다.

먼저 촌락 공동체성의 유무, 혹은 강약의 문제다. 에도시대의 무라[村]는 강고한 공동체사회인 데 비해, 명청시대 중국의 촌락은 공동체성이 희박했다. 19세기 후반 서양식세계에서 성립한 아시아적 전제국가론은 중국이 원시적 공동체를 기초로 한 사회라고 인식했으나, 이는 실태와 괴리된 것이다.⁷² 중국 촌

71 足立啓二, 1998, 『專制國家史論-中國史から世界史へ』, 柏書房.

72 더욱이 이와는 모순되는 국가적 토지소유를 기초로 한 아시아적 전제국가론이 나란히 유포되어 혼란을 가중시켰다(足立啓二, 1998, 위의 책, 32쪽).

락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는 중일 양국 모두 1930년대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일본 무라들은 마치 국민국가의 국경선처럼 분명한 촌의 경계선이 존재하고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다. 무라 내부에서도 거주지·경지·비경지의 구분이 분명하다.⁷³ 이에 반해 중국 촌락은 촌의 경계선이 애매하다. 1930년대 중국 촌락을 조사하던 만철직원이 촌의 땅이 없는가라고 중국 촌민에게 묻자, 그는 촌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촌의 땅이라고 했다고 한다. 공동체의 기본인 지역적 일체감이 중국 촌락에는 우선 희박했던 것이다.⁷⁴ 아무리 외국인이 한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경과 영역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 무라의 원리와 상통한다. 그러나 중국 촌락은 그 집단 고유의 영역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⁷⁵

다음으로 촌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중국에서는 촌락이 집행하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일본의 무라에서는 공동업무로 행해지는 일들이 거의 사적으로 행해지고, 심지어 도로 수리조차도 사적으로 행해진다. 여기서는 촌락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이 없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현청이나 촌내 유력자가 반포한 것이다. 재판도 촌락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名士)의 권위를 빌려 조정을 행하거나, 현청에 직접 가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

73 최근의 연구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다(水本邦彦, 2015, 『村-百姓たちの近世<シリーズ 日本近世史 2>』, 岩波書店).

74 조선의 촌락도 洞里의 경계는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이영훈, 2015, 「20세기 전반 彦陽의 小農社會」, 『경제논집』 54-1). 따라서 조선의 지도에 동리가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75 1960년대 충남 서산군 해미면 석포리를 조사한 미국의 한 인류학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 동리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친척·이웃·동료 사이에 형성된 친밀한 대면관계의 누적 이상이 아니었고, 주민 모두를 포괄하는 정서적 유대와 그에 기초한 집단적 정체성은 취약하였다고 한다. 이 동리 자체가 하나의 지리적 실체로서 연대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주민이 방조제에 소를 멋대로 방목할 때, 이를 제어한 것은 촌락이 아니라 군청관리였다(이영훈, 2014,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06~407쪽).

송분쟁에서 지역의 향단이나 종족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었다.⁷⁶ 이처럼 촌락의 공권력성, 혹은 공동체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외부인이 촌락에 참입(參入)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했던 데다가 촌민이 되어도 특별히 유리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⁷⁷

이상 본 것처럼 중국 촌락은 촌락의 경계도 애매하거나 부재할 뿐 아니라, 구성원의 멤버십이나 권리가 확실하지도 않았고, 공통의 의사결정이나 행정집행, 그를 위한 공통의 독자적인 규범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었다. 이처럼 사회기층의 촌락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편성의 주축을 담당하는 것은 국가였으며, 나머지는 종족이나 아니면 선회(善會), 선당(善堂) 같은 목적별 임의단체가 담당했다. 그러나 명칭 이후 국가의 사회편성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이후에는 사회기층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공공 공간은 더욱 협소해졌고, 이른바 자유방임 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⁷⁸

76 夫馬進, 2016, 「内藤湖南の中国社会論で清代巴県社会を理解できるか?—中国国家・社会二元論の再検討」(2016년 5월 11일 서울대학교 해외지명학자 초청 발표문); 夫馬進, 2015, 「清末巴縣の「健訟棍徒」何輝山と裁判的調解「憑團理剖」」, 『東洋史研究』 74卷3號.

77 논자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후쿠다케 나오[福武直]는 화중은 거주가 분산적이고, 혈연공동체적 성격이 약하며, 市鎮 의존도가 높는데 비해 촌락결합이 약하다. 반면, 화북은 촌락결합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촌락은 일본 농촌보다는 개방적이고, 촌 의식 발생의 물적 기반이 박약하다. 촌민 간의 사적 협력에서도 유이[結い] 같은 협력이 없고, 錢會 같은 금융조합에 훨씬 적극적이어서, 더 합리적·타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岸本美緒, 2006, 「中國中間團體論の系譜」, 『岩波講座「帝國」日本の學知』 3卷(東洋學の磁場), 岩波書店, 79~80쪽). 가이노 미치다카[戒能通孝] 역시 중국의 촌락 구성원에게는 재산·가문[家柄]의 고정성이 없고, 村長이나 會首의 행동을 규제하는 本百成層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기반으로 한 단체의식이 없어 공동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노[戒能]는 이 같은 관찰을 기반으로 전전의 연구자답게 공동체가 없는 중국은 구미나 일본과는 다른 발전과정을 밟고 있으며, 따라서 근대화의 가능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岡本隆司, 2015, 「近代日本がみつめた中国12—分岐するまなざし」, 『本』 8월호, 34~37쪽).

78 실제로 20세기 초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은 입을 모아 중국 사회가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루소가 말한 일반의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적 자유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행정, 법 집행, 징세에 대해 공통의 멤버십을 가지고 국가에 동원되거나 자발적 지지를 보낼 ‘국민’을 창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에도시대의 무라[村]는 어떠한가. 무라에서는 촌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리아이[寄合] 같은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결정기구가 존재하고, 상설적인 집행기구가 있었다. 원래는 개별농가의 업무라도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면 대체로 무라가 수행주체가 된다. 무라는 공간범위, 구성원, 결정 집행기구를 갖고 있었고, 재산관리, 공동업무의 포괄적 집행을 행했고, 독자의 법률(오키테: 掟)에 따라 독자의 재판을 행하기도 했다(檢斷權). 무라는 규범을 공유하는 구성원이 합의하에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였다.

일본의 봉건사회는 무라와 같은 일종의 공권력성을 갖는 단체의 누적적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잘 정돈된 상자들이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 상자들은 상호간에 폐쇄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 경계를 넘나들었다. 다만 횡적으로보다는 종적으로, 즉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그 경계는 더 낮았다.⁷⁹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는 상자들은 존재했지만, 그것이 곧 이 사회의 분산성·분권성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강력한 중앙의 상자가 하위에 있는 상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경우 그 상자들의 내부에까지 쉽사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나 조선은 중앙집권적이고, 일본은 지방분권적이라는 상투적인 견해는 재검토를 요한다 하겠다.

아닌 자연적 자유일 수도(조혜인, 2009, 『공민사회의 동과 서: 개념의 뿌리』, 나남, 110쪽), 양계초가 말한 법규범이 공유되지 않은 단순한 통제 불능의 야만의 자유(足立啓二, 1998, 앞의 책, 26쪽)일 수도 있을 것이다.

79 아다치도 이에 관해 유럽 봉건제는 공동체와 영주가 국왕 앞에서 단일의 신분제 구성처럼 단체와 영주의 지배관계가 완경사 혹은 병렬적인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상위단체가 하위를 포섭하는 보다 수직적인 관계였다고 언급한다(足立啓二, 1998, 앞의 책, 232쪽).

이상 촌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봉건사회의 기초가 되는 또 다른 공동체는 가족과 동업자 조직이다.⁸⁰ 그런데 중국에서는 가족조차도 그 공동체적 성격이 애매하다. 중국에서는 가족 안에서 경쟁이 심해, 가족 간의 예의가 강조되는 것은 거꾸로 가족 구성원 간의 대립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⁸¹ 중국 가족에는 가족의 단체성을 표현하는 가부장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권이나 주권도 전제국가에 간섭당해 자립적 집행에 제약이 있었다. 가족의 재산상의 일체성도 부재하여, 부자 상호 간의 절도가 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후에는 남자권분상속으로 재산의 공유상태는 매우 경과적이었다.⁸²

이런 관점은 전전의 연구경향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이노 미치다가 [戒能通孝]에 따르면 화북의 가족 내 소유권은 근대와 유사하며, 농민은 가족동족에서 이탈하여 분산적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즉 가족은 언제나 탈퇴가능한 동거생활자며, 하나의 하숙·아파트에 불과하다.⁸³ 또 마키노 센[牧野巽]은 근세종족은 정확한 혈통연결이 애매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동성(同姓)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한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따라서 족인(族人)이 같은 곳에 거주하지 않으며, 동족사(同族祀)에는 천 혹은 만 이상의 위패가 있는데, 이곳은 사당이 아니라 서원인 경우가 많았다. 이곳은 일족의 사무소일 뿐 아니라 족인의 숙박소로도 활용된다. 종족은 반드시 정확한 혈통연결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까지도, 동성이라는 것을 유리하게 생각하여 연합하는 결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촌내에서 완결되는 일본 동족(同族)과 달리 중국의 종족은 촌을 넘어 확장한다.⁸⁴

길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송원명대에 행(行)은 동업자의 자치조직이 아니

80 足立啓二, 1998, 위의 책, 62~64쪽.

81 岸本美緒, 2006, 앞의 논문, 73~74쪽.

82 足立啓二, 1998, 앞의 책, 62~63쪽.

83 足立啓二, 1998, 위의 책, 41쪽.

84 『牧野巽著作集』 6卷, 御茶の書房, 1985.

라, 국가의 필요물자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따라서 길드가 아니다. 청말의 동업, 동향자 조직은 국가징세에 대한 대응을 과제로 하고, 또 제사와 업자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설립취지 등을 현(縣)에 보고하고, 부(府)나 포정사(布政使)의 인가가 필요한 임의단체였다. 따라서 행에 소속되는 것이 별다른 특권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좌(座)나 주중간(株仲間)은 영업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이고 자율적인 동업단체였다.

이처럼 일본은 크든 작든 공권력성을 가진 단체의 중적(重積)구조⁸⁵로 사회가 짜여져 있는데 비해 중국은 공동체 대신 느슨하고 유연하며 광역적인 네트워크로 이뤄진 사회였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를 통어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어떠했는가.⁸⁶ 고대 중국에서는 중앙의 경우 재상이 행정기구를 통괄하며, 황제의 칙(勅)은 관료기구의 인(印)이 있어야 유효할 정도로 관료기구의 자율성이 존재했다. 것처럼 어느 정도 재정(裁定)능력이 있었던 관료기구는 이후 점점 자율성을 잃어가며, 대신 감찰기구가 발달하여 황제권력의 통제력이 증대했다. 지방정부에서도 회피제, 하급관료 임명권박탈, 향정(鄉亭)폐지 등으로 지방관료기구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지방관료 기구 자체에 대한 지방관의 통제력도 위축되었다.

중국의 국가는 후대로 갈수록 농민의 군사편성 제외, 요역노동의 은납화 등으로 인해 농민노동으로 행정말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포기했다. 점점 인민을 장악하는 것을 방기했던 것이다. 관료기구는 사회와 점점 괴리되었으며, 동시에 황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해 나갔다. 자율적 능력이 없기에 권력개입을 대망하는 비단체적 사회 위에, 그것을 통일적으로 행정편성하는 권력이 존재했고, 권력 스스로도 비단체적이기에 황제전권에 의존하는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⁸⁷ 그리고 그 황제권력이 붕괴한 후에도, 그를 대체할 체제는 좀처럼 형성

85 足立啓二, 1998, 앞의 책, 76쪽.

86 足立啓二, 1998, 위의 책, 164~169쪽.

87 足立啓二, 1998, 위의 책, 80쪽.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근대 직전 중국 사회는 공동체가 취약, 혹은 부재한 상태로 산사(散沙), 혹은 파문(波紋)⁸⁸과 같은 사회와, 그와 격절된 곳에서 사회에 대한 장악능력, 사회와의 교섭능력을 상실하고 중앙 황제권력에 기생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공동체가 부재한 사회는 종족이나 목적별 임의단체를 통해 매우 유동적이고 광역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으나,⁸⁹ 상호신뢰와 공통의 규범에 기초한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며 지속적인 단체를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가 국가에 연결되는 방식은 단체의 관례와 규칙을 통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것이었다. 각 개인들은 때로는 스스로, 때로는 유력한 개인에 의존하여 국가와 거의 일대일로 교섭했다. 단체=사회라면 사회는 국가와 물교섭이었으나(아예 부재했으므로), 개인은 국가와 전혀 물교섭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후마 스스무(夫馬進)가 소송을 소재로 주장한 강한 국가, 약한 사회론은 이런 의미에서 일견 타당하나,⁹⁰ 거기에 적극적인 개인론을 보완해야 실태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nation state 수립이 기존의 공동체를 파괴한 위에서, 혹은 그것들에 기초해서 거대한 신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애초에 공동체 경험이 현저히 일천하며, 각자도생이 최고덕목인 중국에서 nation state로의 길이 애로였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88 費孝通, 이경규 역, 1995, 『중국사회의 기본구조』, 일조각(원저 초판 1947, 재판 1984).

89 중국의 사회생활은 이타적 행위와 평소의 개인적 영위 같은 이기적 행위로 분리되어 있고, 공공성의 대부분은 공동체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타적 행위가 대신한다. 善會·善堂 같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대표적이며, 근대의 정당도 명망가의 현신적·이타적 단체라는 성격이 있었다(足立啓二, 1998, 앞의 책, 70쪽).

90 夫馬進, 2016, 앞의 발표문.

V. 맺음말

본고에서 본대로 ‘봉건사회·군현사회론’은 신분제, 사회적 유동성, 경제의 자유, 개인주의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역사뿐 아니라 현 동아시아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금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사적 유물론·‘근대화’론 등 서구산(西歐産) 이론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봉건사회·군현사회론’은 아직까지 매우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근세 이래 중국 역사의 전개과정과 중국의 현재를 설명해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국민국가를 둘러싼 담론상황도 달라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는 자기 결합력의 기초인 단체를 파괴해왔다. 주권국가는 사회 각 단체의 공권력성을 부정해왔고, 자본은 사회 제 단체의 여러 기능을 상품화하여 사회단체의 공공성을 잠식해왔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단체경험이 없는 세대가 형성되어 싱글지향의 세계로 변하고 있고, 사회집단은 자치적 단체에서 임의적인 구성에 따른 네트워크로 경사되어 가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잠식이 진행되어 이것들은 민간 활력에 따른 영리행위로 대체되든가, 자발적인 이타적 행위로 보전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아다치 게이지는 현대와 전제사회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그는 춘추전국기의 중국 전제국가는 현대세계와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전제는 현대의 선구라고 주장하며,⁹¹ 중국 사회의 공동체의 부재가 이해곤란한 사람은 현대사회를 보라고 말한다.⁹²

아다치는 공동체를 선호하는 사람답게 이 문제의 해결을 공동체적 규범능력의 부활과 한층 일반화된 성원권을 전제로 한 공동성의 복원에서 찾고 있지만,

91 足立啓二, 1998, 앞의 책, 3쪽.

92 足立啓二, 1998, 위의 책, 278쪽. 이런 주장은 현재의 일본과 세계가 송대 이후 중국이 이룩한 사회체제를 따라가고 있다(‘中國化’)는 주장과도 상통한다(與那覇潤, 2011, 앞의 책,

이미 국민국가의 해체조짐이 보이고 있는 지금 오히려 중국도 세계도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혹은 '멀티튜드'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⁹³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에 다시 기대기보다는 그 유동(流動)의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봉건사회·군현사회론'이 가지는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민주주의, 즉 헌정과 의회문제를 설명하는 데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장병린이 우려한대로 '봉건의 변상'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민권확대 쪽으로 끊임없이 발전되어온 것 또한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을 포함한 보통선거가 일반화된 것은 큰 획기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 의회제의 경우, 세습의원의 대량존재와 의원이 대부분 지역구의 토호적 존재인 것을 상기하면 '봉건의 변상'으로서의 모습을 다분히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보면 과연 일본은 아직도 봉건을 떠난 지 15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장병린의 통찰대로 헌정 실시를 향한 수차례의 시도에도 21세기 초 현재까지도 '선한 전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의제 도입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한국의 대의제 경험이 아닐까. 한국은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군현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며, 본문에서 소개한 대로 에도시대 일본 지식인들도 그 이질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또 본문의 분석 틀에 비춰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보다 훨씬 '군현사회적'이라는 것에는 별 이론이 없을 것이다.⁹⁴

그렇다면 해방 이후, 혹은 좀 더 좁게 잡아서 1987년 이후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경험은 다구치 우키치가 말한 군현사회와 의회제 결합의 좋은 예로 볼

93 與那覇潤, 2013, 「史學の黙示録: 『新支那論』ノート」, 『内藤湖南のアジア認識-日本近代思想史からみる』, 勉誠出版, 190쪽.

94 물론 중국은 한국 사회보다 더 군현사회적이다. 이렇게 보면 '봉건사회·군현사회론'은 과거뿐 아니라 선진국·후진국이나 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 같은 틀로 설명되지 않는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현상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다고 생각한다.

수는 없을까.⁹⁵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대로 치열한 당파투쟁, 빈번한 대중동원, 강력한 언론의 힘, 과도한 여론조사의 영향력, 공천과정에서 보이는 당심(黨心)에 대한 민심(民心)의 우위 등등 때로는 대의제적 원칙을 훼손하는, 어찌 보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함유하고 있는 성격의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의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희유(稀有)의 소통매체가 발달한 지금, ‘군현사회’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양상은 의회제의 운명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最大)·최강(最強)·최고도(最高度)의 군현사회인 중국이 장병린의 예상과는 달리 만약 의회제, 혹은 의회제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군현사회’임에도 대의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좋은 선례로서 예상 밖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동아시아가 아무리 경제적·군사적으로 발전한다 해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국, 미로에 빠진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는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법치주의·개인주의의 확립도 미완의 과제다. 이 점에서 구미는 여전히 훨씬 앞서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서구 democracy나 nation state의 이식사(移植史)로서 동아시아 ‘근대’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차사료가 말하는 이 지역의 경험에 천착하여 추출해낸 맥락적·내재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본고에서 제기한 ‘봉건사회·군현사회론’이 이런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작은 자극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95 물론 1890년 일본 의회 설립 이후 일본의 대의제 역사도 군현+의회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은 역시 아마지가 말한 대로 봉건적 유풍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민두기, 1977, 『중국근대사연구-신사층의 사상과 행동』, 일조각.
- 미야지마 히로시, 2013,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1·2장), 창비.
-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 2015, 『동아시아는 몇시인가』, 너머북스.
- 內藤湖南, 1972, 『支那論』(『內藤湖南全集』第五卷), 筑摩書房.
- 尾佐竹猛, 1938, 『日本憲政史大綱』上卷, 宗高書房.
- 山路愛山, 1916, 『支那論』, 民友社.
- 矢野仁一, 1923, 『近代支那論』, 弘文堂書房.
- 竹越与三郎, 1894, 『支那論』, 民友社.
- 水本邦彦, 2015, 『村一百姓たちの近世<シリーズ 日本近世史 2>』, 岩波書店.
- 與那覇潤, 2011, 『中国化する日本: 日中「文明の衝突」一千年史』, 文藝春秋.
- 張翔·園田英弘, 2006, 『「封建」·「郡県」再考: 東アジア社会体制論の深層』, 思文閣出版.
- 足立啓二, 1998, 『専制國家史論-中國史から世界史へ』, 柏書房.
- 清水光明 編, 2015, 『「近世化」論と日本-「東アジア」の捉え方をめぐって』, 勉誠出版.
- 河野有理, 2011, 『明六雑誌の政治思想: 阪谷素と「道理」の挑戦』, 東京大学出版会.
- 박훈, 2008, 「19세기 전반 일본의 海防論과 ‘초기국가주의’ 형성」,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 박훈, 2014, 「연속하면서 혁신: 幕末정치사와 明治維新을 보는 시각」, 『일본역사연구』 40.
- 박훈, 2015, 「幕末維新期 정치변혁과 봉건·군현론」, 『일본역사연구』 42.
- 梁啓超, 「中國專制政治進化史論」(1902), 沈鵬等 主編, 1999, 『梁啓超全集』 第3卷,

北京出版社.

熊范輿, 1978, 「國會與地方自治」(中國新報 第5期),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第二卷下冊, 三聯書店.

章炳麟, 「代議然否論」(『民報』 24號, 1908.10.10), 湯志鈞, 1977, 『章太炎政論選集』, 中華書局.

章炳麟, 「政聞社大會破壞狀」(『民報』 17, 1907), 湯志鈞, 1977, 『章太炎政論選集』, 中華書局.

山路愛山, 1907, 「日漢文明異同論」, 『支那思想史・日漢文明異同論』, 金尾文淵堂.

岸本美緒, 2006, 「中國中間團體論の系譜」, 『岩波講座「帝國」日本の學知』 3卷(東洋學の磁場), 岩波書店.

津田真道, 1989, 「日本國總制度」, 『憲法構想: 日本近代思想大系9』, 岩波書店.

河野有理, 2006, 「田口卯吉の夢-「郡県」の商業と「自愛」の秩序」, 『国家学会雜誌』 119(3・4).

‘봉건사회’-‘군현사회’와 동아시아 ‘근대’ 시론(試論)

박 훈

이 글은 근세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아시아사를 ‘봉건사회’·‘군현사회’라는 사회유형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려는 가설적 시도이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근대화’로 이름 지어진 역사적 현상에 대한 재해석이기도 하다. 이것은 feudalism 체제에서 근대화회로의 이행이라는 전통적인 역사관에 대한 의의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군현사회’인 중국은 특히 명청대 이후 활발한 상업활동과 민간영역의 자율적(방만한) 운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신분제도 약해서 수많은 사대부나 드물게 그 이하 계층도 정치에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이 사회는 규율(통제)보다는 자율(무질서)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일본의 ‘봉건사회’는 어느 면에서는 유럽과 비슷하게, 권력의 통제는 사회의 기층까지 미쳤다. 신분제는 강고했고 정치참여는 그 틀에 갇혀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봉건사회’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국가와 친화성을 지녔다. 물론 이 ‘봉건사회’들은 ‘근대화’ 이후 이런 제도들에 기반하여 군현사회로 급속히 이행했지만 ‘봉건사회’의 특징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현사회’ 중국은 의회민주주의도 국민국가 건설도 애로에 봉착해 있다. 이

와 같은 현상들을 단순히 선진-후진의 발전단계론으로만 보지 말고 본고에서 제안한 새로운 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주제어: 봉건, 군현, 사회유형론, 근대화, 발전단계론, 국민국가, 의회민주주의, 공동체, 중간단체

“*Fengjian Society*” (봉건사회) and
 “*Junxian Society*” (군현사회) in Modern East Asia

Park Hun

This article is a hypothetical attempt to reexamine East Asian history from the early modern era to the present from the viewpoint of “fengjian society” (封建社會) and “junxian society” (郡縣社會). It also is a re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phenomenon called the “modernization” of East Asia. This can be said to be an objection to the traditional view of the transition from feudal society to the modern era.

China, which is a typical “junxian society,” was characterized by vigorous commercial activities and voluntary 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after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e weakness of the status system also led to numerous literati the attention and participation of politics. This society was more autonomous (disorder) rather than discipline (control). On the other hand, Japan’s “fengjian society” was in some ways similar to Europe, and the control of power reached the level of the lower and local society. The status system was

strong and political participation was locked in the system.

The “feudal society” with such characteristics has affinity with the parliamentary democracy and the nation state. Of course, these “fengjian societies” have rapidly shifted to “junxian society” based on these systems since “modernization.”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fengjian society” still exist. On the other hand, “junxian society” China is struggling with the parliamentary democrac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state. Is not there a possibility to interpret these phenomena as a new frame proposed in the present paper rather than merely as a development phase of advanced-backward countries?

Keywords: feudalism, social typology, modernization, nation state, parliamentarism, community, intermediate group

자유민권운동 발흥을 향한 메이지 유학자의 시선

–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의 문제제기와 그 맥락

이새봄 |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 I. 머리말
- II. 민선의원 설립 논쟁 속 사카타니의 논의
- III. '학업'의 시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
- IV. 맺음말

I. 머리말

일반적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문명개화의 바람이 불면서 기존 학문의 주류였던 유학은 양학(洋學)에 대비되는 개념인 한학(漢學)이라고 불리며 쇠퇴 일로를 걷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학이 쇠퇴하였다 하더라도 메이지 10년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위 일신이생(一身二生)의 세대¹에 속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학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를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보수주의적 행동으로 간주하거나, 특히 1890년에 반포된 교육칙어와 연관시켜 황실 중심의 수신교육의 강조라는 맥락에서 고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1818~1891]나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1855~1944]와 같이, 메이지 정부 혹은 황실과 직접적인 접점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흔히 이들의 사상적 특징은 메이지 유학 사상의 전형으로 취급되어 왔다.

물론 모토다나 이노우에에 대한 분석이 메이지 유학의 전개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메이지 유학의 양상은 다양했고 당연히 그들이 전부는 아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 1822~1881]라는 인물을 통해 메이지 유학의 전개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일신이생’에 속하며, 메이지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 단체인 메이로쿠샤[明六社]의 동인이다. 메이로쿠샤 동인으로서의 인지도는 다른 동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메이로쿠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7월 31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1 후쿠자와 유키치가 『文明論之概略』에서 말한 “한 몸[一身]으로 두 생[二生]을 산 것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를 가리킨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일본의 극적인 변화를 성인 이후에 겪은 세대에 해당한다.

사에서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회의(會議)와 공론(公論)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민선의원설립 논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상하동치(上下同治)의 정체(政體)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카타니의 민선의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이러한 생각이 자유민권운동의 발흥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어떻게 그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² 이상의 고찰을 통해 사카타니의 사상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민선의원 설립 논쟁 속 사카타니의 논의

1. 상하동치(上下同治) 체제의 확립

사카타니 시로시(호는 朗慮)는 빗추(備中, 현재 오카야마[岡山] 지방)의 주조(酒造)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오사카에서 수학했으며 8세에서 10세까지 약 2년간 오시오 츠사이[大鹽中齋, 1793~1837]에게 배웠고, 그 후 16세 때부터 10여년간 에도(江戸)의 고가 도안[古賀侗庵, 1788~1847] 밑에서 수학했다. 고가가 사망한 이후 고향에 돌아온 그는 양학을 배우기 위해 다시 한번 에도로 향하지만, 도중에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
- 2 사카타니의 사상을 ‘전통’과 ‘근대’를 대비시키는 맥락이나 ‘유학’과 ‘양학’의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小股憲明, 1986, 「阪谷素における伝統と啓蒙」, 『日本思想史』 第26号; 松本三之介, 1988, 「儒学の展開と洋学の受容-阪谷素の場合」, 『日本近代思想大系10・学問と知識人』, 岩波書店 등을 꼽을 수 있다. 가장 최근 연구로는 河野有理, 2011, 『明六雑誌の政治思想-阪谷素と「道理」の挑戦』, 東京大学出版회가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사카타니가 메이로쿠샤 동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1875년경까지를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1875년 이후 만년의 사카타니의 논설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향에서 막말의 격동기를 보내게 된다. 이 시기의 사카타니는 1853년에 설립된 히토쓰바시번[一橋藩]의 학교인 에바라[江原] 교유소(教諭所, 나중에 흥양관[興讓館]으로 개칭)의 교수로 초빙되어 이곳에서 약 15년간 교육에 열중했다. 이곳에서 그는 주희의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의 핵심 경구를 교침으로 내걸고 중시하여 아침마다 학생들에게 암송시켰다. ‘삿된 언설과 폭력[邪說暴行]’이 횡행하는 시대에 올바른 ‘길[道]’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가르침[教]’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다는 생각에서였다.³

사카타니가 흥양관에서 가르치던 시기는 250여 년간 지속된 도쿠가와외의 정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였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는 한편, 당시의 현실 정치운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과격한 존왕양이(尊王攘夷)론자였던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 1840~1864]나 마지막 쇼군이 된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 1837~1913)를 모시던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 1840~1931]와도 친분이 있었던 사카타니는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알현하여 의견을 진상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⁴

메이지유신 이후, 1871년 사카타니는 동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하급 관리로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던 그가 메이로쿠샤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1873년의 일이었다. 여기서 51세의 ‘노유(老儒)’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했다. 메이로쿠샤의 대표격 인물로 알려져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기관지인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에 기고한 논설 수가 3개인데 비해, 사카타니는 무려 22편의 글을 실었다. 이 기고문의 숫자는 쓰다 마미치[津田眞道]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는 『메이로쿠잡지』상에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중에서도 「민선의

3 「白鹿洞揭示說」(1862)로부터의 인용. 阪谷朗廬 著, 阪谷芳郎 編, 1893, 『朗廬全集』, 阪谷芳郎, 293~296쪽.

4 사카타니의 전기로는 다음 두 책이 유용하다. 阪谷芳直, 1979, 『三代の系譜』, みすず書房; 山下五樹, 1995, 『岡山文庫177 阪谷朗廬の世界』, 日本文教出版.

원설립건백서」⁵를 통해 촉발된 민선의원 설립 논쟁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민선의원 설립 논쟁은 메이지 초년부터 시도되어온 의회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것으로, 오로지 민선의원 설립 문제만이 논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지방관회의·관선의원(官選議院)·화족(華族)회의 등 다양한 주체에 따른 여러 회의 형태를 상징하고 진행된 이 논쟁 속에서 사카타니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의 주장은 민선의원을 설립하는 일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지 않았다. 사카타니에게는 민선의원 설립 그 자체보다 ‘상하동치(上下同治)’의 ‘정체(政體)’를 확립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상하동치’는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 서구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제공한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의 『입헌정체략(立憲政體略)』(1868)에 나오는 표현이다. “공명정대확연불발(公明正大確然不拔)”의 국헌(國憲)을 확립하여 군권(君權)을 제한하고 신민이 나라 일에 참여하는 길이 보장되는 정치체제를 뜻하는 상하동치는 사실상 입헌군주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정체에서는 국헌과 의회라는 두 개의 축을 전제한다. 군주가 존재하는 정치를 뜻하는 군정(君政)의 유형 중 하나인 상하동치는 개화문명(開化文明)을 지향하는 나라가 선택해야 하는 올바른 길로, 군주천제(君主擅制)나 군주전치(君主專治)와 같은 만이(蠻夷)의 정치체제와 차원을 달리했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사카타니는 ‘세계 일품의 황통(皇統)’을 가진 일본의 상황에서 채택해야 하는 정체는 상하동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 길만이 일본의 부강개명(富強開明)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때 상하동치라는 정체의 목적은 회의(會議)의 실현에 있었다. 메이지유신의 기본 정신이 담긴 오

5 「민선의원설립건백서」는 1873년 말의 메이지 6년 정변에서 패배하고 하야한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전 參議를 비롯한 8명의 정부인사가 연명으로 左院에 제출한 것이다. 처음으로 정부에 민선으로 의회를 개설하라고 요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백서는 1874년 1월 『日新眞事誌』라는 신문에 전문이 게재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둘러싸고 소위 민선의원설립 논쟁이 전개되었다. 자유민권 운동의 시발점이 된 문서로 일컬어진다.

6 加藤弘之, 1868, 『立憲政體略』, 紀伊國屋源兵衛, 2丁-3丁.

개조의 서문(誓文)에 등장하는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사를 공론(公論)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항목이 직접적인 논거였다.

그것(상하[上下]의 목적)은 이미 유신의 시작과 함께 확립되었다. (오개조의 서문에서)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사를 공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말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그 말만 쓸데없이 내걸었기에 실제로는 [그 목적이] 점차 희미해졌고, 그러는 사이 모든 일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려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주인을 잃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늘날 민선의원의 논의가 일어났는데, 요사이 [발표된] 지방관회의 조서(詔書)⁷와 민선의원의 논의를 살펴보니 [그 목적이] 뜻하지 않게 같은 지점으로 귀결된다. [즉] 오로지 상하동치 하나로 모이는 것이다. 이처럼 [상하동치를 목적으로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기휘(忌諱)에 저촉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구습을 바꾸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지봉이 무너지고 기둥이 쓰러졌는데 그 밑에 앉아서 수리를 하지 않고 저절로 해결되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위험하도다! 말하기를, “상하동치의 업을 민선의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답하기를, “집을 만들면 먼저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 민선의원은 기둥이고, 대들보인 것이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기둥과 대들보를 어디다 쓰겠는가!” 그렇다면 기초인 상하동치의 정체는 어디에 손을 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말하기를, “목적 을 확립해서 이랬다저랬다(東遷西移) 하지 말고 과녁을 겨누어 오직 일진일퇴만 하다보면, 그 처치 방안, 좋은 제도가 저절로 증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⁸

막부 말기부터 일관되게 ‘공론박의(公論博議)’와 ‘합의(合議)’의 정치 실현을 주장했던 그는 오개조의 서문에서도 회의와 공론이 등장하는 해당 항목을 특히

7 이 글이 나오기 직전인 1874년 5월 2일 반포되었다.

8 「民選議院を立るには先政體を定むべきの疑」(1874, 6)(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明六雜誌 上』, 岩波文庫, 427~428쪽).

중요하게 여겼다.⁹ 일본이 확립해야 할 문명국가로서의 정치체제란 무엇보다도 ‘공론’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목표로 해야만 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처럼, 메이지 일본의 건설에도 상하동치라는 체제를 확립시키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만이 오개조의 서문이 지향하는 회의와 공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었다. 민선의원 설립의 문제는 체제 원리로서의 ‘회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의공론(公議公論), 인민대의(人民代議)로 의사결정을 하고, 전국 일동이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여 위아래 모두 국가의 일이 전부 나를 위한 것, 나의 임무라는 점을 숙지하게 만들어 그 어떤 권력자라도 정해진 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스타츠[인용자 주: state]’로 만들지 않는다면 국내외의 대사를 안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신(精神)〈spirit〉담력(膽力)이란 담당(擔當)〈responsibility〉에서 나오는 것으로, responsibility는 학문보다도 재화(財貨)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이라 하면 우민(愚民)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니 의원(議院)의 주된 조세 비용에서 군민공공(君民公共)의 뜻을 명백히 한다면 지금까지 노예의 습관에 젖어 있던 자도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하여 spirit를 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에 재화를 쓰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 권한[權]이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자는 모두 노예 풍습이 굳어서 급신거리기만 하고 정직(正直)의 풍습은 쇠퇴하여 침유(諂諛)가 될 것입니다.¹⁰

기존 도쿠가와 정권 치하에서 위로부터의 명령에 복종해온 우민들에게 갑자

9 메이지유신 이전의 사카타니의 정치질서론과 천황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李七ボソ, 2010, 「朱子学者阪谷素の「理」と天皇」, 『政治思想研究 政治思想と周縁・外部・マイノリティ』第10号, 458~488쪽.

10 「民選議院變則論」(1875. 2)(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2008, 『明六雜誌 中』, 岩波文庫, 368쪽).

기 정치 참여의 책임(responsibility)이 생겨나길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¹¹ 그렇기 때문에 사카타니는 우민들이라도 참여의 의무와 책임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재화의 문제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원(議院) 설립의 논의를 진행시켜야 함을 강조했다.¹² 이는 다시 말해, 조세 문제를 ‘군민공공(君民公共)의 뜻’에 입각하여 결정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위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해온 ‘노예의 습관’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정치활동의 주체로서 거듭나기 위한 spirit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¹³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했다. 사카타니가 보기에 상하동치라는 새로운 정체가 미처 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일본 인민은 그에 필요한 ‘정신 담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한 인민들이 민선의원을 통한 정치 결정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미처 자신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휩쓸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상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과거와 같은 ‘노예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민일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변칙적’인 방법으로써 ‘관선의원(官選議院)’을 내놓았다.¹⁴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임시적인 수단이었다.

11 사카타니의 민선의원 논의에는 구체적으로 선거인과 피선거인의 조건이나 선출 방식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12 사카타니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메이로쿠잡지』 동인들의 다양한 의회 구상에 관한 입체적인 분석으로는 河野有理, 2011, 『明六雜誌의政治思想-阪谷素と「道理」の挑戦』, 東京大学出版会の 제2장을 꼽을 수 있다.

13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설 「租稅の權上下公共にすべきの説」(『明六雜誌』 제 15호, 1874. 8)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14 사카타니가 말하는 官選議員은 “공론에 의한 관선”이라는 방법으로 학식이 있는 몇몇 분야의 일인자로 뽑힌 사람들이다. 그동안 개화가 진행되고, 학교 교육이 뿌리 내려 의회 제도에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면 점차적으로 “官員이면서 議官을 겸하는 자가 줄어들어” 드디어 민선의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하의 제안이다. 「民選議院變則論」(1875. 2)(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2008, 『明六雜誌 中』, 岩波文庫, 380~382쪽).

2. 자유민권운동의 발흥과 이에 대한 우려

1875년 11월을 끝으로 『메이로쿠잡지』는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에 내리진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 제110호 참방률(讒謗律)과 제111호인 신문지조례(新聞紙條例)를 계기로 메이로쿠샤 동인들은 논의 끝에 기관지의 발행을 일단 그만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폐간(廢刊)이 아닌 ‘출판정지(出版停止)’였지만 그 후 끝내 간행이 재개되지 않았다.¹⁵ 사카타니는 이후 『메이로쿠잡지』에서 만큼의 빈도는 아니지만 양양사(洋洋社)·동경수신학사(東京修身學社)·동경학사회원(東京學士會院) 등의 모임에 참여하며, 그 기관지 등에 계속적으로 글을 발표했다.

당시 일본 국내 정황을 살펴보면, 1875년 이후 불평사족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소위 민권운동이 고취되어가는 과정이었고, 이로 인해 일본 국내 정세는 점차 불온해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당대 상황을 반영한 것일까. 사카타니의 글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는 민선의원 설립에 관한 청사진의 제시를 그만두고,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문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논의들에 집중했다. 다시금 주자학적 수양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황실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른바 보수주의적 색채가 짙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었던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소위 자유민권운동이 발흥한 시기의 배경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논의해보고자 한다.

불평사족의 문제가 폭력을 사용한 정면충돌로 이어져 1877년의 세이난[西南]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메이지 신정부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발생했다. 1878년에는 불평사족이 오쿠보

15 이는 메이로쿠샤 자체의 해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잡지 발행을 그만둔 이후에도 ‘메이로쿠회(明六會)’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지속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大久保利謙, 2007, 『明六社』, 講談社学術文庫, 65~66쪽.

도시미치[大久保利通, 1830~1878]를 암살한 사건, 같은 해 8월에는 농민 출신의 근위병이 반란을 일으킨 다케바시 사건[竹橋事件] 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민권운동의 움직임에는 더욱 불이 붙어, 1879년 즈음에는 각지에서 부현회(府縣會)를 열고, 자유민권운동의 결사체가 증가해가며, 애국사(愛國社)의 재흥대회 개최 등으로 이어진다. 일본 사회의 소란 상태는 계속해서 심각해져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지식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후쿠자와 유키치를 꼽을 수 있다. 그의 『통속 국권론(通俗國權論) 2편』(1879)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평균을 내어본다면, 실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불평을 지닌 자가 많으며, [이들은] 또한 인정에 기대어 불평을 호소하는 바가 실상보다 더 심하다.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 불평세계(不平世界)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무수의 인민이 무수의 불평을 호소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고 물으면 다름이 아닌 바로 내 위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나보다 조금]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강(富強)한 자를 향한 원망(怨望)일 뿐이다.¹⁶

후쿠자와는 당시의 상황을 가리켜 ‘원망’이 가득한 ‘불평세계’라고 말하고 있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압제를 통해서 학자나 계사쿠사[戲作者]의 책에서나 간접적인 형태로 드러났던 정념이 메이지에 들어와서는 암살, 무장 반란, 그리고 민권운동의 집회 형태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곳곳에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¹⁷ 이를 가만히 놔둔다면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설’이 인기를 얻어서 ‘반란 소요(反亂騷擾)’로 이어질 것이라고 후쿠자와는 깊이 우려했다.

그렇다면 실제 자유민권운동의 양상이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16 『通俗國權論二編』(福澤諭吉, 1965, 『福澤諭吉全集』第四卷, 岩波書店, 651쪽).

17 「제13편 원망이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 논함」(후쿠자와 유키치, 2012, 『학문의 권장』, 소화출판, 158쪽).

일반적으로 자유민권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1874년의 민선의원설립건백서의 제출부터 1881년 10월 정부가 국회개설을 약속하는 「국회개설의 칙유(勅諭)」를 발표함으로써, 그때까지 정부에 대하여 국회개설 요구를 주장하던 세력이 전략을 변경하게 된 무렵까지를 자유민권운동의 전반기라고 한다.¹⁸ 이 시기 등장한 반정부 민권파의 주요 세력은 사족 출신이 많다. 그들은 재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재산선거제라면 자신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는 재산선거제가 유리한 부유한 농민 민권가들이 있었다. 결국 재산이 없는 사족 출신 운동가들은 조세에 대한 교섭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마음속으로는 민중을 멸시하면서도 자신들과 같이 재산이 없는 민중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정치 참가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¹⁹

이들 운동가들 중에는 물론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1857~1892]나 나카에 조민[中江兆民, 1847~1901]과 같은 사상적 지도자들, 다시 말해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1837~1919]와 같이 하야한 거물 정치가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실제 각 지방의 연설장에서 활약한 혈기왕성한 운동가들 중에는 무식하고 아무런 정치적 경력이 없는, ‘조야하고 난폭한 서생[粗暴書生]’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들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논하고 민권과 의회제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기보다는, 연설장을 감시하는 순사나 지방 관리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이들에 대하여 싸우는 일이야말로 인민의 ‘권리’이자 ‘자유’인 듯 선동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 ‘인정(仁政)’을 베풀 것을 요구하게끔 유도하여, 그렇게 모은 자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는 인물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다.

18 구체적으로는 국회기성동맹 제3회 대회 직전에 ‘국회개설의 칙유’가 나오게 됨으로써 선수를 치지 못하게 된 도사 중심의 민권파가 결국 자유당 결성 대회로 방침을 급히 변경했어야만 했던 상황을 가리킨다.

19 牧原憲夫, 1998, 『客分と国民のあいだ-近代民衆の政治意識』, 吉川弘文館, 92쪽.

그러나 사족이나 부유한 농민층만이 자유민권운동의 참여자는 아니었다. 운동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도시 하층민, 도박꾼, 빚에 시달리는 농민 등 다양한 부류가 존재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기에 좋은 단서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1881년 4월의 아키타(秋田)현의 릿시카이[立志會]라는 민권운동단체의 주장이다. 그들이 신문지상에 선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건제’ 사회로 복고하여 징병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릿시카이 회원들이 군사력을 담당한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아키타 릿시카이는 회장의 명령을 따라 군사행동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은 평소에 검도(擊劍)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릿시카이가 권력을 잡게 되는 날, 릿시카이의 회원들은 ‘영세록(永世祿)’을 지급받는 사족이 될 것이다.²⁰

후대의 연구자들이 당시 활동을 자유민권운동이라고 명명했다고 하지만 사실 각각의 단체나 운동가가 민권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추구한 목표는 오늘날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와는 다른 지향점을 가진 당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움직임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자유나 민권의 의미도 다양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모두 하나의 통일된 기치 하에 모인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아키타 릿시카이의 경우처럼 의회제와는 거의 상관없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모은 결과 운동의 참여자들의 성격이 오합지졸이었던 점 역시 그러한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다.²¹

앞서 언급한 지식인들과 같이 사카타니 역시 이러한 민권운동의 양상에 대

20 松沢裕作, 2016, 『自由民権運動〈デモクラシー〉の夢と挫折』, 岩波新書, 序章 참조.

21 마쓰자와 유사쿠[松沢裕作]는 현재의 가치관으로 자유민권운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1. 도쿠가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분사회가 붕괴됨에 따라 발생한 혼란, 즉 각자가 속한 신분, 역할에 따른 삶이 사라진 이후의 삶을 피치자층이 스스로 만들어보고자 한 움직임이라는 측면, 2. 戊辰전쟁이라는 내전 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투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회층의 사람들이 품은 보상을 바라는 심리=사무라이로서 통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람의 측면, 3.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다는 측면에 대한 평가로써 자유민권운동에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松沢裕作, 2016, 위의 책).

한 우려가 깊었다. 상하동치의 정체를 확립하여 회의와 공론의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선의원 설립을 생각했던 그에게 이와 같은 민권운동의 양상은 자격 없는 인물들로 인한 혼란으로의 길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민권을 주장하는 자는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

3. 민권파의 문제: ‘식견’과 ‘재정(裁定)’능력의 부족

공의공론(公議公論)을 통한 정치를 목표로 삼았던 사카타니는 널리 일본 인민이 민권을 획득하여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했다. 그는 당연히 민권을 추구하는 일 자체에 대해 이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활동하고 있던 민권운동가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사카타니가 소위 자유민권운동의 발흥기였던 1870년대 후반에 가졌던 우려는 그들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당시의 민권운동가들의 자질로는 올바른 민권 개념이 확립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사카타니의 민권론자들에 대한 생각은 1876년의 「감인(堪忍)의 비유」²²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는 ‘민권의 설(說)’을 살펴보면 민권이 공리(公理)임은 만인이 동의하는 바로, 다만 그 안에 ‘급진점진의 논의(論)’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구미각국’의 과거 백 년 정도를 살펴보아도 ‘시세풍토’에 따라 이 같은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일본의 민권파가 각각 급진론과 점진론에 입각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급진적인 민권파는 미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나라와의 풍습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왕가(王家)를 전복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세다. 한편 ‘점진’파는 ‘인군전권(人君專權)’의 체제에서 인군, 즉 군주의 의무란 ‘인민을 보호’하고 “프리드리히(Friedrich II, 1712~1786) 왕과 같이 군주란 마치 하늘에서 밤낮으로 비와 이슬을 내리듯이

22 「堪忍ノ喩」, 『洋洋社談』 제20호, 1876. 8.

항상 땅을 적함에 멈춤이 없는 존재이어야 함을 잊은 채”,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라면 인민은 시비를 논하지 말고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믿고 있다. 즉, 급진과 점진 어느 쪽도 화(禍)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권파의 ‘의논(議論)’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었다. 사카타니의 평생의 신념은 ‘의논’이란 모든 일[事業]의 단초였다. 그렇다면 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주장이나 언설(論說)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필경 그 (주장하는) 사람의 지식이 재정(裁定)할 능력이 안 되는 데에 있을 뿐이다. 중국 송(宋)나라 때, 논의(議論)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재정하는 자가 공정(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뿐이다. 재정하는 사람이 만일 공평하게 들끓는 논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면 송나라는 반드시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나는 단지 무용한 변설을 늘어놓고, 유해한 편견을 이롭다고 하는 논의를 미워할 뿐이다. [...] 적어도 사사로운 뜻(私意)을 제하고 식견을 공정하게 세운다면, 안전이익(安全利益)의 길은 다름(異)에 대해서 강구하는 데 있지 않을까.²³

송나라가 망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의견이 서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카타니가 보기에는 논쟁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논쟁을 하는 사람들, 즉 서로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당사자들이 이를 위한 ‘공정한’ ‘식견’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논쟁의 기본조건으로서 사사로운 마음 없이 ‘공정한’ ‘식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함을 논한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개인들이 이러한 기본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진정한 공공을 위한 ‘안전이익’의 길을 서로 다른 의견들(異)의 논쟁 속에서 찾을

23 「堪忍ノ喩」, 『洋洋社談』 제20호, 1876. 8, 五ウ~六オ.

수 있다는 것이다. 송나라의 사례는 ‘의논’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된 것일 뿐이었다.

이러한 사카타니의 관점에서 볼 때, 민권론자 사이의 급진론과 점진론 사이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난 소란일 뿐이었다. 민권론자들은 민권 확립의 과정에서의 진행 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 상황이 자신들이 보기에 빠르지 느린지 여부에 대해 말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구미 국가들의 전례를 무조건적으로 참고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의도 잊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카타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정’한 ‘식견’과 ‘재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사실 그가 직접적으로 민권론자들에 대해 갖고 있던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명백하게 제시한 사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두 가지 사료에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발견했다.

첫 번째 사료는 1875년 11월 26일자 편지로 그가 “우환(迂闊)한 얘기지만 민권이란 학교에서 생겨난다. 학교의 일이란 대사(大事)다”라는 부분이다(坂田警軒宛書簡, 山下五樹 編, 『阪谷郎廬先生書翰集』, 1995). 다른 하나는 1879년 9월 10일자 편지에 “인민의 권리[權]를 세우는 일은 교육에 있다”라는 문구다(坂田警軒宛書簡, 앞의 책).²⁴ 사카타니는 학교 교육을 통한 민권 확립의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후 그의 행동은 이 구상을 실천해 옮긴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카타니는 민권론 융성기에 접어들면서 교육 현장으로의 복귀 의지를 표명한다. 1879년, 그는 그때까지 일하던 정부기관의 하급관리직을 그만두었고, 이듬해에는 자신의 집에 ‘춘애학사(春崖學舍)’라는 사숙을 열어 젊은 학생들 교육에 집중하기로 한다. 그러나 교육가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인 1881년 1월 타계했다.

24 사카타 게이켄(坂田警軒, 1839~1899)은 사카타니의 조카로 그의 뒤를 이어 오카야마의 興讓館을 맡은 인물이다.

교육가로서 전면적인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지만, 정부기관 일을 그만두고 사망하기까지의 약 1년간 사카타니는 복수의 지식인 단체, 문인회, 정치적 사교회에 참여했다. 메이로쿠샤에 참가했던 시절처럼 그는 열심히 회의에 참가하고, 연설을 했으며 논설을 기고했다. 그러나 메이로쿠샤 시기의 그의 최대의 관심사가 민선의원 설립과 관련된 정치제도상의 과제였다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유지독학자(有志篤學者)’가 ‘정신을 날로 새롭게’하여 그것이 ‘인민의 사회 유지의 돈독심(敦篤心)’을 배양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신’과 ‘마음[心]’을 일으켜, ‘문명의 치[治]’로 나아가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학업’의 중요성이 대전제로 놓여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카타니는 ‘학교’나 ‘교육’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Ⅲ. ‘학업’의 시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

그는 교육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스러우면서 친절한 태도, 즉 ‘간절(懇切)’한 자세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간절’한 자세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음은 사카타니의 1879년의 교육계에 대한 진단이다.

대저 모든 일이 귀착하는 곳은 오직 간절(懇切)이라는 두 자에 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과 규칙을 세울 때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때에도 간절함이 가장 중요하다. 종래에 사람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난폭하게 굴면 많은 경우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학생을 견원우마(犬猿牛馬) 대하듯이 하여 생각하기를, ‘저런 놈들은 오로지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민권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왕왕 그러하다. [교사나 민권론자조차 이런 상황이니] 하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혹은 ‘내가 이 정도 가르쳤음에도 저들은 아직 저런 지경이다. 나는 그저 글자나 가르쳐주면 된다. 그 나머지는 그들[학생들]의 자주자유(自主自由)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르러 학생[生徒]들의 풍습은 날로 무너지고, 악폐(惡弊)는 수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²⁵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사카타니의 수기치인(修己治人)론에 입각한 주자학자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자학에서의 학문의 단계를 보여주는 팔조목(八條目)은 사물에 대한 탐구[格物致知]로 시작하여, 나의 마음의 수양[誠意正心]에 기초한 수신(修身)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나 혼자만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제가(齊家)부터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학문을 통한 수양의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를 논한 것이다. 사카타니의 발상 속에서도 이와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자기반성 없이 교육자가 되고 민권론자가 된 사람들로 인해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민권론이 확산되어가는 세태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는 학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1. 인격적 수양론의 강조

사카타니가 자택에 사숙을 세우던 무렵의 글 중에는 동경수신학사(東京修身學社)의 기관지에 게재된 「에기 고엔시의 미국행에 덧붙여 보내는 글 연설(江木高遠子米國行ニ付送言演說)」이 있다. 그가 1880년 시점에 젊은 세대에 대해 가졌던 생각, 그중에서 특히 ‘학업(學業)’을 중심으로 논의한 이 연설의 원고를 검토함으로써 민권운동을 배경으로 학문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경수신학사는 1876년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1828~1902]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지식인 단체로, 사카타니도 이곳의 창립 멤버로 참가하였다.

25 「森学士訓練ヲ体操ニ組合セ教課ト為ス説ノ後ニ附録ス」, 『東京学士会院雜誌』第一編第七冊, 明治 12年, 160쪽.

1880년에는 수신학사로 개칭하고 『수신학사총설(修身學社叢說)』이라는 기관지도 간행하였다.

「에기 고엔시의 미국행에 덧붙여 보내는 글 연설」은 정확하게는 수신학사에서의 연설이 아니라 에기학교강담회(江木學校講談會)라는 곳에서 사카타니가 했던 송별의 인사말이었다. 그 내용은 1880년 3월, 외무성의 일등서기관으로 미국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에기 고엔(江木高遠, 1849~1880)에 대한 격려와 함께 그곳에 있던 에기의 젊은 동료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 여기에는 세습 신분제의 붕괴 후, ‘문명의 세상’을 목표로 한 메이지 시대에 어울리는 ‘학업’의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대저 사회 안에 있으면서 사회에 이익이 되고, 또한 사회에서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왕, 공업(功業), 왕, 학업(學業)이다. 그러나 공업이란 지략(智略)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문명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필경 학업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개화됨에 따라서 학업이 아니면 사람이 따르지 않고, 일도 이루지 못한다.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 공업으로 일어난 사람들, 유방(劉邦)이나 향우(項羽)는 원래 책을 읽지 않는 부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같은 사람도 책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결코 학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다.²⁶

유방과 향우, 히데요시나 이에야스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과거의 영웅들이 공적을 남긴 것은 결코 ‘학업’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 ‘공업을 이루는 자는 모두 학자’였음을 지적한다.²⁷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고려

26 「江木高遠子米国行二付送言演說」, 『修身學社叢說』第三冊, 明治 13年 5~7月, 55쪽.

27 이와 같은 유럽에 대한 정보는 메이지 초기의 베스트셀러인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1870: Samuel Smiles의 *Self-Help*[1859]를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번역한 책)에서 얻은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

할 때 ‘문명의 시대’에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학업’이다.

공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가 있고, 운이 있고, 또한 나를 써줄 사람이 있어서 이들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학업은 내가 원하는 바를 오직 노력함으로써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아가면 곧 천작(天爵)이 따라서 돌아온다. 오후, 부귀는 뜬구름과 같아서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의지할 것은 나의 자유자주(自由自主)로 이룰 수 있는 학업뿐이다.²⁸

‘공업’이란 결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소인 때나 운, 인적 환경을 통해서 생기는 결과가 ‘공업’인 것이다. 그러나 ‘학업’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기초하여 노력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1872-6)의 내용을 방불케 하는 부분이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²⁹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학문의 권장』은 천부인권설에 기반을 두고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 사회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닌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이만이 존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널리 알렸다. 후쿠자와의 경우, 도쿠가와 일본 사회의 체제를 지탱한 문벌 세습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의식에서 출발하여 ‘실학’에 기초한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사카타니의 ‘학업’은 인격적 수양의 측면이 강조된 학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그가 『맹자(孟子)』 고자(告子)에 등장하는 ‘천작(天爵)’³⁰을 ‘학

28 「江木高遠子米国行二付送言演説」, 『修身學社叢説』第三冊, 明治 13年 5~7月, 55쪽

29 후쿠자와 유키치, 2012, 앞의 책, 21쪽.

30 『孟子』告子, “孟子曰,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古之人, 修其天爵, 而人爵從之. 今之人, 修其天爵, 以要人爵. 既得人爵, 而棄其天爵, 則惑之甚者也. 終亦必亡而已矣.”

업'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인의충신(仁義忠信)과 같은 인성의 덕목들인 '천작'이 '학업'을 통해 따라온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세속적인 입신출세[人爵]가 부수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은 어디까지나 '천작'의 획득에 있다. 이는 그다음 문장에서 “부귀는 뜯구름과 같다”고 표현한 데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이 역시 『논어』 술이편(述而篇)³¹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의롭지 않은 부귀, 즉 결과로서의 부귀만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로 의로운 동기와 그에 따른 정당한 성공만을 인정하는 유학의 도덕적 순결성이 강조된 부분이다.

그러나 사카타니의 논의 역시 후쿠자와와 같은 메이지 일본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liberty의 번역어 중 하나인 '자유자주'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단순한 번역어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카타니가 강조하고자 하는 인격적 수양이 동반된 '학업'의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카타니는 개인의 '자유자주'에 입각한 '학업'을 통한 노력이 그에 상응하는 결실로 이어지는 사회란 서구의 '문명' 사회와 일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가 유학적 사고에 입각해 서양의 '문명'을 이해한 바로는 유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학문에 기초한 인격의 수양이 지향하는 목표와 서구의 '자유자주'의 개인이 '학업'을 세우는 일은 분명히 일치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본 측에서 서양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일방적인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카타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공부자(孔夫子)의 학덕이란 미개한 시대에는 단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구미인(歐米人)들은 공평한 자세로 이를 칭찬해 마다하지 않았다. 유학의 경서는 대부분 [구미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러므로 구미의 성현(聖賢)

31 『論語』述而篇,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들은 [일본인이] 만물의 뜻을 깨달아 일을 이루는 일(開物成務)을 위한 학업인 공부자의 공평한 학덕을 오늘날의 세상에서 실현시킨다면 반드시 [일본인을] 상찬하면서 ‘[그들도] 우리의 開物成務의 진리를 깨쳤구나’라고 여길 것이다. 공부자의 구미 성현과의 다른 점이란 문자, 언어, 풍습, 고금 시제가 다르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그 귀착점의 요점에 어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³²

그는 “구미인”도 공자의 높은 “학덕”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결국 일본과 서양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함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양자의 귀착점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카타니에게 일본과 서양의 성현들의 차이란 오로지 “문자, 언어, 풍습” 그리고 옛날과 지금이라는 시간적 차이밖에 없었다.

2. 심신의 건강

사카타니의 교육 방법론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그가 심신 건강 유지의 측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교육에 관한 관견(管見)」³³에서 “교육의 대강(大綱)의 조리를 나누어서 생각해볼 때, 나의 소견으로는 [교육의 敎에 해당하는 가르친다는 부분보다도] 먼저 키우는 부분[育]을 논해야 할 것 같다. [...] 키움[育]은 가르침[敎]의 토대로써 마치 집을 지을 때의 초석이 나 재목과 같은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정신을 충만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 ‘지식, 예술’의 ‘가르침’의 영역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다.

근자에 외람되게 학사회(學士會)의 말석에 앉을 수 있게 되어 생각한 바로는 먼

32 「江木高遠子米国行二付送言演說」, 『修身學社叢說』第三冊, 明治 13年 5~7月, 13쪽.

33 東京學士會院 원고 용지에 남겨진 미완성 원고. 일본의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에 있는 『阪谷朗廬關係文書』 148-16에 남아 있다. 추정 연대는 1880년경.

저 교육의 원리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러한 일들[모리 아리노리가 주장한 조련(調練)과 체조를 합쳐서 학교 교과로 도입하는 일]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각건대 인신(人身)이 있고, 그 연후에 인사(人事)가 있는 법이다.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학술 사업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에 건강, 교육의 근본을 미루어 생각하고 말단에 미쳐 이를 공론으로 바로잡고 논박을 하여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구한다.³⁴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학교 교과에 ‘도법(刀法)’과 ‘유도(柔術)’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도법유술”은 “건강에 도움이 되며 호신술을 겸하게 하므로 그 담력을 장대하게 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운동]로 인심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인민의 정신과 체력을 양성하”는 좋은 단서가 될 것이라고 사카타니는 말한다. 더군다나 ‘도법유술’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족(士族)’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일본 고유의 ‘무(武)’를 중시하는’ 관습에도 적합하다는 면에서도 ‘도법유술’을 학교 교과 과정에 도입하는 일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일본의 관습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그의 생각이었다. 특히 만년의 그는 “오래된 것[舊]을 무용한 것이라고 모조리 폐기하려 하는” “일종의 야만적 관습”을 어떻게 없애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옛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모(思慕) 기념(記念)의 마음”이야말로 “인민의 사회 유지를 위한 돈독심(敦篤心)”이며, 이것이 없다면 “사회는 분열(破裂)되고, 새로운 일 또한 제대로 행해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옛것·옛사람을 ‘사모기념’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

34 「森学士調練ヲ体操ニ組合セ教課ト爲ス説ノ後ニ附録ス」, 『東京学士会院雜誌』第一編第七冊, 明治 12年, 153쪽.

카타니가 제안한 방법은 ‘공자묘(孔子廟)를 보존’하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 중 공자가 인륜 도덕을 설명하는 방식이 서양과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이 아니다. 그 풍습은 매우 다르다. 서양의 풍습이 가령 선(善)의 극치라 하더라도 우리의 천년 관습이 되어온 인륜의 정칙(定則)을 하루아침에 바꾸고자 하면 서양의 아름다운 관습에 미처 익숙해지기 전에 오래된 것을 버리는 악습을 낳고, 오직 사사로운 뜻으로써 자주자유(自主自由)를 말하며 일종의 무뢰한의 경박한 습속을 낳을 것이다. 서양 풍습의 비천한 부분들이 분분하여 건디기 힘들게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내가 공자묘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공자를 공경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인도(人道)를 중히 여기는 것으로 그의 인도를 중히 여기자는 것이 아니다. 만국이 귀착하는 그 하나의 인도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요즘은 공자묘를 보존하자고 해도 종교[教法]의 엄불, 세례 등 여러 가지 법식을 엄격히 하여 그 교조[祖師]가 말하는 가르침의 뜻에는 오히려 어긋나는 것과 같으며, 이것도 중국풍, 저것도 중국풍이라며 외국의 의식임을 과장되게 내걸어서 공자의 본의를 잃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예(禮)에 입각해서 우리의 고원함을 추구하고 후덕함으로 돌아가는 정신을 기르기 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³⁵

그는 천 년 이상의 역사와 함께 해오면서 일본의 ‘습관’이 되었고, ‘인륜의 정칙’이 된 공자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인륜’이나 ‘도덕’은 인류 보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만국’이 하나의 귀결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풍습’이나 ‘관습’으로 정착되었는지는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의 ‘자주자유’를 내세워 제대로 이해하

35 「孔子廟ヲ保存スル説」, 『修身學社叢說』第6・7・9編, 明治 13年(1880) 10~11月, 2쪽.

지조차 못한 서양의 습속만을 강조하는 ‘경박한’ 세태에 대한 사카타니의 경고
가 들어 있었다.

공자묘를 보존하는 일과 더불어 그는 공자의 동상을 세우기를 주장했다.

기독교를 주로 믿는 국가라 하더라도 워싱턴이나 나폴레옹의 상을 설립하는 것을
볼 때, [이 상을 세우는 것은] 기념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공자의
동상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질 뿐이다. 대저 공덕이 있는 사람을 모시는 일[廟
祀]이란 모두 기념하기 위한 풍습에서 생겨난 것이다.³⁶

유학의 예제(禮制)가 끝내 정착하지 못했던 도쿠가와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일본이 시작되었을 때, 유학자였던 사카타니가 생각한 ‘인륜도덕’의 재정비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공자의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었다.
공자의 묘를 보존하는 것과 그 동상의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부
분에서 메이지 유학의 전개에 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글이 『수신학사총설』에 게재된 무렵, 사카타니는 자택에 완공된 사숙
인 춘애학사(春崖學舍)의 가구칙(仮規則)을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춘애학사의
강의 커리큘럼의 시작은 『역경(易經)』이었다.³⁷

IV. 맺음말

사카타니 시로시는 막부 말기 이래로 일관되게 회의와 공론에 따른 정치를 지향
해야 한다고 믿었던 인물이었다. 그가 『메이로쿠잡지』에서 보여준 다수의 민선

36 「孔子廟ヲ保存スル說」, 『修身學社叢說』 第6・7・9編, 明治 13年(1880) 10~11月, 16쪽.

37 「春崖學舍仮規則」, 『阪谷朗廬文書』,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 編, 148-18(明治 13年[1880] 9月).

의원 설립문제에 관한 논설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어디까지나 회의와 공론이라는 원리를 지키는 형태의 정치질서를 구상하고자 했던 그는 상하동치의 정체를 확립한다는 대전제를 확인하는 일에 중점을 두며 민선의원의 즉각적인 설립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카타니의 논의의 맥락을 고려할 때, 민선의원의 설립을 구실로 제각각의 요구 사항을 주장해대는 이른바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그의 회의적인 시선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1875년 4월에 「입헌정체수립(立憲政體樹立)의 조서(詔)」가 발표된 이상, 상하동치의 정체가 확립될 것임을 천황이 약속했다는 배경이 있었다. 약속된 입헌정체를 두고 여러 세력들의 추측과 기대가 난무하면서 불안정했던 메이지 초기의 정치 질서의 안정은 더욱 위협받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카타니의 관심은 올바른 ‘민권’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문제로 옮겨갔다. 그는 제도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인민 개개인의 지식의 신장과 의식의 개혁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민권론을 주장하는 운동가들의 다수가 정치적 이상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사로운 이익을 동기로 삼고 움직인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에 있다. 사카타니는 올바른 민권 확립을 위한 선결과제로 민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식견’과 ‘재정 능력’이 먼저 제대로 갖춰져야 함을 주장했다. 유학자인 그에게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학업’의 강조였다. 인격적인 수양이 동반되는 학문을 강조한 그는 일본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이 지닌 중요성을 지적하며 유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개혁의 방안들을 제안했다. 그래야만 인민 전체의 차원에서 올바른 민권 이해에 기초한 권리 행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카타니의 사례에 집중했지만, 민권운동의 진행과 더불어 양학 위주의 교육이 주류가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시세를 우려한 유학적 사고를 가진 지식인들은 이외에도 다수 존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니시무라 시게키는 1870년대 후반에 동경수신학사를 창설하였다. ‘수신’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학 교의에 입각한 단체였다. 기독교 세례를 받기도 한 나카무라 마사

나오[中村正直, 1832~1891]도 1870년대 중반 이후로 한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⁸ 이들 모두 사카타니와 같이 일본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한학으로 호명되는 유학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는 메이지유신 후 10여 년이 지난 무렵,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 통합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유학적 도덕관을 확고하게 가졌던 당시의 ‘일신이생’의 세대 지식인들이 내놓은 해결책들이었다. 그들이 유학의 색채를 다시금 짙게 드러낸 데에는 ‘도덕’적 가치, ‘품행’의 향상, ‘정신’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문명개화’ 국가로 거듭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통의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양의 문물과 제도가 자리 잡아 가던 메이지 10년, 즉 1877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유학의 어휘와 사고 틀을 동원한 이들의 주장은 이미 당대 젊은이들에게서도 낡은 것이라 여겨졌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사카타니와 같은 고령의 유학자는 메이로쿠샤 모임에서 지루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³⁹ 그는 당대에도 그리고 현대의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고루한’ 유학자라는 인상이 강했다. 나카무라의 한학 교육의 주장도 사실상 구세대의 논의로 치부되어 거의 채택되지 못했다. 유학적인 수신론에 바탕을 둔 니시무라의 활동도 다음 세대를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형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회적 대세는 이미 서양화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한 대세 속에서 과거의 학문이 되어 버린 유학에 기반을 둔 그들의 주장은 당시에도 이미 수수적 혹은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이 그들의 시도를 낡고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도 좋은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시도는 민선의원의 설립이 기정사실화

38 나카무라는 예를 들어 『東京學士會院雜誌』에 「四書素讀ノ論」(제3권 제2책), 「古典講習科乙部ニ就キ感アリ書シテ生徒ニ示ス」, 「漢學ヲ治ル工夫ヲ論ズ」(제5권), 「漢學不可廢論」(제9권 제4책) 등의 글을 발표하였다.

39 사카타니의 연설에 대해 “독어인지 영어인지 알 수도 없는 우스운 말(말을 섞어 쓰는 사카타니는) 그만 들어가도록 하라”며, “사카짱(坂ちゃん)의 불유쾌한 연기”는 “한 마디 들으면 하품이 세 번, 세 마디 들으면 두통이 생기면서 끝내 졸려워진다”는 악평을 쓴 투서가 『曙新聞』(1875. 5. 20)과 『日新真事誌』(1875. 5. 22)에 실렸다.

된 현실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뇌의 결과였다. 그때까지 치자(治者)의 위치에 서본 적 없는 압도적 다수의 개인들이 치자의 역할에 놓였을 때, 즉 민권을 통한 정치가 시작되려고 할 때, 개개인이 치자로서 갖춰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그들은 직면했던 것이다. 물론 조건의 핵심은 도덕이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제도 하에서도 유권자와 정치가들 모두 도덕성 문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사카타니와 메이로쿠샤 지식인들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참고문헌

사료

- 朱熹 撰, 1983, 『四書章句集註』, 中華書局.
- 広瀬順皓 編, 1987, 『近代演説討論集』 第6卷, ゆまに書房.
- 東京學士會院, 1977, 『東京學士會院雜誌』(復刻版), 鳳出版.
- 福澤諭吉, 1995, 『文明論之概略』, 岩波文庫.
-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2009, 『明六雜誌 上·中·下』, 岩波文庫.
- 山下五樹 編, 1990, 『阪谷朗廬先生書翰集』, 私家版(岡山).
- 山下五樹 編, 1993, 『朗廬先生宛諸氏書簡集』, 私家版(岡山).
- 羽賀祥二 編, 2007, 『洋々社談』(復刻版), ゆまに書房.
- 阪谷芳直, 1979, 『三代の系譜』, みすず書房.
- 후쿠자와 유키치, 2012, 『학문의 권장』, 소화출판.
- 斯邁爾斯 著·中村敬太郎 譯, 1870~1871, 『西國立志編』, 山田俊藏.
- 阪谷朗廬 著, 阪谷芳郎 編, 1893, 『朗廬全集』, 阪谷芳郎.
- Samuel Smiles, 2002, *Self-Help: with Illustrations of Character, Conduct and Persever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연구문헌

- 박훈, 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 大久保利謙, 2007, 『明六社』, 講談社學術文庫.
- 渡辺浩, 2016, 『増補新裝版 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 東京大学出版会.
- 牧原憲夫, 1998, 『客分と国民のあいだー近代民衆の政治意識』, 吉川弘文館.
- 山下五樹, 1995, 『岡山文庫177 阪谷朗廬の世界』, 日本文教出版.
- 松沢裕作, 2016, 『自由民権運動〈デモクラシー〉の夢と挫折』, 岩波新書.
- 李セボン, 2010, 「朱子学者阪谷素の「理」と天皇」, 『政治思想研究 政治思想と周縁・外部・マイノリティ』 第10号, 風行社.
- 河野有理, 2011, 『明六雜誌の政治思想－阪谷素と「道理」の挑戦』, 東京大学出版会.



자유민권운동 발흥을 향한 메이지 유학자의 시선 -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의 문제제기와 그 맥락

이세불

본 논문은 메이지 전반기에 자유민권운동의 발흥과 ‘一身二生’ 세대의 지식인들 중 유학자에게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갖고 고찰하고자 한다. 주인공은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라는 유학자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그의 메이로쿠샤[明六社]에서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는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에 다수의 논설을 기고했고 이것이 주로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사카타니는 『메이로쿠잡지』의 정간 이후에도 다른 잡지들을 통해 꾸준히 글을 남겼다. 본 논문은 이 시기의 글들, 즉 메이지 8년(1875) 이후 1881년의 사망 직전까지의 글들을 소재로 삼는다.

메이로쿠샤 시절의 사카타니는 민선의원 설립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는 ‘상하동치(上下同治)의 정체(政體)’를 확립한다는 큰 틀 안에서 민선의원 설립을 진행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메이로쿠잡지』에서의 그러한 논의가 이후의 논설들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면서 이후 그는 교육의 논의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한다. 이 배경에는 당시 고조되어가던 민권운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인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한다는 커다란 명분 아래, 개별 활동가나 참가자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의식을 갖고 모이는 경우가 많은 오합지졸적인 성격을 띠었다.

사카타니는 올바른 ‘민권’ 확립을 위한 선결 과제로서 ‘민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식견(識見)’과 ‘재정(裁定) 능력’이 먼저 제대로 갖춰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그는 특히 ‘학업’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수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유학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일본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이 지닌 중요성을 지적하며 유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개혁의 방안들을 제안했다.

본 논문은 이상의 내용을 통해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 정치체제의 정착 과정에서 유학이 지녔던 의미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메이로쿠샤, 유학, 사카타니 시로시, 민선의원, 민권, 자유민권운동

ABSTRACT



A Meiji Confucian's View on the Rise of the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 Sakatani Shiroshi's Doubts and Its Context

Lee Saebom

The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 in Meiji Japan is said to have had several goals: the formation of an elected legislature, revision of the Unequal Trea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the institution of civil rights, the reduction of centralized taxation, and other issues. The movement prompted the Meiji government to establish a constitution in 1889 and the Diet in 1890. In this context, many of its features have often been regarded as the signs of early democracy in Japan. However, recent studies show that as the movement was huge and complex, its democratic feature was not the only side of the whole.

This paper focuses on the thought of Sakatani Shiroshi (1822-1881), one of the Confucian intellectuals who had doubts about the qualification of the actual activists of the Movement. As a Confucian

scholar, he firmly believed that to establish people's right it was essential for those who take part in the movement to be properly educated first. He emphasized the need of cultivating the right discernment and judgment for people. By examining Sakatani's writings on this matter, this paper will offer clues to the meaning of Confucianism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modern political system in Japan.

Keywords: Meirokusha, Confucianism, Sakatani Shiroshi, popularly elected assembly, People's rights,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

‘일본의 신부 사건’의 재고찰

– 일본 메이지시대 그리스도교 지식인의 국가와 젠더

이은경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 I. 머리말: ‘일본의 신부 사건’ 재고찰의 이유
- II. 『일본의 신부』에 대한 비판과 논쟁
- III. 미일 여성에 대한 비교와 문제의식
- IV. 미일 여성의 비교, 의도와 오해
- V. 맺음말: 메이지시대 여성의 현실, 인식의 한계

I. 머리말: ‘일본의 신부 사건’ 재고찰의 이유

제국헌법 제정 공포(1889)에 이은 <교육칙어> 발표(1890), 이른바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불경사건’(1891)과 그에 이은 ‘교육과 종교의 충돌’(1893) 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19세기 말 근대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서구화·근대화를 지향하던 기존의 분위기에서 급격히 보수주의와 국수주의로 경도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국가주의자 혹은 불교도를 비롯한 비(非)그리스도인에게 충군애국에 반하는 사상으로 의심받았고, 심지어 그리스도교도는 국적(國賊)이라는 비난을 마주해야 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이른바 ‘일본의 신부 사건(日本の花嫁事件, 이하 ‘사건’)은 이상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1893년 여름 다무라 나오오미(田村直臣, 1858~1934)가 자신의 영문 저서 *The Japanese Bride*를 뉴욕의 출판사(Harper & Brothers)에서 출간하고, 일본어 번역판 『日本の花嫁』(일본의 신부, 이하 『신부』)를 일본 국내 출판 규정에 따라 내무성에 제출했으나 발행금지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다. “안녕질서를 방해하고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였다. 그의 귀국과 저술 소식이 알려진 1893년 7월경부터 그리스도교계가 ‘동포참무죄(同胞讒誣罪)’라는 죄목으로 그의 교직 박탈을 결정하는 1894년 7월까지, 처음에는 다무라의 귀국에 환영을 표하던 그리스도교계는 『신부』의 내용이 알려지자 돌연 자세를 바꾸어 『복음신보(福音新報)』 및 『기독교신문(基督教新聞)』 등 매체를 중심으로 그와 그의 저서를

-
-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8월 3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 **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는 익명의 세 심사자뿐 아니라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은 <메이지유신 연구-국제사회의 시각과 국가주의> 연구팀에서의 토론, 그리고 2017년 6월 일본사학회 월례회 발표 당시 토론자로 참여한 박은영(성균관대) HK 연구교수의 조언과 자료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강하게 비판했다. 국수적 매체나 불교 관련 매체뿐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교인조차 한결같이 그의 태도와 저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다무라는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반박하면서 『신부』에 적은 자신의 주장을 대부분 견지했다. 이 상과 같이 그리스도교 관련 매체와 종교 법정을 중심으로 다무라와 그의 저서를 둘러싸고 약 1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일본의 신부 사건’이라고 한다.

다무라가 사건 당시 일본 그리스도교회의 중심적 인물이자 현역 목사였기 때문인지, 그동안 ‘사건’은 그리스도교사 연구자에 의해 근대 일본 그리스도교계 동향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제가 되었던 『신부』의 ‘내용’ 자체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다. 대개는 주로 당시 그리스도교 계열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다무라에 대해 어떠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앞서 소개했던 19세기 말 일본의 국가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 영향받은 그리스도교계의 히스테리한 반응이라고 해석하는 식이다.¹

그보다 수년 앞선 1889년, 동일한 저자가 일본인을 위해 일본어로 출판했던, 미일의 가족 및 여성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신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米國の婦人』(미국의 부인, 이하 『부인』)이 일본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와는 상반된 『신부』에 대한 반응을 1890년대 초반 급변한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국가주의·애국주의가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목사인 다무라의 일본 비판적인 저서의 내용과 냉소적이고 가벼운 행실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애국심을 결여한 비국민으로 오해 받을 것을 염려한 그리스도교계가 과해 보일 정도로 혹독하게 다무라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사건’ 전후의 다무라의 행적이나 ‘사건’에 대한 그의 회고적 발언 등을 참고하여, 그가 당시 ‘가족주의적 국가주의’에 압도되었던 일본 사회 및 그리스도교계의 분위기에 대항하여 일본의 가족주의적 질서와 권위에

1 土肥昭夫, 2012, 『天皇とキリスト教』, 新教出版社, 383쪽.

‘저항’하려 했던 것이라고, 다무라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² 최근에는 다무라의 미국 유학생활 혹은 ‘사건’ 발생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반응을 살피는 등, 주로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에 접근하려는 시도도 보인다.³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가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나 전개과정, 그로 인한 영향과 무엇보다 다무라라는 독특한 인물에 대한 관심에 치우쳐, 『신부』에 적힌 내용 자체 혹은 그 안에 담긴 ‘여성상(像)’이나 메시지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즉, 다무라의 저술에 담긴 미국 여성의 지위나 생활에 관한 관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부』의 주된 내용이-미국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당시 일본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에서의 역할 혹은 남녀관계와 결혼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었는데도, 일본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는커녕, 그 안에 그려진 일본 여성의 실상에도 거의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대개는 이 책이 당시 일본 그리스도교계와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혹은 어떠한 사안이 논란의 쟁점이 되었는지와 같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사건’ 당시 그리스도교계의 공격의 초점이, ‘여성’이 아닌 일본이라는 ‘국가’와의 관련성에 집중되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일본의 신부 사건’을 다루되 이상과 같은 메이지시대, 특히 보수화하는 1890년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도-그동안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달리-젠더적 관점에서 『신부』라는 텍스트의 내용 자체에 주목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부』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당시의 논쟁

2 武田清子, 2001, 「二 横浜バンドの女性観: 『日本の花嫁』事件をめぐって」, 『植村正久 その思想的考察』, 教文館; 武田清子, 1967, 「田村直臣に見る家族主義 道徳の批判」, 『人間観の相剋』, 弘文堂新社, 283쪽.

3 梅本順子, 2008, 9, 「田村直臣と花嫁事件: 米人宣教師の報告を中心にして」, 『国際関係研究』(日本大学) 29-2; 戸田徹子, 1997, 3, 「田村直臣のアメリカ体験と『日本の花嫁』」, 『山梨県立女子短大紀要』 30.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발행되었던 『부인』의 내용을 함께 고찰할 것인데, 이것이 종래 연구와 변별되는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여성 및 가족의 모습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하려던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무라가 본래 가진 의도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왜 그의 저서와 주장이 당대인에게 이해받기는커녕 파문에 이를 정도로 교계로부터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 그의 저술의 내용과 집필 방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논쟁이 이루어진 시기가 정치적으로 보수화하는 시기였을 뿐 아니라, 아직 이른바 ‘메이지민법’(1898)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메이지유신 직후인 1871년 이른바 호적법이 제정되었고, 1890년의 이른바 ‘민법전논쟁’⁴을 거쳐 1898년에는 부부동성(夫婦同姓), 가독(家督)상속, 호주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에[家]제도와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간통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법이 제정·실시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는 메이지민법을 통해 근대 일본의 가족제도가 확정되기 이전의, 즉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과도기적’ 가족 및 여성의 모습이 존재했던 시기로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건’이 낯선 주제인 만큼, 역사적으로 그리고 젠더적인 관점에서 『신부』 및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과 접근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다무라 나오오미라는 인물의 특징과 『신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후, 『신부』를 둘러싼 논쟁을 언론매체 및 교계의 종교재판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할 것이다. 이때 기존 연구에서 정리한 ‘사건’의 개요가 아닌, 되도록 일차사료를 필자가 직접 선

4 메이지 정부가 프랑스 법학자에게 의뢰하여 만든 민법전 초안을 1890년 공개하자, 법학자 호즈미 야쓰카[穂積八束] 등이 가족법 부분에 일본의 ‘이에[家]’가 중시되지 않았다며 시행의 연기를 주장했다.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측과 치열한 논쟁(민법전논쟁) 끝에 시행의 연기가 국회에서 결의되었고, 새로운 법전조사회가 설치되어 1896년에는 재산법 부분이, 1898년에는 가족법 부분이 제정, 공포되었다.

별하여 인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무라와 『신부』에 대한 비판 대부분이 집필의 의도나 주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자극적인 표현이나 일부 사례에 대한 단락적인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한다.

제3장에서는 본고의 주된 관심인 『신부』에 담긴 내용, 특히 다무라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 일본 여성의 모습과 그가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부인』을 『신부』와 교차하면서 읽을 것이다.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일관된 내용과 주장을 담은 사실상 ‘하나의’ 텍스트로 다루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여성 및 가족을 비교함으로써, 다무라가 일본 사회에 궁극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무라가 시도했던 일본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는 커녕, 그에 대한 비판과 교계에서의 축출로 이어졌던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신부』의 내용 및 이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부인』의 내용까지를 더하여 19세기 말 일본 남성 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친 일본 여성의 생활과 지위의 실상을 접할 것이며, 그 안에 드러나는 여성 인식의 실제와 한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일본인 남성의 눈에 비친 미국 여성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덤’으로, 그 실상 혹은 진위 규명은 본고의 몫이 아니다. 다만 다무라의 미국 여성 관련 기술을 모두 사실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만은 지적해둔다.

II. 『일본의 신부』에 대한 비판과 논쟁

1. 다무라 나오오미와 『일본의 신부』

다무라는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나 소년시대에는 병학교(兵学校)에서 수학한 적이 있으며 사숙(私塾) 등에서 영어를 배웠다. 1873년 도쿄로 진출하여 쓰키지

[築地]대학에 입학, 이듬해 4월에 세례를 받고 같은 해 10월 도쿄제일장로교회를 설립했다. 1877년 10월 도쿄일치신학교(東京一致神學校)에 편입하여 1879년 졸업한 후 긴자[銀座]교회 목사가 되었다. 1882년에는 미국에 유학하여 오번신학교(Auburn Theological Seminary)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수학하였고, 1886년 귀국하여 스기야바시[数寄屋橋]교회(과거의 긴자교회) 목사가 되었다. 유학 전인 1877년경 이미 남녀동권론을 주장했던 바 있으며, 유학 중에는 일본에 관한 내용의 강연 요청이 이어져 상당한 수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서양인의 큰 관심을 확인했다. 강연의 기회와 경제적 운택함을 배경으로 미국 내를 자주 여행할 수 있었고, 활달한 성격 덕택에 서양 여성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많았다.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해 더욱 열린 인식을 갖게 되었던 듯, 귀국 후인 1899년에는 자신과 결혼 예정이던 에이를 미국으로 유학시켜 미국의 가정을 경험하게 했다.⁵

이러한 경험의 축적 위에 다무라는 1889년 미국의 여성과 가족 등에 관해 일본어로 집필한 『미국의 부인』을 일본에서 출판했다.⁶ 그리고 그 후속으로 일본 여성을 미국의 여성과 비교함으로써 ‘미국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영문으로 저술한 것이 『신부』, 즉 *The Japanese Bride*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외국인 저자들이 제대로 다룬 적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인은 외부에 드러내기 꺼려하는 일본 가정생활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그려내겠노라고 천명했다.⁷

『신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는 각각의 장(章)을 표시하는 것이며, 괄호 안은 각 장의 제목이다.

-
- 5 戸田徹子, 1997, 3, 앞의 글, 79~80쪽.
 - 6 田村直臣, 1889, 『米国の婦人』, 秀英舎. 그는 집필의 목적으로 첫째, “부패의 극점에 달했다고까지 여겨지는 남녀교제의 길도 그리스도교의 도덕에 따르면 순정결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 둘째, “미국에서의 남녀교제의 길이나 혼인의 방법과 일본에서의 남녀교제와 혼인 방법의 사이에 천양지차가 있는 것은 심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을 들었다.
 - 7 Naomi Tamura, 1893, *The Japanese Bride*, Harper & Brothers, p. v.

- 1) <결혼의 목적> 일본에서의 결혼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가계를 잇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여성은 어릴 때부터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주입받으며, 사회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간주된다.
- 2) <교제> 일본에서는 이성과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결혼 상대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3) <중매인> 중매인[仲人]의 도움 없이는 결혼이 불가능하며, 그들은 결혼 후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4~5) <결혼 준비> <결혼식> 딸을 결혼시키는 데에는 큰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결혼한 여성은 외견상 자신이 기혼임을 드러내는 표식을 해야 하며,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결혼 후 신부는 이름[姓-인용자]이 바뀐다.
- 6) <허니문> ‘허니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부가 밖에서 애정을 표하는 일도 없다.
- 7) <결혼 후의 신랑과 신부> 결혼 후에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늙은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다. 시어머니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으며, 신부는 가정에서 여왕보다 ‘하녀’에 가깝다. 남자가 아내를 여러 번 바꾸는 일은 드물지 않으며, 남편이 첩을 데려와도 아내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며, 게이샤나 공창이 존재하는 한 여성의 지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남편이 다른 여성을 원하거나,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이혼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기에 남편에게 포악한 대우를 받기도 쉽다.
- 8) <어머니와 할머니> 아이를 낳으면 집안에서 비로소 위상이 달라지지만, 권위가 없어서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성에게는 재산권이 없어서, 신부가 결혼 시 지참했던 재산조차도 남편의 것이 되며, 남편이 죽으면 장남에게 상속된다. 이혼 시에는 자녀도 남편의 것이 된다. 여성은 어려서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 노년이 되어 은거하게 되면 비로소 친절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 일본의 여성의 생활은 고달프기만 하다.⁸⁾

‘일본의 신부’라는 제목에 걸맞게, 대체로 일본의 ‘결혼’ 및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그 안에서 여성의 생활과 지위가 어떠한지를 다룬다. 요약문에서는 생략했지만, 곳곳에 다무라 자신의 미국 유학 중의 경험담이나 직접 목격했던 미국 여성과의 비교가 담겨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일본 여성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본인은 유머라고 강변했지만-냉소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매체를 통한 논쟁과 비판

일본에서 『일본의 신부』를 지면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893년 7월 22일 *The Japan Weekly Mail*로 보이며, 이후 『요로즈초호[萬朝報]』(7. 29), 『복음신보』(8. 18), 『기독교신문』(8. 25) 등에서도 잇달아 이를 다루었는데, 한결같이 『신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다. 이들이 지적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일본의 신부』에 담긴 일부 내용이 거짓이다. 둘째, 사실인 경우에도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셋째, 추태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과거의 일에 불과하다. 넷째, 지적된 단점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섯째, 문장과 태도가 불손하다. 여섯째, 설령 추태가 있을지라도 이는 나라의 체면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숨길 일이지 널리 알릴 내용은 아니다.

여섯 가지로 『일본의 신부』에 쏟아진 비판의 내용을 필자 나름으로 정리해 보았지만, 결국 이 모든 불만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의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굳이 이 책을, 심지어 ‘영어’로 집필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반응은 본래 다무라가 『신부』를 통해 ‘가족’이나 ‘여성’에 대해 전하려 했던 메시지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신부』의 내용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그 가치를 ‘평가’하는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8 요약은 필자.

사실상 ‘여성’ 혹은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일본의 ‘추태’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거짓이든 과장이든,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로 착각하게 적었던 문장과 태도가 불량하든, 이 모든 것이 ‘영어로 서양인을 향해 쓰였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듯하다. 이는 유사한 내용이 『부인』이라는 ‘일본어’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신부』의 내용에 거짓이나 오류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영어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일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 국가주의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그리스도인의 애국심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목사’된 자가 일본의 추태를 굳이 외국인에게 고발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었고,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이는 아마 『신부』의 정식 일본어 번역본이 출간되지 못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⁹

다무라는 쏟아지는 비난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교계의 비난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 같은 해 9월 1일자 『복음신보』에 반박문을 발송했는데, 자신에 대한 교계의 비난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정리했다. 첫째, ‘중등 이하’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본 국민의 현재 상황이라고 [왜곡]했다. 둘째, 일본인은 사랑과 금수적 정욕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다. 셋째, 일본의 아버지가 독재군주와 같다고 했다. 넷째, 18세에는 결혼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아버지는 딸의 나이를 어리다고 속이거나 딸의 결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등이다.¹⁰

9 미국에서 영문판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7월에 일본에 전해졌고 10월에 일본어 번역판 출판을 위해 내무성에 제출했으나 10월 18일자로 발행금지 처분을 받았기에, 『신부』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영문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측된다. 『田村直臣 日本の花嫁・米国の婦人資料集』(藤澤全·梅本順子 編, 2003, 『田村直臣 日本の花嫁・米国の婦人資料集』, 大空社)에 수록된 일본어 번역문도 현대의 다무라 연구자 우메모토 준코[梅本順子]의 것으로, 다무라의 일본어 번역본의 존재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10 다무라 스스로도 『신부』의 가족과 여성에 관한 주된 논지나 문제의식과는 별 상관

다무라는 “고상(高尚)한 목적도 없이 오히려 재미 반 골계(滑稽) 반으로 쓴 거라고는 생각지 마시라”고 일갈한 후, 『신부』는 자신이 수개월간 가슴에 담았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수차례 친구에게 묻고 지인에게 문의하여 수집한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신부』에서 소개한 결혼 예식은 결코 ‘중등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은 ‘중등 이상’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프랑스의 기자가 일본 여성을 ‘추업추태(醜業醜態)’의 무리로 그렸고, 일본 여성에 대해 영어로 집필된 또 다른 저서들에서는 일본 여성을 궁녀처럼 다루거나(Alice Mabel Bacon, *Japanese Girls and Wom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1[2015]), 반대로 높이 상찬하면서 불교의 감화를 그리스도교가 따를 수 없다고 표현했다(Sir Edwin Arnold, *Japonica*, London: J.R. Osgood, 1891)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들로 인해 생기는 일본 여성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 자신은 ‘중등’ 여성의 상태를 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¹¹

그는 남녀가 서로 반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 부도덕한 느낌을 갖는 것이 일본인에게 일반적이지 않은가, 과연 청결한 ‘러브’를 아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또한 저자 자신도 현재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왜 이를 부인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일본인이 18세가 되면 대개 결혼하는 것이 사실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주변에 과년한 딸의 나이를 속이거나, 결혼시키는 데만 급급할 뿐 딸의 장래에 대해 생각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신부』는 사실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서양인의 저술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¹² 이쯤 되면 『신

이 없는 내용을 들어 변론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책의 논지나 논리와는 상관없는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교육지책이라 생각되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진 수많은 비판들 가운데 이러한 주변적이고 사소한 사례를 논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다무라 자신도 사태의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11 『福音新報』, 1893. 9. 1(杉井六郎校, 「小沢三郎編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資料(六): 田村直臣의 『日本の花嫁』事件(一)」), 235~236쪽.

12 『福音新報』, 1893. 9. 1, 236~237쪽. 그는 줄곧 『신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비난의 큰 이유가 되었던 [냉소적인] ‘어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부』에 대한 흠잡기 식의 비판에 대응하느라, 다무라 자신도 본래의 논지와 문제 의식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같은 무렵 교계의 가게야마 나베키치[景山鍋吉]와 다가와 다이키치로[田川大吉郎]라는 두 청년이 『신부』의 내용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다무라를 방문했다. 그의 주장과 이에 대한 교계의 비판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직접 『신부』를 읽은 후 저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신문의 비판 기사와 대조하여 올바른 방향을 찾겠다는 목적이었다.¹³

다무라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신부』의 내용과 집필 동기 등을 역설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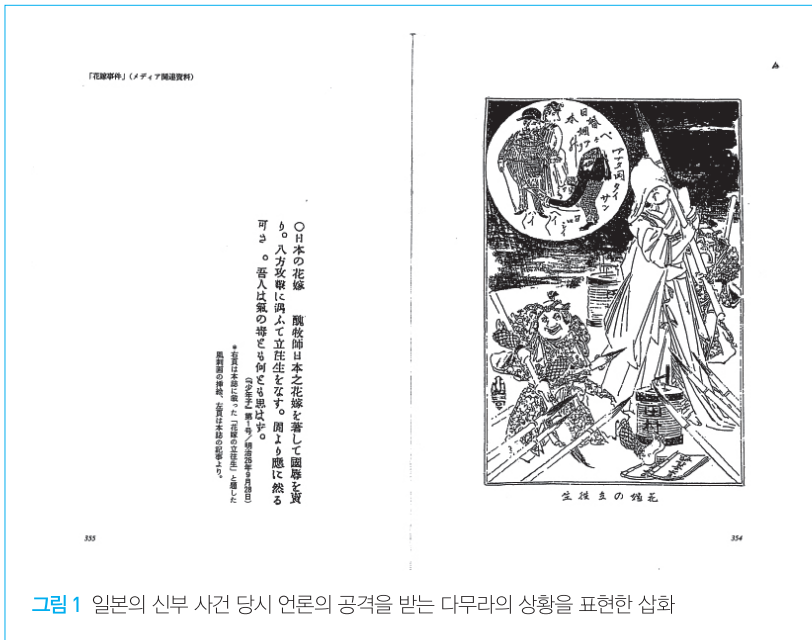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신부 사건 당시 언론의 공격을 받는 다무라의 상황을 표현한 삽화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집필 과정에서 서양인 두 명에게서 교정을 받았고 여러 지인의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근거로 내용의 신뢰성을 강변했다.

13 『福音新報』, 1893, 9. 22(杉井六郎校, 「小沢三郎編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資料(七): 田村直臣の『日本の花嫁』事件(二)」), 193~194쪽.

그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던 듯하다. 두 청년의 결론은 “첫째, 우리는 이를 우리나라 과거 시대를 표현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내용 중 일본의 풍습을 찬미하는 정신이 관통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전편의 어조[調子]가 매우 야비함을 숨길 수 없다, 넷째, 사실의 오류가 심히 많다, 다섯째, 그 결과 국가의 품격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첫째, 목사를 사임할 것, 둘째, 『일본의 신부』를 절판시킬 것”을 주장했다.¹⁴ 그 외에도 다무라를 죽일 때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나타났으며, 익명의 투서와 협박장도 이어졌기에 다무라를 위한 호위대가 필요해질 정도였다. 일본 여성이 처한 어려움을 고발한 책이었음에도 일본 그리스도교계의 대표적인 여성 조직인 교풍회(日本基督教婦人矯風會)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다무라를 이해하거나 지지하는 이는 찾기 힘들었다.¹⁵

3. 종교 법정에서의 논쟁과 결론

1893년 10월 <제일도교중회(第一東京中會)>에 제출된 다무라에 대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의 기술이 “체제(體制)를 경조부박(輕佻浮薄)하게 다루고, 허구와 사실을 섞어서 멋대로 일본 인민의 치욕이 될 내용을 기록했다. 이는 동포를 참무(讒誣)한 것으로 일본그리스도교회 목사(日本基督敎會敎師)의 직을 더럽혔다”¹⁶는 이유를 들어, 다무라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 중 고소의

14 『福音新報』, 1893. 9. 22, 200쪽.

15 武田清子, 1967, 앞의 글, 285쪽. 다케다는 자신의 인터뷰를 근거로 당시 유일하게 다무라를 찾아 위로한 교계의 인물은 이전 이른바 ‘불경사건’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우치무라 간조였다고 쓰고 있지만(武田清子, 2001, 앞의 글, 32쪽), 우치무라 자신은 1894년 7월 다무라에게 교계로부터의 축출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일본을 위해, 그리스도교회를 위해’ 크게 만족한다고 적었다(内村鑑三, 1982, 『内村鑑三全集』 3, 岩波書店, 12~18쪽).

16 「第一東京中會記録抄略」(杉井六郎校, 「小沢三郎編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資料(八): 田村直臣の『日本の花嫁』事件(三)」), 198쪽, 일본 그리스도교사 연구자

근거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일본인의 덕의(德義)는 매우 바리새인적으로, 즉 형식만 존중하고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
- ② “우리(일본인)는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직껏 순수한 부부간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
- ③ “아버지가 된 자가 딸을 시집보낼 때에는 딸의 장래 행복이나 번영을 돌아보지 않는다.”
- ④ “많은 일본인이 아버지를 부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습은 오로지 도덕만을 강조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일본인)는 마음에 기겁지 않더라도 하나의 의무로서 부모를 부양한다.”
- ⑤ “그러므로 그 딸이 시집을 갈 때는 마치 침대나 식탁과 같이 건네진다.”¹⁷

공방 끝에 결국 이러한 고발이 받아들여진 듯, 중회에서는 “다무라 나오오미를 견책하고 심하게 장래를 경계하여, 견책을 받은 [대로] 적당한 정오문(正誤文)을 위원에게 작성하게 하여 내외의 주요 신문에 광고하도록 권고할 것”을 가결하였다.¹⁸ 하지만 본래 다무라와 친분이 있었던 교계의 중심,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요코이 도키오[横井時雄]·이와모토 요시하루[巖本善治] 등은

인 박은영은, 당시 고소장에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부카 가지노스케, 아마모토 히데테루[山本秀煌], 구마노 유시치[熊野雄七]가 메이지학원의 중심인물로 자영관을 운영하던 다무라와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나,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 역시 당시 교파합동문제와 관련하여 다무라와 갈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배후로서 당시 그리스도교계의 권력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7 「第一東京中會記錄抄略」, 198쪽.

18 「明治二十七年七月 日本基督教会 第九回大会記錄」(杉井六郎校, 「小沢三郎編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資料(八): 田村直臣の『日本の花嫁』事件(三)」), 199~200쪽.

이에 더하여 다무라의 사직을 권고했다.¹⁹

이듬해인 1894년 7월 다무라는 <일본그리스도교회 제9회 대회>에 상고서를 제출했다.²⁰ 그는 “『일본의 신부』는 동포를 참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의 간접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저자의 일신(一身)이 그 증거다”로서, 저자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도이자 성직자라는 것이다. 둘째, “저자의 목적이 그 증거다”로서, 글의 목적이 목사로서 불교가 가장 미친 영향(感化)이 해롭다는 것을 적으려 한 것이다. 셋째, “책을 쓰기까지의 역사가 그 증거다”로서, 오래전부터 아내와 구상했고 지인들에게 사전에 교열을 청했으나 참무라고 지적한 바가 없다. 넷째, “하피출판사가 그 증거다”로서, 이 책의 출판사는 미국 유수의 출판사로 법률가의 검토도 받는 바, 동포를 참무하는 책을 출판할 리가 없다.

다섯째, “저서가 원고료를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그 증거다”로서, 필자가 이 책에서 일 전 일 푼도 이익을 얻지 않고 모두 청년들을 위한 자영관(自營館)에

19 다무라의 사직을 권고하기로 한 것은 그의 저서가 전도사업에 해가 되고, 기재 내용 역시 목사로서 기술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日本』 1893. 9. 18(杉井六郎校, 「小沢三郎編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資料(六): 田村直臣의 『日本の花嫁』事件(一)」), 246쪽.

20 상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사회의 풍속 및 관습에 관해서는 필자가 공격이든 상찬이든 비평할 수 있고 독자는 그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법인데, 이를 중회가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둘째, 남을 참무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과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자에게는 일본인을 해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참무죄로 단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 셋째, 저서에 대해 고소할 때는 원고(原告)가 증거 및 증인을 제출해야 하나 고소인들이 이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회는 내용적 증거도 없이 판결했다. 넷째, 피고가 증인의 소환 및 증거서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 다섯째, 참무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가 동수였으나 의장이 자기 의견으로 참무라 결정했다. 여섯째, 의결 참석 의원 다수가 책을 읽지도 않고 원고가 말하는 바를 믿고 결정한 것이며, 고소 원인이 영문 해석상의 문제인데 영문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판정한 것이다. 일곱째, 원고에게 문제[不都合]가 있으면 중회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규정상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덟째, 피고에게 국내의 신문에 정오문(正誤文)을 게재하라고 한 것은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징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明治二十七年七月日 本基督教会 第九回大会記録」, 199~200쪽).

기부하는데, 동포를 참무하여 이러한 애국적 사업을 할 리가 없다. 여섯째, “본서에 일본의 미풍(美風)을 적은 것이 그 증거다”로서, 본서 중에 일본의 미풍을 칭양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참무가 집필의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다. 일곱째, “원고가 참무자(讒誣者)라는 사실이 그 증거다”로서, 원고가 본서가 자국을 비방·참무한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할 말이 많으나 자신이 일부러 이를 피하였다고, 즉 진정한 참무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고발한 원고라고 주장했다.²¹ 불교의 해악을 밝히려 했다는 글의 목적을 언급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이미 논점은 책의 내용에서 벗어나 논란 중의 절차나 피고와 원고의 태도 등에 관한 것으로 집중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다무라는 고소장에 쓰인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변론을, 자신이 결백하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으려 했다. 첫째, “일본인의 덕의(德義)는 매우 바리새인적으로, 즉 형식만 존중하고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전후 관계를 살펴야 하며 자신이 본래 말하려는 것은 “만일 한 나라(一國)에 그리스도의 감화가 없다면 외견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미(美)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교사(목사)로서 이 말을 한 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라고 이를 참무라고 하는가”라고 항변했다. 둘째, “우리(일본인)는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직껏 순수한 부부간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어찌 순수한 사랑이 있겠는가라고 나는 강하게 믿는다. 그리스도교 신도인 부부 외에는 결코 순수한 사랑을 아는 자가 없다고 나는 항상 이를 공언했다. 반드시 참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셋째, “아버지가 된 자가 딸을 시집보낼 때에는 그들의 장래의 행복이나 번영을 돌아보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모가 그 자녀의 결혼에 전력을 다

21 「明治二十七年七月 日本基督教会 第九回大会記録」, 201~203쪽. 일곱 번째 내용은 이른바 ‘무고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자로서는 『부인』과 『신부』를 꼼꼼히 읽었음에도, 일본의 ‘미풍’을 칭양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하는 데 비하여 그 외의 것을 살피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것을 말한 것”라고 설명하면서, 여자가 두세 번 결혼하는데도 부모가 크게 염려하지 않는 일본의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기술이 참무이기보다 ‘사실’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넷째, “많은 일본인은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습은 오로지 도덕만을 강조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일본인)는 마음에서 기겁지 않더라도 하나의 의무로서 부모를 부양한다”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미가 “[제한적으로라도] 부모가 활발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부양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특히 “feel unwilling을 그대로 ‘좋아하지 않는다(不好)’라고 번역한 것은 결코 온당한 번역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 딸이 시집을 갈 때는 마치 침대나 식탁과 같이 건네진다”에 대해 다무라는 “원고는 영문을 해석하지 못하는가”라고 불평하면서, 이는 앞선 내용의 서술에 덧붙여 “하등한 인사(人士) 중에는 혹 딸을 결혼시킬 때 이를 침대나 식탁을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²² 그러나 다무라의 해명과 반박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그의 교직(목사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22 해당 내용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me have the very low idea that when a woman is married she is given to her husband by her father. When a father wants to have his daughter married, he will say, “I want to give away my daughter,” and a person who is going to marry will say, “I will take her.” Therefore, she is given to him when she is married just like a bed or a table. Hence her husband has a right to do anything with her, and if she does not wish to obey, it is a simple process to return her to her father, who is the original owner.” (Naomi Tamura, 1893, *op. cit.*, p. 74.) 이상의 영어 원문을 볼 때, 다무라의 반박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Ⅲ. 미일 여성에 대한 비교와 문제의식

1. 『일본의 신부』와 『미국의 부인』

재판 결과가 말해주듯, 일본을 ‘참무’하기 위해 『신부』를 집필한 것이 아니라는 다무라의 변론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혹은 사회적 고려를 배제하고, 본고의 주된 관심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부』의 텍스트를 검토해볼 때, 그가 본래 주장하려 했던 여성론이 책을 통해서도 그리고 논쟁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다는 점은, 앞서 거듭 지적했던 바와 같다. 『신부』의 주된 내용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 아니라 일부 희화적인 표현에 대한 트집, 진 후 맥락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쏟아졌고, 다무라 자신도 본래 전하려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망각했던 것으로 보일 정도다.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신부』를 통해 전하려 했던 가족과 여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펼 엄두도 내지 못했거나, 본래 논리적인 사고에 취약했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본고의 제2장에서 『신부』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쟁의 주된 논점을 정리했음에도, 여전히 다무라가 『신부』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가족 혹은 여성에 관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이하에서는 당시 논쟁의 과정에서는 무시되었던 다무라의 본래 집필의도와 주장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근대 일본의 남성 그리스도교인 중 여성에 대해 가장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고 또 개방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다무라가, 실제로 어떠한 여성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신부』의 내용에 더하여 그보다 4년 앞서 출간했던 『부인』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려 한다. 두 책의 내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다무라 자신도 인정했던 바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용된 에피소드의 다수가 일치하지만 전부는 아니며, 같은 에피소드의 경우에도 분량의 배분이나 서술의 상세함 등은 차이가 있다. 일본을 향해 미국 여성을 소개하려던 『부인』과 미국을 향

해 일본 여성을 소개하려던 『신부』가, 서로 다른 표현방식을 구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부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는 각각의 장(章)을 표시하는 것이며, 괄호 안은 각 장의 제목이다.

- 1) 〈신체의 체격과 의상〉 미국 여성은 키가 크고 일본에 비해 미인이며,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답답한 의상, 긴 장갑 등이 특징이다. 스스로 머리를 관리하고 다양한 모자, 액세서리 등 외적인 치장에 돈을 쓴다.
- 2) 〈부인의 대우〉 미국은 여성에게 낙원이다. 미국의 남성은 항상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과 함께가 아니면 어디서나 대접받지 못한다.
- 3) 〈남녀의 교제〉 미국 남성은 여성과 교제를 잘해야 인정받는다. 어릴 때부터 여성을 접하는 법을 배우며, 여성과 친밀해지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고 대화와 매너 등을 배워야 한다.
- 4) 〈혼인의 절차〉 미국에서는 중매가 아닌 자유결혼을 한다. 외모로는 결혼 여부나 나이를 알 수 없고, 남성이 여성과 여성의 친구 및 가족의 마음을 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은 인간의 대륜(大倫)으로서 가장 중시되며, 순결한 마음과 사랑에 기초하여 신 앞에서 이루어진다. 결혼은 남녀 당사자에 의한 프로포즈, 약혼, 결혼식, 허니문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일본에 비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된다.
- 5) 〈가족의 사정[內幕]〉 미국의 좋은 가족은 마치 ‘기독교의 천국이나 신의 나라’와 같다. 허니문이라는 일생일대의 행복한 여행으로 시작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은 길지만 유쾌하다. 가족에도 엄격한 규율이 있고, 남녀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특히 여성은 가정을 다스리는 여왕으로 군림한다. 여성에게도 이혼의 권리가 있으며, 결혼기념일을 지킨다. 여성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좋은 가족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²³

이하에서는 이상 두 권의 내용을 교차시켜 독해함으로써, 첫째, 그가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본의 가족과 특히 여성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주된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해 살피고, 둘째, 이상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 다무라의 주장이 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오해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비교를 통한 일본 여성의 현실 고찰

다무라가 『부인』과 『신부』를 통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매우 다채롭지만, 필자는 이를 여성의 외모, 결혼, 능력, 지위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특히 미국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당시 다무라가 가지고 있던 일본 여성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1) 외모와 패션

다무라는 일찍부터 자신이 일본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렸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여성에 대해 개방적 시각의 소유자 나아가 남녀동권론자임을 거듭 밝혔다.²⁴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이 여성의 외모에 관심을 갖거나 예쁜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당연(『부인』, 6쪽)하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시로 미일 여성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비교하여 묘사하거나 평가했다. 미일 여성의 생김이나 의상, 액세서리와 행동거지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도 제법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지금이라면 여성의 외모에 대한 집착이나 평가는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여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

23 요약은 필자.

24 武田清子, 1967, 앞의 글, 283쪽.

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미일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노골적인 비교와 품평을, 당대의 다른 일본 남성들과 구별되는 여성에 대한 다무라 자신만의 선진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착각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남성으로서 여성의 외모나 패션 등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묘사하며 비교하는 것은, 평소부터 여성에 대한 상당한 관찰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무라에 따르면, 스타일이 자유롭고 자기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미국 여성에 비해, 일본 여성의 머리 스타일은 기름투성이에 냄새가 나는데다 관리에 돈도 들고 수면 시에 모양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부인』, 4쪽). 일본 여성의 자연스러운 화장에 비하면 미국 여성의 화장은 ‘석회집[石灰屋]’ 직원과 같이 허영고(『부인』, 5쪽), ‘어떻게 세 끼 식사가 저 좁은 곳을 통과할까’(『부인』, 6쪽) 의문이 생길 정도로 가는 허리를 강조한다. 그러한 의상 때문에 미국 여성이 환자가 더 많고 암내[脇香]도 더 많이 나는 반면, 일본 여성의 의상은 가벼워서 장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부인』, 11쪽). 미국 여성이 눈에 보이는 장식에 많은 돈을 쓴다면, 일본 여성의 의상은 안 보이는 곳에 돈을 쓴다는 차이가 있다(『부인』, 9쪽). 딱히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판단이 대부분이지만, 그가 여성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다무라는 패션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자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열거하면서도 외모 즉 생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정했다. “절세미인[別嬪]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으로, 아무리 일본 여성이 발버둥을 쳐도 따라갈 수 없다”(『부인』, 14쪽). 그는 설령 일본인 유부남이라 해도 미국의 미인과 마주치면 정신줄을 놓고 10분 이상 쳐다보게 될 정도라고, 미국 여성의 미모를 상찬했다. 일본 여성의 키는 5척 이하로 6척도 드물지 않은 미국 여성에 비해 상당히 작고(『부인』, 2쪽), 심지어 일본 남성들과 비교해서도 외모가 뒤떨어진다는(『신부』, 26쪽)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 그나마 일본 여성은 40세가 넘어도 미인이라 할 수 있지만, 미국 여성은 30세만 넘어도 꽃이 시들 듯 색이 바랜다(『부인』, 15쪽)는 점이 아쉬웠다.

양국 여성의 외모에 관한 다무라의 관심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일본 여성은 밀어버린 눈썹이나 검은 이[黒齒] 혹은 의상 등으로 쉽게 기혼 여부를 알 수 있는 데 반해, 미국 여성의 경우 ‘외모만으로 기혼 여부 혹은 커플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신부』, 37·38쪽; 『신부』, 57쪽). 미국에서는 남성 독신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을 때에도 기혼 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에 거듭 불만을 표하면서, 다무라는 미국 여성도 외적으로 기혼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부』, 49쪽). 심지어 상대가 미혼이라고 확인된 경우에도 “[여성] 언제나 꽃”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나이를 물을 수 없는 것 역시, 다무라가 미국의 남녀 관계에 대해 남성으로서 갖는 불만이었다(『신부』, 61~62쪽).

이상과 같은 다무라의 미국 여성을 향한 바람과 불만은, 그가 여전히 여성을 남성의 결혼 상대로만 파악하고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을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전통적인 일본 남성의 여성관을 내재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당시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보통의 일본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과 비판도 분명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다무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남녀 당사자 스스로 결혼 상대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그러한 ‘자유결혼’을 위해서는 특히 ‘남성’이 상대의 결혼 여부를 재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결혼을 전제한다면, 이제부터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아 결혼이라는 과업을 이뤄야 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최소한 미혼 여성을 빨리 파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나름의 ‘소박한’ 바람을 표출했던 것이라고, 현대의 관점에서는 다소 촌스러워 보이는 그의 여성관을 변호할 수도 있는 셈이다.

2) 결혼의 의미

다무라의 두 저서를 통해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 혹은 그가 미국 경험 중에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일본에서와는 전혀 다른 미국인의 결혼과 가족의 모습이었다. 미국을 방문한다면 철도나 높은 건물, 엘리베이터나 활발한 상업과 같은 문명개화보다 ‘가족’의 모습이 가장 놀라울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부인』, 107쪽). 그에 따르면 이것은 진정한 ‘자유결혼’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나이가 찬 아들을 둔 부모가 중매인을 통해 며느리를 찾는, 결혼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연애는커녕 결혼 전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을 한두 번 보기도 힘든 일본의 결혼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었다.

결혼과 관련하여 다무라가 미국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남성이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차이는’ 일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었다(『부인』, 83쪽). 미국에서 결혼이란 특히 남자에게 있어 “평생의 과업이자 대사업”으로, 당사자끼리 “서로 마음속을 잘 알고난 후에”(『부인』, 56쪽)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의 남성은 소년일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여성과 가까워져 어울리는 법을 배우며(『부인』, 32쪽),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아가 그 친구와 가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부인』, 72~74쪽). 이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연마하지 않으면 교제와 결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부인』, 51쪽). 결혼 후에는 아무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 허니문(honey-moon) 여행을 가는데, 이는 부부의 일생 중 가장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부인』, 108~109쪽).

반면 일본에서의 결혼이란, 미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무례하고 경박(無法なお手輕)”한 것이었다(『부인』, 83쪽). 결혼에 사랑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이를 경시하기까지 했다(『신부』, 2쪽). 중요한 것은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였으며 나이가 찬 자녀가 미혼인 채로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신부』, 3·8쪽). 하지만 당사자끼리의 자연스러운 교제나 연애는커녕 어릴 적부터 남녀로 격리되어 성장했기에, 아들을 둔 부모가 친구를 중개인으로 세워 며느리를 찾으면, 짧은 대면 정도가 결혼 전 남녀 관계의 전부이기 쉽다. 결혼에서 당사자보다는 부모, 부모보다는 중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결혼 문화를 남녀의 입장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일본 여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녀 당사자의 데이트는 기대할 수 없는데, 일본에서 여자는 남자 앞에서 침묵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이었다(『신부』, 17~18쪽). 결혼에는 특히 신부 측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딸 셋을 시집 보내면 집이 가난해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기에, 이것이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신부』, 33쪽). 심지어 “신부는 결혼 시에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하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신부』, 49쪽) 결혼 직후 신부를 기다리는 것은, 허니문이라 아니라 ‘비터문(bitter-moon)’이라 할 정도로 결혼은 여성에게 가혹한 시간의 시작이었다(『신부』, 56~58쪽).

다무라는 미국이 ‘남자에게 가장 결혼하기 어려운 나라’(『부인』, 81~82쪽)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일본에서의 결혼이 남성에게는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이라는 것, 나아가 여성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는 인식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한 부부가 탄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여성과 가까워지고 그 친구 및 가족들의 지지까지를 이끌어내는 등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정도의 ‘남성’ 측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일관되게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것이다.²⁵

3) 능력과 역할

다무라의 눈에 비친 미국의 여성은 규율이 엄격하게 존재하는 미국의 가족 안에서 “집안을 다스리는 여왕”으로 군림하며 작은 것까지 꼼꼼히 처리하는 존재였다(『부인』, 113~114쪽). “미국에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여자는 아내가 될 만한 품위[位]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낮에 읽은 신문의 내용을 남편에

25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의 외모만으로 기혼과 미혼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관된 그의 주장은, 이러한 ‘자유결혼’ 문화에서 힘들어 할 남성들을 향한 연민의 발로였던 셈이다. 중매인이 결혼을 주도한다면, 남성이 굳이 여성의 외모를 통해 기혼 여부를 파악하려 노력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게 이야기하거나, 식후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연주하여 피로한 남편을 위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부인』, 142~143쪽). 자녀가 억지를 부려도 지지 않고 바른 도리를 들려주거나 적절한 체벌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하는 등 자녀 교육도 담당했다. 성공한 미국인이 어머니의 성품[性質]이나 교육의 감화 덕택이라 고백하는 일이 많았던 것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부인』, 145~146쪽).

이러한 미국 여성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상찬은 그와 대조적인 일본 여성의 사정, 즉 무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무라는 미국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부러워하면서, “만일 일본인에게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면” 이라고 일본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 아쉬움을 표했다(『부인』, 147쪽). 다무라가 보기에 일본의 여성들은 육아에도 능숙하지 못했다. “Our mothers have no authority to command or control their children, and when they give a command their children do not pay any attention.”²⁶이라 할 정도로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에게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Our mothers know very little of the laws of health, so our children are generally very weak.”²⁷라며, 다무라는 자녀 병약의 원인을 어머니의 무지에서 찾기도 했다. 심지어는 “Most of the Japanese women could not support themselves by their own hands or heads, and must always depend upon their husbands.”²⁸라고 보았다.

가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 여성은 남성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불가능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바인데, 그는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Courting has no place in our social life. …… for our women are taught to

26 Naomi Tamura, 1893, *op. cit.*, p. 87.
 27 Naomi Tamura, 1893, *ibid.*, p. 88.
 28 Naomi Tamura, 1893, *ibid.*, p. 78.

be silent in the presence of gentlemen …… the Japanese woman is dumb in the presence of men, …… To your questions and remarks she will answer in monosyllables, and all of your skill and wit will not draw her out. What progress would a man make courting such a girl? But please do not despise the Japanese women for their stupidity. They are not trained for sociability.²⁹

다무라가 일본 여성의 침묵에 주목한 것은 미국에서의 데이트와 자유결혼에 자극을 받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자유결혼을 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남녀 간 즐거운 대화 즉 데이트가 불가능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다만 그는 ‘어리석음’과 ‘사교성’ 결여를 가지고 일본 여성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성 혹은 일본 사회가 여성의 역할을 평가하고 기대하기는커녕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We allow a woman to do nothing in social or political affairs. She is not considered fit to take any place of trust even in her own home. It is thought impossible for her to exert other than an evil influence over man.³⁰

이어서 다무라는 남자를 대하는 미국 여성의 지혜롭고 예의 바른 행실을 소개한 후, “만일 일본인이 이렇게 지혜로웠다면, 번거롭게 오늘날처럼 조약개정안을 만들어 일본과 협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참 전에 대등한 조약개정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부인』, 94쪽)라는 다소 과한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

29 Naomi Tamura, 1893, *ibid.*, pp. 17~18.

30 Naomi Tamura, 1893, *ibid.*, p. 13.

다. 일본의 남성은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인식마저 가지고 있지만, 미국 여성의 능력은 일본 남성을 능가한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는 능력의 우열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일본 여성에게도 미국 여성에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훈련과 기회가 제공된다면 남성과 대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위와 권리

다무라의 눈에 “여자에 대한 대우가 좋은 것은 미국이 세계 최고”로, 여성에게 미국은 그야말로 ‘낙원’이었다(『부인』, 15~16쪽). 일본에서는 남편이 맨손으로 당당히 앞서 걷고 아내는 뒤에서 아이와 짐보통이를 바리바리 끌며 뒤따라가는 것이 흔한 풍경이지만, 미국에서는 기차 등에서 낯선 여성의 짐도 들어줄 뿐 아니라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도 여성이 안전한 방향으로 걷도록 배려한다(『부인』, 18~19·24쪽). 심지어는 슬럼가를 걸을 때에도, 기차 대합실에서, 호텔에 머물 때에도 남성은 여성을 동반해야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며(『부인』, 28~29쪽), 남자는 설령 돈이 많아도 여성과 함께가 아니라면 잘난 체를 하기 어려울 정도다(『부인』, 29쪽).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대명신(大明神)’으로 군림한다면, 일본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하대하면서 하녀 부리듯 한다(『부인』, 120~121쪽). 일본의 남편에게는 부부관계 자체보다 동거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의사가 더 중요하여,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어렵고 가혹하다(『신부』, 68쪽). 그는 가정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해 “A wife’s position in our home is that of mistress rather than queen. Your saying, “Woman’s work is never done,” is quite true in our home.”(『신부』, 68쪽)이라고 표현한다. 아내는 아래와 같이 일방적으로 남편을 섬기기만 했다.

Without a wife the Japanese man is quite helpless. When he eats she will

wait upon him, and she will give all the comforts she can to her husband, and will make home as attractive as possible to him.³¹

일본의 아내들은 이토록 남편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남편과 가족의 존중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혼의 제도 혹은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했다.

The husband may do anything he wishes with absolute freedom ... He may have a concubine in his own house or in a private house, and the wife has no right to oppose her husband's wishes. If she does oppose and say disagreeable things to him, what is the result of it? The consequence will be more trouble than ever in her life. Therefore a Japanese wife will allow her husband to do whatever he wishes, and will treat him as lovingly and pleasantly as possible, though her heart is full of a grief and sorrow like death.³²

일본 여성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여성도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을 뿐 아니라 부부가 각각의 재산을 가졌기에(『부인』, 127·148쪽) 아내도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본의 여성은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자신이 가져왔던 재산조차 전부 남편과 장남에게 귀속되고 말기에, 경제력이 없는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심지어 첩을 둘지라도 인내와 순종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This is the point which so many foreigners admire, that Japanese wives are so pleasing to their husbands, and so devoted to them.” (『신부』, 73쪽)

31 Naomi Tamura, 1893, *ibid.*, p. 69.

32 Naomi Tamura, 1893, *ibid.*, p. 72.

이처럼 불균형한 부부의 관계는 사실 결혼 당시부터 배태되었다는 것이 다 무라의 견해였다.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 남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Therefore, she is given to him when she is married just like a bed or a table. Hence her husband has a right to do anything with her, and if she does not wish to obey, it is a simple process to return her to her father, who is the original owner.³³

일본의 여성은 결혼 후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들면 중개인을 통해 다시 물건처럼 쉽게 돌려보내질 수 있었다(『신부』, 76쪽). 그나마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결혼의 본래 목적인 가계 계승을 위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이지만(『신부』, 80쪽),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도 빼앗기게 된다.

…… there are three kinds of obedience for a woman: 1st. When she is young, she must obey her father; 2d. When she is married, she must obey her husband; and 3d. When she is old, she must obey her oldest son.³⁴

33 Naomi Tamura, 1893, *ibid.*, p. 74. ‘침대나 탁자처럼’이라는 과장된 ‘표현’이 비판자들을 자극했지만, 남녀의 직접적인 교제와 사랑에 기초하는 결혼이 아니라, 남자에게 물건처럼 주어지는 방식으로 결혼하게 된 일본의 여성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는 앞서 설 명했던 것과 같이, 당시 이른바 ‘사건’의 논쟁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이었는지, 즉 여성의 현실은 백안시한 채 일본이라는 국가의 체면과 국익에 얽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34 Naomi Tamura, 1893, *ibid.*, p. 91.

여자는 평생 세 남자에게 즉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장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평생 순종만을 요구받았던 일본의 여성은 나이가 들어 은거를 한 후에야 아들로부터(『신부』, 92쪽), 혹은 죽은 후에야 제사(凶事)를 통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부인』, 128쪽). 이상과 같은 극단적인 미일 여성의 현실을 비교한 후 다무라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에 태어난 부인은 정말 행복합니다. 미국은 여자가 먼저입니다. 여자가 이렇게까지 여자 대명신(女大明神)이라고 존경받게 된 것은 분명 이유(道理)가 있는 일입니다. …… 일본의 여자도 언제쯤 미국의 여자와 같이 남자의 대접을 받으세요. 손가락을 꼬아 그날을 기다립니다.³⁵

IV. 미일 여성의 비교, 의도와 오해

이상에서 살핀 일본 여성의 현실은 대부분 미국 여성의 현실과는 매우 다르며, 심지어 대조적이기까지 했다. 다무라는 미국 여성의 생활과 지위를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일본 여성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강조하려 했던 듯하다. 무엇보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교 국가’인 미국 여성과 비그리스도교 국가인 일본 여성의 차이이며,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는 일본에 사는 여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다무라의 미일 여성 비교, 이를 통한 일본 여성론에 대해 길게 소개한 것은, 그간의 ‘사건’ 관련 연구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논쟁이 그의 저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이른바 말꼬리잡기식으로 단편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아마도 영문판으로만 공개되었던] 그의 저서가 비판자들

35 田村直臣, 1889, 앞의 책, 31쪽.

에게 제대로 읽혔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로 인한 영향인지, 연구자들도 ‘사건’ 당시 논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주목하느라 『신부』 원문의 내용은 제대로 읽히지 않았고, 『부인』의 내용은 거의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두 책의 내용이 일종의 표리(表裏), 혹은 세트를 이루며 거의 유사한 내용과 주장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집필 의도는 아무래도 먼저 발행된 『부인』에 보다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부패가 극에 달한 것으로 여겨지는 남녀교제의 길도 그리스도교 도덕에 따르면 순정결백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 미국에서 행해지는 남녀교제의 길이나 혼인의 방법과 일본에서 행해지는 남녀교제와 혼인의 방법 사이에 천양지차가 있는 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또 하나입니다. …… 이 책이 널리 일본의 가족에 읽혀 남녀교제의 길이 순결해지고 선량한 가족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³⁶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다무라의 문제의식은 미일의 남녀교제에서 발견되는 차이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교’를 통해 비로소 남녀교제도 순정결백(純正潔白)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는 이것이 일본에도 수입되기를 바랐다.

당시에도 그리고 이후의 연구에서도 다무라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의 여성을 비교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것은 절반의 사실이다. 분명 미국과 일본의 여성을 비교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교 국가’와 ‘비그리스도교 국가’의 여성이 처한 상황을 비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무라는 미국 경험을 통해 일본과는 매우 다른 여성의 생활과 지위를 목격한 후, 이것이 그리스도교에 기초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미

36 田村直臣, 1889, 위의 책, 序 1~2쪽.

국의 상황을 부러워했던 것이다.

그는 『부인』의 집필의도에서뿐 아니라, 본문에서도 미국인의 부부관계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부부라면”(『부인』, 126쪽)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했고, 미국의 결혼에서 그리스도교의 신앙, 성직자, 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인』에서 “이 순결하고 바른 나라의 기초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도라도 안 됩니다. 유교도 부족합니다. 불교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교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부인』, 153쪽)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신부』에는 그러한 본래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반영되었던 것 같지 않다. 『신부』의 서문에서는 일본이 옛것과 새것이 교차하는 과도기라는 사실, 일본 여성의 가족을 향한 전통적인 헌신이 위선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후, 다루는 다음과 같이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I have frankly painted our home life which foreigners never penetrate, and which most Japanese hesitate to reveal, feeling it be a shame to open the dark side of our home life in public, and especially before the gaze of foreigners. I have tried to write with sincerity, in the spirit of loving truth, without any fear.³⁷

그가 이러한 식으로 『신부』 집필의 의도를 밝힌 것이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것은, 아마도 영어로 쓰이는 만큼, 서양의 독자들에게 굳이 결혼과 가족생활 혹은 여성에게 있어 그리스도교가 갖는 장점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보다는 일본 선교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서양의 크리스천을 향해, 일본의 비그리스도교적인 전통적 가족과 결혼이 여성에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도움을 호소하려 했

37 Naomi Tamura, 1893, *op. cit.*, p.v.

던 것으로 보인다.³⁸

앞서 『부인』에 적었던 그의 문제의식과 바람이 단지 수년 만에 『신부』에서 바뀔 이유가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다무라는 이미 『부인』에 적었던 내용을 굳이 『신부』에서 동어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영어로 쓰인 책이라고 해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에 불타는 일본인이 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고(심지어 다무라 자신이 일본어 번역본의 간행을 준비하기도 했었으니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신부』를 읽은 이들이 두 책의 집필 취지가 보다 명확한 『부인』도 함께 읽었으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었다. 출판의 대상과 목적 설정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그 결과 『신부』에서는 다무라가 본래 의도했던 그리스도교와 비그리스도교를 대비시키려던 구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이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국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특히 전자를 긍정하고 후자를 비하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초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도 당시 그리스도교가 혹시 일본에서 비난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하는, 혹은 그리스도교가 일본의 국가적 자긍심에 상처를 줄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의 오해를 초래한 집필상의 기술적인 이유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내용과 ‘현재’의 내용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당시 다무라 자신이 매체 기고 혹은 논쟁 가운데 직접 시인한 것이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 『신부』에 불만을 품은 두 청년이 그를 찾아가 다무라를 추궁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하나 변명할 것은, 이 책은 결코 현재[現今]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서문에도 적은 것처럼, 분명 변환의 시기다. 구풍습은 점차 소멸하려 하지만, 새로운 풍습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혼돈의 시기로 청탁이 나눠지지 않은 시기다. 그렇다면 이 책 안의 기재의 많은 부분은 앞으로 사라지려는,

38 戸田徹子, 1997. 3, 앞의 글, 78쪽.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과거의 유풍에 관련된 것이다. 일본의 현재가 모두 이 책에 기록된 바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한 가지는 이해를 구한다.³⁹

『신부』를 향한 각종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시간상의 오류는 다무라 자신도 비교적 명쾌하게 시인하고 수긍했던 문제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건이 벌어진 1890년대가 메이지시대 중반으로, 이른바 ‘민법전논쟁’(1890)을 거쳐 메이지민법(1898)의 공포로 나아가는 과도기, 즉 과거의 풍습과 새로운 관습이 교차하는 혼란의 시기였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신부』의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이 이미 사라진 과거의 관습이고, 어느 것이 메이지시대 중반 당시의 실제 상황인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일본은 최근 15 내지 20년 내에 현저한 진보를 이루었던”⁴⁰ 만큼, [필자는 다무라의 저술에 적합한 대부분의 내용이 메이지시대 여성에게 여전히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신부』에 묘사한 일본 여성의 모습은 그가 시인한 대로 더 이상은 현실이 아닌 과거의 모습일 수도, 혹은 근대에 시작되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로는 노년의 은거(隱居)를, 후자의 경우로는 결혼과 함께 여성도 남성을 따라 성을 바꾸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전통인 ‘은거’와, 근대에야 비로소 시작되어 1898년 민법을 통해 정착되는 ‘부부동성’이 다무라의 저서에서는 시간차를 두지 않고 함께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비판자들이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일본 상황인 것처럼 다룬다고 공격했던 것도 타당했던 셈이다.

그 외에 앞서 소개한 논쟁의 내용을 통해서도 몇몇 실패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는 그 자신은 유머라고 강변했으나 남들에게는 냉소와 불쾌한 희화화로 받아들여진 ‘어조’의 문제다. 그가 강박으로 보일 정도로 끊임없이 시도했

39 『福音新報』, 1893. 9. 22, 197쪽.

40 위의 글, 197쪽.

던 유머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대하는 데 도리어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둘째로는 용어 사용의 혼란과 미숙함이다. 논쟁 과정에서 다무라는 자신이 ‘중등 이상’의 사례를 다루었다고 했지만 책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 여성으로 통칭하는 등, 대상과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이처럼 개별 사례를 쉽게 일반화하여 서술하는 것은 비판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로는 아무래도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부』가 영어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불운의 단초가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신부』가 ‘영어’로 집필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문제를 야기했다. 첫째는 일본의 부정적인 면을 ‘외국인’에게 폭로, 혹은 고발한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감정을 자극했다. 둘째로는 일본인에게 여전히 낯선 ‘외국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후 문맥보다는 일부 단락적인 표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낳았다. 이로부터 시작된 비판으로 인해 일본어 번역판의 출판도 불가능해지면서 오해를 해소할 기회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무라의 저서는 그리스도교의 유무라는 주된 관점이 잊힌 것에서 시작하여, 그 외에도 태도상·논리상·표현상·언어상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오해와 비판의 소지를 다수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의 책을 접한 당대 지식인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다. 주로 그리스도교계에 존재했던 비판자들은 결코 다무라의 저서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

41 ‘사건’에서 주요한 논쟁거리였던 “Japanese virtue is very pharisaical – in form, not in heart.” (Naomi Tamura, 1893, *op. cit.*, p. iv) “Therefore, she is given to him when she is married just like a bed or a table.” (*Ibid*, p. 74) 과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Our young men are as ambitious to be fathers as yours are to be presidents.” (*Ibid*, p. 6)나 “Some have an idea that when the husband commands the wife to do anything like stealing or selling her virtue, though the action may be wrong in its nature, when she does wrong for her husband’s sake such action becomes morally good.” (*Ibid*, p. 74) 등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이 종종 보인다.

며, 이를 위해 어떠한 사례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필자 자신이 말하는 집필의 의도나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집필 목적을 단정하고 그로부터 자극적인 일부 표현이나 다무라의 태도를 문제 삼기만 했다. 그 안에 담긴 일본 여성의 실상, 특히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엄연한 사실임이 증명되는 당시 일본 여성의 열악한 처지에 대해 공감이나 문제제기를 하지는커녕, 새롭고 신기한 내용을 가득 담은 미국의 결혼이나 여성의 지위 등의 내용에 대해서조차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에 적대적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의식하여, 하루 속히 다무라와 그의 책이 그리스도교계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사건’은 19세기 말 메이지 일본의 그리스도교계가 얼마나 여성 문제에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혹은 국가와 젠더 사이에서 얼마나 경직된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V. 맺음말: 메이지시대 여성의 현실, 인식의 한계

이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일본의 신부 사건’을 다루되, 1890년대 보수화하는 메이지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도, 주로 젠더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미국 체류 생활 중에 목격한 미국의 여성 및 가족의 모습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다무라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그의 저서와 주장이 당대인에게 이해받지는커녕, 파문에 이를 정도로 교계로부터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 정치·사회적 배경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닌 그의 저술의 내용과 집필 방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 했다. 이를 위해 『신부』 및 ‘사건’ 당시의 논쟁뿐 아니라 그에 앞서 발행되었던 『부인』의 내용을 함께 고찰했다는 특징이 있다.

다무라는 미일 여성이 처한 대조적인 상황은 바로 그리스도교 국가인 미국

여성과 비그리스도교 국가인 일본 여성의 차이이며, 특히 일본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스도교’라는 관점이 『신부』에서는 제대로 강조되지 않아, 비교의 대상이 그리스도교 국가와 비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닌 ‘미국’과 ‘일본’으로 치환되어 이해되었던 것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구분 없이 섞어서 나열한 것뿐 아니라 다무라의 유머에 대한 강박 또한 태도에 대한 비판과 의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엄격하지 못한 용어 선택과 근거 없는 일반화, 영어라는 언어의 선택 등도 『신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선입견 없는 접근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계에 대한 의혹과 공격적인 시선을 벗어나는 데 급급했던 당시 그리스도교계가-여러 문제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다무라가 문제 삼았던 미국과 일본 여성의 ‘현실’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객관적으로 『신부』의 내용상의 오류를 지적하려 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판과 검증의 결과로서 일본 여성의 실재를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미국 여성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일본 여성의 현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까지를 밝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부인』과 『신부』, 그리고 다무라가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에서부터 시선을 회피했다. 그야말로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을 보는’ 셈이었다.

참고문헌

- 藤澤全・梅本順子 編, 2003. 2, 『田村直臣 日本の花嫁・米国の婦人資料集』, 大空社.
- 田村直臣, 1889, 『米国の婦人』, 秀英舎.
- 田村直臣, 1932. 10, 『我が見たる植村正久と内村鑑三』, 向山堂書房.
- 田村直臣, 2003. 11, 『信仰五十年史』, 日本図書センター.
- 土肥昭夫, 2012, 『天皇とキリスト教』, 新教出版社.
- 梅本順子, 2007. 12, 「若き日の田村直臣－築地での体験とアメリカ留学」,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28(3).
- 梅本順子, 2008, 「田村直臣のアメリカ体験－内村鑑三と比較して」, 『International cultural expression studies』(4).
- 梅本順子, 2009. 2, 「田村直臣と足尾鋳毒問題」,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29(4).
- 梅本順子, 2010. 9, 「宗教教育者としての田村直臣－アメリカ留学を中心に」, 『日本比較文学会東京支部研究報告』(7).
- 梅本順子, 2012. 2, 「田村直臣の留学再考: オーバーン神学校時代を中心に」, 『国際関係研究』 32(2).
- 武田清子, 1967, 「田村直臣に見る家族主義道徳の批判」, 『人間観の相剋』, 弘文堂新社.
- 武田清子, 2001, 「二 横浜バンドの女性観: 『日本の花嫁』事件をめぐる」, 『植村正久 その思想的考察』, 教文館.
- 帆苅猛, 2004. 12, 「田村直臣の「児童中心のキリスト教」」, 『Journal of Christian studies』(24).
- 杉井六郎, 1981. 3, 「小沢三郎編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史料-9完-田村直臣の「日本の花嫁」事件-1~4-」, 『キリスト教社会問題研究』(29).
- 戸田徹子, 1997. 3, 「田村直臣のアメリカ体験と『日本の花嫁』」, 『山梨県立女子短期大学紀要』 30.

Tamura, Naomi, 1893, *The Japanese Bride*, Harper & Brothers.

Anderson, Emily, 2007, "Tamura Naoomi's *The Japanese Bride* Christianity: Christianity, Nationalism, and Family in Meiji Japa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4/1, Nanza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일본의 신부 사건’의 재고찰 - 일본 메이지시대 그리스도교 지식인의 국가와 젠더

이은경

이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이른바 ‘일본의 신부 사건’을 다루되, 1890년대 보수화하는 메이지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도, 주로 젠더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미국 체류 생활 중에 목격한 미국의 여성 및 가족의 모습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다무라 나오오미[田村直臣]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목한 것이다. 나아가 왜 그의 저서와 주장이 당대인에게 이해받기는커녕, 파문에 이를 정도로 교계로부터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기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닌-그의 저술의 내용과 집필 방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했다. 이를 위해 *The Japanese Brides* 및 ‘사건’ 당시의 논쟁뿐 아니라 그에 앞서 발행되었던 『米国の婦人』의 내용을 함께 고찰했다는 점이 본고의 커다란 특징이다.

다무라는 미일 여성이 처한 대조적인 상황은 바로 그리스도교 국가인 미국 여성과 비그리스도교 국가인 일본 여성의 차이이며, 특히 불교의 영향 때문이라 강조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부인』에서와는 달리, ‘그리스도교’라는 관점이

*The Japanese Brides*에서는 제대로 강조되지 않아, 비교의 대상이 그리스도교 국가와 비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닌 ‘미국’과 ‘일본’으로 치환되어 이해되었던 것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구분 없이 섞어 나열한 것뿐 아니라 다무라의 어울리지 않는 유머가 그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의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엄격하지 못한 용어 선택과 근거 없는 일반화, 집필 언어가 영어라는 사실 등도 『신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선입견 없는 접근을 가로막았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계에 대한 의혹과 공격적인 시선을 벗어나는 데 급급했던 당시 그리스도교계가-저서 내용의 여러 문제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다무라가 문제 삼았던 미일 여성의 ‘현실’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제어: 다무라 나오오미, 일본의 신부, 미국의 부인, 그리스도교

ABSTRACT

Reexamination of “The Japanese Bride Incident”: State and Gender of the Christian Intellectuals in Meiji Japan

Lee Eun-gyong

This study introduces a context analysis of the so-called “Japanese Bride Incident” from the gender-centric perspective, while giving considerations 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Meiji period during which Japanese society underwent a growing shift toward conservatism. It focuses on what Tamura Naoomi tried to unveil in his comparison of American women and their roles in families to those of Japanese women based on what he observed during his stay in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giving emphasis to the socio-political contex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xt as well as his style of writing in unraveling why, instead of gaining acceptance by the audience, his writing and propositions were met with such severe criticism that the church was led to excommunicate him. A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deals not only with “The Japanese Bride” and the related controversies at that

time. It also analyzes the context of his earlier publication, “The American Bride.”

Tamura argued that the contrasting statuses of American and Japanese women were embedded in the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ates, and he placed particular emphasis on the effects of Buddhism in Japan. One of the fundamental triggers that became the cause of “the incident” was that, unlike in “The American Bride,” in “The Japanese Bride” he hardly put forward his perspectives on “Christianity.” It seemed as if the comparison was between “America” and “Japan” instead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ates. Not only did his writing fail to follow chronological order, but his inappropriate use of humor invited distrust in his intention, and the inaccurate use of words and unsubstantiated generalizations, as well as the fact that it was written in English, hindered the objective and unbiased approach to the concept of “bride.” Lastly, it can be pointed out that Japanese churches, which were desperate to fend off suspicions and attacks on Christianity at that time, had no interests in the “realities” of women in Japan and America, which, despite a number of problems and errors in Tamura’s writings, had some degree of unassailability.

Keywords: Tamura Naomi, “The Japanese Bride,” “The American Bride,” Christianity

전후 일본 보수인맥의 태동

– ‘역코스’기를 중심으로

이용현 |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우익, 파시즘 그리고 보수
- III. 전후 ‘보수’의 출발점: 1951년
- IV. 보수인맥의 제도적 연원과 ‘리버럴’의 변형
- V. 보수인맥의 사회경제적 연원과 ‘황국사관’의 변형
- VI.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의 우경화’나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우려 등이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쟁점으로 등장할 때마다 일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정책을 1945년 이전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군국주의·팽창주의·보수주의 세력의 논리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분석,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가 국가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특히 국가 간의 관계사는 집단적 기억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연구경향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계와 재계의 전전(戰前) 우익과 파시스트 세력 그리고 황국사관(皇國史觀)으로 무장했던 전전의 세력은 1945년 패전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의 체결에 이르는 6년 남짓의 기간 동안 새로운 국내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이념상의 변질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로의 세대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전후 특히 1950년 6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수차례의 개조를 거치면서 지속된 제3차 요시다[吉田茂] 내각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던 인물들을 정계에 기용하고 전전의 관료들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전 우익의 부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존 다우어(John Dower)가 『제국과 그 후유증(*Empire and Aftermath*)』에서 평가한 것처럼 요시다는 일본의 전전(戰前)과 전후(戰後)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인물이었다고, 요시다 주변에 구시대의 군국주의적 인물들만 모여든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정책을 이끌어갈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같은 인물은 전전의 관료라고 하더라도 ‘전쟁의 책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물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일강화조약의 체결을 전후한 1951년 요시다 내각이 새로

* 투고: 2017년 2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8월 10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은 일본의 정책들을 구상하는 총리자문기구로 설치한 ‘정령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면면을 보면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나카야마 이치로[中山伊知郎]·마에다 다몬[前田多門]·오바마 도시에[小汀利得] 등 공직 추방되었던 인물들이 대거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이 전전의 향수를 가지고 복고반동적인 정책만을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이들의 답신에 따라서 설치된 요시다 내각의 1950년대 정책들(예를 들면 역사교육과 윤리교육 정책)을 주도해 나간 것은 위의 전전 관료들과 황국사관 역사학파의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실제로 1956년 ‘교과서검정제도’ 및 ‘교과서조사관 제도’를 설치하면서 황국사관의 제2세대 역사학자들이 문부성에 포진하게 된다. 무라오 지로[村尾次郎]·나이미 다다유키[新美忠之] 등 이른바 ‘황국사관’이라 불리는 역사관의 소유자들이 문부성에 침투한 것이었다. 이들은 황국사관의 보유자였지만, 새로운 정치제도 속에서 변형 혹은 변질된 ‘황국사관’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합리적 보수로 스스로를 치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신세대 황국사관 학파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초반에는 정계의 보수파와 보수적인 신세대 역사가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전전의 재계 세력, 즉 자본가들도 각종 위원회와 단체들을 통해서 다시 부상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전의 일본 독점자본세력이 1950년대 이른바 역코스의 시대에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의 형태를 바꾸어 부상하는 ‘준(準)파시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파시즘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위 ‘정령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일본 우익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일본유족회’에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띠고 등장하게 된다. 전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형태에 적응하면서 자본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전후 일본의 보수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시점(좌우의 대립이 선명해진 시점)을 이른바 ‘1955년 체제’의 형성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정·재계의 보수세력의 태동 그리고 황국사관 학파의 재기는 1951년 『요미우리신문』(読

売新聞』이 기획기사로 연재한 ‘역코스’의 연재와 시기를 같이한다. 일본 정계의 전후 보수세력, 미묘하게 변화된 재계의 자본가 그리고 역사학계의 신세대 황국사관 보유자들이 바로 이 1951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부상함으로써 21세기인 현재까지 연면히 내려오는 ‘전후 일본 보수주의 주류의 원집’을 형성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1950년대 전반의 정치적 보수파, 재계, 보수적인 역사학계의 태동 과정을 살펴본다. 전통적인 ‘보수분류’와 ‘방류’라는 도식적인 분류에서 탈피하고, 위의 현상을 실제적인 자료와 문헌 그리고 기존연구들을 참고하여 각 분야의 보수인맥과 상호네트워크, 그리고 이들의 이념적·사상적 특징을 탐색할 것이다.

II. 우익, 파시즘 그리고 보수

전후 일본의 정치성향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념적 기반과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할 때 ‘보수’와 ‘우익’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관행처럼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전과 전후 일본을 관통하는 보수주의 정치사상과 정치세력의 변화와 현황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이자 일본 연구자들의 집단적 지혜 표현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일본 보수우익의 역사적 전개과정 즉 ‘어제와 오늘’을 다루면서, ‘보수’ 혹은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¹ 즉 메이지 시대의 ‘겐요샤[玄洋社]’에서 전후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거쳐 오늘날의 ‘닛폰카이기[日本會議]’ 등에 이르는 일본의 모든 국가주의적 정치세력에 대해 ‘우익’이라는 용어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적 사고가 존재하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일견 객관적이고

1 박훈 외, 2008,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중립적인, 나아가 ‘정치적’이기까지 한 이 용어들은 학문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본의 한 연구자는 위의 연구서에서 ‘우익’으로 간주하는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기타 잇키[北一輝]의 ‘급진 국가주의’ 사상을 ‘파시즘’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² 또 다른 연구자는 이들은 물론 전후 일본 역사학계에 소위 ‘황국사관’을 설파한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까지 파시즘의 한 부류로 설명하고 있다.³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은 ‘우익’ 대신 ‘파시즘’이라는 용어로 ‘국가주의’와 ‘황국사관’의 신봉자들의 사고와 행동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의 일본 연구자들이 분석과 서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우익’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⁴ 결국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은 우선 ‘우익’과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전전과 전후를 관통하는 특정 정치세력을 표현하는 데 명확한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우익’ 또는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개 특정 정치적 정향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1950년대 일본의 ‘보수’ 혹은 ‘보수주의’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혼용하고 있는 ‘우익’ 그리고 ‘파시즘’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일본 우익의 연구(日本右翼の研究)』라는 저서에서 전전과 전후의 ‘우익’의 움직임으로 인해 일본이 ‘파시즘’화되어 가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 기노시타 한지[木下半治]는 파시즘의 특징 내지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즉 첫째, 독점자본 단계의 지배양식이 존재할 것, 둘째, 이 독점자본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 셋째, 이 경제위기로 인해 프

2 柴沢幸二, 1981, 『日本のファシズム』, 教育社.

3 松尾章一, 1977, 『日本のファシズム』, 法政大学出版局.

4 예를 들면 木下半治, 1977, 『日本右翼の研究』, 現代評論社; 猪野健治, 2005, 『日本の右翼』, 筑摩書房; 奈古浦太郎, 1960, 『日本の右翼』, 三一書房.

롤레타리아 및 농민대중의 정치적 동요가 발생하고 좌익 특히 공산당의 지도하에 혁명운동이 발전할 것, 그리고 넷째, 혁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동가로 하여금 프티부르주아 및 프롤레타리아트를 동원하여 대중적 조직을 운동의 기초로 삼을 것 등이다.⁵ 요컨대 파시즘 현상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독점자본’, ‘경제위기’, ‘좌익혁명운동’, 그리고 이에 대응한 ‘우익’의 반동혁명조직 결성 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일본 ‘국가주의’와 ‘제국주의’ 현상은 ‘파시즘’의 발로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패전 후 특히 1950년대 전반기 일본의 정치적 우경화 현상을 ‘파시즘’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파시즘’과 혼용하는 ‘우익’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우익(日本の右翼)』를 쓴 이노 겐지[猪野健治]는 ‘우익’을 “좌익에 대항하는 재야세력의 전위적 부분”이라 규정하고, ‘재야세력’이라고 특정한 이유를 “일본의 우익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정권의 좌에 앉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2001년 경비실무연구회(警備実務研究会)라는 정체불명의 단체⁷가 출간한 『우익운동의 사상과 행동(右翼運動の思想と行動)』은 ‘우익’을 “다이쇼[大正]부터 쇼와[昭和] 초기에 걸쳐서 ‘사회운동’ 속에서 ‘일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주의’ 운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에 따르면 ‘우익’은 정권을 장악한 적이 없는 조직이고, 그 사상적 기반을 ‘일본주의’와 ‘국가주의’라는 추상적인 이념에 두는 행동파 내지 운동단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우익’은 자신들의 이념 실현

5 木下半治, 1997, 위의 책, 13쪽.

6 猪野健治, 2005, 앞의 책, 11쪽.

7 警備実務研究会, 2001, 『右翼運動の思想と行動』, 立花書房, 3쪽. 이 책이 다이쇼 시대의 『警視廳史』가 정의하는 ‘우익’ 즉 “일본의 국체와 고래의 民風道徳이 萬邦無比의 이상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護持하고 선양하려고 하는 이념에 입각한 사상 및 운동”으로 우익의 정의에 관한 문단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저자인 ‘경비실무연구회’는 경시청流의 조직 혹은 경시청 관변단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을 위한 정치적(때로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운동’에 치중하는 제도권 바깥의 집단 혹은 조직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의 ‘보수’ 혹은 ‘보수주의’는 위의 두 개념과 궤를 달리한다. 1950년대 일본의 보수주의와 보수인맥은 전전의 파시즘 혹은 우익과 사상적 기초와 인맥에서 분명 연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차별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즉 1950년대 등장한 보수주의자들의 주류는 이념적·정치적 성향의 측면에서는 대개 전전의 체제 비판적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이들과 협력한 관료와 학자들 역시 무비판적 ‘전전으로의 회귀’와 ‘황국사관’ 고수를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전후 질서의 구축에서 현실 중시의 노선을 강조한 자들이었다. 설사 전전으로의 회귀와 황국사관의 부활을 희망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도, 전후 민주주의 국가건설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복고반동적인 정치지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⁸

1960년대 일본의 한 출판사(筑摩書房)가 전16권으로 간행한 ‘전후 일본사상 대계’ 시리즈의 제7권 『보수의 사상(保守の思想)』은 칼 만하임을 인용하여 ‘보수’와 ‘진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시간 체험의 상위(相違)를 도식적으로 따르다면, 진보파는 당시의 현재를 미래의 발단으로서 체험하는 데 반해서 보수파는 현재를 과거의 마지막 단계로 체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이 간혹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일이 있다. 보수주의의 시간체험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그에 반해서 원래 짧은 과거밖에 갖지 못하는 청년이 모든 존재를 ‘당위’의 입장에서 즉 ‘이상’이라든가 ‘이론’의 견지에서 추상적으로 평가하고, 그 견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난센스’라고 버려버리는 것도 당연한지 모른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진

8 일본의 보수주의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 역시 대체로 전전 혹은 메이지유신기의 보수주의, 보수파 논객과 정객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김양희 외, 2007, 『일본 우익사상의 기저 연구』, 보고서; 정재정, 1998, 『일본의 논리』, 현음사; 김호섭 외, 2000, 『일본 우익 연구』, 도서출판 증심; 마쓰모토 겐이치 지음, 요시카와 나기 유킴, 2009, 『일본 우익사상의 기원과 종언』, 문화과학지성사.

보'와 '혁신'의 체험양식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개혁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진다. 전자는 ‘개개의 사실을 다른 개개의 사실로 대체’하는 것(개량)을 지향하고, 후자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세계 전체를 개조’하려고 한다(혁명). 여기서 후자의 체계적·이론적·연역적인 사고에 대한 열렬한 지향이 탄생하고, 반면 전자는 오히려 그러한 경향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키우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⁹

연합군의 점령 종식과 샌프란시스코강화회담 직전 일본의 지식인들과 관료 그리고 재계의 정치적 지향점은 독립을 맞이하는 시점의 자국의 상황 즉 “현재를 과거의 마지막 단계로 체험”하고 있었으며, 분명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진행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다른 사실들로 대체”하려 하고 있었고, 혁명적인 개조의 경향에 대해서 “반감과 혐오를 키우고” 있었다. 독립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전전으로의 복귀와 천황중심의 ‘국가주의’를 재건하려고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복고반동과 국가주의가 최종적인 목적지였다고 해도, 적어도 1950년대의 일본 보수파는 그러한 목표를 추구할 만큼 조직적이고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점령기 동안 억압되어 있던 의식을 자율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시작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수인맥의 ‘태동’을 막 시작한 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橋川文三, 1968, 『保守の思想』, 戦後日本思想大系 7, 筑摩書房, 11~12쪽.

Ⅲ. 전후 ‘보수’의 출발점: 1951년

1. 정령자문위원회

1951년 초 일본 점령 연합군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신년사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의 진보를 평가하고, 집단안전보장과 연내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¹⁰ 그리고 이 날짜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AP통신 도쿄 지국장 러셀 브레인의 해설 기사를 통해 “맥아더 원수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일본 열도의 방위를 장래에도 계속하는 한편, 일본으로서도 이를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란의 아시아에 대해서 전쟁포기를 구가한 일본의 헌법은 부당한 장애라는 일본인 일반의 의견에 전에 보이지 않았던 정도의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일본 재무장의 당위를 언급했다. 즉 “미국은 일본의 헌법에서 전쟁포기 항목을 삭제하고, 대일강화조약을 체결, 유엔 가입을 실현하며, 그 위에서 일본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유엔군의 일부로서의 군대를 건설하는 일을 국제적으로 정식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맥아더가 암시했다는 것이다. “유럽의 위기에 따라서 독일에 대해서 행해진 것처럼 일본에 대한 절차는 완성될 것이고 …… 거의 모든 일본 국민의 견해도 이와 같음에 틀림없다”는 것이었다.¹¹

이후 일본 열도에서 ‘독립’과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었지만,¹² 그러나 ‘거의 모든 일본 국민의 견해’가 맥아더의 신년사에 대한 러셀 브

10 原田勝正·尾崎秀樹·松下圭一·三國一朗 編, 1989, 『昭和二万日の全記録 9 昭和25年-27年 独立-冷戦の谷間で』, 講談社, 118쪽.

11 『読売新聞』, 1951. 1. 1.

12 1951년 1월 13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강화의 날이 문자 그대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11일의 AP 통신에 따르면 ‘금년 가을까지 완료 ……’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은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기분이다”라고 주장했다. 『読売新聞』, 1951. 1. 13.

레인의 해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1월 21일 사회당은 제7회 당 대회에서 중립견지·군사기지제공 반대·전면강화 실현 등 ‘평화 3원칙’을 채택하고 ‘재군비 반대’를 결의했고, 위원장에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를 선출하여 좌파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4일에는 일교조(日教組) 중앙위원회가 재군비 반대 운동방침을 결정했다. “제자들을 또다시 전쟁터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었다.¹³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25일, 존 포스터 델레스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강화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주권의 완전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수상 요시다는 자위력의 보유를 바라는 일부 여론을 배경으로 단독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¹⁴ 요시다는 델레스와의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인 26일 제10회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강화조약 후 (일본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자립은 물론, 국민도의(道義)를 강하게 고양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역설했다.¹⁵ 델레스와의 회담에서 요시다는 정작 미국의 ‘재군비요청’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했지만, 후일 사실상의 재군비 즉 ‘자위력 점증’의 토대가 되는 경찰예비대는 창설되어 있었다.

강화조약의 문제는 보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다’고 간주되었던 점령기의 민주화정책을 재검토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맥아더 원수는 한국전쟁을 둘러싸고 워싱턴 정부와의 의견대립으로 1951년 4월 11일 파면되었고, 그 후임으로 제8군 사령관 매튜 리지웨이 중장이 취임했다. 리지웨이는 5월 1일 특별성명을 발표, GHQ의 권한을 일본 정부에 이양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의 경제와 현재의 상태에서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행 절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총사령부의 지령과 함께 공포된 현행법령을 재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언명했다. 즉 GHQ의 지령에 기초하여 제정된 정령과 법

13 原田勝正 他編, 1989, 앞의 책, 118쪽.

14 原田勝正 他編, 1989, 위의 책, 123쪽.

15 이웅현, 2016, 「1950년대 일본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 절반의 실패 또는 절반의 성공」, 『일본연구』 제25집, 109쪽.

를의 재검토가 가능해진 것이다.¹⁶

리치웨이의 이 성명을 근거로 수상 요시다는 5월 6일 사적 자문기구인 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고, 그 위원으로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마에다 다몬[前田多門]·나카야마 이치로[中山伊知郎]·오바마 도시에·이시자카 다이조[石坂泰三]·이타쿠라 다쿠조[板倉卓造] 등 6명을 내정했다. 동 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관한 7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기사에 따르면 “포츠담 정령 및 이와 관련한 법규와 제도들을 수정하게 될 …… 이 위원회는 관제(官制)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지만, 사실상 결의기관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모양이며, 문제가 되는 법령과 제도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어 수상에게 답신하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동 위원회가 법제상의 권위는 여하튼 금후의 정치·경제 양면의 법규·제도의 개폐 등에 커다란 힘을 갖게 되고, 행정기구의 개혁 및 추방해제의 문제에 손을 대고, 이어서 과도한 경제 집중, 교육제도 개정 등의 중요안건을 검토할”¹⁷ 그야말로 수상의 막강한 정책수립기구가 될 것이었다.

이 중요한 정령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의 면면은 향후 일본 정부의 각종 시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가늠자라 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기무라 도쿠타로는 전전 ‘제국변호사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다가, 1941년에는 ‘다이닛폰부토쿠카이[大日本武徳会]’¹⁸ 검토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1946년 연합군 점령 하 시데하라[幣原喜重郎] 내각에

16 吉田裕 編, 2004, 『戦後改革と逆コース』, 日本の時代史 26, 吉川弘文館, 79쪽.

17 『朝日新聞』, 1951. 5. 7.

18 이 단체는 전전의 일본에서 武道의 진흥, 교육, 顕彰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메이지 시대인 1895년에 설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는 무도관계 조직을 통제하는 정부의 외곽단체로 활동했고, 1946년 11월 GHQ의 지령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다. 관련자 약 1,300여 명은 모두 공직 추방되었다. [https://ja.wikipedia.org/wiki/‘大日本武徳会’, 검색일: 2016. 10. 10.]

서 감사총장·사법대신으로 활동을 계속했지만,¹⁹ 전전의 공직이 문제가 되어 1947년 공직 추방된 자였다. ‘국가’를 우선하고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보수적 색채의 인물이 일본 정·재계의 보수화를 의미하는 추방 해제의 문제²⁰를 포함하여 독립 일본의 기반을 다져 나아가는 위원회의 선임자였던 것이다. 기무라는 위원회에서 이른바 ‘행정개혁’의 문제를 담당했고, 대폭적인 공무원의 삭감과 13개 행정부처를 9개로 축소하는 등의 강화 후 일본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나아갔다.²¹

보수적 색채가 짙은 또 한 사람 마에다 다몬은 정령자문위원회의 ‘교육정책’ 구상을 담당했다. 전전에 저널리스트(아사히신문)와 관선 지사 등으로 활약하던 마에다는 패전 직전인 1945년 귀족원 의원이 되었고, 종전 직후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 내각에서 문부대신에 취임, 전후의 교육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무라와 마찬가지로 전전의 경력이 문제되어 공직 추방된 경력의 소유자였다.²² 오바마 도시에 역시 공직 추방된 자였지만, 전전에 특별한 공직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다. 다만 1943년 ‘대일본언론보국회’의 중책을 맡았던 것이 문제되었다. 1950년 추방 해제 이후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저널리스트로서는 의외의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전후 일본 정부 업무에 관여한 자였다. 전직 혹은 현직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은 정령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들로 평가를 받을 만했다.

나머지 인물들 역시 ‘개혁’ 혹은 ‘진보’의 색채와는 거리가 멀었다. 나카야마 이치로는 도쿄상과대학[東京商科大学] 교수로서 민간 경제학자였지만, 1951년

19 『朝日新聞』, 1946. 2. 9. 감사총장 임명 당일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무라는 “데 모크라스의 基調는 무엇인가? 첫째로 국가에 대한 의무의 자각 즉 준법정신이다. 둘째가 각자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 ……”이라는 취임소감을 피력했다. 『朝日新聞』, 1946. 2. 10.

20 『朝日新聞』, 1951. 5. 30.

21 『朝日新聞』, 1951. 7. 10.

22 <https://ja.wikipedia.org/wiki/前田多門>. (검색일: 2016. 10. 10)

당시 중앙노동위원회 회장 즉 정부 후생노동성 관변조직의 책임자였다. 경제‘정책’ 특히 ‘노동정책’에 우선권을 두는 인물이었지, ‘순수’ 경제학 또는 ‘민생’ 경제를 다루는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나가야마보다 더 재계의 이익을 중시할 만한 인물이 이시자카 다이조였다. 이시자카는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 사장 출신으로 업계 이익의 대변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²³

초기 자문위원으로 내정된 6명 가운데 마지막 인물 즉 이타쿠라 다쿠조는 의외의 인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시신포[時事新報]』의 사장 겸 주필로서 필명을 날리던²⁴ 그는 리버럴리스트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파 요시다 내각의 정령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었다. “우선 행정기구의 개혁: ‘정령자문위’에 기대”라는 타이틀로 위원회의 출범을 알린 1951년 5월 7일자 『아사히신문』은 위원 6명의 이름 뒤에 “이타쿠라 씨만은 여전히 교섭 중”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²⁵ 보수내각의 정령자문위에 참여하는 문제를 고민했던 것은 아닐까?

6명을 내정한 지 불과 이틀 뒤 요시다 수상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방해제 문제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라 야스사부로[原安三郎]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경찰예비대총대 부총감 이세키 유지로[井関裕二郎]로 하여금 정령자문위원회가 다루는 추방해제 관계 사무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라는 일본화약(日本化薬)의 사장 출신으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라 할 수 있었고, 이세키의 전직은 공직추방소원(所願)심사위원장이었다.²⁶ 이와 같이 보수 일색으로 구성된 요시다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 ‘정령자문위원회’가 향후 교육개혁을 포함한 모든 정부 정책의 면에서 독립 후 일본 재구성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

23 이웅현, 2016, 앞의 글, 105쪽.

24 이웅현, 2016, 위의 글, 105쪽.

25 『朝日新聞』, 1951. 5. 7.

26 『朝日新聞』, 1951. 5. 9.

했던 것이다.

이 정령자문위는 때로는 요시다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면서 그야말로 사적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²⁷ 독점금지법의 부분수정 및 노동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서 대체로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답신들을 내놓았다.²⁸ 무엇보다도 자문위의 보수적 색채는 교육정책에 관한 답신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이 위원회가 7월에 요시다에게 보낸 「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한 답신」은 중학교의 과정을 “보통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과, 직업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눈다”든지 교육위원을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임명한다”는 등 점령통치 하에서 정비된 교육기본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변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었다.²⁹ 한마디로 1951년 구성된 정령자문위원회는 그 역할의 중요성과 수상에게 제시한 정책의 내용으로 판단컨대 전후의 일본에 등장한 정치적 보수세력의 원형이자 소우주(小宇宙)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 ‘역(逆)코스’의 시동

1951년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상한 이와 같은 보수회귀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던 것은 『요미우리신문』이었다. 동 신문은 이른바 ‘역코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³⁰ 이 말을 단지 상징적 의미로만

27 예를 들어 자문위의 추방해제 문제에서 요시다 수상의 정치적 라이벌인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추방해제를 지연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대량 추방해제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에 대해서 하라[原]는 이를 부인하는 데 앞장섰다. 『朝日新聞』, 1951. 6. 14.

28 『朝日新聞』, 1951. 6. 19·29.

29 이용현, 2016, 앞의 글, 110쪽. 정령자문위원회 멤버인 나카야마 이치로와 이타쿠라 다쿠조는 1949년 요시다 3차 내각의 교육 자문기관인 ‘문교심의회’의 위원이기도 했다.

30 吉田裕 編, 2004, 앞의 책, 80쪽. ‘역코스’의 정의 특히 그 기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주화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개혁에 역행하려고 한 정책노선”이라고 정의하며, “1948년의 점령정책 전환에서 시작되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이 용어가 얼마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1951년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5개의 주제에 대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표현한 이 특집기사를 직접 살펴보면, 1951년의 일본 정치와 사회,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보수주의의 태동 혹은 부활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9월 8일 대일강화조약이 조인되고 동시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지, 강화 전의 보수회귀 분위기와는 또 다른 적극적인 보수회귀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요미우리신문』은 “세상은 흡사 ‘역코스’ 시대. 추방해제는 인간만의 특권일 수 없다며 최근 여러 가지 전전물(戰前物)이 부활하기 시작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연재물을 시작했다.³¹ 시리즈의 제4탄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951년 10월 18-19일 양일간 도쿄 九段에 위치한 야스쿠니신사 추계대제에 ‘안보조약’에 조인하고 막 돌아온 요시다 수상이 참배[參詣]. 그것을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 7년 만에 “구단”을 크게 찍어, 고급 자갈[玉砂利]이 가득 깔린 경내는 이틀간 무려 70만 명의 인파로 메워졌다. 종전 직후 하루 동안의 현금이 겨우 300엔이었던 시대에 비하면 꿈같은 이야기. 요시다 씨의 깊은 속마음은 모르지만

만, 체계적인 정책이 되는 것은 1951년 제3차 요시다 내각 수상의 사적자문기관 ‘정령자문위원회’의 답신에 따라 법체제를 일변하는 시기 이후”를 가리킨다. <https://kotobank.jp/word/%E9%80%86%E3%82%B3%E3%83%BC%E3%82%B9-476014>, ‘逆コース’, 小学館 『日本大百科全書』 (검색일: 2017. 6. 28). 오카 요시타케[岡義武]처럼 1946년의 식량메이테이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는 점령군이 주체가 된 정책변환을 ‘제1차 역코스’로, 강화조약 전후에 시작되는 보수정당(특히 개진당,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 ‘제2차 역코스’로 분류, 정의하는 연구자도 있다. 大嶽秀夫, 1994, 『戦後政治と政治学』, 東京大学出版会, 91쪽. 본 논문에서 상정하는 ‘역코스’는 오카의 ‘제2차 역코스’에 가깝다. 『요미우리신문』이 처음으로 ‘역코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시대 분위기를 전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31 『読売新聞』, 1951. 11. 2.

…… 어쩐 일인지 신사 측은 이날 외신기자, 카메라맨의 취재를 거부했다. …… 어찌해서 진솔하게 “무명용사의 공동묘지”라는 형태로 할 수 없는 것일까. …… 그런데 이 야스쿠니신사를 유형·무형으로 떠받치는 등뼈(backbone)라는 것으로 전국 180만 세대의 유족을 배경으로 갖는다는 ‘일본유족후생연맹’(회장 長島銀藏)과 134만 講 15만 명의 신자를 거느린다는 ‘야스쿠니講’³²의 두 단체가 있다. 전자는 전쟁 중 반전운동으로 기을 것을 우려해서 당국이 억압하고 있던 유족회가 종전 후 현 단위로 발달하여 1947년 11월 대동단결한 것. 그것은 선거운동의 발판이라는 등의 혐구가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색채도 농후 …… ‘야스쿠니강’은 세상 일반의 것들과 같이 지역의 신자가 나서서 야스쿠니신사를 재정적으로 백업하지 않겠는가 하며 1946년 여름 발족.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에 100엔의 강비를 징수, 반액을 기진한다는 것. 강 중의 구성원은 유족도 아무것도 아닌 순수한 야스쿠니 팬 …… 무명전사의 야스쿠니신사를 먹잇감으로 하려는 정략과 상흔은 이 미망인(유족)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³³

『요미우리』는 무명용사의 묘인 야스쿠니신사가 상업적·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11월 15일 열두 번째 연재물은 교육 분야의 ‘역코스’를 당시 문부대신 아마노 데이유[天野貞祐]의 이른바 ‘국민실천요령’을 들어 비판했다.

문부대신 아마노 씨가 평화조약 비준의 날을 기하여 ‘국민실천요령’을 발한다. …… 그 내용은 (1) 개인(자유·책임·순결), (2) 가정(부모·형제·부부), (3) 사회(협동·근면·연대책임), (4) 국가(천황·개인과 국가·국제사회). 이 문구에 ‘존중

32 야스쿠니講은 1946년 야스쿠니신사의 제신에게 보은과 위령의 정성을 바치고, 신사 유지에 협력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사보인 월간 『야스쿠니[靖国]』를 발행하고 있다. <http://www.yasukuni.or.jp/precincts/yasukunikou.html> (검색일: 2016. 10. 12.)

33 『読売新聞』, 1951. 11. 5. 강조는 필자.

할 것'이라든가 '상호 화목할 것' 등을 삽입하여 이어가면 교육칙어의 냄새가 난다. 커피숍 간판이라면 '옛날 냄새'라도 팔릴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안 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아마노 씨의 요령이修身에서 시작하여 애국심,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코스를 거쳐 발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의심스럽고 무섭다. 수신 교과서는 종전 후 회수되어 펄프공장에 팔렸을 터 …… 여론을 잘 살펴보면 각계 '장로들'은 찬성, 10일부터 닛코[日光]에서 열린 일교조의 교육연구대회에서는 전연 반대, 전국 소·중·고교의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소학교 찬성, 중학교 반반, 고교는 반대, 농촌은 찬성, 도회지는 반대, 대체로 50대 50. 그래서인지 아마노 씨는 최근 잘난 표정으로 "데이유 개인 이름으로라도 내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파는 보불전쟁에서 억누를 수 없는 우국충정으로 '조국에 고향'을 쓴 피히테에 비견 …… 선인들이 말하는 "도덕교육은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학교 급식의 汚職으로(문부성) 내부에서 죄인이 나오는 현실에서 그만 됐 습니다. 국민은 살아 있는 수신교육을 바랍니다.³⁴

아마노는 결국 '국민실천요령'을 개인 자격으로 출판했다. 문제는 1951년 말 이미 메이지 시대의 수신교육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강조하는 흐름을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마노는 우익도 아니었고 파시즘의 신봉자도 아니었다. 전전에는 오히려 리버럴리스트로 간주되는 인물이었다. 1951년의 일본은 아마노와 같은 중도적 리버럴리스트의 주장에 대해서 '복고반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개명된 사회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신교육'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할 만큼 보수화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보수세력의 '야스쿠니'와 '일본유족후생연맹'의 정치적 이용, 교육정책의 보수화와 함께 『요미우리』가 다룬 '역코스'의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일본 정부의 지방자치의 의도적 파괴와 중앙집권화의 기도였다. 특집기사의

34 『読売新聞』, 1951. 11. 15. 강조는 필자.

제18회는 ‘내무성 부활의 꿈’이라는 제목 하에 ‘자치경찰의 파괴’ 현상이 ‘역코스’을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전국의 정촌(町村) 자치경찰의 82%에 달하는 1,077개가 소멸하여 몽땅 국경(國警, 국가경찰)으로 편입하는 역코스를 달리고 있다. ……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자치체’라는 문자가 1,077개나 일시에 사라진 것 …… 현재 정령자문위에서는 인구 15만 이하의 마을로부터 자치경찰을 빼앗는 안을 결정하기도 하고, 자유당을 장악한 구 관료들은 국토국(國土局)만을 제외한 옛 내무성과 같은 것을 만들자는 극론(極論)까지 나오면서, 결국 지사(知事)까지 임명제로 하자는 꿈에 들떠 있는 것은 아닌가?”³⁵

지방자치의 축소는 중앙권력의 강화를 의미할 것이다. 11월 30일자 스물세 번째 기사에서는 ‘관료는 죽지도 줄지도 않는다’라는 제하에 정령자문위원회가 추진한 행정개혁도 무위로 그쳤다면 “한참 옛날의 ‘관료국가’로의 역코스를 (일본은)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즉 “요컨대 방대하고 괴기스런 기구를 온존하고, 정치가도 그리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 정치를 좌우하는 것이 관료족(官僚族)의 속셈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니 의지해야 할 정치가를 죽 훑어보면 이들 역시 관료출신자. 요시다 수상을 비롯하여 당3역은 히로카와[広川和禪]를 제외하면 마스다[増田甲子七] 간사장, 요시타케[吉武恵市] 정조회장과 오하시[大橋] 씨가 내무성, 이케다[池田勇人]·노다[野田]·하시모토[橋本] 씨가 대장성, 사토[佐藤栄作]·슈토[周東] 씨는 운수성과 농림성 출신 …… 과연 관(官)에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국격, 백년하청을 기다려야 하나……”³⁶

『요미우리』의 ‘역코스’는 재벌과 천황의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12월 1일자 제24회 기사는 ‘숨을 내쉬는 재벌’이라는 제하에 점령당국에서 해체, 분할하였던 미쓰이[三井]와 미쓰비시[三菱] 같은 재벌기업들이 다시금 합병과 매수 등을

35 『読売新聞』, 1951. 11. 24. 강조는 필자.

36 『読売新聞』, 1951. 11. 30. 강조는 필자.

통해 통합하고 있다면서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고,³⁷ 그 다음날의 시리즈 최종회는 “마지막으로 역코스의 최대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천황을 둘러싼 우선회(右旋回) 세상’이라면서 “애써 만들어진 ‘상징천황’을 또다시 ‘권력천황’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고 …… 국민실천요령에 관해서도 (왕실의 일원이) 아마노 문부대신을 만났던 것 같다”³⁸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1951년 말 일본의 ‘역코스’ 현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었다. 강화조약의 체결과 이에 대비한 정령자문위원회의 조직, 교육의 반동정책, 재벌의 재부상, 관료조직의 온존, 상징적 천황의 지위에 대한 반론 등등 보수화는 일시적으로 ‘전전으로의 복귀’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전전으로의 완전한 복귀와 반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복고반동으로 일원화하기 어려운 현상 즉 전후에 탄생한 보수적인 조직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선거운동의 발판이라는 등의 험구가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색채도 농후”하고 또 “무명전사의 야스쿠니신사를 먹잇감으로 하려는 정략”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주장한 ‘일본유족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IV. 보수인맥의 제도적 연원과 ‘리버럴’의 변형

1. 일본유족회

일본유족회의 전신(前身)은 ‘일본유족후생연맹’이었다. 일본유족후생연맹은 패전 직후 전몰자 유족의 곤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1947년 결성되었다. 『일본유족회십오년사(日本遺族会十五年史)』는 그 순수한 의도를 ‘전몰자유족의 궁상(窮狀)’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전

37 『読売新聞』, 1951. 12. 1.

38 『読売新聞』, 1951. 12. 2.

후 우리나라(일본)는 정치와 경제 모두 점령 관리 하에 놓였고, 그 독립성을 상실했다. 군사보호원은 1945년 12월 1일 폐지되었고, 관련 시설들은 후생성으로 이관되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시설이 되었다. 은사(恩賜)재단군인 보호회는 동포원호회가 되면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리하여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군인원호의 사업은 폐지되어 ‘전몰자유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³⁹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 단절에 더해 1945년 12월 15일 점령당국의 이른바 ‘신도지령(神道指令)’을 통해서 전몰 유족들은 ‘국가’와의 정신적 유대마저 끊기는 상황에 처했다. ‘신도지령’이란 “(1) 일본 정부, 도도부현청, 시정촌 또는 관공서의 관리들은 공적 자격으로 신도의 보증, 지원을 하는 것을 금한다. (2) 신도 및 신사에 대한 공적인 재원으로 하는 재정적 원조, 모든 공적 요구의 도입을 금한다. (3) 신도의 교의, 관례, 제식 등에서 군국주의적 내지 과격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여하한 선전 공포도 금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전몰자 유족의 정신적 지주”를 소멸케 하는 것이었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야스쿠니신사가 군국주의적 사상이나 과격한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의 온상이며, 그 근원이라는 생각을 널리 국민으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⁴⁰ 일반적인 전쟁 ‘피해자’로서의 일본인들을 점령당국이 ‘가해자’와 동일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몰유족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일본유족후생연맹’이라는 전국적 조직의 결성에 앞장선 것은 전전의 귀족원의원이었던 나가시마 긴조[長島銀藏], 전전의 해군 군인이자 당시의 야스쿠니신사 축탁(사무총장) 오타니 도노스케[大谷藤之助] 등이었는데, 나가시마는 1950년에 그리고 오타니는 1956년에 각각 참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로 진출하게 된다. 아무튼 이들에 의해 1947년 11월 17일 일본유족후생연맹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계 내의 연계

39 日本遺族会 編, 1962, 『日本遺族会十五年史』, 日本遺族会事務局, 12쪽.

40 日本遺族会 編, 1962, 위의 책, 13쪽.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중의원 ‘전사전재(戰死戰災)유가족의원연맹’이 1950년 3월에 탄생했다.

이렇게 참의원과 중의원에 원내 지원조직 혹은 지지세력을 구축한 전국적 조직 일본유족후생연맹은 첫 번째 ‘전국유족대표자대회’를 1951년 2월 23일 개최했다. 이 1951년이야말로 “미국의 대일정책 전환기며, 특히 대일강화조약의 체결이 촉진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유족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있던”⁴¹ 시기였고, 위 『요미우리』가 ‘선거의 발판’ 혹은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단체라며 ‘연맹’을 비판하던 때였다. 아무튼 1951년은 ‘연맹’에게도 적기였다. 같은 해 11월 22일 ‘제2회 전국전몰자유족대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 복귀하려고 하는 현재, 우선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 선언하고,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유족에 대한 보상은 생활보호법과 별개로 하여 입법할 것”⁴²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1952년 1월 16일 일본 정부는 유족의 처우로서 (전몰자의) 부모 일인당 5만 엔의 조위금, (전몰자의) 처에게는 매월 1,200엔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유족이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연맹’은 1952년 1월 20일 긴급대회 즉 ‘제3회 전국전몰자유족대회’를 개최했다.⁴³

이날의 제3회 ‘대회’는 같은 날짜 석간 『아시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이) 후생대신에게 달려들어 비통하게 울부짖는” 그런 처절한 대회였다. “이번 유족원호대책을 불만스럽게 생각한 일본유족후생연맹(회장 나가시마 긴조 참의원의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제3회 전국전몰자유족대회를 호세이[法政]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정부 측에서는 요시타케 후생대신, 기무라 인양원호청 장관, 각 정당대표들도 참석, 전국에서 모인 대표 약 800명이 ‘…… 800만 유족을 구하라’고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폐회 후 제1반 200명은 버스 5대에 분승,

41 日本遺族會 編, 1962, 위의 책, 13쪽.

42 日本遺族會 編, 1962, 위의 책, 45쪽.

43 日本遺族會 編, 1962, 위의 책, 46쪽.

식량과 모포를 지참하고 농성의 태세로 오이소[大磯]의 수상 사저로 향했다. 또 제2반 50명은 대장대신(大藏大臣), 제3반 50명은 관방장관에게 진정하기 위해 각각 출발했다.”⁴⁴ 엄동설한에 철야 농성하던 제1반 200명은 이튿날에 가서야 대표 10명을 선발, 수상 관저에서 요시다와 만나 진정(陳情)했지만, 요시다에게서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⁴⁵ 일본유족후생연맹은 1951년의 ‘역코스’ 분위기와 ‘연맹’ 지도부의 정계진출, 그리고 원내 협력조직의 결성 등에 힘입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했던 것이다.

‘연맹’은 1951년 말 ‘구(舊)군인회관[九段會館]’의 매입을 위해 재단법인의 자격이 필요하게 되자 12월과 이듬해 2월에 각각 이사회를 열어 ‘재단법인으로의 전환’과 ‘전국적인 기부금 모집’에 돌입했다. 여기에 가담한 것이 재계 인사들이었다. 쇼와[昭和]광업 사장 출신 하마다 마사시[浜田正], 히타치[日立]제작소 사장 구라타 지카라[倉田主税], 다이이치[第一]호텔 사장 쓰치야 게이조[土屋計左右], 전 난카이[南海]전철 사장 데라다 진키치[寺田甚吉] 등이 기부금 모집과 ‘일본유가족협회’의 조직에 협력했다. 그리고 이 ‘일본유가족협회’를 기반으로 전몰자 유가족이기도 한 전 게이오[慶應]대학 총장 고이즈미 신조[小泉信三], 전 도시바[東芝] 사장이자 1951년 당시 ‘정령자문위원회’ 위원인 이시자카 다이조, 전 다이이치[第一]은행 사장 아카시 테루오[明石照男], 정령자문위원회 위원 기무라 도쿠타로 등이 구 군인회관의 매입과 법인설립에 협력하여 법인설립을 추진했고,⁴⁶ 이들의 노력에 따라 1952년 12월 일본유족후생연맹을 흡수한 형태의 복지법인 ‘일본유족회’가 설립되었다.⁴⁷

경제적 처우 개선 그리고 정부의 적정 보상을 목적으로 탄생한 일본 유가족 모임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계에의 압력수단을 모색하면서 지도부의

44 『朝日新聞』, 1952. 1. 20(夕刊).

45 日本遺族会 編, 1962, 앞의 책, 46쪽.

46 日本遺族会 編, 1962, 위의 책, 61~62쪽.

47 『朝日新聞』, 1952. 10. 19.

정계 진출을 이룩하여 정치적 보수파와의 연대를 이루는 데 성공한 셈이었다. 그리고 조직의 확대 재편을 위해 재계 인사들과 ‘정령자문위원회’의 실력자들 그리고 고이즈미 신조와 같은 리버럴리스트에서 보수파로 탈바꿈한 인사들까지 포섭하면서 전후 가장 강력한 ‘보수적’ 이익단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2. ‘리버럴리스트’ 그룹과 아마노 데이유[天野貞祐]

1951년 12월의 『요미우리』가 ‘역코스’ 시리즈에서 언급한 ‘국민실천요령’의 아마노 데이유와 일본유족회 창설에 협력한 고이즈미 신조 같은 지식인들은 전전에는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전후에 이들은 통칭 ‘올드 리버럴리스트’로 불리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른바 ‘고코로[心] 그룹’의 멤버라는 점이었다. ‘고코로 그룹’이란 당시 일본 보수사상의 중핵을 형성하는 최고급 지식인 일군(一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전후인 1948년 7월에 잡지 『고코로[心]』가 창간될 당시의 동인들을 지칭한 것이었다.⁴⁸

1995년 『전후 일본의 사상(戰後日本の思想)』을 출간한 구노 오사무[久野収]·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후지타 쇼조[藤田省三] 등은 이마이 도시키[今井登志喜]·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다카하시 세이이치로[高橋誠一郎]·고이즈미 신조·아마노 데이유,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등 동 잡지의 창간동인 42인을 “일본의 보수주의를 사상적으로 대표하는 그룹”이라 평가하면서 ‘전후의 사상적 보수파’라고 명명했다.⁴⁹ 구노 오사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전에는 의식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아니었고, 올드 리버럴리스트라고 불렸기 때문에 스스로 리버럴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상적·

48 橋川文三, 1968, 앞의 책, 41쪽.

49 久野収·鶴見俊輔·藤田省三, 1995, 『戰後日本の思想』, 岩波書店, 100~101쪽.

정치적 기능의 면에서 보면 오히려 보수주의라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사상 내재적으로 보면 자신들이야말로 학문과 예술에서 제일급의 일을 했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둔감”했다. 특히 “문화의 면에서 내셔널 리더의 위치에서 …… 국민을 사상적·문화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 보수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상징”하고 그 “국가를 민족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생활 공동체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보수주의의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⁵⁰

점령통치 당시인 1949년 2월 수상 요시다 시게루는 제3차 내각을 구성하면서 내각 자문기관으로 ‘문교심의회’를 조직했는데, 문부대신 다카세 소타로[高瀬莊太郎]·전 문부대신 아베 요시시게·아마노 데이유·와쓰지 데쓰로·하세가와 요제칸[長谷川与是閑]·다카하시 세이이치로·스즈키 분시로[鈴木文四郎]·이타쿠라 다쿠조[板倉卓造]·바바 쓰네고[馬場恒吾]·고이즈미 신조·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나카야마 이치로[中山伊知郎] 등이 그 멤버였다.⁵¹ 12명의 심의회 위원 가운데 무려 5명(아베·아마노·와쓰지·다카하시·고이즈미)이 ‘고코로 그룹’ 멤버였다. 그리고 후생노동성 관변조직의 책임자였던 나카야마와 자유주의적 저널리스트인 이타쿠라는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1951년 요시다가 정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요시다의 당시 이 문교심의회에 국민도덕의 저하,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의 시정, 진보주의의 이름하에 일본의 전통이나 입장을 망각한 자들의 교정, 대학생 사회의 정치적 편향의 교정 등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50 구노 등은 “반동적 파시스트라면 국가를 민족정신-八紘一字-이라든가 신화적 사명을 지닌 민족정신의 顯在라고 생각”할 것이고, “자유주의자라면 국가를 국민 중심의 법적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과의 차이점(보수주의의 특징)을 위와 같이 요약했다. 久野収·鶴見俊輔·藤田省三, 1995, 위의 책, 101~105쪽.

51 吉田茂, 1957, 『回想十年』 第二卷, 新潮社, 106쪽.

생각하는 멤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심의회’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 방침을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지(보수주의)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지(자유주의)에 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답신 불가의 결정을 내렸다.⁵² 그럼에도 요시다는 문교심의회 위원 가운데 아마노 테이유를 1950년 5월 문부대신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교육정책을 관철하려 했다. 사실 아마노는 전전에는 자유주의자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에서의 ‘리버털’이었지, 위의 구노 등이 분석한 대로 민주주의의 시대 즉 자유주의가 일상화된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보수주의자’ 입에 틀림이 없었다.

“국가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존재며, 우리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 내가 말하는 것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국가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나에게 가할 힘을 가지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이라도 발할 힘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국가가 단순한 약속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개인이 각각 자주적으로 자기목적적인 존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실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존재라고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 개인만을 주장하는 일 없이, 개인은 국가를 구성하는 일원 그것도 자주적인 일원이라고 자각함으로써 비로소 국가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⁵³ 이것이 아마노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였다.

아마노는 문부대신에 임명된 후 수신교육의 부활, ‘국민실천요령’ 등의 제작 반포 등에 주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문부대신으로 재직하고 있던 1950년 5월부터 1952년 8월까지 문부성의 교육방침은 보수화의 길을 걸었다. 예를 들어 1951년 발표된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시안)』은 이전까지 사용해 오던 ‘일본의 중국 침략’이 ‘일본의 대륙진출’로 바뀌었고, 1951년 말

52 이웅현, 2016, 앞의 글, 105쪽.

53 天野貞裕, 1949, 『人間の哀しみ』, 弘文堂, 44쪽. 강조는 필자.

과 1952년에 걸쳐서 아마노의 문부성은 ‘표준교과서’라는 이름의 국정교과서 제작을 시도했다.⁵⁴ 물론 이러한 정책은 1951년 11월 16일 정령자문위원회가 보낸 「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한 답신」의 “여러 가지 특색을 지닌 교과서를 국가가 제작하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지만,⁵⁵ 교육내용을 ‘국가’가 좌우하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노의 기본 교육철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노의 구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령자문위원회의 전후 일본 교육구상과 ‘고코로 그룹’의 아마노의 교육철학이 접점을 찾은 것이었다. 아무튼 아마노의 구상은 여론의 반대에 밀려 좌절하고 말았다.

아마노의 보수적인 교육정책이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자 정령자문위원회는 “독립 일본에 어울리는 ‘교육의 자립’”을 위해 문부성에 중앙교육심의회를 둘 것을 제안했는데, 아마노는 1952년 4월 미일강화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연합군 점령 하 시행되었던 교육시책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생각을 밝혔고, 구체적인 것은 5월에 발족 예정인 중앙교육심의회와 의논하겠다고 발표했다. 문부대신의 공식적 자문기관으로서 중앙교육심의회가 실제로 설치된 것은 1952년 6월이었다. 아마노가 문부대신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8월이니까 이 중앙교육심의회는 사실상 아마노가 만들었던 것이다. 실제로 6월 발족 이전에 아마노는 중앙교육심의회 멤버 15명을 구성해놓았다. 1953년 1월 당시의 문부대신 오카노 기요히데[岡野清豪]의 제안으로 각의에서 결정된 15명은 아마노 데이유(전 문부대신)·이시카와 이치로[石川一郎, 쇼와전공(昭和電工)사장·경단련회장]·오바마 도시에(국가공안위원·일본경제신문사고문), 가메야마 나오토[亀山直人, 일본학술회회회장]·고이즈미 신조(전 게이오대학 총장)·고다마 구쥬[児玉九十, 明星학원이사장]·시마다 고이치[島田孝一, 와세다대학 총장]·나카이 고지[中井光次, 오사카 시장]·노구치 아키라[野口彰, 도쿄 아이고(愛宕)중학교장]·하라 야스사부로[原安三郎, 일본화약 사장]·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

54 이용현, 2016, 앞의 글, 111쪽.

55 『朝日新聞』, 1951, 11, 17.

대일본제당 사장·일본상공회의소 회장·마에다 다몬(일본육영회회장)·모로이 간이치[諸井貫一, 지치부(秩父)시멘트 사장]·야기사와 겐지[八木沢善次, 도쿄 교육위원]·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도쿄대학 총장] 등이었다.⁵⁶ 교육계인사가 6명, 재계인사가 4명, 관료 등 기타 5명으로 중앙'교육'심의회 치고는 눈에 띄게 재계인사가 많았다. 1953년 1월 8일자 『아사히신문』은 “재계인이 교육문제에 발언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항상 산업계의 입장만 생각하고 편의적인 인간교육론을 펴는 것은 의미가 없다”⁵⁷고 꼬집었다.

그러나 사실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재계 편중 인사뿐만이 아니었다. 아마노와 고이즈미는 ‘고코로 그룹’ 출신이었고, 오바마와 하라 그리고 마에다는 ‘정령자문위원회’ 위원이었다. 언론이 교육정책에 관한 재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정령자문위원회와 리버럴에서 보수주의로 전향한 세력이 전후 일본 교육체계를 구상하는 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V. 보수인맥의 사회경제적 연원과 ‘황국사관’의 변형

1. 닛케이렌[日経連]과 모로이 간이치[諸井貫一]

1953년 설치된 중앙교육심의회의 재계인물 가운데 일본의 교육문제와 현황에 관해서 공공연하게 재계의 의견을 발표했던 자는 지치부시멘트회사 사장 모로이 간이치였다. 교육학자 미야하라 세이이치(宮原誠一) 외 3인이 편찬한 『자료 일본현대교육사(資料日本現代教育史)』에 따르면, 전후 일찍부터 재계활동에 나서서 1946년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1947년 관동경영자협회 위원장, 1948년

56 이웅현, 2016, 앞의 글, 116쪽.

57 『朝日新聞』, 1952. 1. 8, ‘사설’.

닛케이렌(일본경영자단체연맹) 창설과 함께 그 대표상임이사에 취임한 지치부시멘트 사장 모로이는 1953년 발족한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으로서 교육정책 추진에 관해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재계 인사의 한 사람이었다.⁵⁸

미야하라가 인용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쓴 「교육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요망」이라는 논문은 “산업계로서는 닛케이렌이 1952년 10월에 직업 내지 산업교육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1) 실업고등학교의 충실, (2) 새로운 대학제도의 개선, 이 두 가지를 …… 1954년 12월에는 교육계의 일반정세가 우리나라 산업의 충실에 맞지 않는다는 면에서 (1) 대학의 법문학계 편중의 시정, (2) 대학의 전국적 획일성 배제, (3) 전문교육의 충실, (4) 중견 감독자 직업인의 양성, (5) 교육행정의 쇄신 강화, (6) 학력 편중의 폐풍 시정 등의 여섯 가지를 …… 각각 문교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이러한 요망은 중·고·대학 졸업자를 받아들이는 산업계의 입장에서 주로 직업(산업)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제도와 내용의 충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⁵⁹ 미야하라가 이러한 긴 인용문을 가지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1950년대 초반부터 ‘산업계(재계)’는 교육제도와 내용에 관해서 이상할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 당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요구의 실행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계의 요구는 전후 대학 내에서 학생운동과 좌파의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직업교육 내지 기술교육의 확충을 제안한 정령자문위원회의 교육정책노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⁶⁰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로이가 이끄는 닛케이렌은 1952년 7월 학생운동에 주목하면서 도쿄대학·히토쓰바시대학·와세다대학·게이오대학의 책임자들과 학생운동의 실태에 관해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협의하기도 했다. 동년 7월

58 宮原誠一·丸末政臣·伊ヶ崎暁生·藤岡貞彦, 1979, 『資料日本現代教育史 2』, 三省堂, 5쪽.

59 宮原誠一 他編, 1979, 위의 책, 5쪽.

60 宮原誠一 他編, 1979, 위의 책, 6쪽. 강조는 필자.

24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닛케이렌은 “학교 성적도 입사시험 성적도 우수하여 채용한, 장래 중견간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 자들이 어느새엔가 사내의 노동운동에 관여하고 마침내 과격분자가 되어 경영자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만든다. 대학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 자가 입사 1년 만에 조합을 장악, 하부의 결의가 이 신입사원의 조합위원장이 선동하는 순간 역전되곤 한다. 이 때문에 수억 엔의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며, ‘붉은 분자’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⁶¹

이와 같이 1952년에 이미 ‘붉은 학생은 사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닛케이렌의 보수주의적 내지 우파적 성격에 관해서 12월 5일자 『아사히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닛케이렌[日経連]과 게이단렌[経団連]은 자주 혼동된다. …… 자본가 단체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공통적이며 사무국이나 재계인이 모이는 곳도 일본공업구락부 내에 동거, 임원도 같은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일본경영자단체연합(닛케이렌)이라는 정식 명칭을 보면 분명하게 구별된다. …… 경제단체연합회의 ‘경’은 ‘경제’의 ‘경’이어서 여러 기업체의 모임으로서 취급하는 문제 역시 경제문제 전반이 대상임에 반해서, 일본경영자단체연합의 ‘경’은 ‘경영자’의 ‘경’이어서 경영자 단체로서 노동문제에만 전념하는 조직이다. 즉 게이단렌은 경제계가 당면하는 자금, 자재 또는 무역상의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경제정책에 관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개개의 기업 및 경제계 전체의 발전에 집중한다. …… 반면 닛케이렌에는 (게이단렌과 같은) 회장제가 없고 대표상임이사로서 모로이 간이치(지치부시멘트 사장)와 가토 마사토[加藤正人, 大和紡 사장] 두 사람이 있으며 …… 닛케이렌이 복수상임이사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공세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경영자 의식이라는 것이 그 존재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 만큼 …… 이

61 『朝日新聞』, 1952. 7. 24.

러한 의식이 강한 이른바 재계 우파의 활약 무대가 되고 있다.

경영자의 노동문제에 대한 사상통일과 단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번 전력산업과 탄광노조의 파업과 같은 대규모 쟁의에는 직접 경영자 측의 전술지도에 나서거나, 정보를 모아서 경영자에게 흘리는 등 실천면에서의 작업에 상당히 중점을 둔다는 점 역시 게이단렌과 다소 차이가 있다. …… 게이단렌의 발족은 1946년 8월, 닛케이렌의 결성은 1948년 4월로 모두 종전(패전) 후 탄생한 단체지만, 그 전신을 거슬러 살펴보면 게이단렌은 전전의 일본경제연맹회이고 닛케이렌은 전국산업단체연합회(전산련)의 후신 격이다. …… 대체로 같은 성격의 게이단렌과 닛케이렌이 합체하지 않는 것도 대처하기 어려운 노동문제에는 닛케이렌을 앞세워 노조 공세의 화살을 비껴가면 게이단렌 자체의 활동에 편리할 것이라는 保身術일지도 ……⁶²

요컨대 전후 일본 재계는 게이단렌이 자본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닛케이렌은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경제인 단체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닛케이렌은 게이단렌의 우파 전위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앙교육심의회에의 구성에 대해서 『아사히신문』이 우려했던 ‘재계인사 편중’ 그리고 “산업계의 입장만 생각하고 편의적인 인간교육론을 펴는 것”에만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모로이 그리고 닛케이렌은 좌파 학생의 채용거부를 통해서 그 노선을 선명히 했고, 그 선명한 보수노선의 소유자가 중앙교육심의회라는 문부대신의 공식적 자문기관의 재계 대표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교육심의회와 닛케이렌의 접점에 요시다의 정령자문위원회가 있었던 것이다.

62 『朝日新聞』, 1952, 12, 5.

2. 문부성 내 황국사관의 편린

1955년 일본은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로 소연했다. 2월의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교과서 국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3월 19일 출범한 제2차 하토야마[鳩山一郎] 내각은 교육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문부대신에 민주당 정무조사 회장이자 부총리급 인물인 마쓰무라 겐조[松村謙三]를 임명했다. 마쓰무라는 10월 3일 교과서제도의 전면적 개정의 의향을 표명하고, 이 문제를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했다. 자문에 대한 답신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11월 22일 제3차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했고, 새로운 내각의 문부대신으로 민주당 정조회장 기요세 이치로가 기용되었다. 기요세는 전전의 친군벌파로 전후에 공직 추방된 자였고,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도조 히데키[東条英機]의 주임변호인으로 활약했다.⁶³

11월 28일 앞서 마쓰무라가 자문한 중앙교육심의회에의 답신을 받은 것은 기요세였다. 중앙교육심의회에의 답신은 (국정교과서의 제작 대신) 교과서 검정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문부대신이 검정권을 행사하며,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상급 교과서 조사원 제도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다.⁶⁴ 중앙교육심의회에의 이러한 답신은 사실 ‘교과서 검정제도의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고, 이 답신이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기요세는 이듬해인 1956년 3월에 가서야 ‘교과서 법안 요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교과서의 검정 및 검정기준의 설정은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의 의견에 기초하여 문부대신이 행한다는 내용이었고, 중앙교육심의회에의 교과서 검정제 강화 의견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⁶⁵

기요세의 ‘교과서법안’은 5월에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6월 4일 참의원이 심의를 미루면서 ‘미완료’로 유산되었다. 그러나 문부대신 기요세는 이를 ‘행정조치’로 감행했고, 10월 8일 교과서조사관 제도를 신설했다. 그리고 10월 16일

63 이웅현, 2016, 앞의 글, 120·123쪽.

64 『朝日新聞』, 1955. 11. 28(夕刊).

65 宮原誠一 他編, 1979, 앞의 책, 346~348쪽.

15명의 교과서조사관을 임명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사회역사분야 특히 일본사를 담당하는 상근 조사관이었다. 10월 16일자 『요미우리신문』(석간)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사를 포함하는 사회과 담당 조사관 5명은 오타 가즈히코[大田和彦]·니이미 다다유키[新美忠行]·고토 도미오[後藤富男]·무라오 지로[村尾次郎]·나카다 야스나오[中田易直] 등이었다.⁶⁶ 이 가운데 전전에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한 무라오와 나카다, 그리고 니이미 3인은 ‘황국사관’의 소유자였다.⁶⁷ 황국사관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하세가와 료이치[長谷川亮一]의 『‘황국사관’이라는 문제(「皇国史観」という問題)』에 따르면 황국사관이란, “일본 역사를 천황의 통치의 과정으로 보는 천황중심주의적·일본 중심적(日本一國史的) 역사관”을 말한다. 때로는 이 용어가 15년 전쟁시기(1931~1945년의 전쟁) 일본 교육계의 역사관이라는 의미로 한정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전전에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 교수였던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와 그 제자들의 역사관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⁶⁸

히라이즈미는 제국대학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슈코카이[朱光会]’라는 우익단체를 이끌었는데, 이것이 천황중심주의를 신봉하는 제국대학 내의 최대 단체였다.⁶⁹ 히라이즈미는 1930년대 일본 역사학계의 아카데미즘 실증주의 역사학파의 ‘무기력’과 ‘무사상’에 대한 분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반감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우익적 사상을 과격하게 표현한 자였고, 슈코카이 이외에도 학외 조직으로서 세이세이주쿠[青々塾]를 열어 ‘동지’의 육성에도 힘을 쏟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슈코카이의 강령에는 “우리는 천황중심주의를

66 『読売新聞』, 1956. 10. 16.

67 이웅현, 2014,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조사관의 계보」, 『평화연구』 제22권 2호, 44쪽.

68 長谷川亮一, 2008, 『「皇国史観」という問題-十五年戦争期における文部省の修史事業と思想統制政策』, 白澤社, 16~17쪽.

69 公安調査庁, 1964, 『戦前における右翼団体の状況』(中巻), 公安調査庁, 271쪽.

신봉한다”, “우리는 건국 정신에 따라 일본의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대일본 정신을 세계에 선포하겠다고 맹세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었다.⁷⁰ 이와 같은 우익 학파가 존재하던 시절 대학을 다녔던 무라오와 나카다에게 ‘황국사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특히 무라오는 스스로 히라이즈미의 제자임을 밝혔고, 나카다 역시 전전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한 인물이었다. 니이미의 경우 후일 교과서조사관직을 떠나 진구고가쿠칸[神宮皇学館]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황국사관’의 소유자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956년에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 출신 도리스 미치야키(鳥巢通明)가 문부성 시학관(장학관)에, 그리고 이들과 동문인 야마구치 고스케(山口康助)가 문부성 교과조사관에 채용된 것을 보면,⁷¹ 1950년대 중반의 문부성에는 히라이즈미 학파의 후예들이 포진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슈코카이는 전후 점령군이 해산하였고, 히라이즈미는 전범으로 공직 추방되었지만,⁷² 그 인맥은 소멸되지 않고 일부는 문부성 관료들로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계기는 바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비롯한 ‘교과서법안’이었다. 그리고 의회 통과에 실패한 이 법안을 ‘행정조치’로 추진한 기요세가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셈이었다. 1950년대 전반기 문부성의 황국사관의 소유자들과 정령자문위원회·중앙교육심의회·일본유족회 그리고 닛케이렌의 연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히라이즈미의 제자들이 문부성에 침투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은 1951년부터 시작된 일본 보수 인맥의 태동과 분화 과정이 절정기에 이르는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즉 점령기의 각종 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하는 보수적인 흐름과 반동적인 정책들이 가시

70 永原慶二, 2003, 『20世紀日本の歴史学』, 吉川弘文館, 128~129쪽.

71 이웅현, 2014, 앞의 글, 51쪽.

72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히라이즈미는 패전 직후 연구실을 정리하고 스스로 사임하고는 도쿄대학을 떠났다. GHQ가 교육관계의 군국주의자·초국가주의자의 추방을 지령한 것은 그 후인 1945년 10월 30일의 일이었다.” 永原慶二, 2003, 앞의 책, 145쪽.

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VI. 맺음말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은 1951년 연합군의 점령이 종식되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의 체결이 가시화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전전의 보수 혹은 우익 세력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점령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각종 기관과 단체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정부기관이 형성되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보수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령자문위원회’는 전전의 체제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던 자들로 공직에서 추방되었던 자들로 주로 구성되었고, 요시다 수상은 이 사적 자문기구는 강화조약 후 일본의 각종 분야의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러나 이 멤버들이 전전의 우파 혹은 극렬 우익 내지 제국주의 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전과 전후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튼 1951년은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 반동화의 움직임이 보인 해였고, 이러한 경향은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었다. 강화와 독립이 가져온 해방감은 보수적인 세력이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후에 흔히 일본 정치의 상황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띤 것으로 간주되는 일본유족회의 경우도 ‘전몰자 유족’이라고 해서 전전의 군국주의 정부와 초국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정책에 동정적인 집단은 아니었다. 오히려 패전 후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러한 인식의 타개를 위해서 스스로 정계 진출을 시도하거나 의회 내의 연대세력을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같은 유족의 입장에 있는 재계와 온건 보수파(고코로 그룹) 인물들도 포섭했다. 야스쿠니신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재계와 학계 그리고 정계의 보수주의자들의 접점이 되었다.

일본유족회와 관련된 올드 리버럴리스트(전후 보수파)들 가운데 일부는 전후

일본 교육의 기본철학과 정책의 수립에 관여했다. 아마노를 비롯한 철학적 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중앙교육심의회라는 문부대신의 공적 자문기구에 가담한 정책적 보수파도 있었다. 이들은 정령자문위원회가 깔아놓은 레일 위해서 교육정책에 관한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재계의 인물들이 접하면서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교육정책에서 확보하려고 했다. 게이단렌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닛케이렌을 중심으로 뭉친 재계의 우파는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해서든 닛케이렌의 공식적 입장을 통해서든 일본의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와 같은 재계의 보수파 역시 전전과의 연결고리는 희미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답신에 기초하여 교육정책을 수립, 전개하는 문부성에는 1956년부터 ‘황국사관’의 소유자들이 교과서조사관 혹은 시학관 등의 자리를 차지하며 침투했다. 전후의 일본 보수세력 가운데 전전과의 이념적·사상적 연결고리가 가장 확실한 집단이 바로 이 황국사관 학파였다. 반면 이들과 여타 전후 보수세력과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고코로 그룹’이 배출한 보수세력과 일본유족회가 포섭한 보수세력, 그리고 정령자문위원회나 중앙교육심의회 등을 구성한 정계·학계·관계의 보수세력은 비교적 전전의 보수인맥과 단절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계·재계·학계의 보수세력에 관한 연구들은 역사적 연원, 계보, 이념적 특질, 정치성향에 관한 깊이 있는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대다수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일본의 전전(戰前) 심지어는 메이지유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천착을 시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전전과 전후가 사상적·이념적·정서적으로 분명한 경계선을 획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과 강요된 민주주의를 수용한 전후의 일본은 국가의 이념과 정서 그리고 정책에서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1951년 강화와 독립이라는 전환점을 경험하던 시기의 일본에는 혁명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 정계와 재계 그리고 학계의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적응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대의 변화라는 엄연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양희 외, 2007, 『일본 우익사상의 기저 연구』, 보고서.
- 김호섭 외, 2000, 『일본 우익 연구』, 도서출판 중심.
- 박훈 외, 2008,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 정재정, 1998, 『일본의 논리』, 현음사.
- 마쓰모토 겐이치 지음, 요시카와 나기 옮김, 2009, 『일본 우익사상의 기원과 종언』, 문학과지성사.
- 이용현, 2014,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조사관의 계보」, 『평화연구』, 제22권 2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이용현, 2016, 「1950년대 일본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 절반의 실패 또는 절반의 성공」, 『일본연구』 제25집,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警備実務研究会, 2001, 『右翼運動の思想と行動』, 立花書房.
- 公安調査庁, 1964, 『戦前における右翼団体の状況』(中巻), 公安調査庁.
- 橋川文三, 1968, 『保守の思想』, 戦後日本思想大系 7, 筑摩書房.
- 久野収・鶴見俊輔・藤田省三, 1995, 『戦後日本の思想』, 岩波書店.
- 宮原誠一・丸木政臣・伊ヶ崎暁生・藤岡貞彦, 1979, 『資料日本現代教育史 2』, 三省堂.
- 吉田茂, 1957, 『回想十年』 第二卷, 新潮社.
- 吉田裕 編, 2004, 『戦後改革と逆コース』, 日本の時代史 26, 吉川弘文館.
- 奈古浦太郎, 1960, 『日本の右翼』, 三一書房.
- 大嶽秀夫, 1994, 『戦後政治と政治学』, 東京大学出版会.
- 木下半治, 1977, 『日本右翼の研究』, 現代評論社.
- 松尾章一, 1977, 『日本のファシズム』, 法政大学出版局.
- 永原慶二, 2003, 『20世紀日本の歴史学』, 吉川弘文館.
- 栄沢幸二, 1981, 『日本のファシズム』, 教育社.
- 原田勝正・尾崎秀樹・松下圭一・三國一朗 編, 1989, 『昭和二万日の全記録 9 昭和

25年-27年 独立-冷戦の谷間で』, 講談社.
日本遺族会 編, 1962, 『日本遺族会十五年史』, 日本遺族会事務局.
長谷川亮一, 2008, 『「皇国史観」という問題-十五年戦争期における文部省の修史事業と思想統制政策』, 白澤社.
猪野健治, 2005, 『日本の右翼』, 筑摩書房.
天野貞裕, 1949, 『人間の哀しみ』, 弘文堂.

『読売新聞』, 1946. 1. 1~1960. 12. 31.

『朝日新聞』, 1946. 1. 1~1960. 12. 31.

<https://ja.wikipedia.org/wiki>

<http://www.yasukuni.or.jp/precincts/yasukunikou.html>

전후 일본 보수인맥의 태동 - ‘역코스’기를 중심으로

이용현

1950년대 초반 일본에는 온건 보수파와 보수적인 신세대 역사가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전전의 재계세력 즉 자본가들도 각종 위원회와 단체들을 통해서 다시 부상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전의 일본 독점자본세력이 1950년대 이른바 역코스의 시대에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의 형태를 바꾸어 부상하는 ‘준(準)파시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파시즘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1951년 신설된 ‘정령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일본 우익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일본유족회’에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띠고 등장하게 된다. 전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형태에 적응하면서 자본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전후 일본에서 좌우의 대립이 선포해진 시점을 이른바 ‘1955년 체제’의 형성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정·재계의 보수세력의 태동 그리고 황국사관 학파의 재기는 1951년 『요미우리신문』이 기획기사로 연재한 ‘역코스’의 연재와 시기를 같이한다. 일본 정계의 전후 보수세력, 미묘하게 변화된 재계의 자본가 그리고 역사학계의 신세대 황국사관 보유자들이 바로 이 1951년을 전후

로 한 시기에 부상함으로써, 21세기인 현재까지 연면히 내려오는 ‘일본 보수주의 주류의 원점’을 형성하고 있다.

요컨대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은 1951년 연합군의 점령이 종식되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의 체결이 가시화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단순히 전전의 보수 혹은 우익 세력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점령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각종 기관과 단체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정부기관이 형성되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보수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주제어: 전후 일본, 보수주의, 정령자문위원회, 역코스, 일본유족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황국사관

ABSTRACT

The Waking Phase of Conservative Connections in Postwar Japan

Lee Woonghyeon

In the first half of 1950s Japan there arose moderate conservatives and new generation historians together with the reappearance of pre-war forces of business and capitalists. In some respects, it can be said that semi-fascist forces wielding a new type of political power were resurrected during the reverse-course. These new conservative forces, however, would not be defined as “fascism.” These conservative groups of the new generation, through the newly established “Policy Advisory Committee” (Seirei shimon iinkai) of 1951, pulled the political strings, and as new rightists they materially and spiritually supported the Nippon Izokukai (Association of War Dead Soldiers and Bereaved Families of Japan).

The advent and development of conservatives in the political and business spheres in Japan begins at the same time as the Yomiuri Shimbun started its serial reports on the “Reverse Course” in late 1951.

Japan's political and post-war conservative forces, delicately altered capitalists in business, and a new generation of historians following the Kōkokushikan (View of History Centering on the Imperial Country) perspective emerged around 1951.

In sum, Japan's post-war conservatives had their earliest beginnings with the end of the GHQ's occup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Settlement and the United States-Japan Security Treaty. They were not replicas of the pre-war rightists. As a reaction to the occupation policy, various agencies and associations appeared in the early 1950s. These new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posts became occupied by the new conservative forces.

Keywords: Postwar Japan, Conservatism, Seirei shimon iinkai (政令諮問委員会, Policy Advisory Committee), Reverse Course (逆コース), Nippon Izokukai (日本遺族会, Japan War-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Nikkeiren (日本経営者団体連盟, Japan Federation of Employers Associations), Kōkokushikan (皇国史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화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신중화주의 질서의 세계화

김현주 |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

- I. 머리말
- II. 문화소프트파워로서의 중국 전통사상의 재조명
- III.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문화소프트파워의 결합
- IV.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문화소프트파워의 확대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은 지금 지역·정치·계층·종교를 초월한 ‘문화중국’의 형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몽’은 시진핑 정부의 집권 이념으로 2012년 11월 29일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그것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 즉 근대 이후 중국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핵심목표는 구체적으로 부강한 국가, 중화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중국은 문화소프트 파워를 내세워 대내적으로는 중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통일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전통사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그것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와의 상호보완성을 주장하면서 양자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그렇게 형성된 ‘중국적’ 질서를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련 국가들에게 중화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유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은유로서의 권력’인 문화소프트 파워를 통한 21세기 신중화질서¹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공자학원이나 미디어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소프트파

* 투고: 2017년 2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8월 10일, 게재 확정: 2017년 8월 11일

1 ‘중화질서’라는 개념은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 중국의 영향력에 있었던 중국의 주변국들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신(新)’이라는 말을 붙여 과거의 제국 중국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경계하여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이 ‘도광양회’를 주장할 때에는 이러한 경계심이 너무 지나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강해지고 있고, 중국 또한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² 그것과 전통사상 혹은 문화와의 연관성, 그리고 나아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소프트파워의 확대를 총체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 전통사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문화소프트파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대일로 정책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문화소프트파워로서의 중국 전통사상의 재조명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가 제기한 개념이다.³ 그에 따르면 세계정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질적인 권력-하드파워(hard power)-뿐만 아니라 문화·이념·외교 등 비(非)물질적인 권력-소프트파워(soft power)-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소프트파워는 한마디로 한 국가의 매력이며, 그 나라의 문화·가치·외교 등과 그것을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와 정책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소프트파워를 ‘연실력(軟實力)’이라고 부르며, 하드파워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의 소프트파워 또한 세계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소프트파워는 “이덕복인(以德服人)”,⁴ 즉 덕으로써 감화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전통문화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한

2 서창배 외 1명, 2014, 「중국의 문화산업화 정책과 소프트파워전략」, 한양대학교 평화연구, 『문화와 정치』; 김일수 외 1명, 2014,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이종철, 2011,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전략에 대한 일고찰: 원조외교와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학회, 『국제지역학논총』; 박광희, 2010,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대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 등.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문화소프트파워의 내용으로서 전통사상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는 않다.

3 Nye, 1991,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4 『孟子·公孫丑 上』에 나오는 구절이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마음은 복종

다.⁵ 이런 입장은 2007년 중국공산당 17대 보고에서 “중화문화의 국제영향력 강화”를 제기함으로써 정식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시진핑 집권기에도 전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문화소프트파워는 “두 개의 백년”이라는 중국공산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시된다. 즉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서다.

당대 중국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중화문화의 매력을 드높여 사회주의 문화강국의 건설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중국은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세계에 알리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적 발전모델, 특히 개혁개방의 성공을 내세우는 것이다.⁶ 그러나 이 양자는 서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문화’⁷를 내세우고 있다. 문화소프트파워로서의 전통문화의 의미는 크게 대내적 의미와 대외적 의미가 있다. 첫째, 대내적으로 그것은 향심력과 응집력의 원천⁸이다. 그것은 또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다; 덕으로 복종시키면, 마음으로 기뻐하며 따른다(以力服人者, 非心服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덕에 의한 통치(以德治國)는 장쩌민[江澤民] 주석 집권기부터 강조되었던 중공의 통치이념이기도 하다.

- 5 程杰晟, 2013(3), 『論華夏文化的內涵與傳承創新區建設的核心任務』, 黑河學刊.
- 6 陳玉剛, 2007(2), 「試論中國全球化背景下中國軟實力的構建」, 『國際觀察』, 40쪽.
- 7 중국이 내세우는 전통문화는 유가와 도가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묵가·법가·명가 등 선진시대의 제자백가의 사상은 물론이고 중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의 문화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그것은 사상뿐만 아니라 문자·언어·예술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전통문화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떤 문화와도 구별되는 중국 특유의 민족문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은 ‘다양성’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지만, ‘중화문화’라는 이름으로 ‘단일성’을 가진 문화로 새롭게 창조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 8 “(國家)文化軟實力主要是指一個國家或地區基於文化而具有的凝聚力、生命

애국주의의 핵심으로서 ‘대일통(大一統)’의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고, 중화민족의 향심력과 응집력,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유가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통문화가 한때는 사상을 속박하기도 하였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도록 해주고 나아가 중국의 기풍과 기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둘째, 대외적으로 외래문화와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진래(引進來, Bring In)’와 ‘주출거(走出去, Go Global)’ 정책⁹의 유기적 통일에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¹⁰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포용성은 시간과 공간,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나타난다. 이제 그것은 중국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문화에서의 ‘강내(強內)’와 ‘화외(化外)’¹¹라는 두 가지 측면이 중국 전통문화 중 문화소프트파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대내적으로는 민족의 응집력과 향심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친화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力, 創新力和傳播力, 以及由此而產生的感召力和影響力。”(中共中央宣傳部理論局, 2008, 『理論熱點面對面·2008』, 學習出版社·人民出版社, 146쪽)

9 두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물질 기초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진래’는 해외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책이며, ‘주출거’는 반대로 중국의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전자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낙후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후자를 통해 다국적 기업을 양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중국 상품의 해외수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병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0 齊靜, 2014, 「論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建設中傳統文化的不可忽視性」, 『華章』2014年 第25期.

11 ‘강내’는 대내적으로 응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화외’는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의미로 허홍빙[何洪兵]이 사용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何洪兵, 2013. 3, 「傳統文化中的國家文化軟實力資源」, 『上海行政學院學報』).

그러나 중국문화 소프트파워 건설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30년간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부패와 위조품 등의 문제가 속출하여 도덕적 해이가 사회화됨에 따라 중국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손상되고 있다. 둘째, 서구문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젊은이들의 수용 등으로 인해 중국의 문화자각과 문화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劉麗萍, 2010). 물론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에서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의 일부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중국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이 최근 세계에 자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려고 적극적 시도를 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초래한 위협감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지만,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 전략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기 때문에 역효과를 일으키는 등 그다지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다.¹² 물론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아프리카나 동남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성공적이라는 견해들이¹³ 있기는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문화 소프트파워의 3대 요소를 중국의 문화전통 정치체제, 가치관, 외교전통으로 정하고, ‘베이징 컨센서스’¹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12 B. Gill, Y. Huang, 2006, *Sources and Limit of Chinese “Soft Power”*, Taylor & Francis.

13 T. G. Lum, W. M. Morrison, & B. Vaugh, 2008, *China’s “Soft Power” in Southeast Asi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areed Zakaria, 2009, *The Post American Worl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 119; Trefor Moss, 4 June 2013, “Soft Power? China Has Plenty,” *The Diplomat*; R. E. Ellis, 2011, “Chinese Soft Power in Latin America: A Case Study,” DTIC Document.

14 ‘베이징 컨센서스’는 타임지의 편집자이며 골드만 삭스의 고문이었던 레이모(Joshua Cooper Ramo)가 미국식 경제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미국의 위상 저하로 개도국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에 대해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외교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타국과의 신뢰형성을 추구한다거나 지역과 세계적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예술·문학·윤리·철학·문화 등의 전통문화에 내재한 보편적 흡입력을 통해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Ⅲ.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문화소프트파워의 결합

후진타오 집권시기 중공은 당의 18대 보고에서 ‘사회주의 문화강국의 건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와 전통문화는 중국의 화해 사회 건설과 중국몽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문화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는 상호 보충적 관계가 되었다.

“당은 오직 공(公)을 수행하기 위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일해야 입당 또한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다”¹⁵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입당위공(立黨爲公)정신이 ‘천하위공(天下爲公)’사상의 심화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중국 전통가치관은 내재적으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에 대해 비판적이며 변증법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¹⁶ 주장한다. 이렇듯 전통 문화를 중시하게 된 것은 물론 문화소프트파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체현된 발전모델, 즉 사

15 “黨只有一心為公，只有全心全意為人民服務，立黨才能立得牢。”(顏廣明，2012，「中國特色社會主義公正理論的思想淵源－中國傳統的大同思想的揚棄」，《貴州社會主義學院學報》2012年 第4期)

16 王澤應，2015，「核心價值與民族魂魄－從中國傳統價值觀到中國特色社會主義核心價值觀」，《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2015年 第6期。

회 안정, 질서정연한 개혁과 발전을 통해 표현되고 있지만,¹⁷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정세 그리고 중국의 전통문화가 상호 결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기를, 중국은 “국가 문화소프트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중화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천여 년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서 중화민족은 방대하고 심오하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으므로, 중화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DNA와 당대 문화와 상호 조응시키기 위해, ……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대정신을 선양하여, 세계의 당대 중국문화의 창조적 성과를 본국에 기반을 두어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¹⁸ 그런데 이러한 세계 문화교류의 정신적 핵심은 핵심가치관의 전파이고, 중국이 말하는 핵심가치관이란 한 국가의 응집된 공통된 인식, 협력의 형성,¹⁹ “합법적으로 인정된” 중요 문화, 즉 국가 문화소프트파워의 가장 중요한 일환이다. 그리고 실제 세계문화 교류의 효능은 각 주체들의 경제적 하드파워와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협력을 통해 결정되는데, 각 파워들이 균형을 가질수록 적극적 효과를 결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대신 전통문화를 내세워 자국의 영향력을 키워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소극적 효과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⁰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공고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불리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개

17 張劍荊, 2004, 「“北京共識”與中國軟實力的提升」, 『當代世界與社會主義』 2004年 第5期.

18 習近平, 2014. 1. 1, “建設社會主義文化強國著力提高國家文化軟實力”, 『人民日報』.

19 협력이란 본래는 물리학 용어로, 동시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힘의 합을 의미한다. 중국은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일치단결한 힘을 가리키며, 그것을 통해 중국몽을 실현해야 한다고 선전한다.(中國共產黨網: <http://zgm.12371.cn/2013/11/11/ART11384153555746648.shtml>)

20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은 달갑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전통문화라는 두루뭉술한 개념으로 중국적 가치들을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혁개방 이후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삼개창도(三個倡導)’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사조로부터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더불어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적 사상으로 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삼개창도’는 첫째 부강·민주·문명·화해의 창도, 둘째 자유·평등·공정·법치의 창도, 셋째 애국·경업(敬業)·성신(誠信)·우선(友善)의 창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가치체계의 실천적 표현이다. 사회주의 가치체계란, 2006년 중공 16회 6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화해사회건설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의 기본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 사상, 중국특색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과 창신(創新)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 그리고 사회주의 영육관²¹이다. 이것을 체현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이미 “인재양성과 도덕교육을 근본으로 한다(有人爲本, 德育爲本)!”라는 교육이념을 통해 국민교육으로 실천되고 있다.²² 이것은 문화상품과 활동을

21 사회주의 영육관은 2006년 후진타오 전 주석이 제기한 것으로, 8개의 영광과 8개의 치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조국에 해가 되는 것은 치욕이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치욕이고, 과학을 숭상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무지하고 우둔한 것은 치욕이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안일하고 태만한 근무태도는 치욕이고, 단결하여 서로 돕는 것은 영광이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치욕이며,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영광이지만, 이익을 얻으려고 의를 저버리는 것은 치욕이고, 기율과 법을 지키는 것은 영광이지만, 기율과 법을 어기는 것은 치욕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사치하고 방탕한 것은 치욕이다(中國共產黨新聞網; <http://qzlx.people.com.cn/n/2013/0605/c364582-21742365.html>). 이것은 하나의 사회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가는 전체 사회성원의 도덕적 소양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즉 영광과 치욕,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는 개인의 가치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회의 올바른 도덕적 풍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중국적 사회주의에 적합한 국민양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22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12/23/c_118674689.htm,

매개로 하여 사회 주류의식으로 형성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계승 및 승화와 연관시킨다는 취지는 2014년 5월 4일 북경대학에서의 교수 및 학생 좌담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밝힌 바 있다.²³ 이에 따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문화의 요소와 결합하였다. 첫째, 국가적 측면에서 민본·천인합일·화이부동 등의 사상과 결합하였다. ‘삼개창도’ 중 첫 번째 창도인 부강과 민주는 중국 역사에서 줄곧 강조되어온 민본사상의 승화라고 주장된다. 민주와 화해는 천인합일과 화이부동 사상의 구현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결합이다. 『논어·위령공』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己所不欲, 勿施於人)”나 『맹자·등문공 상(上)』의 “드나들며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지키고 망을 보며 서로 돕는다(出入相友, 守望相助)” 그리고 『맹자·양혜왕 상』의 “우리 집 어르신처럼 남의 어르신을 대하고, 우리 집 아이처럼 남의 아이를 대하라(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등에 대해 그것이 화해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개인적 측면에서다. 『주역(周易)·건(乾)』의 “천행건, 군자이자강불식(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고염무의 『일지록(日知錄)』의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 『논어·이인(里仁)』의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논어·술어(述而)』의 “군자탄탕탕, 소인장척척(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 『맹자(孟子)·이루 하(離樓下)』의 “인자애인, 유례자경인(仁者愛人, 有禮者敬人)” 등은 모두 삼개창도 중 세 번째인 애국·경업·성신·우선의 덕목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연관시킨다.

이렇듯 중국은 대내적으로 인민들이 사회주의적 핵심가치관을 받아들일도록 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과 문화를 내세운 문화소프트파워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경제와 문화를 내세운 문화소프트파워의 확대로 나타난다.

23 http://epaper.gmw.cn/gmrb/html/2014-10/07/nw.D110000gmrb_20141007_3-06.htm.

IV.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문화소프트파워의 확대

2013년 9월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실�크로드 경제벨트(One Belt, 즉 一帶)’를 제기하고, 그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 지도자 비정식회의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One Road, 즉 一路)’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4년 10월에 중국은 인도·싱가포르 등 21개 국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서명함으로써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그를 본격화하였다.

유라시아 일대를 내륙으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육상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남아시아·인도양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이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라인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거대한 경제권의 건설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일대일로 지대의 건설을 통해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또한 미국 주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범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관계협정(TPP)이 중국이 처한 지역경제 블록의 도전에 대하여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을 견제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치적 고립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정치경제적 전략들은 중국에게 변방화될 우려를 주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주도권을 갖고 싶은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수지엔(蘇劍)은 일대일로는 중국 굴기의 중요한 일환이며, 세계정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형성하고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한다.²⁴ 그는 16세기의 포르투갈, 17세기 네덜란드,

24 蘇劍, 2016, 「從典型大國崛起過程中的海外戰略看“一帶一路”」, 『學海』 2016年第1期.

18·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첫째 중국 굴기의 장기성과 막중함을 충분히 인식해야 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2위에 이르렀지만 1인당 GDP·군사·과학·금융·외교·공업·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데는 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1980년대 미국의 ‘지도권주기론’(세계정치 장주기이론)에 따르면 세계정치에서 주도권을 계승하는 도전국은 모두 기존의 지도국가의 협력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평화로운 경쟁을 하거나 미국과 협력하는 길이 중국에게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굴기와 그리고 세계 지도국가가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해 경제적 세력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정치안보전략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일대일로를 ‘중국판 마셜계획’이라고 부른다. 마셜플랜은 미국을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거듭나도록 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는 처음으로 중국의 ‘신마셜플랜’을 제기한 사람이다.²⁵ 그는 2009년 중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중국이 전 지구적 범위의 기초설비 투자를 촉진하여 중국 경제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 결과에 대해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마셜플랜과 일대일로 정책을 직접 연관 짓지는 않았고,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판 마셜플랜’을 제기한 사람은 2009년 당시 정협위원이었던 쉬산다(許善達)였다. 그는 발전도상국가에 대한 중국의 해외원조계획을 제기하였다. 일대일로는 그 범위가 64개 국가, 44억 인구, 21만억 달러의 경제규모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신흥경제벨트다. 일대일로 국가들은 대부분 발전도상국으로 아직까지 산업구조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제조업의 경쟁력이 비교적 낮고, 무역품이 에너지나 1차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중국과의 투자협

25 金玲, 2015, 「“一帶一路”: 中國的馬歇爾計劃?」, 『國際問題研究』 2015年 第1期.

력에서 상호보충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쉬산다는 국제원조와 합작기금을 설립하여 정부의 명의로 해외차관을 실시하고, 대내적으로도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주출기’를 장려하고, 인민폐를 국제통화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해외투자를 통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고, 국내 생산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민폐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²⁶

그러나 진링[金玲]은 일대일로가 근본적으로 마셜플랜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전자가 개방성과 포용성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공동발전 전략이라는 점, 상호 내정불간섭에 기초한 평등과 호혜정책이라는 점,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원칙을 통한 협력기제를 통한 공동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그는 일대일로가 직면한 도전 또한 마셜플랜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첫째,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서구국가에 대한 원조였던 마셜플랜과 달리, 일대일로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다양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범위에서 마셜플랜이 협력영역이 상대적으로 단일했던 점과 달리, 일대일로는 종합적으로 무역·투자·금융·교통·인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셋째, 국제환경의 복잡성 정도에서, 냉전하에서 진행되었던 마셜플랜의 유럽 원조는 별다른 방해요인이 없었으나, 일대일로는 복잡한 국제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진링의 주장은 일대일로에 대해 갖고 있는 서구의 의구심에 대해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나아가 진링은 일대일로와 마셜플랜은 이성적·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선 경제적으로는 양자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양자 모두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중국과 동반자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지역적 단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셜플랜은 정치와 안보전략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서구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일대일로의 근본적 성격은 공동발전에 있지만, 물론 중국의 외

26 賴梓銘, 2014, 11, 7, “輿論熱炒‘新馬歇爾計劃’”, 『證券時報』.

교정책에서 평화유지라는 목표실현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까지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일대일로 정책을 순조롭게 실시하고자 하며, 굳이 서방국가의 경계심과 공포심을 자극하여 경제적 봉쇄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우선 일대일로를 통해 중화문화를 중심으로 정신적 유대를 형성하고, 세계 중화민족의 단결을 도모하여, 나아가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 수립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²⁷

육상 실크로드는 중·남·북 세 가지 노선이 있는데, 중선은 서안에서 출발하여 신장·중앙아시아·서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과 지중해에 이르고, 남선은 서안에서 출발하여 사천·운남을 거쳐 동남아·남아시아에 이른다. 그리고 북선은 서안에서 출발하여 서북쪽으로 중앙아시아·러시아를 거쳐 독일·북유럽에 이르는데, 이 지역은 모두 화교들이 널리 퍼져 있는 곳이기도 할 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기도 하다. 그들을 ‘과정(跨境)’민족²⁸이라고 하며, 이들은 일대일로의 주 타깃이다. 운남성의 발표에 따르면 16개 소수민족이 과정민족에 해당하고, 과정민족이 거주하는 국가는 중국과 경제문화에서 밀접한 교류가 있다. 해상 실크로드는 특히 화교·화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정체성이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들 지역들에서 우선은 경제교류를 심화하여 이들과의 이익공동체를 공고화한 다음 문화전파를 통해 공통된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진래(引進來)’와 ‘주출거(走出去)’에 문화라는 수식어를 붙여 문화교류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근국가들의 일체의 우수한 문화적 성과

27 崔海亮, 2016. 1, 「“一帶一路”背景下中國跨境民族的中華民族認同」, 『雲南民族大學學報』, 第33卷 第1期.

28 과정민족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는 민족, 전통문화를 통해 서로 민족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민족 등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를 받아들이고 참고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가치핵심과 융합하고, 세계를 향해·전인류를 향해·미래를 향해 당대의 중국 가치관을 배양하여, 특색이 분명하고 매력이 거대한 중국문화를 발전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편안히 하며,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견지하며, 인근 국가들과 공동으로 학술교류·문예공연 등 문화교류 활동을 공동개최하고, 본국과 구역 문화유산을 공동 보호하며, 각국의 공동으로 인식하는 문화 활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최대의 공통점을 찾고, 친·성·혜·용²⁹의 일대일로 가치관을 공동으로 기르고 전파한다”³⁰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였다.

시진핑은 ‘일대일로’는 “봉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포용적이다, 중국만의 독주가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합창이다”³¹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데올로기는 제쳐놓고 포용과 개방, 협력과 공영을 원칙으로 하여 제3세계를 향한 중국 시장의 충분한 개방으로 중국의 생산능력의 우위와 자금기술의 우위를 시장협력의 우위로 전환하고,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아시아 운명공동체를 형성하며, 중국을 세계적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한다. 제3세계 국가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동양이 서양의 불합리한 국제 경제정치질서를 개선하여 국제관계의 양성(良性)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방 자본주의국가들이 군사·경제 등의 수단을 통해 원료를 수탈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상품과 자본의 수출을 통해 낙후된 국가들의 시장을 점령하고 세계시장을 동질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즉 세계를 ‘중심-주변’의 구조로 전환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29 친(親)은 친근, 성(誠)은 성실, 혜(惠)는 호혜, 용(容)은 관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과 주변국의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국의 외교이념으로 2013년 10월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것이다.

30 崔海亮, 2016. 1, 앞의 글.

31 “在博鰲亞洲論壇2015年年會上的主旨演講”, 『人民日報』, 2015. 3. 29.

서방 선진국들은 그 정점에 위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 민족 간, 선진국과 발
 진도상국 간의 모순을 발생시켰지만,³² 일대일로는 그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평화외교이념의 충분한 구현으로 중국 전통문화
 의 ‘화이부동(和而不同)’, ‘화기생재(和氣生財)’, ‘화해공생(和諧共生)’의 가치이
 념을 계승하여 서양의 ‘문화충돌’, 대립적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서방의
 군사적 포위, 정치적 고립, 경제적 봉쇄를 타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듯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문화적 가치를 내세운 지역공동체를
 도모하는 동시에, 나아가 이들 주변지역에서의 서방 선진국들의 영향력을 배제
 함으로써 신국제경제정치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의 약탈적·침략적·패권적 문화 및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소프트파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그 사상적 기초는 중국 전통사
 상이다.

V. 맺음말

중국은 지금 “이화성천하(以化成天下)”, “이덕복인(以德服人)”을 꿈꾸고 있다.
 자오팅양(趙汀陽)의 ‘천하체계(天下體系)’설³³에 따르면 “오늘날 정치적 의미로
 제도가 있고 관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 ‘세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리 혹은 물리적 의미로의 세계는 누구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황무지
 가 되었으며, 멋대로 탈취하고 쟁탈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며, 정복할 수 있는 전
 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정치적 난제다. 총체적으로 무질서한 세계,
 정치가 부재한 세계는 오직 폭력이 주도하는 세계가 될 뿐이다.”³⁴ 이러한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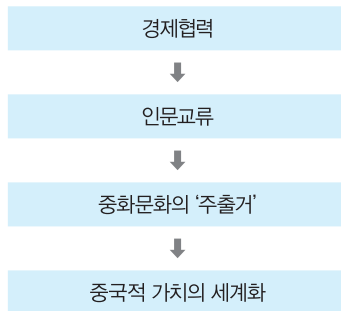
32 趙波·張春和, 2016. 1, 10, 「論“一帶一路”戰略的文化意蘊 - 基於世界文化交
 往思想的視角」, 『學術論壇』第300期.

33 趙汀陽, 2011, 『天下體系: 世界制度哲學導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에서 진정한 왕도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중국 자신이라는 자신감이 경제적 자신감 회복을 바탕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중국적 가치, 즉 덕(德)을 통한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천하’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지리·심리·사회제도가 합치한 세계, “제도가 있는 세계”는 인문과 물리적 함의를 모두 갖는 세계³⁵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구축된 세계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대일로 정책이다.

일대일로 정책은 문화소프트파워 전략과 결합하여 경제를 앞세워 중국 주변 국가들의 마음을 얻어내고자 하는 전략이다. 즉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인문교류를 조력자로 중화문화의 ‘주출거’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아래 표 참고). 이것은 경제나 정치, 군사와 같은 하드파워를 통한 거북한 방법 대신에 아무도 눈치 채지 않는 사이에 음악·드라마·영화·소설 등의 문화 콘텐츠 등을 포함하여 무형의 파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세계 강국을 넘어서 문화적인 면에서도 강국이 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제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교양을 내세우며 다가오는 중국의 웃는 얼굴[和氣]이 숨기고 있는 진정한 얼굴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34 趙汀陽, 2011, 위의 책, 12쪽.

35 趙汀陽, 2011, 위의 책, 27~29쪽.

참고문헌

- 國家文化部, 2014, 『2014文化发展統計分析報告』,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 張岱年·程宜山, 2006, 『中國文化論爭』,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齊靜, 2014, 「論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建設中傳統文化的不可忽視性」, 『華章』, 2014年 第25期.
- 趙汀陽, 2011, 『天下體系: 世界制度哲學導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中共中央宣傳部理論局, 2008, 『理論熱點面對面·2008』, 學習出版社·人民出版社.
- 周建新, 2008, 『和平跨居論－中國南方與大陸東南亞跨國民族“和平跨居”模式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 [唐]韓愈, 1986, 『韓昌黎文集』, 馬其昶校注·馬茂元整理, 上海古籍出版社.
- 金玲, 2015, 「“一帶一路”: 中國的馬歇爾計劃?」, 『國際問題研究』2015年 第1期.
- 蘇劍, 2016, 「從典型大國崛起過程中的海外戰略看“一帶一路”」, 『學海』2016年 第1期.
- 顏廣明, 2012, 「中國特色社會主義公正理論的思想淵源－中國傳統的大同思想的揚棄」, 『貴州社會主義學院學報』2012年 第4期.
- 王澤應, 2015, 「核心價值與民族魂魄－從中國傳統價值觀到中國特色社會主義核心價值觀」,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2015年 第6期.
- 劉麗萍, 2010, 「儒學倫理傳統與中國文化軟實力建設」, 『湖南大學學報』, 第24卷 第1期.
- 張劍荊, 2004, 「“北京共識”與中國軟實力的提升」, 『當代世界與社會主義』, 2014年 第5期.
- 蔣英洲·葉娟麗, 2009, 「國家軟實力研究述評」, 『武漢大學學報』.
- 趙波·張春和, 2016, 「論“一帶一路”戰略的文化意蘊－基於世界文化交往思想的視角」, 『學術論壇』第300期.
- 陳玉剛, 2007, 「試論中國全球化背景下中國軟實力的構建」, 『國際觀察』.
- 崔海亮, 2016. 1, 「“一帶一路”背景下中國跨境民族的中華民族認同」, 『雲南民族大學

學報』, 第33卷 第1期.

何平·夏茜, 2015, 「軟實力, 虛實力與中國的外交傳統」, 『歷史教學』2015年 第4期.

何洪兵, 2013. 3, 「傳統文化中的國家文化軟實力資源」, 『上海行政學院學報』.

賴梓銘, 2014. 11. 7, “輿論熱炒‘新馬歇爾計劃’”, 『證券時報』.

習近平, 2014. 1. 1, “建設社會主義文化強國著力提高國家文化軟實力”, 『人民日報』.

“在博鰲亞洲論壇2015年年會上的主旨演講”, 『人民日報』, 2015. 3. 29.

Gill, B., Huang, Y., 2006, *Sources and Limit of Chinese “Soft Power”*, Taylor & Francis.

Lum, T. G., Morrison, W. M. & B. Vaugh, 2008, *China’s “Soft Power” in Southeast Asi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Zakaria, Fareed, 2009, *The Post American Worl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Ellis, R. E., 2011, “Chinese Soft Power in Latin America: A Case Study”, DTIC Document.

Moss, Trefor, 4 June 2013, “Soft Power? China Has Plenty,” *The Diplomat*.

Nye, Joseph, 1991,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ye, Joseph, 2013, *What China and Russia Don’t Get about Soft Power in Foreign Policy*.

문화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신중화주의 질서의 세계화

김현주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문화중국’을 내세워 시진핑 집정이념인 ‘중국몽’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것은 문화소프트파워를 내세워 대내적으로는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적 질서’를 중심으로 한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은유로서의 권력’인 문화소프트파워를 통한 21세기 신중화 질서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 오고 있지만, 사상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전통사상 혹은 화하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하게 중국의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것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전통문화의 “화이부동(和而不同)”·“화기생재(和氣生財)”·“화해공생(和諧共生)”의 가치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덕복인(以德服人)”·“천하위공(天下爲公)” 등 중국적 가치의 세계화, 즉 “평

천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문화소프트파워, 일대일로 정책, 중국특색 사회주의, 화하문화, 평천하

ABSTRACT

Neo-Sinocentric Globalization through Cultural Soft Power

Kim Hyunju

Since Chinese economic reform and the opening up of the country, China has been pursuing the realization of the “China Dream” (中國夢), which is Xi Jinping’s integrative and transformative vision for China. Internally, it is to unite people in a nation and enhance national identity. Externally, it is to improve China’s image by informing the world of the excellence of Chinese culture and to form the New Chinese world order. This means a new 21st century sinocentric globalization by cultural soft power as “the power of metaphor.” This has been promoted as the foreign economic policy called “One belt, One road.” But, at the same time, this has been promoted under the culture-centered approach. This is not just to emphasize Chinese traditional thought and Chinese Hua-xia (華夏) culture. It is connected with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ich is to build a new world order with the Beijing Consensus. Formally, China uses “harmony

in diversity” (和而不同), “wealth with amiability” (和氣生財), and “harmonious coexistence” (和諧共生) as slogans, and these slogans also have ambitious policy targets for the globalization of Chinese values.

Keywords: Cultural soft power, One belt, One roa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ua-xia (華夏) culture, globalization of Chinese values (平天下)

윤유숙(2016), 『근세 조일(朝日) 관계와 울릉도』, 혜안

김경태 | 고려대학교 CORE사업단



동해의 외딴 섬인 독도. 한국인들 중에 독도에 직접 올라본 사람은 물론 멀리서나마 바라본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만,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울릉도에는 적지 않은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일본과 비교하자면 일반 시민의 관심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래의 연구 성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가 높은 관심도나 연구의 규모에 맞는 다양성과 엄밀성을 겸비하고 있는지 자문한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울릉도·독도 연구는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선시대사를 비롯한 한국사 전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문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사료는 물론 일본의 사료 및 연구경향을 섭렵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할 때, 2016년에 출간된 『근세 조일(朝日)관계와 울릉도』는 조선후기 조일(朝日)관계사와 일본 근세사의 전문가인 저자가 조선후기(근세)의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조일관계를 고찰하여, 보다 넓은 역사적 시야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연구서다.¹

울릉도는 조선 태종이 1403년 주민을 육지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이래, 1883년 조선 정부가 주민을 이주시킬 때까지 공식적으로 거주금지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저자의 지적과 같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고 상주하는 관리도 없던 이 섬은 역설적으로 몰래 도항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조

1 울릉도와 독도를 지칭하는 명칭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근세시기 일본에서는 대개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불렀다. 저서에서는 각 사료에 나오는 명칭을 가능한 한 살려두고 있으나, 본 서평에서는 편의상 현대 한국의 명칭인 울릉도와 독도를 사용하겠다.

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도항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울릉도에서는 17세기에 이르러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인이 조선인 안용복과 박어둔을 연행해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울릉도의 소속문제를 둘러싼 ‘울릉도쟁계’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울릉도·독도 연구는 대체로 이 시기와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울릉도 연구가 독도 영유권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기와 사건에 집중되다 보니 조선인과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접촉하게 된 과정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세 환동해권에서 조일교류라는 틀에서 울릉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입체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책은 6개의 장과 1개의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17세기 환동해권에서의 울릉도에서는 1693년 울릉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두 명의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일본으로 연행되는 사건이 1696년 일본이 돛토리 번(鳥取藩)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결정으로 일단락되기 전,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조선의 기본적인 정책은 울릉도의 거주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울릉도로 몰래 도항하여 영리를 취하는 조선인은 꾸준히 존재했다. 또한 거주금지 정책의 시행양상이 시대마다 달랐다는 점은 ‘조선은 공식적으로 이 섬을 버려둔 것 아닌가’라는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유념해야만 하는 부분일 것이다. 정책과 실상의 괴리라는 역사의 당연한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 장은 의미를 지닌다. 울릉도의 풍부한 산물은 일본인도 유인하고 있었다. 산인(山陰) 지방과 같은 동해에 면한 일본 지역 사람들은 정권이나 소속 번에서 울릉도 도항과 관련한 일종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움직이기도 했다.

제2장, 돛토리 번 조닌(町人)의 울릉도 도항은 바로 이 ‘권한’을 얻은 돛토리 번 요나고(米子)의 조닌 오야 씨(大谷氏)와 무라카와 씨(村川氏)에 대한 연구다. 두 가문은 1696년 막부가 돛토리 번 조닌에 대해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릴 때까지 70여 년간 교대로 울릉도에 도해하여 산물을 채취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들 가문의 내력과 울릉도로 도해하게 된 경위, 산물 활용실태, 도해금지 이후의 행보 등 사실관계의 기초적 부분을 설명하였다. 두 가문은 막부 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울릉도 도해권을 얻었고 전복과 바다사자, 목재 등을 막부와 요인에게 진상하면서 도해권 유지가 가능했다고 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는 단일 사건의 결과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1장에서 전사(前史)를 제시했듯이 2장에서는 도해권을 상실한 이후 두 가문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고 번에서는 다른 수입원을 허가해주는 과정, 이후로도 두 가문이 도해 재개 운동을 계속했다는 사실, 1724년에는 막부의 요구에 따라 울릉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1740년대 이후로는 도해를 포기하고 다른 영역으로 진출했다는 사실 등 이후의 역사도 빠짐없이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도해와 도해금지, 이후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사료들이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문에서 제시된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지도는 울릉도·독도 인식과 변화를 이미 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자료다.

제2장에 이은 보론, 울릉도도항금지령 이후 松嶋[독도] 도항 문제 재고(再考)는 1966년에 발간된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竹島の歴史地理學の研究』에서 제시된 세 가지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의 논리는 이미 후진 연구자들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 등으로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예는 울릉도·독도 문제 외에도 자주 목격되는 바이다. 역사학자의 길은 매우 길고 험하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명령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 저서에서 이 임무를 도외시하지 않고 반복하여 논점을 명확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가와카미의 주장은 A: 막부는 울릉도 도해면허 외에 독도 도해면허도 발급했다. B: 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발표했다,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C: 1696년 이후에도 일본은 독도를 오키[隱岐] 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A: 울릉도를 ‘배령(拜領)’했다는 문구가 기록된 사료는 가문의 문서로, 그 사료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양

가문이 교대로 도해한 것은 사실이나 ‘울릉도 도해면허’의 진본은 실전하지 않는다는 것, 더구나 ‘독도도해면허’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B: 독도를 일본 영토로 판단했기에 별도의 ‘독도도해금지령’이 없는 것이 아니며,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면 자연히 독도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 이는 두 가문의 고문서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것. 이후 독도에 도향한 기록은 없다는 것. C: 그러한 기록이 존재하나, 도향금지로부터 수십 년 ~ 백여 년이 지난 후, 전승과 체험담을 토대로 편찬된 책으로, 변이된 기억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점, 법령이 전국에 공포된 것이 아니므로 인지도의 편차는 존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외에 가와카미가 근거로 삼는 『竹嶋之書附』의 독도 언급도 원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기 소속임을 명시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밝혔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울릉도다. 섬이 많지 않은 동해에 외롭게 떠 있는 울릉도와 독도는 ‘운명공동체’와 같았다.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것이지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제3장. 1693년 돛토리 번 어민의 조선인 연행 사건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에게 안용복과 박어둔이 연행된 사건 이후 벌어진 ‘울릉도 쟁계’의 전말에 접근했다. 여기서는 특히 조일관계에서 장기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쓰시마가 취한 입장과 움직임에 주목했다. 쓰시마는 울릉도가 조선 통치지역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돛토리 번 선박이 모종의 권한을 가지고 조선의 섬인 울릉도에 왕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장을 조절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조일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쓰시마가 이 사건에서 어떤 입장을 표했으며 그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입장은 어떤 계기로 변화였는지 넓은 시공간에서 파악해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돛토리 번 어민이 조선인 2명을 연행한 이유는 막부에 조선인 도해 사실을 알려 조선인의 도해금지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막부와 조선 정부 간의 교섭까지 바랐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번과 막부, 쓰시마 사이의 논의에서 쓰시마가 다양한 조사를 하여 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쓰시마의 전례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신중한 자세는 메이지유

신기까지 조선과의 교섭을 담당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교섭 자세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분석이 가해졌다. 조선은 울릉도를 무인도화하기는 했으나 조선의 영역이며 일본인을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과의 우호를 상실하는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교섭에 임했다. 조선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울릉도와 죽도가 다른 섬인 것처럼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두 섬이 같은 섬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쓰시마는 난감했고 조선에 수정요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조선도 만만하게 대응하지는 않았다. 조선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저자는 이를 강경책으로의 전환으로 파악했다. 막부는 돗토리 번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회답을 받았고 1696년 ‘도해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서는 조선과 막부, 그 사이의 쓰시마가 가능하면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각 국과 각 세력의 교섭 특성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논의는 치열하였으나 조선과 일본, 쓰시마의 교섭은 상대에 대한 예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된 사료는 쓰시마의 종가문서(宗家文書) 외에도 일본 사료와 조선 사료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하고 입체적인 사료 이용, 교섭 과정의 단계별 분석은 익히 알려진 결론(도해금지명령)을 재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는 관계사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도 사건관련 문건과 기록에 나타난 문구를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연구자에게 사료비판은 기본적 소양이다. 그러나 특정 주제에서만 이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서 사료 비판에 대한 지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도 엄밀한 잣대가 필요할 것이다.

제4장. 1699년 조선인들의 오키[隱岐] 도항과 그들의 송환과정에서는 막부의 도해금지명령이 조선에 전해지기 전인 1696년 5월에 탄원을 목적으로 울릉도에서 오키로 건너갔던 안용복 등 조선인과 그들의 송환과정을 엄밀한 사료 검

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오키에서 안용복 등을 취조한 후 작성한 문서 등의 중요자료의 전문을 그대로 혹은 발췌 제시하여 사건의 전말에 가리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안용복 등은 호키[伯耆] 태수를 만나 탄원할 것이 있다고 하였다. 아쉽게도 그들이 탄원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지참한 문서와 지도 등을 통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리고 자신들의 어업권을 보장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사건의 처리에는 쓰시마도 개입해야만 했다. 쓰시마 역시 조선인들의 의도를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부의 결정이 조선에 전해지기도 전에 사적으로 건너온 조선인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형식을 취하게 될까 우려했다. 또 조선인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섭 창구인 쓰시마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지역으로 가는 사태를 쓰시마의 역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막부는 쓰시마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선인을 돛토리 번 현지에서 조선으로 보내고 어떤 사안이건 쓰시마를 통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막부의 도해금지명령과 조선인 도해 및 송환 건은 쓰시마에 온 조선의 문위행에 전달했다. 이 과정 역시 단순히 조치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문위행에게 구두 전달한 내용을 다시 문서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조선이 막부의 조치에 대한 사의(謝意)를 표하는 서계를 쓰시마에 보내고 쓰시마가 이를 막부에 제출하는 과정, 서계 수령 사실을 전하는 과정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당시 ‘외교교섭’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일단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제5장. 18세기 이후의 울릉도에서는 조선의 울릉도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수토정책과 함께 살폈다.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었으나 수토정책은 그것이 폐지되는 1894년까지 존속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수토제 강화 후에도 조선인의 울릉도 도항 사례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특산물로서 인삼이 주목받아 국가적으로 채삼군을 동원하려는 계획도 있었음을 밝혔다.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채삼의 목적 중 하나가 일본에 주는 예단삼 준비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일본 역시 도해금지 이후에도 도해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하마다 번[浜田藩]의 번주이자 막부의 로주[老中]였던 마쓰다이라 야스토가 연루되었던 울릉도 밀무역 사건인 하치에몬[八右衛門] 사건을

중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이루어진 조선과 일본 양국인의 밀무역은 이전의 사례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사건이었다. 이마즈야 하치에몬 등 하마다 번의 상인들은 울릉도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울릉도의 물산에 관심을 가지다가 울릉도를 둘러싼 논쟁의 내력을 알게 되었고, 번의 목인 하에 울릉도에 도해하여 조선인을 만나 교역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련한 사료는 6장에서 원문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추후 조선의 무역사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696년의 도해금지령은 돛토리 번주 이케다 씨 앞으로 내려진 것이었다. 하치에몬 사건 후 막부는 쓰시마에 다시 정보를 문의했고, 쓰시마는 일본에서 죽도라고 부르는 섬은 조선 강원도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막부는 1837년 ‘죽도도해금지어촉(竹島渡海禁止御觸)’이라는 법령을 내렸고 저자는 이를 전국법령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제6장은 하치에몬 사건을 기록한 일본 사료 『천보잡기(天保雜記)』에 대한 소개와 하치에몬의 공술 조서 초록인 「죽도도해일건기 전(竹島渡海一件記 全)」의 전문 번역을 원본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였다. 이 중에서 “1696년 울릉도 도해금지령은 울릉도 도해만을 금지한 것이고,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도는 1696년 이후에도 일본령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문구에 대해 하치에몬 사건 당시 하마다 번의 독도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주는 구절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독도=도항해도 되는 섬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 해당 문구를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진술의 맥락상 암초에 가까운 작은 섬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독도가 울릉도 근처에 있으나 울릉도와 달리 도해하지 말라는 명령은 없으니 울릉도에 가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사료 마지막의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과 같은 색깔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본 저서는 조선후기 조일관계와 일본 근세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관계의 역사적 성격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에 난해한 사료와 논쟁점을 수월하게 다루고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 저서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사료에 대한 폭넓고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각주와 6장의 사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원본에 가까운 인용과 꼼꼼한 번역은 한국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이면서도 친절한 작업은 양국의 학계가 같은 자리에서 건강한 논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연구자들 역시 한국사의 사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소개하는 작업도 관계사 연구자의 의무일 것이다.

지도와 같은 화상 자료도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문자 정보만으로는 공간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연구자가 직접 ‘수고’를 해줄 수록 엄밀한 화상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계 및 일반시민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종의 서비스로서 그리고 사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소장처와 사료의 원본·사본 여부가 모든 화상 및 사료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울릉도·독도 연구를 위한 사료는 종합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서의 업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사료에 대한 수집, 번역 및 해제, 원문 제공 작업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정치와 역사는 다른 트랙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역사연구자는 바깥에서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항상 자신의 연구에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 제기되는 압력이 학문적 양심을 흔들고자 할 때는 이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판적으로 해소된 논리가 재생되지 않도록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연구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일본 학계의 현재 연구경향과 한국의 새로운 연구가 어떤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국의 독도영유권에서 사용되는 사료나 논리 중에서 오용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분석도 필

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장된 형태의 관심도 긍정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울릉도·독도 연구 및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그와 같은 중요한 임무의 한 부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애써 쌓아놓은 연구가 도외시되고 이미 비판적으로 해소한 문제점을 다시 거론하는 사태는 연구자로서 가장 접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연구자들은 새로운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딛고 선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주어야 할 것이다.

외교사적 분석과 재구성을 통해 본 개화당의 당대적 의미

– 김종학(2017),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소진형 | 서울대학교 강사



이 책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1879~1884』를 바탕으로 올해 출간된 저작이다. ‘개화당’과 ‘비밀외교’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저자는 개화파를 사상사가 아닌 외교사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발생경위를 개화당의 정치적 목적과 외국과의 비밀교섭 등의 관점에서 밝혀낸다. 저자에 따르면 갑신당의 목적은 근대정치체제의 구현이 아니라 신분제 개혁과 같은 조선 사회의 구조적 혁신이었고,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리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화당의 ‘기원’은 몇백 년에 걸쳐 이어져온 신분차별과 불공정한 조선의 사회구조에 대한 기술직 중인들의 불만이 된다.

이 책의 주장은 “개화당은 처음부터 외세를 끌어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고 한 역모집단 또는 혁명비밀결사였다”는 것이다. 이 비밀결사는 기술직 중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들의 정치지향에 동조하는 북촌 양반들이 이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서양의 근대와 조우해 근대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화당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신분제와 같은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정부와 교섭하는 ‘비밀외교’를 지향한다.

저자에 따르면 개화당은 기술직 중인들이 초기 비밀결사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그 기원은 박규수-박지원으로 연결되는 소위 실학파보다는 차라리 박제가와 같은 중인계열의 조선의 사회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계층들과 연관된다. 이들을 친일파로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 이들의 관심은 외세의 충격에 의한 조선 사회의 변화에 있었던 것이지 그 외세가 반드시 일본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영국을 끌어들이 조선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오경석의 시도, 일본을 통해 개혁을 단행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김홍집·영국과 비밀리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동인의

비밀외교, 상황에 따라 일본·고종·흥선대원군 모두에게서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개화당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가 1870년대부터 갑신정변까지 개화당의 복잡한 행보를 추적하는 것은 개화당의 목적이 그 시기 동안 일관되게 관철된 것이 아니며 여러 상황과 요인들로 인해 변경되는 한편 단기적인 목적이나 전략이 수정되고 재탐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개화당이 일관되게 외세를 끌어들이며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1882년 김옥균과 박영효가 일본을 방문한 뒤 개화당은 일본이나 영국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따라서 외부의 충격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군대를 양성해서 친위쿠데타를 도모하기로 하고, 차관도입을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이러한 개화당의 행보는 그들이 외세를 통한 조선의 개혁이라는 일관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 목적이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추구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당시 국가의 독립과 사회구조 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본 개화당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부정확한 것이 많았으며, 독립과 사회개혁 역시 근대적 관점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도 저자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청이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개화당의 착각이었으며, 독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어 조선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외국들과 조약을 체결한 것이나 국내 경제를 발전시킬 방법보다는 차관을 들여오려고 했던 것, 일본이나 영국·프랑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들은 개화당이 국제정세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그들이 조선의 개혁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한편 저자는 고종·뮐렌도르프·후쿠자와 유키치 등과 개화당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이 책에서 고종은 개화당을 견제하면서도 왕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존재로 등장한다. 청을 배후에 둔 이홍장의 꼭두각시라고

인식되었던 뮐렌도르프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는 김옥균이 성공하지 못한 차관도입에 성공했고, 차관을 항구·세관에 사용한 뒤 이를 담보로 또 다른 차관을 들여온다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김옥균과 달리 조선의 잠업 진흥, 어장 개선, 산림 조성 및 보존사업에 사용하려고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갑신정변에 깊숙이 개입한 배후였으나, 김옥균이나 이노우에 가쿠고로 등의 기록에서 개입의 흔적이 사라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욕망 등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인물들에 대한 이와 같은 서술은 갑신정변이 이념이나 사상 혹은 단순한 내러티브로 환원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적 과정과 우연성을 통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흔히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서술할 때 관성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본성이나 성격, 정치적 성향으로 설명하기 쉽다. 저자가 개인들의 욕망이나 특성들을 분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요소들을 구조적 변화의 요인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개화당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개화당의 행위를 독립과 근대문물의 수입, 즉 근대화라는 ‘가치’나 실학과의 연관성에서 분리해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비밀결사조직으로서 개화당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조선·중국·일본·영국·미국·프랑스의 외교문서와 민간 문서뿐만 아니라 개인문집·기록·회고록·전기 등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한다.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先報理事日誌拔萃應接書內話書取』, 노무라 야스시[野村靖]의 『渡韓日記』·『機務處節目』,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의 『井上角五郎自己年譜』 등은 이 책에서 처음 소개된 문헌들이다. 또한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김옥균의 『갑신일록(甲申日錄)』, 박제경의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 ‘일사래위(日使來衛)’ 등의 사료들을 연관된 다른 텍스트들과 대조하고 그 텍스트들이 만들어진 맥락을 추적하면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밝혀낸다.

새로운 사료들을 발굴하고 분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해야 할 이 책

의 학문적 기여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텍스트들은 텍스트의 저자라는 필터를 통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회고록 같은 경우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저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정당화 과정 속에서 사건의 인과관계가 사후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기 위한 전제는 텍스트의 내용을 의심하는 것이다. 오경석·이동인·김옥균의 글들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식되었던 모든 텍스트들은 이 책에서 비판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 장에서 분석하는 『갑신일록』이다. 저자는 아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가 제기한 『갑신일록』의 위작설을 검토하기 위해 『갑신일록』과 『가쿠고로 연보』, 후쿠자와 유키치의 『시말』, 『비서유찬(秘書類纂)』 등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 텍스트들에서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들의 유사성, 『갑신일록』에 남아 있는 이노우에 가쿠고로의 흔적들을 섬세하게 찾아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는 『갑신일록』이 김옥균의 저작이지만, 김옥균과 이노우에 가쿠고로 사이의 서술방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독저작이거나 자발적인 저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옥균의 자발적 저술이 아니라고 할 때 『갑신일록』의 목적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갑신정변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책임을 일본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저자는 사상사, 그리고 근대성의 관점을 탈피해 개화당을 조망함으로써 ‘내재적 근대화’라는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개화당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1882년부터 188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정치 구도 속에서 개화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 전략을 수정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저자의 서술은 사건을 쉬운 인과관계나 몇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는 외교사의 미덕을 보여준다. 또한 사상사나 근대성의 관점으로 개화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인식을 끌고 온 사료들의 내용을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다른 외교문서들을 일일이 대조해 가며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저자의 방법론은 과거의 텍스트를 독해하는 방식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개화당의 행적을 목적과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서술한 저자의 방식은 지나치게 합리적으로 개화당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외교사의 관점에서 개화당을 조망했기 때문에 국내정치의 권력구조나 이들이 동원할 수 있었던 정치적 리소스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가 이 책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개화당이 외세에 의존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전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이 책에서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사료를 다른 사료들과 대조하며 진위를 파악하는 방법론은 저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기존의 프레임—즉 개화당을 근대성과 독립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과 개화당들의 레토릭을 일종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비판적으로 재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몇 가지 의문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화당의 ‘기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개화당을 1870년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비밀결사였다고 주장하고, 개화라는 말은 사후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며 당시에 개화당이라는 명칭은 비밀결사를 명명하는 다양한 호칭 중 하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원이라는 말에서 독자들은 개화당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시작했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저자가 기원을 말할 때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기존의 개화당의 기원론, 즉 박지원-박규수-개화당으로 이어지는 실학-개화당이라는 도식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저자가 말하는 ‘기원’은 박지원 같은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중인들의 불만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원론이 갖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인들의 분노와 불만만으로는 개화당이라는 중인과 양반들의 비밀결사의 기원이나 이들이 지향한 평등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화당·독립당·개진당 등 이들이 규정되는 방식이나 비밀결사라는 조직의 속성을 볼 때 개화당은 뚜렷하게 특정한 국가와 사회형태, 그리고 구성원들의 조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정을 공유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양반들

이 중인들의 불만에 동조했다면 감정보다는 그 감정이 토대를 두고 있는 공정성의 토대에 동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화당이 특별히 서양의 근대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신념은 전근대 사상에서 기원한 것이 된다.

‘기원’이라는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중인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구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만든 공정성과 정치적 신념에 대한 감각의 ‘기원’을 알고 싶게 만든다. 그러나 저자는 불평등에 대한 감정을 보편적인 정서로 설정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데, 그럴 경우 개화당이 ‘기묘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의 독특성이나 신념을 관찰시키기 위해 이들이 보여준 복잡한 행동과 판단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 책은 외교사적으로 개화당에 접근함으로써 이들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었지만, 다른 한편 국내정치의 권력구조나 이들과 대비되는 다른 당들과의 비교 없이 서술되었기 때문에 개화당의 행위가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면이 있다. 국내정치나 다른 정치세력은 이 책의 분석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고종과 흥선대원군같이 중요한 정치행위자의 위상과 개화당의 관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갑신정변의 실패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든다.

또, 텍스트의 분석방법에 대한 작은 의문이 있다. 저자가 가능한 한 사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교차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분명 사료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탁월성을 갖는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텍스트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맥락들을 복원해서 분석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들을 통해 텍스트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로 기준은 개화당의 텍스트가 아닌 다른 텍스트들에서 온다. 그 이유는 개화당의 텍스트들이 분석 대상이기 때문이었지만, 텍스트 분석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도 언급했지만 사실이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개화당의 왜곡된 기억들이 담겨 있는 사료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문제 역시 남는다. 예를 들어 개화당의 모든 행위는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데, 왜 이들이 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조선의 독립적 지위를 지향했는지

를 이 책을 통해서 알기 어렵다. 만약 저자가 개화당의 외교적 과정과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개화당의 의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기 때문에 개화당의 진실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개화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적들을 ‘사대당’이라고 명명하는데, 당대인들이 독립당과 사대당이라는 구분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이해할 때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의문들은 사실 저자가 이 책에서 보여준 역량과 노력에 비하면 사소한 것들이며, 한계라기보다는 이 연구가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저자의 자료에 대한 천착과 지적 수고는 책을 읽는 내내 독자를 감탄하게 만든다. 또한 사료들의 진위를 추적하는 과정이 치밀하게 구성되고 계산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흡사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긴장감과 즐거움을 준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사료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념이나 통념, 혹은 특정한 텍스트에 근거한 역사이해와 실제 역사적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내러티브 중심의 역사서술이 갖는 한계를 비판하였다는 것도 뜻 깊다. 저자의 후속작업을 기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의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 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

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노기식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장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종수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운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편집간사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7호(2017. 9)

초판 1쇄 인쇄 2017년 9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7년 9월 30일

펴낸이 김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